

京畿鄉土史學

○
2021年

第26輯

⊗ 京畿道文化院聯合會

京畿鄉土史學

第26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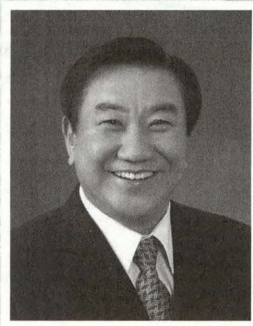
 京畿道文化院聯合會

발간사

경기향토사학26집을 발간하며

지역을 ‘발견’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26집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이준용 소장님을 비롯,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각 지역 향토사학자에 의해 연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모여 경기도 정체성의 근간이 될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된 것이 <경기향토사학>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영입되고, 주변국들의 문화가 유입되는 창구의 역할도 해 왔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역사의 다양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향토사학>은 연구위원들이 쓴 각 논문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역사뿐만 아니라 인물, 신앙, 생활사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각 논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하나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향토사학>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 발굴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느껴지는 논문집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열정과 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26집>이 발간되기 까지 열정적으로 조사, 발굴해주신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 읽고 지역을 ‘발견’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21.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김 대 진

‘경기향토사학26집 발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경기도 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기향토 문화연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경기향토사학 제26집을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참여 속에 무사히 발간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창궐 속에 경기향토사연구위원에서도 여러 행사가 취소하거나 비대면 등으로 축소되는 등 아직도 그 여파로 인한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잦아들기를 염원하며 우리 경기도문화가족과 향토사 가족분들께서도 부디 이 위기를 잘 넘기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도 제25집 연구주제는 자유 주제로서 각기 지역의 역사에 관해 기술해 주셨으며 올해에도 역시 자유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9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여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연구, 발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정부의 최영희 부소장님께서 “태조 이성계와 이에 따른 의정부 지명”에 관하여 설화 등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고, 양주의 정청래 위원님께서 “내시제 폐지 이후 내시의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소고”와 “송은 이병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초. 중등학교 설립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 교

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선생의 업적과 재인식에 대해 작성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내시의 생활상과 이에 관한 내용은 본인도 상당히 관심이 있던 중이었는데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의 민향숙, 박희은 님의 “안양 향토문화 유산의 발굴 및 계승 방안 연구”에서는 안양의 무형문화재가 단 1건으로 상당히 빈약하였으나 안양만안 답교놀이와 수리산 산신제, 안양검무 등을 연구하여 안양 향토문화유산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기술해 주셨고, 동두천의 이명수 위원님께서서는 “동두천 오일장 3.1운동과 미군 골프장”에 대한 연구로 한때 큰 장터로 불렸던 우(牛)시장과 곡물 시장 동두천 오일장에서 3.1운동을 했던 장터인 미군 골프장에 동두천시 3.1운동 기념비(記念碑)를 세워야 한다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천의 양경직 위원님께서서는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학원”에서 1950년 당시 울면고등공민학교 설립당시에 이바지했던 인물과 사립배영학원에 이바지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재조명하여 공덕비라도 세워지기를 바란다. 고 논문을 주셨으며, 시흥의 팽재연 위원님께서서는 “시흥 불상에 대한 고찰”에서 시흥 내 대부분의 유물, 유적이 소외당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 자체가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고 이 논문이 시초가 되어 점진적인 향토사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는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양평의 이윤재 위원님께서서는 “양평초 설립 연혁을 통해 본 구한말과 일제 초기 학제 변천 연구”에서 양평초등학교의 설립과 변천 과정, 일제에 의해 재개교된 학교 실태 등에 대해 연구해 주셨고, 여주의 조성문 위원님께서서는 “세종대왕과 양부일구”에 대한 연구로 세종 정신의 재발견과 여주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 고양 등에 관해 기술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저는 연천지역의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로 “독립운동과 의병 활동의 메카 연천(왕산 허위 선생의 임진강 유격대)”에서 과거 일본강점기 연천의 의병들이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점령하고 통신선 등을 절단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의병 군정 등을 실시하였던 사실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연천지역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고 조직적이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제에 대한 극렬한 저항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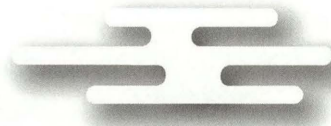
끝으로 본 경기향토사학 26집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김대진 회장님과 여러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1. 31.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이 준 용



|| 목 차



태조 이성계와 의정부 지명이야기

최영희 09

내시제도의 변화와 내시마을의 형성

정창래 35



경기도 약사신앙의 초기도상

팽재연 57

세종대왕과 양부일구

조성문 71

독립운동과 의병활동의 메카 연천(왕산허위선생의임진강유격대)

이준용 97





포

양평초 설립 연혁을 통해 본 구한말과 일제 초기 학제 변천 연구 이윤재 117

동두천 5일장 3.1운동과 미군 골프장 이명수 155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학원 양경직 177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계승방안 연구 민향숙, 박희은 229



태조 이성계와 의정부 지명이야기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目次

I. 머리말

II. 태조 이성계의 가계(家系)

1. 전주에서 함경도로 이주한 고조부 목조(穆祖)
2. 증조부 익조(翼祖) 행리(行里)
3. 조부 도조(度祖) 춘(椿)
4. 부친 환조(桓祖) 자춘(子春)
5. 조선(朝鮮)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III. 태조환궁설화

1. 도봉산 회룡사
2. 태조 함흥주필(咸興駐蹕)
3. 의정부 지명에 얽힌 설화
4. 의정부지명과 관련된 논란

IV. 맺음말

집필자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태조 이성계 동상

I. 머리말

의정부역 건너편 중심가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 동상(銅像)이 있다.

이성계 동상이 시내 중심부에 세워지게 된 연유(緣由), 의정부와 태조 이성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 고장의 지명(地名)이 조선 최고의 행정기관 명칭인 의정부(議政府)로 불리게 되었을까?

태조 이성계는 본향(本鄉)이 전주이씨라 하는데 왜 전주가 아니고, 함흥을 고향이라고 먼저 떠올리게 되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옛 서적을 참고하여, 조선을 개국하고 우리 고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정사(正史)와 야사(野史)를 인용하고, 불교 서적의 기록을 통한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의 이름은 다양하게 붙여지지만, 대부분 그 지역의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기념하여 지역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청이나 건축물을 기념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 방식이나 과정은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처럼, 조선왕조 최고위 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명칭을 한 도시의 이름으로 만든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구려의 매성군(買省郡)에 속한 땅이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내소군(來蘇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때에는 견주(見州)라 하였고, 1018년(현종 9) 양주(楊州)에 예속시켰다. 조선 건국 이후 1394년(태조 3) 도읍을 양주에서 한양(漢陽)으로 옮김에 따라 관아를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 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로 옮겼다가 1397년(태조 6)에는 다시 견주 옛터로 옮겼다. 1413년(태종 13)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 목(牧)이 되었다.

‘의정부’라는 명칭이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지명(地名)으로 사용된 최초의 기록은 1912년 5월 25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²⁾이다. 이곳에서 양주군 둔야면(菴夜面) 의정부리(議政府里)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사는 정사의 기록 내용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정사류 기록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이나, 진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道 楊州牧. 재인용

2)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경기도 양주군, 1912, 14쪽. 재인용

실을 숨기고 있는 사실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주목된다. 설화류는 민족공동체의 인식이 진솔하게 스며들어 있으며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속 시켜 온 것으로서 상류계층이나 왕권 중심의 정사류가 지닌 편견에서 더욱 자유로운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과 야사 책으로 알려진 이궁익의 『연려실기술』과 「회룡사 창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의정부 지명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II. 태조 이성계 가계(家系=선계³⁾)

선계(璿系)는 이씨(李氏)이니 관향이 전주(全州)이다. 전주부는 본시 백제의 완산(完山)인데, 신라 진흥왕이 완산주를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구주(九州)의 수를 채웠다. 효공왕 때에 견훤이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후백제라 칭하였다. 고려 태조 19년에 신검(神劍)을 쳐서 평정하고 안남도호부라고 고쳤다가, 23년에 다시 전주로 하였다. 성종 12년에 승화절도안무사라 칭하고, 14년에 12주 절도사를 설치하면서 이 땅을 순의군이라 이름하여 강남도에 예속시켰다. 현종 때에 안남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 4년에 전주 사람이 원나라 사신 야사부화(埜思不花)를 잡아 가둔 일이 있었으므로 강등 시켜 부곡(郿曲)으로 만들었다가, 5년에 다시 완산부로 만들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해에 자기의 본관이므로 완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고, 태종(太宗) 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1. 전주에서 함경도로 이주한 고조부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강원도 삼척은 옛날의 실직국(悉直國)이다. 태조는 목조(穆祖)의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시켰으며, 또한 부사(府司)와 고로(古老)에게 홍서대(紅犀帶)를 내렸다 한다. 목조 아버지의 능(陵)은 노지동에 있으며 어머니의 능(陵)은 동산지리에 있다. 《지천집(遲川集)》

18세 목조(穆祖)의 휘는 안사(安社)이다. 태조가 ‘덕을 펴고 의를 잡는 것을 목이라고 한다.’라고

3) 선계(璿系) : 선(璿)은 왕실의 존귀함을 표시한 것인데, 선계는 왕실의 세계(世系)를 말한다.

추존하였다. 태종이 시호를 인문성목(人文聖穆)이라 더 올렸다. 고려 지의주사(知宜州事)의 벼슬을 하였고, 원나라에 벼슬하여 남경 5천호소(南京五千戶所)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었다. 지원(至元) 11년 갑술 고려 원종(元宗) 15년 3월 10일에 승하하였다. 목조는 성품이 호방(豪放)하며 사방에 나가 활동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과거에 목조(穆祖)가 전주에 있을 때, 산성별감(山城別監)이 와서 목조(穆祖)가 사랑하는 기생과 관계하므로 목조(穆祖)와 싸움이 벌어졌다. 지주(地主)가 노하거늘 목조가 지주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더니, 지주가 조정에 알려 군사를 동원하여 목조를 해치려 하므로, 목조가 미리 알고서 강릉도(江陵道)의 삼척현(三陟縣)으로 옮겨갔는데, 고을 백성 중 따라 옮기는 자가 170여 호나 되었다. 이안사는 삼척지역에서 약 17년동안 거주하였다.

얼마 뒤에 강릉도의 안렴사(按廉使)가 새로 임명되니, 그가 바로 전주에서 목조와 싸우던 산성별감이었다. 목조는 장차 안렴사가 부임한다는 말을 듣고서,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함길도(咸吉道)의 의주(宜州) 용주리(湧珠里, 지금의 덕원부(德源府))에 이르러 살기로 하였는데, 170여 호가 또 모두 따라갔다. 얼마 후에 원나라에 귀화하여 알동(幹東땅, 지금의 경흥부(慶興府)) 동쪽 30리에 있는 곳에 옮겨가서 살았다.

원나라에서 목조를 5천호소(五千戶所) 다루가치(達魯花赤, 원나라 제도의 벼슬 이름)로 삼으니, 동북 방면의 사람들이 목조를 진심으로 따랐다. 조선 왕업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목조(穆祖)가 고려조의 의주 병마사(宜州兵馬使)가 되어서 고원(高原)에 진을 치고 원나라 군사를 막았다. 이때 영흥 이북(永興以北)은 원 나라에 속하였는데, 원나라 산길대왕이 와서 쌍성(雙城)·영흥(永興)에 주둔하여 철령 이북(鐵嶺以北)을 빼앗으려 하며 목조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목조가 부득이 김보노(金甫奴) 등을 거느리고 항복하니, 때는 고려 고종(高宗) 41년 갑인 이었다.

《동각잡기(東閣雜記)》

목조가 알동(幹東)에 있을 때, 여진(女眞)의 여러 천호소에 이를 때마다 저들이 반드시 소와 말을 잡고 잔치하기를 여러 날씩 하였으며, 여러 천호가 알동에 이르면 목조도 역시 그렇게 하여 드디어 서로 자주 연회하였으니, 익조(翼祖)가 천호 자리를 세습한 뒤에도 그렇게 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

경흥부 남쪽 12리쯤 되는 적지(赤池) 가운데 둥근 봉우리가 있는데, 높이가 35보(步)이고, 둘레

가 90보이며, 사면으로 물이 고여있어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목조의 덕릉은 이 봉우리 위에 있는데, 장사 때에 중국인이 와서 자리 잡아 준 곳이다. 태조가 제군사(諸軍事)가 되었을 때, 길주 안무사(安撫使) 이원경(李原景)으로 하여금 가서 성묘하게 하였다. 진무(鎭撫) 백충신(白忠信)은 원래 원경의 부하로서 원경과 함께 생포된 자인데, 본래 풍수지리를 잘 알았다. 원경에게 말하기를 “이 능의 자손에서 왕이 될 자가 나겠다.” 하니, 원경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용비어천가》

태종 10년 경인에 야인(野人)의 난으로 인하여 두 능을 함흥의 합란북(哈蘭北)으로 옮겼다.

《동각잡기(東閣雜記)》

2. 증조부 익조(翼祖) 이행리(李行里)

19세 익조(翼祖)의 휘는 행리(行里)이다. 태조가 익왕(翼王)으로 추존하였으며, 생각이 깊고 원대한 것을 ‘익’이라 한다. 태종이 강혜 성익(康惠聖翼)이란 시호를 더 올렸다. 원 나라 조정에서 천호(千戶)를 세습시켰다. 덕원(德源)의 적전사(赤田社)에서 나서, □□ 9월 10일에 승하하였다. 능은 지릉(智陵) 안변(安邊) 서쪽 서곡현(瑞谷縣)에 있으니 임좌 병향(壬坐丙向)이다. 표석이 있다.

익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점 성해지니, 여진 여러 천호(千戶)의 부하들이 모두 익조에게로 쏠렸다. 여러 천호가 시기하여 해칠 것을 꾀하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북쪽 지방에 가서 사냥하고 오겠으니, 만나는 것을 20일간 중단하자.” 하였다. 익조가 허락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익조가 친히 해관성(奚關城)에 가다가 길에서 물통을 이고 손에는 사발을 들고 오는 한 노파를 만났다. 익조가 목이 말라 물을 청하니, 노파가 사발을 씻어 물을 올리며, 말하기를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곳 사람들이 실은 당신을 해치려고 청병(請兵)하러 갔는데, 당신의 위엄과 덕망이 아까우니, 내가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익조가 급히 돌아와서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서 적도(赤島)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자신은 손부인(孫夫人)과 함께 경흥 뒷고개에 이르러서 알동의 들판을 바라보니, 적의 기병이 가득 찼으며 선봉 3백여 명이 거의 다가왔다. 익조가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해안(海岸)에 이르기까지 수면의 넓이가 6백 보나 되었다. 원래 조수(潮水)도 없는 데다 깊어서 건널 수도 없고 약속하였던 배도 오지 않아 어찌할 수가 없던 차에, 문득 물이 백여 보만 남기고 물러가서 익조가 부인과 백마를 함께 타고 건넜다. 따르는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 물이 다시 크게 밀려왔으므로 적이 왔다가 건너지 못

하고 되돌아갔다. 북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하기를, “하늘이 도운 것이지, 인력은 아니다.”라고 한다.

익조가 토굴을 만들고 살았는데, 그 터가 지금도 있다. 알동 사람들이 익조가 적도에 있음을 듣고 모두 따랐다. 후에 익조가 덕원부에 돌아가서 사니, 경흥 백성들이 저자에 가듯 많이 따라갔다.

《여지승람(輿地勝覽)》

원나라 세조가 왜(倭)를 칠 때, 천하의 병선이 우리나라에 모였다. 고려 충렬왕이 중신(重臣)을 보내어 큰 배를 만들고 장수를 뽑아서 정예병을 거느리고 가서 왜를 치게 하였다. 이때 익조 역시 원나라 조정의 명령으로 와서 참가하였다. 충렬왕을 공손히 뵈니 충렬왕이 이르기를, “그대는 원래 본국의 벼슬하던 집안사람이니, 어찌 근본을 잊었겠는가. 지금 그대의 거동을 보니, 마음이 본국에 있는 것을 알겠다.” 하였다.

《조야첨재(朝野僉載)》

3. 조부 도조(度祖) 이춘(李椿)

20세 도조(度祖)의 휘는 춘(椿)이다. 태조가 도왕(度王)으로 추존하였으며, 태종이 공의 성도(恭毅聖度)의 시호를 더 올렸다. 함흥 송두등리(松頭等里)에서 나서, 지정(至正) 2년 임오, 고려 충혜왕(忠惠王) 3년 7월 24일에 승하하였다. 고려조에서 찬성사를 추증하였으며, 능은 의릉(義陵) 함흥 동쪽 운전사(雲田社)에 있으니 임좌병향(壬坐丙向)이다. 표석이 있다. 익조가 최비와 더불어 낙산 관음사에서 기도하여 도조를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선래이었다.

《동각잡기(東閣雜記)》

도조(度祖)의 2남은 곧 환조(桓祖)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도조가 젊었을 때 백룡이 현몽하여 말하기를, “나는 적지(赤池)의 백룡인데, 흑룡이 내가 사는 곳을 뺏으려 하오. 그대는 활을 잘 쏘니, 나를 위하여 쏘아 주시오.” 하였다. 도조가 다음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못가로 가니 과연 두 용이 싸우고 있었는데, 주객을 분간하지 못하겠으므로 그대로 돌아왔다. 그날 밤에 백룡이 또 현몽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쏘지 않았는가.” 하니 답하기를, “두 용이 싸우는데, 흑과 백을 분간하기 어려워 쏘지 못하였다.” 하자, 말하기를 “내일 먼저 오는 것이 나이니 반드시 기억하라.” 하였다. 도조가 아침에 가서 보니 또 두 용이 싸우고 있었다. 뒤에 온 용을 쏘아서 단번에 허리를 명중시키니, 객룡(客龍)이 흘린 피가 적지에 가득 찼다. 그래서 ‘사룡연(射龍淵)’이라 부른다.

《여지승람(輿地勝覽)》

4. 부친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

21세 환조(桓祖) 휘는 자춘(子春)이요 자도 자춘이다. 태조가 환왕(桓王, 땅을 개척하고 먼 곳을 복속시킴을 환(桓)이라 한다.]으로 추존하고, 태종이 연무 성환(淵武聖桓)의 시호를 더 올렸다. 연우(延祐) 2년 을묘, 고려 충숙왕 2년에 탄생하였는데, 공민왕을 섬겨서 태중대부 사복경(太中大夫 司僕卿)이 되었으며, 집 한 채를 주어서 살게 하였다.

벼슬이 영록대부(榮祿大夫)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에 올랐다. 지정(至正) 20년 경자, 공민왕 9년 4월 갑술에 승하하였다. 이색(李穡)의 문집에 있는 환조의 옛 비와 정충(鄭攄)이 지은 정릉 비문이 모두 경자년 4월 갑술이라 썼으므로, 이제 그것을 따른다. 나이 46세였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증하고, 능은 정릉(定陵) 함흥 동쪽 귀주동(歸州洞)에 있으니 을좌신향(乙坐辛向)이다.

경자년 8월 병신일에 장사하였고, 이색이 지은 신도비(神道碑)가 있었는데 뒤에 정충이 지은 것으로 바꿨다. 사자(嗣子, 대를 이을 아들)는 태조 이성계이다. 환조의 장사 때, 태조가 함흥에 있으면서 길지(吉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마침 길가에서 스승과 제자 두 명이 쉬면서 스승이 제자 중에게 동산(東山)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곳에 왕이 날 땅이 있는데, 너도 아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산이 세 갈래로 내려온 것 중, 가운데 낙맥인 짧은 산기슭이 정혈(正穴)인 것 같습니다.” 하였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네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두 손을 쓰는데 오른손이 긴요한 것 같이 오른편 산기슭이 진혈(眞穴)이다.” 하였다. 얘기하는 것을 마침 태조의 집 종이 엿듣고 달려와서 태조께 아뢰었다.

태조가 말을 재촉하여 따라가 함관령(咸關嶺) 밑에서 두 중을 만나 매우 간절히 청하여 드디어 함께 와서 지성으로 절하며 청하여 그 장지(葬地)를 얻었다. 《북로 능전지(北路陵殿志)》

한편, 《오산설림(五山說林)》에는 이와 조금 다르다. 두 중 가운데 나이 많은 이는 나옹(懶翁)이고, 나이 적은 이는 무학(無學)이었다고 말한다.

5. 조선 태조 이성계

조선 태조의 휘는 단(旦)이며, 초휘는 성계(成桂)이고, 자는 중결(仲潔)이며, 호는 송헌(松軒)이다. 환조(桓祖)의 2남으로 의비(懿妃)가 지원(至元) 원년 을해, 고려 충숙왕 후 4년 10월 11일 기미(己未)에 영흥(永興) 흑석리(黑石里)의 사저에서 낳았다. 고려에 벼슬하여 관직이 수문하시중

(守門下侍中)⁴⁾에 이르렀고, 홍무(洪武) 25년 임신년 7월 16일에 송경(松京)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였다. 춘추 58세 갑술에 기로소(耆老所)⁵⁾에 들어갔으며 춘추 60세 무인년 홍무 31년 9월에 왕위를 정종(定宗)에게 물려 주었다. 왕위에 있던 지 7년이었다. 경진 정종 2년에 계운 신무(啟運神武)의 존호를 올렸다. 영락(永樂) 6년 무자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에 창덕궁 광연루(廣延樓) 아래 별전에서 승하하였다. 상왕 위에 있던 지 19년이요, 수(壽)는 74세였다.

명나라에서 시호를 강헌(康獻)[온량호락(溫良好樂)을 강(康)이라 하고, 총명예지(聰明睿知)를 헌(獻)이라 한다.] 이라고 하였다. 숙종(肅宗) 9년 계해에 시호를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 더 올렸다. 화상(畫像, 초상화)이 두 벌 전주 경기전(全州慶基殿)에 한 벌 있고, 영흥 선원전(永興璿源殿)에 한 벌 있다. 숙종 14년 무진에 또 한 벌을 모사하여 서울 영희전(永禧殿)에 있다. 능은 건원능(健元陵) 양주 남쪽 검암산(儉巖山)에 있으니 계좌 정향(癸坐丁向)이다. 무자년(1408) 9월 9일에 장사 지냈으며, 신도비(神道碑)와 지(誌)가 있는데 권근(權近)이 지었고, 비음기(碑陰記)는 변계량이 지었다.

[출처] 연려실기술 제1권 태조조 고사본말, 1에서 인용함.

III. 태조의 환궁(還宮) 설화

1. 도봉산 회룡사

1) 봉은사본말사지 회룡사 중창기(奉恩寺本末寺誌 回龍寺 중창기)

왕성(王城) 동쪽 40리쯤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 나발(螺髮)을 결한 듯 높은 구름 끝에 맺히고 사슴의 뿔인 양 추림(秋林)에 높게 걸린 것은 바로 도봉산이다. 이 산에 절이 있게 된 것은 지금의 일이나 회룡사가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태조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함흥(咸興)의 본영에서 환궁(還宮)하던 날 왕사(王師)인 무학(無學)이 있는 이곳을 찾아 어가(御駕)를 멈추고 며칠을 머무른 일이 있었

4)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문하시중은 고려 때 나라의 모든 정사를 도맡아 보살피던 수상을 말하는데, 수문하시중은 그다음인 부수상 격이다.

5) 기로소(耆老所): 조선 때 춘추가 높은 임금이나 70세가 넘는 문관의 정2품 이상 되는 노인이 들어가서 대우받던 곳으로, 태조 3년에 창설되었다.

다. 그리하여 절을 확장하고 회룡(回龍)이라고 편액(扁額)하였으니 이는 회란(回鑾)을 기념하기 위한 뜻이었다. 전설에 또 이르기를 이에 앞서 왕사가 태조 3년에 정도전(鄭道傳)의 시의(猜疑)를 받아 이곳으로 피신하여 토굴 속에 몸을 의탁하였다 한다. 회룡사는 대체로 형세가 뛰어난 곳이고, 또 태조와 왕사의 성적(聖蹟)이 남아있는 곳이니 의의가 깊다 하겠다. 그러나 오랜 풍상을 겪다 보니 집은 무너지고 헐어져 삼보(三寶, 佛·法·僧)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혜봉(慧峰)대사 최성(崔性)이 개연(慨然)한 뜻을 발휘하여 경해당(慶海堂) 원삼(圓三)과 공모하고 명장(名匠)을 모집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를 감독하여 일을 마치니 불당(佛堂)과 승사(僧舍)가 훌륭하게 옛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이와 동시에 화사(畫師)를 초빙하여 상단(上壇)의地藏(地藏)과 신중(神衆)과 현왕(現王) 및 무학국사(無學國師)의 영정을 모셨으니 아아 성대한 일일진저! 이를 위해 크게 시주(施主)한 사람은 상궁(尙宮)인 하씨(河氏)·조씨(趙氏) 등이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공덕이 금석(金石)에 보존되어 마땅할 일이다. 우선 그 대개를 기록하여 방명록(芳名錄)으로 만들어 벽상(壁上)에 걸어두는 바이다.

광서 7년(1881) 신사(辛巳) 월일에 이르러
과봉(果峰) 문손(門孫) 우송(友松)이 기록하다.

2) 태조 이성계와 의정부 인연(因緣)의 시작

이성계는 1355년 함경도 영흥에서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의 2남으로 태어났으나, 청년 시절에는 함흥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용모가 호탕하게 잘 생겼을 뿐 아니라 몸이 크고 곧은 거인이었다고 한다.

특히, 귀가 유난히 크고 이상하게 생겨서, 언젠가 중국에서 온 사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귀로구나.”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으나, 처음 보는 얼굴이며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분입니다.”

그 당시 관상쟁이 혜등(惠登)은 자기 어머니께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했다. 하루는 함흥에서 큰 황소 두 마리가 싸움을 시작하였는데, 몇 날 며칠이 되어도 그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물을 끼얹기도 하고, 햇불을 던져 보기도 하였지만,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기만 했다.

이때 청년 이성계가 두 황소 틈에 끼어들어 양손으로 뺨을 잡고 갈라 막으니 비로소 싸움이 그치게 됐다. 그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을 통하여 최고의 명궁(名弓)이기도 하였다.

한 번은 종 이원경(李原景)을 데리고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노루 세 마리가 나타나자 먼저 나오는 한 마리를 맞추어 잡고, 다시 활을 당겨 나머지 두 마리를 한 화살로 관통 시켜 쓰러뜨렸다.

이원경이 화살을 빼러 가 보았더니, 화살은 노루 배를 뚫고 지나가서 박달나무에 깊이 박혀 있었다.

“어찌 이렇게 늦게 돌아오느냐?”

“아무리 힘을 다하여 화살을 빼려고 해도 워낙 깊이 박혀서 혼이 났습니다.”

“노루란 놈이 일렬로 달려왔더라면 세 놈을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성계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의 활 솜씨를 은근히 자랑하였다. 일찍이 우왕(禑王)을 모시고 해주에서 사냥할 때 옆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장담하였다.

“오늘 사냥감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은 모두 가운데 등뼈를 맞추겠다.”

과연 그날 마흔 마리의 짐승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등뼈에 맞지 아니 한 놈이 없었으니,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일러 신궁(神弓)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詩)도 잘 지었는데, 하루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석자 칼날 위에 나라가 평안해진다.(三尺劍頭安社稷, 삼척검두안사직).』

이성계가 먼저 읊었으나,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자, 최영 장군만이 이에 화답하였다. 『한 가닥 채찍 끝에 하늘과 땅이 정해지도다.(一條鞭末定乾坤, 일조편말정건곤).』

함께 자리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두 장수의 호걸스러움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항상 누구에게나 관대하게 대해 주는 훌륭한 성품을 부하들이 존경과 흠모를 아끼지 않았다.

3) 장수를 군왕으로 이끈 ‘무학대사’

그가 25세 되던 해, 아버지 이자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명당자리를 구하려고 지사(地師, 지관)를 여러 곳에 보내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묘(墓)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 무렵 어느 날, 이곳 함흥을 지나던 두 스님이 길가에 앉아 쉬면서, 큰 스님이 건너편 산을 가리키며 행자(行者)⁶⁾에게 물었다.

“저 건너 산에는 장차 임금이 날 명당자리가 하나 있는데, 네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세 줄기 산맥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작은 산 바로 밑이 명당인가 합니다.”

“네가 아직 잘 모르는 말이다. 사람에게도 오른팔이 중요하듯이, 저기 오른쪽 산줄기 아래턱이 진짜 명당이니라.”

큰 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러 주었다.

이때 이성계의 집 종이 이 얘기를 나무 뒤에서 훔쳐 듣고, 급히 달려와 들은 대로 고해바쳤다.

6) 행자(行者) :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하였으나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사람.

이성계는 말을 타고 뒤를 쫓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리 달려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백여 리를 달린 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 간청하였다. 처음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정성이 너무도 지극할 뿐만 아니라, 부탁하는 성의가 간곡하였으므로 함께 함흥에 돌아와서 명당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성계는 그저 기쁜 나머지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하였을 뿐, 그 스님이 대체 누구인지 물어볼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버렸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성계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디인지 정처 없이 걷다가 낡아빠진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집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가 하면, 한쪽 벽이 다 헐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인데 기둥뿌리며 대들보가 모두 흔들거리고 있었다. 집안을 두루 살피다 별생각도 없이 서까래 3개를 어깨에 메고, 그 집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에 맑고 푸른 냇물을 건너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천여 집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마을이었다. 마을 앞을 지나려고 할 때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살펴보니 집집마다 일제히 울어 제치는 것이었다.

참으로 장엄한 울음소리였다. 한꺼번에 수천 마리의 닭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 소리는 마치 여름철 천둥소리와의도 같았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에는 아침에 활짝 피었던 복숭아꽃이 하루 사이에 다 떨어져 꽃잎이 흩어져 텅굴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렁 위에 얹어놓았던 큰 거울이 덜커덩!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다.

이때 이성계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기이한 꿈이었다. 며칠을 생각다 못해 꿈 풀이를 잘 한다는 어느 노파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노파는 이성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참 만에 말문을 열었다.

“대장부의 크신 포부를 어찌 미친한 여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주 도봉산 기슭 석굴에서 도를 닦고 있는 스님 한 분이 계신 데, 그분께 가서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성계는 노파의 말대로 도봉산 석굴의 수도승을 찾아 나섰다.

천년 묵은 고목들이 뻥뻥이 들어섰고, 이름 모를 새들이 다투어 지저귀는데, 산속을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여 과연 도를 닦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들어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어서 숲 사이로 하늘 조각만 겨우 드러나 보일 뿐, 석굴이 어디인지는 찾을 길이 막연하였다. 벌써 해가 지고 깊은 산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새소리도 멎은 지 오래고, 이따금 멀리서 들

려오는 늑대 울음과 물소리만이 산의 고요함을 흔들 뿐이었다.

과연 이렇게 험한 산중에 노파의 말대로 도승이 살고 있을까 의심이 나기도 하였지만, 꿈을 풀지 못하고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큰 뽕나무에 앉아 잠자리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멀리 건너편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불빛을 찾아 걸어 내려갔다. 점점 불빛이 밝아왔다. 그 노파가 말하던 석굴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 뻔하였지만, 조심스럽게 석굴 앞에 다가섰다.

그때 안에서 죽비(竹篋)⁷⁾를 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성계는 낮은 목소리로 공손히 아뢰었다.

“선사께 높으신 의견을 들을까 하고 찾아왔으니, 원컨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늑신데 이렇게 늦은 밤에 깊은 산속을 찾아왔소?”

“소인은 본래 영흥 사람이온데,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꾸었기에 선사를 뵈옵고 해몽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험한 산길을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소인의 뜻을 살피 주시옵소서.”

“오, 그대인가? 내 어찌 그대의 뜻을 짐작 못하겠소. 어서 들어오시오.”

사방이 모두 바위로 된 조그마한 석굴이었다. 방안에는 향내음이 가득 차 있고, 스님 한 분이 눈을 감은 채 염주만 굴리고 있다.

해맑은 얼굴에는 화기가 돌아 막 떠오르는 보름달과 같고, 굳게 다문 입술, 반듯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부처님과도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명당자리를 잡아준 바로 그 스님이었다. 이분이 바로 노파가 알려준 도승 무학스님으로, 이성계로서는 이미 두 번째 대하게 됐으니 하늘이 맺어준 큰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이성계는 적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한히 반가웠다. 넋죽 절하고 나서 지난날 후하게 사례드리지 못하였음을 빌고 또 빌었다.

“자, 이제 그만해 두고 꿈 이야기나 들어 봅시다.”

이성계의 꿈 얘기를 다 듣고 난 무학스님은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꿈 풀이를 해 나갔다.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은 고려의 국운을 뜻하는 것이고, 세 개의 서까래는 임금 왕(王)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그 소리는 고귀위(高貴位) 즉, 높고도 귀하심을 뜻하는 것이며, 일천

7) 죽비(竹篋): 두 개의 대쪽을 합하여 만든 물건으로 승려들이 손바닥 위를 쳐서 탁! 탁! 소리를 내어 불공의 시작과 끝남을 알리는 데 쓰임.

집의 닭이 한꺼번에 우는 것은 장군을 따르는 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꽃이 떨어지매 마침내는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오, 큰 거울이 부서지매 어찌 큰 소리가 없으리오.

장군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임금 자리에 오르기도 남음이 있으나, 바라 건데 덕으로 몸을 닦고, 지혜로써 앞날을 개척하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날이 멀지 않으리다. 부디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기 바랍니다.”

무학스님의 해몽을 듣고 있던 이성계는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고동질 치는 것을 겨우 참아나갔다.

목자득국(木子得國, 이씨가 왕이 된다는 참설로,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음)이라더니 내가 정말 임금이 될 수 있을까? 꿈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스님의 말대로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아니 될 판이다.

“저같이 그릇이 작은 소인으로서 어찌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대장부의 포부를 펼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고견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성계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학스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실 것을 작정하였다. 그러나 눈을 지그시 내려 감고 명상에 잠긴 모습을 보니 좀처럼 입을 열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산골짜기 흐르는 물소리만이 낭랑히 들려올 뿐이다. 석굴암 돌벽에는 그 뜻을 알 듯 모를듯한 한 폭의 족자가 걸려있다.

“깨달음을 얻은 달마스님이며 (胡僧隻碧眼, 호승척벽안)

일천 부처가 모두 한 티끌이어라.(千佛一塵埃, 천불일진애).”

삼천대천의 모든 부처님이 하잘것없는 먼지라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란 말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문득 솟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마침내 무학스님이 가르침의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 동방에는 이미 고구려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나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으니, 장군께서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모시고 불사(佛事)를 일으키시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하기 위하여 33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이러한 연유로 무학스님의 의견에 따라 33분의 관음보살상을 한 달에 한 분씩 만들어 모시기로 하였으니, 자그마치 삼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황토 흙을 곱게 빻아 체에 거르고, 반죽하여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 말린 다음, 금가루를 입혀서 한 분씩 한 분씩 차례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4) 관음봉(觀音峯)과 친견대(親見臺)

이성계는 장차 새 나라를 세울 큰 뜻이 있어,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무학대사의 높은 경륜(經綸, 큰일을 계획함)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한편으로는 관음상을 정성껏 모시었다.

33분의 관음상을 완성하던 날 무학대사는 관음보살의 가피력(加被力)을 받기 위하여 백일동안 기도드릴 것을 제의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반석에 단정히 앉아서 「나무관세음보살」을 수천 번 염송하기를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마지막 백일째 되던 날, 멀리 올려다보이는 도봉산 봉우리에는 새벽안개가 자욱이 산허리를 두르고 있어 이곳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산골짜기마다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 있고, 새벽잠에서 갓 깨어난 못 산새들이 다투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곳이 바로 극락인 듯싶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푸른빛이 번쩍거리면서 관음보살이 오색구름을 타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양손에는 보검(칼)과 보인(寶印, 도장)을 들고 있는데, 실바람에 나무끼는 천의(天衣)는 선녀의 옷자락 같고,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인자하신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성계는 무한한 법열을 느낀 나머지 합장하고 엎드려 절하며 나무관세음보살을 끝없이 염송하였다.

이때 자비로운 목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오직 때를 기다릴 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니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라.”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쳐다보았으나, 이미 관음보살은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성계가 백 일간 기도드리던 반석은 관음보살을 친히 보았다 하여 친견대(親見臺)라 하며, 관음보살이 구름을 타고 내려앉은 봉우리를 관음봉(觀音峯)이라 하는데, 모두 회룡사 뒤편 도봉산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한편,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 꿈 풀이를 듣던 그 석굴은 호원동 회룡사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연석굴로 상석굴에는 이성계가, 하석굴에는 무학대사가 거처하면서 삼년간 치성을 드렸다는 곳이다.

회룡사의 원래 이름은 법성사(法性寺)이며,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 의상(義湘)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함경도 영흥 출신의 무인(武人)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후 고려 우왕을 몰아내고, 최영(崔瑩)의 세력을 꺾은 다음, 자신의 지지세력을 굳히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392년(공양왕 4) 7월 12일에 개경 수창궁에서 임금의 보위에 올랐다.

이때 나이 58세, 인생으로서는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부터 대장부로서의 큰 꿈의 나라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무학대사와 같은 당대의 선승(禪僧)을 만나 나라와 백성을 위한 대업경륜의 큰 이치를 깨달았으니, 자못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전날 마음먹었던 대로 무학대사를 왕사(王師)로 모시게 되었다.

개경 수창궁에서 보위에 오른 후,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회룡사에 있는 무학대사를 찾아오게 됐다. 삼 년간 치성을 드리던 상석굴, 하석굴은 여전히 변함없었으며, 울창한 숲이며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산새들……. 모두가 왕이 돼서 돌아온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 같았다.

“이곳 산전은 대왕 전하의 발상지입니다.”

“왕사와 함께 지난 삼 년간 기도드리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요. 오늘 같이 기쁜 날을 기념코자 절 이름을 회룡(回龍)이라 고치고 싶소.” 이날부터 법성사 대신 회룡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회룡(回龍)이란 임금의 돼서 돌아왔다는 뜻이다.

2. 태조의 함흥주필(咸興駐蹕⁸⁾)

월(月)에 상왕(上王 태조)이 새 도읍지인 한양(漢陽)에 돌아왔다가 금강산에 가서 그 길로 함흥 본궁(咸興本宮)에 갔다. 《조야첨재(朝野僉載)》

방석의 변이 있는 뒤에 태조가 왕위를 버리고 함흥으로 갔다. 태종이 여러 번 중사(中使,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던 내시)를 보내어 문안을 하였는데, 태조가 번번이 활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서 전후 여러 차례 갔던 사자가 감히 문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은 태조의 옛 친구로 그가 자청하여 태조의 뜻을 돌이킬 것을 다짐하므로 태종이 허락하였다. 석린이 백마를 타고 배옷 차림으로 과객같이 하고 말에서 내려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시늉을 하였더니, 태조가 바라보고 내시를 시켜 가 보게 하였다. 석린이 “용무가 있어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말을 매고 유숙하려 한다.” 말하니, 내시가 돌아가서 그대로 태조에게 아뢰었다.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곧 불렀다. 석린이 조용히 인륜의 변고를 처리하는 도리를 진술하니, 태조가 변색하여 이르기를, “너도 너의 임금을 위하여 나를 달래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였다. 석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만약 그래서 왔다면, 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이 멀어 장님이 될 것입니

8) 주필(駐蹕): 임금의 행차가 머무는 곳.

『연려실기술』 태조조 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중에서 4. 태조의 함흥주필 부분인용. 朝鮮史考/인물.

다.” 하니, 태조는 이 말을 믿었다. 그래서 양궁(兩宮 태조와 태종)이 이때부터 화합해졌으나, 뒤에 석린의 두 아들은 과연 눈이 멀었다. 《축수편(逐睡篇)》

석린의 맏아들 지도(至道)와 지도의 아들 창산군(昌山君) 귀수(龜壽)와 귀수의 아들이 싹 다 태중에서부터 장님이 되어 삼대를 이었고, 석린의 작은아들 발도(發道)는 후사가 없었다. 《명신록》

당시에 문안사(問安使)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온 이가 없었다. 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니 응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박순(朴淳)이 자청하여 간다고 하였다. 가는데 하인도 딸리지 않고 스스로 새끼 딸린 어미 말을 타고 함흥에 들어가서, 태조 있는 곳을 바라보고 일부러 그 새끼 말을 나무에 매어 놓고 그 어미 말을 타고 나아가니, 어미 말이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서로 부르며 울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태조를 뵈자, 태조는 말이 하는 짓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그가 아뢰기를, “새끼 말이 길가는 데 방해가 되어 매어 놓았더니, 어미 말과 새끼 말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지친(至親)의 정은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풍자하여 비유하니, 태조가 척연(慙然)히 슬퍼하고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귄 옛 친구로서 머물러 있게 하고 보내지 않았다.

하루는 태조가 박순과 더불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마침 쥐가 그 새끼를 안고 지붕 모퉁이에서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박순이 다시 장기판을 제쳐놓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더욱 간절하게 아뢰니, 태조가 마침내 서울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박순이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태조의 허락을 듣고 곧 그 자리를 하직하고 떠나니, 태조를 따라와 모시고 있던 여러 신하들이 극력 그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태조는 그가 용흥강(龍興江)을 이미 건너갔으리라고 생각된 뒤에야 허락하여 사자에게 칼을 주면서 이르기를, “만약 이미 강을 건너거든 쫓지 말라.” 하였다. 박순은 병이 나 중도에서 체류하였다가 이때에 겨우 강에 도달하여 배에 오르고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으므로, 드디어 그의 허리를 베었다. 그때에 “반은 강 속에 있고 반은 뱃속에 있다. [半在江中半在船]”하는 시(詩)가 있었다. 태조가 크게 놀라 애석하게 여겨 이르기를, “박순은 좋은 친구이다. 내가 마침내 그에게 한 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드디어 남쪽에 있는 한양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태종은 박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곧 그의 공을 기록하고 벼슬을 증직하였으며, 또 화공에게 명하여 그의 반신을 그려서 그 사실을 나타내었다. 그의 부인 임씨(任氏)는 부고를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노봉집 시장(老峯集諡狀)》

태조는 처음에 덕원(德源)으로 갔다가 또 함흥으로 갔는데, 문안사(問安使)로 죽은 사람이 속출하였다. 태종이 태조께 돌아오시라고 청하고자 하였으나, 방법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무학(無學)이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태종이 물색하여 찾아서 간곡히 청하니, 무학이 어쩔 수 없이 함흥에 가서 태조를 뵈었다. 태조가 노하여 이르기를, “너도 또한 나를 달래러 왔구나.” 하니, 무학이 웃으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빈도(貧道, 승려가 겸손하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가 전하와 더불어 서로 안 지가 수십 년인데, 오늘 특별히 전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태조의 안색이 조금 부드러워져서 머물러 함께 잤는데, 무학은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태종의 단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여 수십 일을 지내니, 태조가 굳게 믿었다. 하루는 밤중에 무학이 태조를 달래어 아뢰기를, “방원(芳遠)이 진실로 죄가 있으나, 전하께서 사랑한 아들은 이미 다 죽고 다만 이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니, 만약 이 아들마저 끊어 버리면 전하가 평생 애써 이룬 대업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니 내 혈육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원컨대 신중히 생각해 보소서.” 하니, 태조가 그의 말이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행차를 돌릴 마음이 생겼다.

무학이 이어 급히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태조는 성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소요산(逍遙山)에 이르러 두어 달 머물렀다가 그 길로 풍양(豐壤)에 가서 궁을 지어 거처하였다. 《오산설림(五山說林)》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돌아오니, 태종이 교외에 나가서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히 장막을 설치하였다. 하륜 등이 아뢰기를, “상왕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여지지 않았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일(遮日)에 받치는 높은기둥은 의당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허락하여 열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양전(兩殿)이 서로 만나자, 태종이 면복(冕服)을 입고 나아가 뵈었는데, 태조가 바라보고 노한 얼굴빛으로 가졌던 동궁(彤弓)과 백우전(白羽箭)을 힘껏 당겨서 쏘았다. 태종이 급해서 차일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가렸으므로 화살이 그 기둥에 맞았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이르기를,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에 나라의 옥새를 주면서 이르기를,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하였다.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 번 사양하다가 받았다. 마침내 잔치를 열고 태종이 잔을 받들어 헌수(獻壽)하려 할 때에 하륜 등이 몰래 아뢰기를, “술통 있는 곳에 가서 잔을 들어 헌수 할 때에 친히 하지 말고 마땅히 내시에게 주어 드리시오.” 하므로,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내시가 잔을 올렸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쇠방망이를 찾아내어 자리 옆에 놓으면서 이르기를,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하였다. 《축수편(逐睡篇)》

[출처] 연려실기술제1권 태조조 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4. 태조의 함홍주필.

3. 의정부 지명에 얽힌 설화

출판물을 통해 기존 의정부 지명유래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정부 뿌리

이 책자에 의하면, 조선조 1400년 2차 왕자의난 이후 방원은 제3대 태종으로 전위하나 태조(이성계)는 태종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참지 못해 고향인 함흥으로 간다. 이에 태종은 여러 차례 차사를 보냈지만 태조는 물론, 차사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부터 함홍차사라는 말이 생김)

이후 무학대사가 함흥으로 가 설득하여 환궁을 결심하게 되고, 태종은 지금의 호원동 전좌마을(회룡골 입구)까지 나와 부왕 태조의 환궁 환영 준비를 하는 가운데 신하의 의견으로 아름드리나무로 고주 기둥을 세우는데 때마침 도착한 부왕 태조는 태종에 대한 노기가 충천하여 활궁에 철전을 매어 잡아당겼으나, 살은 연대에 꽂히고 태종은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때부터 “연대가 맞아야 산다”라는 말이 생기게 됨)

그 후 태조는 끝내 환궁치 아니하고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풍양궁에서 지냈다고 전해오는데 1408년 5월, 춘추 74세로 승하했다. 태조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선 왕실 최고기관인 조정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사를 논의하는 한편, 태상왕의 윤허를 받았다고 하여 조선시대 최고 관청의 명칭을 따서 의정부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의정부라는 이름은 1912년부터 문헌에 등장하게 됐는데, 그해 5월 23일에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부락 명칭이 이때부터 생겼다.

[의정부지리지(議政府地理志) 의정부시 김영복(金榮福)]

2) 우리고장 의정부

1994년 의정부 교육청에서 편찬해 낸 초등학교 사회과 향토 및 지역 학습용 교재로서 향토 의정부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며 향토 의정부를 이해시키고 자긍심과 향토애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

적으로 되어있다.

이 책의 1단원 〈의정부시의 모습〉 제2항에 〈의정부의 유래 및 전경〉이 있고 간략한 지명유래가 소개되어 있다.

「의정부란 조선시대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조정의 대신들이 임금님을 모시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 결정하는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지금의 호원동 회룡굴 전좌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태조와 함께 정사를 의논하였다고 해서 우리 고장의 이름을 의정부라 부르게 되었다.”

이 기사는 의정부의 지명유래를 축약하여 지명 유래의 핵심 부분만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3) 한국민족문화백과 대사전

[한국 민족 문화 백과 대사전] 제17권, 〈의정부시〉의 ‘교육, 문화’와 ‘설화, 민요’의 두 항목에 각각 지명유래가 실려있다.

‘교육, 문화’ 항의 〈회룡문화제〉 부분에 나오는 지명유래는 기존의 의정부 지명유래에 회룡사의 연기설화(緣起 說話)를 덧붙이고 있다. 덧붙인 부분만을 따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이 개국하기 전 호원동 회룡사(옛 법성사) 뒤편에 석굴이 있는데, 상석굴은 이성계가, 하석굴은 무학이 기거하며 대업경론(大業敬論)을 위한 치성을 드렸다 한다. 그 뒤 이성계가 등극한 다음 무학을 방문하였을 때 감개무량한 무학이 이곳이 공(公)의 발상지라 말하니 태조는 기뻐하여 절의 이름을 회룡이라 고쳤다.”

이 기사는 의정부의 지명 유래의 이설(異說)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룡〉은 태조의 환궁 설화에서 비롯된 의정부 지방의 지명 유래가 아니라 회룡사의 ‘창건(創建)’설화로서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는 별개의 기원을 가진 다른 전설일 수 있다는 것이다.

4) 한국의 발견-경기도

위 책은 1983년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발행한 인문지리서이다.

이 책 경기도편 〈의정부시〉에 ‘전쟁이 낳은 도시’라는 부제(副題)가 있고, 〈조선 태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항목의 지명 유래가 있다.

의정부가 시가 된 때는 1963년이었으며, 그전에는 양주군에 속한 한 작은 지방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곳은 서울의 머리말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한성 4진’에 들었으며 동두천과 철원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원산공로’와 동북쪽으로는 포천, 서쪽으로는 연천으로 향하는 길이 서로 엇갈리는 길목 노릇을 해왔다. 이곳은 본디부터 의정부라고 불리지는 않았다. 조선왕조의 태조가 ‘왕자의 난’에 실망하여 임금 자리를 물러난 뒤에 함흥에 가 있으면서 고집스럽게 서울에 되돌아오기를 거절하다가 태종 신하들의 부탁으로 겨우 양주 땅까지 와서 주저앉아 버리자 그때에 국가 최고기관인 의정부를 이곳으로 옮겨 나라 일을 의논했는데, 그때부터 의정부라는 이름이 이곳의 별명이 되어 불리다가 1942년부터 정식 이름이 되었다.

5) 광동여고 〈개교40년사〉 기록글

태조 환궁설화의 불교적 측면을 반영하는 관내 광동여고 [개교 40년사]에 기록된 의정부 지명 유래 글이다.

(전략).....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골에 회룡사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구니 스님의 수도장인 명찰(名刹)이 있다. 이 사찰은 조선 태조 이성계와 깊은 인연을 가졌으며, 의정부시의 지명 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절은 원래 법성사였는데,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 등극하기 전 이곳에서 천일기도를 올리고 ‘왕이 되어 돌아왔다’ 하여 지금의 ‘회룡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왕이 된 이성계는 500년 조선왕업의 기반을 닦는 탁월한 치적을 남기나, 승계문제에 있어서 왕자들이 두 차례 골육상쟁의 난을 일으키게 되자, 왕위를 정종에게 넘겨주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게 된다. 정종으로부터 다시 왕위를 승계받은 태종은 태상왕의 옥새를 인수하기 위하여 태조를 한양으로 환궁시키고자 수차례 차사(差使)를 보내지만 가는 족족 죽임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게 된다. 결국, 무학대사의 노력으로 태조는 이곳까지 와서 회룡골, 즉 지금의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두 임금이 대좌하게 된다. ‘전좌마을’이라는 명칭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끝내 태조는 한양으로 환궁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 하였다하여 이곳이 ‘의정부’가 된 것이다.

위의 글들은 모두 다르게 서술하였지만, 대부분 태조의 환궁설화 내용과 회룡사와 관련한 이성계, 무학대사 이야기이다.

4. 지명과 관련된 논란

1) 의정부둔토

의정부 지역과 태조·태종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 의정부 지역을 여러 차례 오갔을 태종의 심부름꾼들, 두 사람의 화해에 관한 설화, 회암사와 그에 딸린 사전(寺田) 약 500결, 이런 사실들만 가지는 현재의 의정부지역의 지명유래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어느 사실로부터도 조선왕조 최고위 관청인 의정부와의 관련지를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력한 주장은 현재의 의정부 지역에 최고위 관청 의정부의 둔토(屯土)가 있었고 이것이 의정부라는 지명의 유래라는 것이다.⁹⁾ 이에 따르면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정부(議情阜)’라는 지명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의 기록 하한인 1863년(철종 14) 이전부터 의정부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에 있던 의정부 둔토가 의정부라는 지명의 기원이며 김정호의 『대동지지』가 의정부를 지명으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의 지명유래를 의정부 둔토와 관련지어 설명이 서계(書啓)한 것은 타견이었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지적해 둘 점이 있다.

첫째는 정부의 공식 기록 가운데 ‘의정부평(議政府坪)’이라는 용어가 지명으로 사용된 가장 빠른 기록은 1796년(정조 20) 5월 26일이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검열(檢閱) 오태증(吳泰曾)이 서계(書啓)¹⁰⁾하기를, “신이 성교(聖敎)를 받들어 양주 직곡평(直谷坪)과 의정부평으로 달려갔습니다. 농사 형편이 비가 잘 내려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는 밭이 없었고 익지 않은 곡식이 없었습니다. 콩과 기장과 좁쌀과 묵화는 이미 첫 김매기를 마쳤고 논이 곡식 가운데 일찍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 번째 김매기를 한 것도 있었고 모내기를 일찍 한 것 역시 첫 김매기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¹¹⁾

사료에 등장하는 직곡평¹²⁾과 의정부평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직곡평은 ‘곧은 골’이라는 지형의 특징을 나타낸 지명이고, 의정부평은 의정부 둔토와 관련되어 있는

9) 홍정덕의 「의정부지역 일부 지명 유래의 재검토」 『한북사학』 3, 2006년. 「지명 ‘의정부’의 문헌적 고찰」 『한북사학』 6, 2009년을 참조함.

10) 서계(書啓): 조선 때, 임금의 명을 받아 일을 처리한 신하가 결과를 보고하여 올리던 문서.

1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 20년 5월 26일 庚午.

12) 직곡평(直谷坪): 지금의 의정부시 가농동 일대이다.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더불어 직곡평과 의정부평이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정부 역시 직곡처럼 하나의 지명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의정부평이라는 지명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그 기록을 정리한 책 『의정부시사』 제2권 p.99~107.를 참조하면 좋겠다.¹³⁾

둘째로 지적할 것은 단지 의정부 둔토의 존재만으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겨났겠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의정부 지역에는 의정부 둔토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청의 둔토가 혼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역토(驛土)는 제외하고도 의정부둔 이외에 충융청(悤戎廳)에서 관할하던 갑사둔(甲士屯)도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04년(광무 8) 7월 양주군 둔야면에 사는 장완급(張完汲) 등은 충융청이 관할하던 둔토를 자신들이 사들였으니 내장원(內藏院)에 내는 도조(賭租)¹⁴⁾를 탈급(頒給)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請願書)를 올렸다. 또 1906년(광무 10) 11월 5일 양주군수 홍태윤(洪泰潤)은 양주군 둔야면에 있는 의정부 둔토와 갑사둔토의 마름을 사립학교에 이속 시켜 교비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하였다. 둔야면에만 해도 의정부 둔토는 물론이고 충융청이 관할하던 갑사 둔토도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정부 둔토의 존재만으로는 의정부라는 명칭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오늘날의 의정부 지역은 태조가 1년 정도 머물렀던 곳이고 태종과의 갈등, 그리고 그 해소되는 과정이 목격되었던 지역이다. 또한 태조와 깊은 관계를 맺은 회암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에 딸린 500결의 토지가 있던 지역이다. 어느 시점에서인가 의정부 둔토가 이 지역에 설치되었고, 인조 이후에는 충융청의 갑사 둔토도 설치되었다. 이 지역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회암사의 토지, 의정부 둔토와 갑사 둔토를 경작하였을 것이다.

의정부 둔토가 있던 곳 어딘가에 의정부점(議政府店)이 생겼고, 그것은 곧 의정부점이 있던 그 좁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반면 의정부 둔토는 여러 곳에 넓게 흩어져 있었다. 그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는 태조·태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그것과 교묘하게 얽혀 있는 설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공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의정부 둔토가 있던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집단 기억으로 떠올렸다. 그것이 이 그지역을 조선왕조 최고위 관청의 이름을 가진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본래 땅이름이란 그 지역의 특징이나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무엇인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13) 김도환 :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14) 도조(賭租) : 남의 논을 빌려서 부치고, 그 세(稅)로 해마다 내는 곡식, 도지(賭地).

오늘날의 의정부시의 지명은 태조·태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그에 바탕을 둔 설화, 의정부 둔도와 의정부점의 존재,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세대에 걸친 공통된 기억이 합쳐지면서 형성된 것이고 이 역사와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의정부 땅이름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넷에 소개된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문화도시 워킹파트너 발굴 프로젝트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지명 관련 향토해설가이며 전국 지명 밟기 운동본부 신동명 총재가 “의정부이야기/의정부 지명의 유래” 특강을 진행했다.

의정부는 언제부터 ‘의정부’로 불리기 시작했을까?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환궁하다가 지금의 호원동 전좌마을(회룡사·회룡역 일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대신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정사를 논의 했다고 하여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라는 관청 명칭을 의정부시의 지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며, 1912년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명칭이 문헌상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의정부시에는 도심 행복로에 세워져 있는 태조 이성계 동상을 비롯하여 회룡사, 회룡골, 회룡문화제, 전좌로 등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회룡’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명칭으로, 왕자의 난으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갔던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간청에 따라 한양으로 돌아오던 중 법성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후 법성사는 용(龍, 이성계)이 돌아왔다는 뜻의 회룡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지며, 이방원과 이성계가 만났던 전좌마을(殿座: 두 임금에 있는 곳)은 현재 도로명 전좌로라는 명칭으로 그때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동명 강사는 “의정부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12년보다 훨씬 앞선 서기 1787년(정조 11)으로 함경도 군관으로 부임하러 가는 노상추라는 분의 일기에 의정부(議正部/지금의 명칭 議政府와 한문 표기가 다름)라는 지명이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의정부 지역을 뜻하기에 그 당시에 이미 의정부라고 불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향토사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의정부시의 첫 문헌상 지명으로 알려져 있는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에 대하여 “둔야면은 주둔한 군대가 경작하는 논배미(정부기관 의정부가 경작하는 군용 경작지)”를 뜻한다며 둔배미, 둔야라는 지명의 유래를 한문으로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 내용은 의정부 지명밧기 운동본부가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의정부 지명유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한 자료이다) <의정부시 블로그 유애형(행복기자단 9기)>씨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IV. 맺음말

의정부(議政府)는 원래 조선시대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임금을 보좌하며,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던 기관이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도봉산 회룡사와 인연이 있었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무학을 찾아와서 절 이름을 회룡사(回龍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얼마 후에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지금의 도봉산 아래 있는 회룡사에 들러 무학대사를 만나 며칠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전좌마을]까지 와서 태조와 함께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다고 해서 「의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우리고장에서의 태조와 태종의 상봉기사이다.

* 태종 5년(1405), 11월 6일(무술)에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 지역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숙소(宿所)에 나아가 헌수(獻壽)하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양도(兩都, 개성과 한양)에 내왕(來往)하여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한 군데> 정해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

* 태종 5년(1405), 11월 7일(기해)에 태상왕이 노원역(盧原驛)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가서 술잔을 드리고, 모시고 잤다. 내섬시(內贍寺) 중(婢) 원만(元萬)과 공안부(恭安府) 중(婢) 가도지(加都知)에게 쌀 각각 두 섬씩을 내려 주었으니, 원만 등이 아이를 업고, 또 물건을 <머리에> 이었으므로,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 태종 6년(1406), 11월 5일(신유)에 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기었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 임금이 앉도록 임시로 꾸민 자리)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 현재 도봉구, 노원지역)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냇가의 행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렀다.

이 기사에는 “옛 견주” 또는 “양주 남교”를 장소로 하여 두 왕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옛 견주” 특히 “양주 남교”를 [전좌(殿座)마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정사(正史)·야사(野史)에서도 태조·태종의 만남이 우리 고장 의정부에서 있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의정부 지명유래는 의정부 지역에 있던 둔토(屯土) 이야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님 회룡사 전좌마을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숙제이다. 한편, 이러한 연유로 태조 이성계의 동상이 시내 중심가에 세워졌음을 이해하면 좋겠다.

참고문헌

- *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년, 12. 20. 삼성인쇄주식회사.
- *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 * 이궁익, 『연려실기술』 제1권,
- * 대한불교진흥원, 『多寶』, 1995년 통권 14호(여름호),
- * 『의정부시사』 2권, 「제2장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의정부」
- * 黃仁奎, 『무학대사연구』, 1999년, 6월, 초판, 도서출판 해안.
- * 홍정덕, 『의정부시 지명유래의 재검토』, 1998. 12. 선일인쇄공사.
- * 사진 원본 1매
- * 네이버 인터넷 지식백과

내시제도의 변화와 내시마을의 형성

정 창 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1. 내시제도
 - (1) 내시제도의 성격
 - (2) 내시제도의 변천
 - (3) 내시제도의 기능
 - (4) 직무와 직급
 - (5) 일상생활
 - (6) 계파의 형성
 - (7) 사회경제적 기반
2. 내시제도 폐지와 일반사회로의 복귀
 - (1) 내시제도의 폐지 전후
 - (2) 일제강점기의 내시생활
 - (3) 해방 이후의 내시생활
3. 양주 및 기타지역 내시마을
 - (1) 효촌리 김계한 가문
 - (2) 삼상리 최언순가문
 - (3) 창동 초안산 내시묘
 - (4) 쌍문동 자계산 내시묘
 - (5) 북한산 진관동 내시묘
 - (6) 안산 내시마을
 - (7) 인덕원 내시마을
 - (8) 청도 입당리 김씨고택
 - (9) 순천 척동마을
4. 맺는말

집필자

정 창 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내시제도

(1) 내시제도의 성격

내시(內侍)는 일반적으로 고려·조선시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內官)으로 거세된 사람들을 뜻한다. 고려시대에는 일반 관료들이 내시직을 맡기기 때문에 남성이 거세된 환관과 구분되었으나, 환관이 내시 역할을 독점하게 되면서 내시와 환관이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다.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는 내시(內侍)로 통칭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시는 거세로 인해 남성적인 특징이 퇴화해 중성이 된다. 정직하고 자비심이 많다. 한편, 물욕이 강해 재물을 모으는데 열중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왕의 최측근에서 온갖 기밀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 권력에 접근해서 많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전쟁 포로를 거세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것이 궁형이라는 거세의 형벌로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궁형에 의한 거세자가 많을 때는 수만 명에 달해 환관 내시를 충원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 바로 양자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내시들이 고자 어린이를 양자로 삼아 대를 이음으로써 궁중에 필요한 내시를 충원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내시가 3세 이전의 어린이를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온 프랑스인 신부 샤를르 달레는 그의 저술 『한국천주교사』에서 구한말 궁궐 안의 모습과 이 양자를 어떻게 입양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을 기록했다.

내시는 전국에 사람을 보내 어린이 대상자를 찾게 했는데, 그 대상자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나 양자로 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고환과 음경으로 성기 전체를 제거하지만 우리나라는 고환만을 제거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내시의 생식 불가 여부를 검사할 때 고환 유무로 판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입궁할 때 항아리를 가져가는데, 항아리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자신의 고환을 보관하며 항아리는 내시감에게 보관하였다. 내시가 죽을 경우 해당 내시의 항아리에서 고환을 꺼내 봉합한 후 장례를 치렀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내시가 되기 위한 일종의 사설 양성소가 있었다. 바로 그 사설양성소를 운영했던 쇠귀할머니는 우이동에 묘를 썼는데 내시들이 제사를 지내러 다녔다고 한다.

향토사학자 김동복 씨 증언에 따르면 고종 34년(1897년) 갑오경장으로 내시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영등포 쪽 용추라는 연못 옆에 내시를 양산하는 움막 시술소가 있었다고 한다. 음경은 남겨

놓고 교환만 제거했는데 비명이 새 나가지 않게 주로 비 오는 날 천둥·번개가 칠 때 시술했다고 한다.

따라서 태생적인 내시나 사고에 따른 내시의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출세나 호구지책 또는 벌을 면하기 위한 자발적인 거세자도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내시는 궁궐에 들어가면서도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시의 몸가짐과 궁중의 법도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다만 경국대전은 현직 내시들도 공부해야 하고 일 년에 네 번 성적을 평가해 고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선발과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내시가 만들어졌다.

(2) 내시제도의 변천

내시와 환관은 의미 자체가 다르다. 내시는 왕의 측근에서 정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즉 성 상 실과는 관련 없는 관직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에 환관은 거세된 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 중기까지는 환관과 내시가 구분됐지만, 환관들이 관리직을 차지하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뜻이 동일해졌다.

내시제도는 왕정이 확립되고 일부다처제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 운용된 제도이다. 고자들을 궁정을 담당하는 신하로 고용하여 궁궐에 상주시키는 이유는 여성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거세된 자들만이 내시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내시에 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 등장한다.¹⁾ 흥덕왕 원년(826) 왕비가 죽자 슬픔에 젖은 흥덕왕이 시녀들조차 가까이하지 않고 오직 환수(宦豎)들만을 심부름꾼으로 부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시는 신성한 존재와 속세의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자, 거세를 통하여 욕망을 극복한 자들로서 왕의 신성함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다.

백제 때는 내관(內官)으로서 궁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관부와 관직이 있었다.

고려의 내시는 내료(內僚)라고 불렸으며 내료는 액정국(掖庭局)에 소속되었다. 처음에는 세도가의 자제 출신인 근시 문무관들이 소속된 내시원(內侍院)에서 정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

고려의 내시는 과거의 장원급제자 등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사립대학의 창시자 최충의 손자인 최사추, 주자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 등 이들 모두가 내시였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원년. ...左右使令, 唯宦豎而已..

고려 내시들은 왕의 행사에 동행하는가 하면, 왕명의 초안 작성, 유교 경전의 강의, 왕실 재정 관리 전반을 담당했으며, 왕을 대신하여 궐 밖의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고려의 내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내시직에 환관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내시와 환관은 별개의 존재인데 원 간섭기 때 환관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종전에 내시가 갖고 있던 권한을 환관 내시들이 차지하였다.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정함은 환관으로서 내시직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이다. 고려 의종을 키운 유모를 부인으로 맞이한 덕분에 내시가 된 정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환관이 내시직에 진출한다. 환관에서 일약 내시직으로 올라섰던 이들의 폐해는 극심했다.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었다. 원종 때부터 관계 진출이 허용되어 공민왕 초에는 내첨사(內詹事)·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내급사(內給事)·궁위승(宮丞)·해관령(奚官令) 등과 같은 내시직이 설치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때의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그 뒤 우왕 때 내시의 권력 남용이 문제되어 내시부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 내시의 직은 6품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제상의 변화는 고려 말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득세한 환관에 대한 대우와 함께 견제해야 하는 정치적인 과제였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초기부터 내시 세력이 적극적으로 억제되었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내시에게는 수문(守門)과 청소의 임무만 전담시키고 관직은 일절 주지 말자는 논의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태조는 개국 초부터 모든 내시를 배척, 도태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환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민왕대에 원나라에서 환관으로 있다가 귀국하여 조선에서도 일하게 된 김사행을 시켜서, 액정국을 내시부(內侍府)로 바꾸고 내시부 전체를 환관 조직으로 조직화하였다. 문무직 외에 따로 내시부를 설치한 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원은 140인으로 상선(尙膳) 2인, 상운(尙) 1인, 상다(尙茶) 1인, 상약(尙藥) 2인, 상전(尙傳) 2인, 상책(尙冊) 3인, 상호(尙弧) 4인, 상탕(尙帑) 4인, 상세(尙洗) 4인, 상촉(尙燭) 4인, 상환(尙) 4인, 상설(尙設) 6인, 상제(尙除) 6인, 상문(尙門) 5인, 상경(尙更) 6인, 상원(尙苑) 5인 등이었다. 이속으로 서원 2인과 사령 1인이 있었다.

내시부의 역할은 궐내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청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궐내의 모든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내시부 관원으로서 4품 이하는 문·무관의 근무 일수에 따라 품계를 올려 받았으나, 3품 이상은 왕의 특지가 있어야 했다. 근무성적 평가는 특별근무 일수로 환산되어 정상적인 근무 일수와 함께 고과의 기준이 되었으며, 1년에 네 번 근무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모든 근만(勤慢)에 대한 규찰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교육과 성적평가를 통해 내시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내시부는 고려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지만, 내시의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었다.

1469년(성종 즉위) 내시부직은 4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으며, 이후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내시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어 내시 세력은 미약하였다.

(3) 내시제도의 기능

왕을 보위하고 궁중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크고 작은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여성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내시들은 가족관계도 끊기고 남성 결합의 한계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왕의 권력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개 가난하거나 미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데다가 어려서부터 왕만 쳐다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

왕실의 남자 구성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내시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였다. 내시들은 왕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주가 설령 실정을 저지른다 해도 군주를 배반할 가능성이 작았다. 군주가 귀족의 이익을 침해한다 해도 그렇고, 백성의 이익을 침해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내시들은 오직 왕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내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사대부와 힘의 균형을 통해 공존할 수 있었다.

충성스럽던 신하도 막상 자기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왕으로부터 자신의 변절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왕이 속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대상은 오직 내시들뿐이었다.

내시들은 입궐 시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당한 실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내시들은 결혼하고 입양을 통해 아이를 두는 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환관들이 권력 대신에 가정에 몰두해서 권력화되는 폐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궁중의 궁녀들을 관리하고, 특히 왕실의

재산 관리, 각종 공사, 지역의 실정 파악 등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내시들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궁중 내의 각종 중요한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고, 독점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들이 관여할 여지가 많았다.

이러한 업무나 기회를 통해 내시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고려사』에는 환자전 즉 내시전을 따로 두어 이런 상황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시의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왕명 출납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왕명은 승정원에서 맡아 출납을 하게 되는데 6조라든지 각 부서에서 공문서가 올라오면 이것이 승정원에 모이게 되고 승정원에서 국왕의 처소까지 출납하는 일은 내시들이 맡고 있었다.

내시들은 이러한 공문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편전에서 왕의 명령을 기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승정원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때로는 내시들이 왕명을 변조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왕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귀찮게 여겨서 전적으로 내시들에게 왕명의 전달을 맡겨 두기도 하였다.

(4) 직무와 직급

내시의 업무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궁중의 제사는 물론 왕실의 재산 관리, 궁실의 각종 공사, 궁녀의 감독 등 궁중 내의 모든 대소사에 내시들이 관여했다.

내시의 주요 업무는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내감선 즉 궁중 내의 음식 전반에 대한 감독이다.

둘째, 왕명 출납으로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이다. 셋째, 궁중의 문을 지키는 수문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궁궐 내의 청소다.

내시의 관직은 종2품의 상선에서 종9품의 상원까지 두었다. 이 중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을 감독하는 상선이 내시부의 가장 높은 직위였다. ‘상온’은 임금의 술 시중을 담당했다. ‘상단’은 차를 내놓는 일을 했고, ‘상약’은 내의원과 연계하여 의약을 담당했으며, ‘상전’은 대전 내관으로 어명을 승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왕과 왕비의 바로 옆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담당한 사람이 ‘내관’, ‘환관’으로 불리던 내시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내시부의 청사는 경복궁 바로 옆인 한양 북부의 준수방에 있었다. 지금의 효자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내시부도 다른 관부와 마찬가지로 궁 밖에 나와 있었다.

내시부와는 별도로 궁 안에 내시들을 위한 사무공간이 있었는데 내반원이었다. 내반원은 왕이 업무를 보던 선정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왕실의 수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궁궐 안에 있는 내반원은 내시부의 파견처인 썸인데 내시 중 가장 핵심 인물들이 근무하던 곳이다.

내시의 관직은 종2품의 상전에서 종9품의 상원까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내시부의 정원은 16개 관직에 140명이었다. 군대 말고는 이렇게 큰 부서가 없었다. 이조나 병조와 같은 6부에서도 판서에서부터 정랑, 좌랑에 이르기까지 정규 관원이 10여 명 내외였다. 10여 명 내외의 관원들이 인사나 국방 또는 교육 등을 책임졌는데, 140명 정도의 관원은 대단히 큰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대내 식사의 감독, 명령의 전달, 문의 수직(守直), 청소, 궁중의 각종 제사, 시릉관(侍陵官)으로서 왕릉의 시묘살이, 진상품 관리를 하는가 하면, 도성 밖에 있는 왕실 전용 잠실(蠶室)에 파견되어 누에 치는 일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 내시의 품계 및 직무²⁾

품 계 및 관 직			직 무	
二品階	正		해당없음	
	從			
三品階	正	堂上	尙膳	내시부 최고의 벼슬 . 궁중 음식물 감독과 내시 감독
		堂下	尙醢	궁중의 술을 빚는 일을 관장
	從		尙茶	궁중의 다과를 준비하는 일을 관장
		從		尙藥
四品階	正		尙傳	대전 승전색으로 왕명을 전달
	從		尙冊	1 명은 매방관리 , 1 명은 왕비전승전색 , 궁중내 서책관리
五品階	正		尙孤	대전의 木弓을 관리
	從		尙帑	궁중내의 재화를 관리
六品階	正		尙洗	대전의 그릇관리 , 정원 청소 , 왕비전의 등불 , 세자궁의 주방 , 빈궁의 주방 심부름 담당
	從	參上	尙燭	궁중내의 등촉에 관한 일을 담당
七品階	正	參下	尙烜	궁중내의 財火를 관리
	從		尙說	궁중내의 천막에 관한 일을 담당
八品階	正		尙際	궁중내의 청소를 담당
	從		尙門	궁중내의 각종 문에 관한 일을 담당
九品階	正		尙更	야간시각의 통보 등을 담당
	從		尙苑	궁중내의 꽃과 화원을 관리

2) 양주의 내시마을 2권.p19. 장희홍, 양주문화원, 2019.

내시들이 받은 급료는 상선은 종2품록, 상은(尙)은 정3품 당상관록, 상다(尙茶)는 종3품 당하관록을 받았다. 또한 '대전과 중궁전의 출입번 내관의 봉록은 쌀이 1석 1말, 콩이 10말, 또는 쌀 1석 1말에 콩 3두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품계는 종2품 상선(尙膳:임금의 수라상 감독)으로부터 종9품 상원(尙苑:정원관리 담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15 품계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궁 밖 출입을 하지 않고 궁에서 먹고 자는 장번(長番) 내시와 근무가 있는 날만 들어와 근무하는 출입번(出入番) 내시가 있었다.

왕이 거처하는 건물인 대전에 근무하는 대전장번은 정원이 없었으며, 세자궁 장번도 정원이 없었으나, 대전장번이 겸하였다.

한편 출입번은 대전출입번 42명, 왕비전 출입번 12명, 세자궁 출입번 12명, 빈궁 출입번 8명이 있었으며, 각 빈궁(嬪宮)에는 별도로 상직(上直) 하는 어린 환관 90명이 있었다.

(5) 내시의 일상생활

내시들은 크게 장번과 출입번으로 나뉘는데 번은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번은 장기간 왕 가까이 모시는 자들로 장번은 모든 내시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왕과 세자궁에만 제한된 사람이다.

다른 내시들에 비해 승진 기회나 권력을 잡을 기회가 더 많았다. 장번 내시는 내시부의 핵심 요직에 해당한다. 흔히 왕이 있는 대전이나 왕비가 있는 내전 등을 지키지만, 장번내시라 해서 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입번과 달리 교대 기간이 길었던 것이지 이들도 궁 밖에 집을 두고 있었다. 특히 왕을 모시던 장번내시는 대감 호칭을 받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다. 왕을 모시던 내시는 왕이 세상을 떠나면 궁궐 밖에 나와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 소복하였다고 한다.

내시부가 있었던 준수방 근처 지역에는 많은 내관이 살고 있었다. 조선 중기에 작성된 한양 5부 중 북부지역의 호적대장에는 양반가로 분류된 곳에 내시의 집이 있었다.

양반 관직을 가진 51가구 중 8가구가 내시의 집이었다. 종로 3가에서 비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동관이라 하는데, 길 양쪽에 내관들이 많이 살았다.

지금의 종로구 운니동, 봉익동, 은평구 신사동, 용암동, 서대문구 연희동, 가좌동 일대에서 거주하였다. 현직에서 물러난 내시들은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과천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등 서울과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 또 어떤 내시들은 자신들의 고향이나 왕이 하사한 땅(食邑)에 내려와 자리 잡았다.

내시도 일반 사대부나 평민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했다. 가정을 꾸리게 허용한 목적은 내시의 관심사를 권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양자를 들여 대를 계승하였다. 조선시대 수양자법에는 동성(同姓)만 양자로 삼도록 규정하였으나, 내시의 가계 단절을 배려해 이성(異姓)의 양자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시의 지위는 중인으로 양반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나,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몰락한 양반보다는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내시들의 족보(族譜)인『양세계보(養世系譜)』와 궁궐 내 장번내시들의 쉼터로 내시부(內侍府)의分院(分院)격인 내반원(內班院)의 사적을 기록한『내반원기(內班院記)』가 남아 있다.

내반원기엔 삼국시대 이래 내시들의 전기를 기록한「동환열전(東宦列傳)」과 중국의 이름난 내시들의 사적을 기록한「고래명환열전(古來名宦列傳)」이 수록되어 있다.

(6) 계파의 형성

조선시대 내시의 계파는 ‘족보-전내시보’와 ‘양세계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변창한 가문을 중심으로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1명의 양자 입양에서 벗어나 3~4명까지 입양하여 가문을 더욱 번창하게 했다. 특히 선조 때에 임진왜란을 거치는 시기에 많은 내시가 공신에 책봉되고 벼슬이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면서 계파 간 분리가 촉진되었다.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가 의주로 몽진하면서 호위하던 신하들을 호성공신으로 책봉하면서부터 내시의 계파가 형성되었다.

호성공신은 이항복을 비롯하여 총 86명 중 내시가 24명에 이르렀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의주까지 호종한 공신들의 책봉에서 여가가 의주로 갔고 그곳에서 명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의주까지 자신을 호종한 신하들의 공은 단순히 호종한 공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을 회복한 공로가 있다는 논리였다.

또한 녹훈도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도망하여 방관했던 문신들에 대한 문책성이 짙은 결정으로, 호종한 사람들은 난을 당해 자신을 잊고 종신토록 호종했으니 공에 있어 어찌 귀천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며 의주까지 호종한 내시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계파 형성이 이루어진 가장 요인은 것은 양자 제도를 통한 직책의 계승에서 찾을 수 있다. 김광택 계열의 가문이 번성하게 된 것은 대대로 승록대부의 직함과 내시부 상선, 승전색이라는 직책을 계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 가문에서 높은 벼슬과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되면 그 양자에게 벼슬과

역할이 대물림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와 한말의 내시인 홍명복, 유재현 가문도 그러한 경우이다.³⁾

‘족보-전내시보’는 관동파와 자하동파로 구분하고, 관동파는 동대문 밖에 살면서 창동과 월계동을 근거지로 삼았고, 자하동 파는 서대문 밖, 양주 삼상리 인근을 근거지로 삼았다.

‘양세계보’에서는 윤득부 가문에서 장자 안중경의 후손은 계동파로, 차자 김계경의 후손은 장동파로 분파되었다.

관동파 : 김계한-김광택-김선희, 김선희-정중명, 김중정, 박중서-서경달-최봉

좌-백희장-홍명복-이지형-송우용, 이민화-김정하, 오창하, 유원하

(유재현)-김석태, 이범석-유택순-이병직

위충성-승극철-박중창-오윤항-노재신-김익량-김치일-김희

정-김문창-황중화-이동원-백락윤-김흥주

정중명-서경달-여홍좌-신희중-김명갑-윤동형-도유화-박용하(재건)

-최석두-양덕순-정병국, 유충현

자하동파 : 최언순-차남 정렴-김두광-이유신-오윤주...나세환, 강석호

계동파 : 윤득부-안중경-백계남-최한손-전윤실-채언준

장동파 : 윤득부-김계경-남수중-박원필-김세걸-김예정-박윤-김이장-양세윤,

박윤-김이성-김중휘-서후제 · 서후상, 지중해-신우열, 강이원-김몽상-박몽서

그리고 계동파는 다시

판곡파 : 채언준-백몽호-채이직-김령-윤기신

과천파 : 채언준-오대방-오이공-양정-원후성

장동파는 다시

강동파 : 김계경-한수는-박희수-김언정-이계영

서산파 : 김계경-한수는-박희수-임언수-박봉림

분파하는 과정에서 가문을 상징하는 분묘도 가문마다 위치를 달리해 조성하였다.

시조 윤득부의 묘는 송도였고, 정부인 이씨가 아들 셋과 계생동에 정착한 이후 계동파의 안중경은 우이동 계성리(쌍문동 자계산), 백계남-최한손 묘는 봉화산 일대, 이후 6대 채언준 묘부터는 양주 고주내(광사동 삽사골)에 자리 잡았다.

3) 양주의 내시마을 이야기 2권. P80. 장희홍, 양주문화원, 2019.

판곡과 백몽호-채이직-김령까지는 우이동, 윤기신-허유장부터는 양주 판동(남양주시 평내동)으로 옮겼고, 과천과는 오대방-오이공-양정까지는 양주 고주내, 원후성 때부터 과천 삼현으로 묘를 옮겼다.

장동파 김계경의 묘는 봉화산에 있었지만, 아들 남수중 때부터 양주 고주내로 옮겼다.

그리고 김계경-한수은-박희수-김언정으로 이어지는 강동파는 박희수 때 묘를 평안도 강동 용암리 동봉으로 옮겼으며, 한수은-박희수-임언수-박봉림으로 이어지는 서산파는 박봉림 때 양주 선유리(고양시 벽제동 원봉)로 묘를 옮겼다.⁴⁾

(7) 사회경제적 기반

내시들의 일상은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정의 정보나 기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내시를 매수하여 정보를 알아내거나 이용대상이 되어 상응한 대가를 지불받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이화는 한말 내시들의 권력욕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세기 말엽 서구 열강들의 침략 과정에서 궁중과 관료사회는 부정부패에 시달렸다. 벼슬을 팔고 사는 것이 다반사였다. 임시적인 차비관(직함만 있고 실질이 없음) 자리까지 돈을 받고 팔았다. 민비는 대원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거의 벼슬을 판 돈으로 충당하였다. 이 일의 중개 역할을 한 것이 내시들이었다. 일이 성사되면 내시에게도 상당한 보수가 따랐다. 이리하여 구한말 내시부 지사를 지낸 유재현, 강석호, 나세환 등은 만석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⁵⁾

그리고 역대 왕들은 항상 자신의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내시들의 노고에 대한 포상으로 토지와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했다.

가족이나 부양자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놓여 있었던 내시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내시 중에는 공신(功臣)에 책록되어 많은 토지를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적인 부를 조성하기도 했다.

즉 임금의 총애와 관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내시들의 생활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4) 양주의 내시마을 이야기 2권. p144. 장희홍, 양주문화원, 2019.12.

5) 이이화의 역사풍속기행, 역사비평사, 1991.

일상에서도 여러 첩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살 수가 있어 정승 판서들처럼 죽어서 함께 매장한 부장품이 호화롭고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재력을 짐작하게 한다.

내시들이 모여 살던 화자동(지금의 서울 효자동), 익선동에는 고대광실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모두가 직책이 높은 내시들이 사는 집이었다고 한다.

한 예로 고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유재현의 손자뻘로 내시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계보를 잇는 인물인 이병직(1896~1973)은 일본 강점기에 ‘쌀 7000석 켜’⁶⁾으로 불렸고, 서울 종로구 익선동 집엔 오경석, 장택상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이 사랑방을 드나들었다. 그의 집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3대 요정의 하나가 된 ‘오진암’⁶⁾이다.

이성손자(異姓孫子) 곽영대(법명: 道慧)의 증언에 따르면, 6대조 내시 이민화는 황해도에서 유재현을 양자로 데려왔다. 마을에 고기잡이와 간척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고을 원님이 재산을 탐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라며 무조건 죽이겠다고 덤뵈었다고 한다. 부자는 유재현 가족을 찾아와 임금께 알려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이 소식은 이민화를 통해 고종에게 전해졌다. 죽음을 면한 부자가 고맙다며 내놓은 300석 논으로 서울 전농동에 땅을 샀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양주 일대 등에 땅을 사면서 재산이 늘기 시작하여 거부가 됐다. 수락산 인근에 흥봉한이 지은 ‘우우당(友于堂)’이란 별장과 땅도 소유했다.

2. 내시 폐지와 일반사회로의 복귀

(1) 내시제도의 폐지 전후

삼국시대 이후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온 내시제도는 서구식 문물을 도입한 1884년 갑오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청일전쟁 시기에 갑오개혁에 착수한 일본은 조선의 궁중과 정치를 분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갑오개혁은 일본식 궁내부 제도의 도입으로 왕의 권위를 약화하는 것이 주목적 중의 하나였다.

제1차 개혁에서 왕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궁내부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왕과 관련된 부서는 명칭만 바뀌고 그 임무나 성격은 큰 변화가 없었다. 내시부 역시 내시사(內侍司)로 바뀌고 궁

6) 익선동 34-3에 소재하는 이병직이 살았던 집으로 1900년대 초 지어진 2천310㎡(약 700평) 규모의 단층 한옥 건물이다. 한국전쟁 시 이병직의 가세가 기울면서 매각되어 1953년 오진암(梧珍庵)이란 서울시 음식점 1호 업소로 등록되어 삼청각, 대원각과 더불어 요정정치의 산실이 되었다.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이곳에서 만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논의하였던 곳이다. 호텔신축을 위해 2014년 3월 철거 시 부자재 등을 부암동 무계정사지터로 이전하여 ‘무계원’으로 재탄생되었다.

내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2차 개혁 시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왕권을 약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왕명 출납기구인 승선원(承宣院)을 폐지하는 한편 내시사도 폐지했다. 내시들은 시종원(侍從院) 소속의 봉시(奉侍)로 바뀐다.

이것은 아관파천(俄館播遷) 전후의 혼란기나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단순히 봉시와 함께 시종원에 승봉(承奉)의 자리로 남았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조선은 일본의 독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 왕권의 최후 보루인 내시의 감축을 요구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일본인들이 내시 감축을 요구하므로 모든 환관은 한곳에 모여 통곡하였다. 이에 김종환은 이근택을 꾸짖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내시들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하지만, 결국 매국을 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과 안면도 없는 사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밤에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도리어 내시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라고 하였다.”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내시 감축에 이어 1906년 7월에는 궁금령(宮禁令)이 내려졌다. 궁중에 필요 없는 관리가 많고 군주의 측근들이 국정을 좌우하는 폐단이 있다는 명분을 들어 일본 측이 자국 경찰들에게 궁궐 경비를 맡기고 문표를 소지한 자 외에는 출입을 엄금한 것이다. 주로 내시들의 보좌를 받던 조선 임금 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08년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봉정청(奉停廳)이라 하여 내반원(內班院)과 같이 독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내시부라 자처하였다. 또한, 각종 업무 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봉시라는 명칭 이외 기존의 명칭들은 그대로 존재하였다.

(2) 일제강점기 내시생활

일반사회 속에 귀속된 초기에는 왕을 모시고 궁궐에서 근무하였던 퇴직 관료로 상당한 직책도 역임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받았다.

특히 재임 시 축적했거나 퇴임 시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식견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의 유지로 인정받았고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불구였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부인과 자식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고, 양자를 들여 후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왕조의 몰락과 함께 내시 가문의 유대는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궁궐과의 관계나 대외적인 활동도 위축되면서, 그 존재가 사회적으로 잊혀갔다. 점차 주위의 시

선도 긍정적이지 못했고, 내시 집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후손들도 남성을 잃어버린 선조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씨가 달라 혈연관계가 끈끈하지 못했던 탓으로 그들의 존재는 우리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져 갔다.

(3) 해방 이후의 내시생활

후손들은 내시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내시들의 무덤은 관리 소홀로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많았다.

특히 1949년 농지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보유하였던 넓고 기름진 옥답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식솔들의 식량이나 겨우 해결할 수 있는 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지고 부와 권력을 매개로 이어져 왔던 대외적인 왕래도 끊어졌다.

이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은 재정적인 파탄과 함께 사회 인식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시 기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재력이 뒷받침되는 가문만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편으로 내시의 맥이 끊기게 되었다.

내시라는 특수한 신분은 왕조시대의 유물로서 명색만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다만 내시가 수행했던 그 역할과 기능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3. 양주 및 기타 지역 내시마을

(1) 효촌리 김계한가문

연양군파는 조선 선조대 호성공신에 책봉된 연양군 김계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시 가문이다.

김계한 가문은 선조대에는 양주 각심사리(노원구 초안산)와 사내리(효촌리)에 무덤을 조성하였지만, 박종서 이후 이국향-한성규-오희검-최득린-송희영부터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묘를 조성하였다. 선산의 분리는 가문이 분리되는 것과 비슷하다.⁷⁾ 일반적인 내시 가문처럼 이성의 양자를 통해 가계를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

김계한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된 24명의 내시 중 1명이며, 연양군에 책봉되면서 연양군파의 시조가 되었다. 비록 그의 선조는 알 수 없지만, 후손들에 대한 자료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7) 양주의 내시마을 이야기 2권. 장희홍, 양주문화원, 2019.

‘양세계보’에 보이는 장동파와 계동파가 아닌 마지막 내시 정완하가 이야기한 관동파(돈관파)와 자하동파 중 관동파의 후손들로 약 400여 년을 지속해온 내시 가문이다.

또한 송회영 신도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열을 달리하면서 무덤과 사는 지역이 달라지는 것은 ‘양세계보’와 비슷한 형태이다.

하지만 족보에 같이 기록하는 것은 여러 다른 가문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처럼 동일한 자손이라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승’형태로 만들어진 내시 족보는 연양군(延陽君) 김계한을 시조로 한 가계로서 13세손 김홍주가 정리해 정서하였고, 일제강점기 최석주에 의해 추가되어 마지막 후손으로 1907년 출생한 장병국 씨로 기록하고 있다.

위충성, 승극철, 박중창, 오윤향, 노재신, 김익량, 김치일, 김희정, 김문창, 황종화, 이동원, 백락윤, 김홍주로 이어지는 가손(家孫)이 적혀있다. 특히 그중에서 김계한-2자 김광택-2자 김선필로 이어지는 가계가 가장 후손이 많다.

이후 정중명-최봉좌-홍명복-이민화-유재현-이병직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벼슬 정도가 상당하며, 형제간에 돌림자(항렬)를 사용하여 가문의 공고화를 도모하였고, 양자의 수가 2~3명인 경우도 가끔 나타나며, 첫째 부인이 일찍 죽은 경우 둘째 부인을 맞이하는 등 완전한 가계를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양세계보’ 등에서 보이는 내시 가문의 일반적인 가계 계승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연양군과 김계한 가문의 형성과정과 전승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병직이 조선 말기 내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은 내시부의 마지막 교관을 지낸 정완하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역사학자 이이화는 내시부의 마지막 교관을 지낸 정완하 노인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벌마을에서 만나 채록하였는데, 정완하 노인에 의하면 조선시대 내시는 관동파(館洞派)와 자하동파(紫霞洞派)로 나뉘었고, 구한말에 와서 관동파는 유재현(柳載賢)과 이병직이, 자하동파는 나세환(羅世純)과 강석호(姜錫鎬)가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전하였다.

나세환, 강석호는 1919년 1월 21일 고종 임종 시 민영휘, 민영달과 함께 고종 시신의 염을 행하였다.

관동파는 동대문 밖에 나와 살면서 그들의 묘를 창동과 월계동에 잡았고, 자하동파는 서대문 밖 양주군 삼상리 일대에 살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뒤탈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시들의 족보인 ‘양세계보(養世系譜)’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내시는 고려 말의 환관 윤득부(尹得富)의 장자 안경중(安仲敬)과 차자 김계경(金季敬)에 의해 크게 계동파(桂洞派)와 장동

파(壯洞派)로 구분되며, 계동파는 판곡파와 과천파, 장동파는 강동파와 서산파로 구분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완하 노인의 구전과 『양세계보』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다양한 구성과 계보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삼상리 최언순가문

자하동파는 주문구를 시조로 양자 000, 손자 00홍, 증손 전현(全顯), 고손 정여손(鄭呂孫)이었다.⁸⁾

처음에는 이말산(진관)에 무덤을 쓰다가 임란 이후 장흥 서산을 중심지로 삼았다.

선산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가문을 결집하고 동일한 집안이라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

현손 최언순(崔彦恂)은 선조대에 호성공신 월성군에 책봉되고 3명의 양자를 들였으며, 장자 최홀도 3명의 양자, 차자 나업은 4명의 양자, 3자 김울은 1명의 양자를 입양하는 등 가문이 번창하였다.

1683년(숙종 9) 11대 오윤주가 정리해 만든 최언순가문의 '족보-전내시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내시 족보로 중시조인 최언순-차남 정렴-김두광-이유신-오윤주로 이어지는 가계 기록이다.

'족보-전내시보'를 통하여 관동파와 자하동파로 분리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후 후손 나세환, 강석호로 이어졌으며, 강석호는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1896년 친러파 이범진(李範晉)과 러시아공사관 통역 김홍륙(金鴻陸) 등의 사주로 고종의 아관파천 때 막후에서 연락 임무를 맡았다.

아관파천 이후 김홍륙과 함께 왕의 총애를 빙자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뇌물을 좋아하여 정사를 크게 어지럽히기도 했다.

(3) 창동 초안산 내시묘

초안산(楚安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에 걸쳐 있는 해발 고도 114.1m의 산이다.

초안산 일대에는 1,000여 기가 넘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무덤이 있었고, 내시 무덤이 중심을 이뤘다.

일제 강점기까지도 동네 주민들이 내시들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2002년 3월 사적 제440호로

8) 0으로 표시된 것은 족보에서 일반적으로 일찍 죽거나 입양하지 못한 경우의 표시다.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묘비가 없고 봉분의 흙이 깎여 나가 주인을 확인할 수 없다.

선조 대의 내시 김계한(金繼韓)[?~1625]의 손자 승극철은 초안산 근린공원 안에 밀집된 조선 시대 내시 묘 중에서 그 형태와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였다.

김계한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시중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봉되었고 승록대부(崇祿大夫)에까지 올랐으며, 연양군파(延陽君派)의 시조이다.

연양군(延陽君) 김계한을 시조로 13세손 김홍주가 정리해 정서(正書)한 내시 족보에 따르면, 위충성, 승극철, 박중창, 오윤항, 노재신, 김익량, 김치일, 김희정, 김문창, 황종화, 이동원, 백락운, 김홍주로 이어지는 가손(家孫)이 적혀있다.

족보 구성은 성명과 자(字), 관직명, 태어나고 죽은 해, 부인 본관, 묘 위치 등 일반 족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묘는 이후 양주시 효촌리로 이장하였다.

(4) 쌍문동 자계산 내시묘

‘양세계보’에 따르면 1488년(성종12년)에 쌍문리 일대에 묘지를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조(918~1392)의 내시 시조 윤득부(尹得富)의 부인 정부인 이씨가 계생동(桂生洞; 쌍문1동)에 세 아들과 살았으며, 묘를 쌍문1동 동익아파트 뒤 내시 뒷자리에 썼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후 판곡과의 공동묘역이 되었다. 1987년 완공된 동익아파트의 부지부터 쌍문초등학교까지 공동묘지 군이 있었으며, 쌍문리 내시묘라고 불렸다.

(5) 북한산 진관동 내시묘

북한산 내시묘역은 내시파 중 이사문(李似文)을 파조로 하는 “이사문공파(李似文公派)”의 내시 분묘가 한곳에 모여 있는 가족 묘지인데, 현재 그의 후손 5가구가 19대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묘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승전관(承傳官)’을 지낸 김충영(金忠英)의 묘로 1621년(광해군 13년)에 세운 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승전관이란 왕과 왕비의 명령을 출납한 승전색(承傳色)을 말하는 것으로 내시부의 직제상 정4품 상전(尙傳)이 이를 맡았다.

현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이사문공파(李似文公派)의 가계도를 기록한 가승(家乘)을 보면 묘가 ‘중흥동 면암(縣岩:일명 솜바위로 백화사에 있음) 동쪽 사패지(賜牌之地)’에 있다고 하여, 처음

부터 중흥사(中興寺) 동쪽 현재의 위치에 하사받은 토지에 묘역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묘 가운데 비석에 관직이 기록된 이는 모두 14명인데, 그중 최고 관직인 종2품 상선(尙膳)에 오른 이는 임성익(林成翼), 박민채(朴敏采), 김성휘(金成輝), 박황(朴滉), 오준겸(吳浚謙) 등 모두 5인이며, 기타 영내시부사(領內侍府事:정1품)가 1인,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종1품)가 1인, 구한말에 봉시(奉侍)를 지낸 이가 2인이며, 기타는 상세(尙洗: 정6품) 등 다양하다.

묘역에 남아 있는 석물(石物)은 문인석(文人石)이 5쌍, 비석이 5기, 상석(床石)이 20기, 망주석(望柱石)이 9기였다.

특히 비문에 기록된 ‘박공(朴公) 양위(兩位)지묘’와 ‘배정경부인(配貞敬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 부좌(附左)’의 기록은 내시의 부인도 사대부의 부인과 같이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작(封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삼자(有三子) 왈김여일(曰金汝鎰) 왈임성익(曰林成翼) 왈김성휘(曰金成輝)’라는 기록은 입양을 통해 대를 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재 이곳에는 부인과 함께 묻힌 합장묘가 7기, 나란히 묻힌 쌍분(雙墳)이 3기 정도 남아 있다.

(6) 안산 내시마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의 ‘시꿀마을’은 예로부터 모낼 때만 되면 비가 와 연년세세 풍년이 든다고 하여 ‘시꿀’이라 불렸다.

조선 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시우리(安山郡 瓦里面 時雨里)라 칭했던 한자로는 ‘시우동(時雨洞)’으로 표기하는데 1978년 공단 건설과 함께 옛 마을은 없어지고 원주민들도 모두 이주하였고 지금은 산업단지 경기지역본부, kt 반월공단지사, 이마트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다솜아파트 뒷편 백운산 자락에는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 궁중 안의 식사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문(守門)과 수직(守直), 청소 등 궐내 잡무를 맡아보았대의 으뜸 벼슬인 상선(尙膳) 종2품의 벼슬을 지냈던 내시들의 묘소 3기가 있다.

한일합방 이후 돌보는 이가 없어 수목이 우거진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었다.

내시들은 양자를 두어 가계(家系)를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양자로 들어가면서도 자기의 본래 성씨를 그대로 썼다.

이곳에 있는 묘 3기의 주인공들은 이경희(1699~1773)는 승록대부(崇祿大夫) 상선, 유인묵(1746~1825)은 승록대부 상선, 임의복(1761~1818)은 정헌대부(正憲大夫) 상선이며, 이 묘역에는 묘가 없지만, 이경희의 아들이며 유인묵의 아버지 최광국(崔匡國)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상선이였다.

내시들의 분묘는 대부분 주로 서울 인근 지역에 조성되었는데, 이곳 안산에 분묘가 조성된 것은 특이하다. 고령의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안산지역에는 내시들 소유의 땅이 많았다고 한다.

원시동 ‘시꿀마을’에는 아흔아홉 칸짜리 기와집이 있었고, 둔배미 마을의 큰 배[重船]들은 거의 내시 소유였으며, 현 화랑유원지 일대도 내시 소유의 땅이었다고 한다.

(7) 인덕원 내시마을

인덕원은 서울에서 삼남으로 향하는 초입에 위치하며 수원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인덕원이란 환관들이 한양에서 내려와 살면서 주민에게 어진 덕을 베풀었다 하여 만들어진 지명이다.

인화를 베푸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의 ‘인덕’이란 말에 관리들의 숙소인 ‘원’이 합해져서 ‘인덕원’이라 칭하게 되었다.

인덕원사거리에서 동편마을, 중편마을(현재 관양동)은 환관들이 살다가 묻힌 곳이다. 정조의 현릉원 능행은 두 길을 이용하였는데, 12회 중 6회를 인덕원길, 6회는 안양에 만안교를 건설하고 (1번 국도) 이용하였다.

인덕원 옛터 표지석에는 궁궐에서 퇴직한 내시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라는 야사가 적혀있다.

인덕원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다가 죽으면 내시묘원을 조성해 예장을 치렀다. 가운데 말, 즉 중촌(中村)은 내시(中人)가 죽어 묻히는 곳이란 뜻인데, 실제로 최근까지 마을 곳곳에 내시 무덤이 있었다가 모두 이장 또는 화장 처리되었다고 한다.

즉 효성다세대 주택(관양동 356)에 4기, 관양동 산 65-1 속칭 내시 땅에도 1기가 있었다가, 1970년대 말 내시 후손이 화장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묘비명에 「내시 김공 지묘」라 쓰인 비석도 있었다고 한다.

(8) 청도 입당리 김씨고택

김일준(金駟俊; 1863~1945)은 조선 후기 정3품 통정대부로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입당리에 낙향 후 큰 주택을 짓고 은거하였다.

김일준 저택은 2005년 1월 31일 중요민속자료 제245호로 지정되었다.

17대인 김문선(1881-1953)까지는 타성으로 이어져 오다가 18대인 김진우(1901生)부터 20대까지는 의성 김씨로 이어졌다.

김진우는 의성 김씨인 김호은의 사남(四男)으로 조카인 판득이 19대로 입양하였고, 20대인 김

수훈은 김판득의 아들이다.

이를 보면 조선 왕조가 무너진 이후인 18대부터는 내시 집안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 집안으로 가계가 이어졌다.

(9) 순천 척동마을

전라도 순천에 낙향한 내시가 자리를 잡고 살았던 터가 있다.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 척동마을에 있다.

낭청(종6품)벼슬에 오른 두 명의 내시가 낙향해 살면서 마을 전체가 내시의 영향을 받았다.

두 명의 내시가 땀땀거리며 권세를 부리고, 또 마을 사람들은 그 내시들의 땅에 기대 농사를 지었던 탓에 주변 사람들은 척동마을을 ‘고자마을’이라 불렀다.

지금 환갑을 넘긴 척동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다른 마을에 가면 고자마을 사람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4. 맺는말

내시제도는 전제군주제하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어 삼국시대 이후 내시의 역할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행되어 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내시부가 틀을 갖추게 되었다.

내시들은 오직 왕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내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귀족이나 사대부와 힘의 균형을 통해 공존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직 면에서 14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갖추고, 궁궐 내에서 발생하는 일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운영되었다.

전제군주의 퇴장과 함께 왕조시대의 유물로서 명색만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내시가 수행했던 그 역할과 기능은 오늘날에도 대통령 등 권력 기구의 근거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동사강목(東史綱目)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경식략(漢京識略)
- 『서울 육백 년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 『도봉구지』, 도봉구, 1999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종합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2008
- 『조선시대 서울지역 내시 궁녀 묘역 원형 연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초안산 문화축제 개최방안 제언』, 노원구, 2009
- 『동명연혁고:종로구편개정판,도봉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 · 1984)
-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 「고려시대의 환관에 대하여」 (이우철, 『사학연구』 1, 1958)
- 「연양군파가승록(필사본)」
- 「연양세계(필사본)」

- 「가승(필사본)」, 1914
- 「국역 한성부 북부장호적」,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9
-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김용숙, 일지사, 1986
- 『내시와 궁녀』, 박상진, 가람, 2005
- 『환관과 궁녀』, 박영규, 김영사, 2004
- 『비문으로 본 양주의 역사』 1권, 양주문화원, 삼영문화인쇄사, 1998
- 『용인 자연마을 기행』 1, 우상표, 용인시민신문사, 2005
- 『이이화의 역사풍속기행』, 이이화, 역사비평사, 1991
- 『내시, 권력을 회롱하다』, 장희홍, 경인문화사, 2006
- 『조선시대 정치권력과 환관』, 장희홍, 경인문화사, 2006
- 『양주의 내시마을 이야기』, 장희홍, 양주문화원, 2019
- 『노원구초안산정밀지표조사보고서』, 노원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 「고려 내시에 대하여」, 강애자, 이화여대사가학위논문, 1965
- 「麗代, 내시의 신분」, 김창수, 「동국사학」 11, 1969
- 「고려내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82
- 「고려시대의 내시」, 박효신, 「駿台史學」 19, 1966
- 「조선시대 환관가족의 구성과 기능」, 신명호, 「고문서연구」 26, 2005
- 「조선초기 환관의 왕명출납활동」, 이동희, 「전북사학」 17, 1994
- 「고려시대 환관에 대하여」, 이우철, 「사학연구」 1, 1958
- 「몽고간섭기 고려 환관에 대한 일고찰」, 이호우, 인하대학교육대학원석사 학위논문, 1998
- 「양세계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내시가의 가계 계승」, 장희홍, 「역사민속학」 22, 2006
- 「갑오개혁 이후 내시부의 관제 변화와 환관제의 폐지」, 장희홍, 「동학연구」 21, 2006
- 「대한제국기 내시 강석호의 활동」, 장희홍, 「사학연구」 89, 2008
- 「조선 선조대 호성공신 연양군과 내시 김계한 가계의 복원」, 장희홍, 「역사민속학」 50, 2016
- 「조선후기 청도 내시부 통정 김일준가의 가계 계승」, 장희홍, 「역사민속학」 46, 2014
- 「麗代南班考」, 조좌호, 「동국사학」 5, 1957
- 「고려전기 내시와 왕권과의 관계」, 최운식, 「동의사학」 4, 1988
- 「조선왕조 내시부의 구성과 내시 수효의 변천」, 홍순민, 「역사와 현실」 52, 2004

경기도 약사신앙의 초기도상

팡 재 연 (시흥문화원 전시팀장)

目 次

I. 머리말

II. 약사신앙의 기원과 성립 및 내용

1) 약사신앙의 기원

2) 약사신앙 소의경전의 성립

III. 수대 돈황 약사정도경변상 도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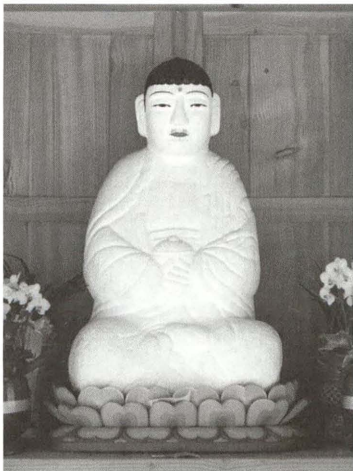
IV. 맺음말

집필자

팡 재 연

시흥문화원 전시팀장

1. 머리말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

약사불(藥師佛)은 동방정토(東方淨土) 또는 유리광정토(琉璃光淨土)에 주재하는 부처로서 중생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유정(有情)들이 최고의 지식(菩提)을 달성하도록 하는 현세 구복적인 부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사여래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정경』의 12권에 있는 『불설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 『불설약사여래본원경』,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등 약사 관련 경전에 언급된 12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약사신앙은 고대 굽타왕조시대 불교가 힌두교 요소인 진언, 제사 의식, 만다라 등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약사신앙은 중생들의 치병, 재앙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약사신앙의 현세적인 성격 때문에 인도에서 유행하면서 중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중국 수대(隋代)부터 둔황에서 약사정토경변상도(藥師淨土經變相圖)가 조성되었으며, 당(唐),五代(오대), 宋(송) 이후 많은 약사여래 도상들이 조성되었다.

중국의 약사여래 신앙과 도상들이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약사불들이 조성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조성된 약사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진덕사 약사불좌상을 들 수 있다. 능곡동 산40번지에 위치한 진덕사지(능곡동 사지) 땅속에서 발견된 진덕사 약사불좌상은 1900년대 전후하여 민간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덕사 약사불좌상은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약기를 들고 있으며, 두부는 결실되어 시멘트로 보수했지만 신부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진덕사지와 진덕사 약사불좌상 관련 기록으로는 『사탑고적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사탑고적고』에서 “군자면 거모포리에 사지가 있는데 건물지로 생각되는 1평 매지가 있으며 마을 사람이 사라지고 전하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394窟, 東壁門上》

1) 박제업, 「고려시대 약사불화 연구」,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4), pp.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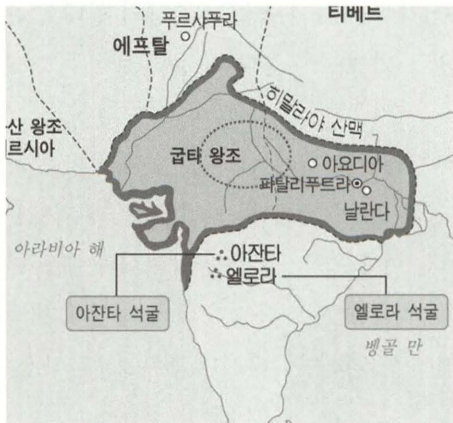
2)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시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p. 39.

는 부근에 있던 고분 5개가 모두 도굴되었고 고려시대 자기편이 산포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되었던 사찰이 오래전에 이미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진덕사지와 진덕사 약사불좌상에 관련된 『사탑고적고』 이외 다른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어 체계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⁴⁾

필자는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본고에서는 약사불도상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수대 돈황 약사정토경변상도를 다루려고 한다. 본고 II장에서는 약사신앙의 기원과 소위경전 성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수대 돈황 약사정토경변상도를 살펴보겠다.

II. 약사신앙의 기원과 성립 및 내용

1. 약사신앙의 기원



《굽타 왕조》

약사여래는 ‘약사유리광여래의 약칭이며, ‘대의왕불’, ‘의왕선사’, ‘십이원왕’, 등 다양하게 불린다. 협시보살로는 일광·월광보살이다. ‘약사’ 혹은 ‘의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불(佛)의 원망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제의 묘과(無上菩提의 妙果)를 증득케 하는 여래이다.⁵⁾

고대 인도 굽타왕조 건립 후, 베다문화를 재조직하여 성립된 힌두교는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변모되었다. 이 당시 힌두교는 속세에 관심을 두지 않

고 학문에 치우친 불교에 대승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성립시키도록 자극을 주었다. 이 당시 불교는 힌두교의 진언, 제사 의식, 만다라 등을 수용함으로써 『대일경』, 『금강정경』이 성립되었다. 이 경전들을 통해 체계화된 밀교가 탄생하였음을 의미한다.⁶⁾ 이 경전들에 도입된 다라니는 보통 재

3) 기전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 40.

4) 기전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 41.

5) 박재업, 앞의 논문, p. 4.

6) 정병조, 『인도철학사상사』, (ksih한국학술정보, 2004), p. 111.

해를 없애는 주문이라는 의미의 진언과 지혜, 학문을 뜻하는 주(呪)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총지(攄持)로 한역되기도 한다. 초기의 불교에서는 이러한 주문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예외로 교단의 팔리(pail)율·십송율·사분율(律·十頌律·四分律) 등에 나타난 치병, 호신의 목적일 경우 한해서 인정했다.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아 약사신앙 치병과 관련한 사상적 연원이 원시 불교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약사신앙은 기원전 1c ~ 기원후 2c에 성립된 대승불교경전인 『법화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화경』 「서품」에서는 약왕보살·월광보살이 등장하며, 「법사품」, 「권지품」, 「약왕보살본사품」, 「다라니품」에서 세존과 약왕보살의 대화로 진행된다. 『약사경』에서도 약왕보살과 월광보살이 등장한다. 이러한 보살들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약사여래 탄생의 배경이 되고 『약사경』이 성립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앞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법화경』이 성립될 당시 약사신앙이 이미 단독 신앙으로 문헌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법화경』의 각 품이 따로 존재하였다가 최후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고, 그중 「약왕보살본사품」은 『법화경』의 다른 품들과 달리 내용적 연관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법화경』이 성립되기 이전에 약사신앙이 하나의 독립된 신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단독 경전이 성립된 이후 『법화경』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⁹⁾

『약사경』의 성립 시기는 인도 굽타왕조 전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굽타왕조 시대에 이르면 토단을 쌓고 화로를 만들어 불을 피우고 기도하는 호마(護魔)의 작법(作法)과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에 만다라를 사용하는 공양의식이 등장한다.¹⁰⁾ 이는 약사여래 공양의식과 매우 비슷하며 주문과 경전의 수지 독송에 대한 공덕과 문수보살의 등장, 정토사상과 호국 사상에 비해 불교 경전에 늦게 등장하기 때문에 공양 의식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굽타시대 전후로 『약사경』이 단독 경전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¹⁾

7) 정병조, 위의 책, pp 263-264.

8) 박재업, 위의 논문, p. 5.

9) 히라카와 아키라 著, 이호근 譯, 『인도불교의 역사-下』, (민족사, 1989), p. 265.

10) 박재업, 위의 논문, p. 6.

11) 박재업, 앞의 논문, p. 8.

2. 약사신앙 소의경전의 성립

앞에서 살펴봤듯이 힌두교 및 원시불교의 영향을 받은 약사신앙은 『법화경』의 「서품」, 「법사품」, 「권지품」, 「약왕보살본사품」, 「다라니품」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다. 단독 경전인 『약사경』은 공양 의식이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굽타왕조 시대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경』 고대 중국으로 전파되어 5회 걸쳐 한역 되었으며 현존 4역분이 내려오고 있다.¹²⁾

번호	저 자	경 명	한역 시기	비 고
1	백시리밀다라밀 역	『관정경』 권 12 -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	東晉 (317~420)	현존
2	혜간 역	『약사유리광여래경』	劉宋 (457)	
3	달마급다 역	『불설유리광여래본원경』	隋 大業 2 年 (610)	현존
4	현장 역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唐 永徽 元年 (650)	현존
5	의정 역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唐 神龍 3 年 (707)	현존

개원 18(730) 당 승려 지승(智昇)의 『개원석교록』과 정원 16(800년) 원희(圓熙)의 『정원신정석교목록』에 의하면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을 포함한 『관정경』 권12는 동진 원제 재위 시기에 서역 쿠차 출신 백시리밀다라밀(帛尸利密多羅密)이 한역했다고 전해진다.¹³⁾ 이와 반대로 남조 양(梁)의 승려 승우(僧祐)가 510~518년에 편찬한 『출삼장기집』을 살펴보면 『관정경』 권12는 승려 백시리밀다라밀이 한역한 것이 아닌 5c 유송 승려 혜간이 ‘경전에서 초찬한 위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훗날에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이 『관정경』 권12에 편입되었다고 한다.¹⁴⁾

수대 개황 17(597)에 활동했던 승려 비장방(費長房)의 『역대삼보기』에서는 혜간은 457년에 범본 『약사경』을 한역했으며 후대에 『관정경』 권12에 수록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⁵⁾ 수대 달마급다(達摩笈多)가 새로 한역한 『약사경』에서도 혜간이 역출하여 유포시켰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훗날 『관정경』에 관련해 혜간의 초찬설과 역출설이 대립하지만 공통으로 이 경전은 백시리밀다라밀 역으로 보지 않는다.¹⁶⁾

남인도 승려 달마급다는 수 문제의 초청을 받아 590년 낙양에서 역경 업무를 맡았으며 역경 된

12) 허형욱, 「한국 고대의 약사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홍익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4), p. 9.

13) 허형욱, 위의 논문, p. 9.

14) 허형욱, 위의 논문, p. 9.

15) 허형욱, 위의 논문, p. 11.

16) 허형욱, 위의 논문, p. 11.

경전 중에 약사경전인 『불설유리광여래본원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은 남조에서 개인의 한역 또는 초찬(抄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중국 남조 문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불설유리광여래본원경』은 한역한 달마급다 승려가 태생적으로 인도 출신이며 통일된 수(隋)에서 약사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문화요소가 상대적으로 짙지는 않다.¹⁷⁾

서역에서 구법 여행을 마치고 온 현장이 한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그 이전의 한역된 약사경전들과 달리 번역이 개선되었고 내용이 충실해 돈황 막고굴 약사경 사본들 가운데 현장역본이 가장 많다. 그리고 통일신라, 일본 등 동아시아에 약사신앙의 확산과 유행에 기여했다.¹⁸⁾

백시리밀다라밀, 혜간, 달마급다 세 승려들이 한역한 약사경전들은 약사여래 한 명만 등장하는 일불경(一佛經)으로서 내용, 구성면이 유사해 동본이역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승려 의정이 한역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에서는 여섯 여래와 한 약사여래가 나오는 칠불경(七佛經)으로서 당대 새로운 약사 도상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¹⁹⁾

위에서 살펴봤듯이 『관정경』 권12 -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에 대해 훗날 혜간의 초찬설과 역출설이 대립 또는 백시리밀다라밀 한역설을 주장하는 등 복잡한 논쟁 등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약사경이 한역 된 것은 남인도 출신 달마급다가 수 문제에 초청받아 낙양에서 역경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이다. 당대에 들어서면 현장과 의정에 의해 그 전보다 약사경전의 내용, 번역 등이 개선되며 동아시아의 약사유행 및 새로운 약사 도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약사경전들에서 공통으로 약사여래의 12대원(12大願)을 소개하고 있다. 약사경전에서 말하는 약사여래의 12대원은 동방유리광정토의 약사여래가 과거에 보살일 때 성불하면 지키겠다며 중생구제를 위해 세운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약사신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대원을 살펴봐야 한다.

17) 허형욱, 위의 논문, p. 14.

18) 허형욱, 위의 논문, p. 15.

19) 허형욱, 위의 논문, p. 15.

12 대원	내용
1 대원	第一大願, 願我來世於佛菩提得正覺時, 自身光明熾然照耀無量無數無邊世界, 三十二丈夫大相及八十小好以爲莊嚴, 我身既爾, 令一切衆生如我無異. 제 1 대원, 내가 내세에 불보리로 정각을 얻을 때, 자신의 광명을 치성하게 하여 헤아릴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를 비추고, 삼십이 종의 장부의 상과 팔십 가지 소호를 가지고 장엄하며, 내 몸이 그렇게 되거든 일체중생을 나와 다름이 없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光明普照)
2 대원	第二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身如琉璃內外清淨無復瑕垢, 光明曠大威德熾然, 身善安住炤網莊嚴過於日月, 若有衆生生世界之間, 或復人中昏暗及夜莫知方所, 以我光故隨意所趣作諸事業. 제 2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몸이 유리처럼 안과 밖이 맑고 깨끗하며 다니는 티나 더러움이 없으며, 광명이 넓고 크며 위덕이 밝아져서 몸이 염망에 안주하며 장엄하되 해나 달보다 지나치며, 만약 중생이 세간에 살 때 혹 사람이 어둠에 있거나 밤에 방향을 모르거든 내 광명으로 뜻하는 바를 따라 모든 사업하기를 바라나이다. (隨意成弁)
3 대원	第三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以無邊無限智慧方便, 令無量衆生界受用無盡, 莫令一人有所少乏. 제 3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끝도 없고 무한한 지혜의 방편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중생 계로 하여금 수용해도 다함이 없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나마 모자람이 없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施無盡物)
4 대원	第四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諸有衆生行異道者, 一切安立菩提道中, 行聲聞道行辟支佛道者, 皆以大乘而安立之. 제 4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모든 중생 중에 이도를 행하는 자 있거든 모두 보리도에 편히 서게 할 것이며 성문도를 행하거나 벽지 불도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대승으로서 편히 서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安立大乘)
5 대원	第五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有衆生於我法中修行梵行, 此諸衆生無量無邊, 一切皆得不缺滅戒, 具三聚戒, 無有破戒趣惡道者. 제 5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들이 나의 법안에서 범행을 수행한다면 이 모든 중생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다 하여도 일체 계에 이지러지거나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삼취의 계를 갖추게 하고, 계를 깨뜨려 악도에 나아가는 것이 없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具戒清淨)
6 대원	第六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有衆生, 其身下劣諸根不具, 醜陋頑愚聾盲跛躄, 身變背偻白癩癲狂, 若復有餘種種身病, 聞我名已一切皆得諸根具足身分成滿. 제 6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몸이 하열하여 모든 근을 갖추지 못해서 추하고 더러우며 완악하고 어리석거나 병어리거나 장님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몸을 흔들고 등이 굽었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미쳤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병에 걸렸더라도, 내 이름을 들은 뒤에는 일체의 모든 근이 구축해지고 신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諸根具足)

7 대원	第七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若有衆生，諸患逼切無護無依無有住處，遠離一切資生醫藥，又無親屬貧窮可愍，此人若得聞我名號，衆患悉除無諸痛惱，乃至究竟無上菩提。 제 7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오지만 보호할 이가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머물러 있을 곳도 없고, 일체의 물자와 의약과도 멀리 떨어졌으며, 또한 친속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민망한 지경이더라도 이 사람이 내 명호를 듣게 되면 모든 근심이 다 없어져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며 구경의 무상보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除病安樂)
8 대원	第八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若有女人，爲婦人百惡所逼惱故，厭離女身願捨女形，聞我名已轉女人身成丈夫相，乃至究竟無上菩提。 제 8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여인이 부인이 되어 백 가지 악함의 핍박과 고뇌 때문에 여인의 몸을 싫어하고 여인의 모습을 버리고자 원하되, 내 명호를 듣거든 여인의 몸에서 장부의 모습이 되어 구경의 무상보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轉女得佛)
9 대원	第九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令一切衆生解脫魔網，若墮種種異見稠林，悉當安立置於正見，次第示以菩薩行門。 제 9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악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할 것이며, 만약 갖가지 이견의 수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두 편히 서도록 하여 바른 견해에 있게 하고, 차례로 보살행의 문을 보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安立正見)
10 대원	第十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若有衆生，種種王法繫縛鞭撻牢獄應死，無量災難悲憂煎迫身心受苦，此等衆生以我福力，皆得解脫一切苦惱。 제 10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왕법에 얹매이거나 매를 맞거나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슬픔,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거든 이러한 중생들이 나의 복력으로 일체 고뇌에서 해탈하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除難解脫)
11 대원	第十一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若有衆生，飢火燒身爲求食故作諸惡業，我於彼所先以最妙色香味食飽足其身，後以法味畢竟安樂而建立之。 제 11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굶주려서 불에 몸을 태우며 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업을 짓거든 나는 그곳에 가서 먼저 가장 묘색과 향미가 있는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먹이고 뒤에 법미를 가지고 끝내 안락을 세울 수 있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飽食安樂)
12 대원	第十二大願，願我來世得菩提時，若有衆生，貧無衣服寒熱蚊□日夜逼惱，我當施彼隨用亦服種種雜色如其所好，亦以一切寶莊嚴具花□塗香鼓樂衆伎，隨諸衆生所須之具皆令滿足。 제 12 대원,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가난하여 의복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와 모기와 벼룩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히거든, 내가 그 사람의 필요한 옷과 갖가지 색을 갖추어 그가 좋아하는 데로 베풀 것이며, 또한 일체의 보물로 장엄하고 화만을 갖추며 향수를 바르고 복과 음악과 재주로 모든 중생의 바라는 바를 갖추어 모두 만족하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美衣滿足)

약사여래의 12대원²⁰⁾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대원 광명보조(光明普照)나 제4대원 안립대승(安立大乘) 등의 보편적인 불교 일반의 소원부터 제6대원 제근구족(諸根具足), 제7대원 제병안락(除病安樂), 제11대원 포식안락(飽食安樂), 제12대원 미의만족(美衣滿足)과 같이 현세 이익적인 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願)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제6대원, 제7대원, 제11대원은 현세의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약사여래의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며, 약사신앙이 유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²¹⁾

III. 수대 돈황 약사정토경변상 도상 해석

수대 남인도 승려 달마급다가 본격적으로 경전 한역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 돈황 막고굴 벽화에 새로운 주제인 경변상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약사정토경변상도를 들 수 있다. 수대 약사정토경변상도는 돈황 막고굴 제417굴, 제433굴, 제436굴, 제394굴에 남아 있다.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417窟 窟頂後部平部〉

제417굴의 약사정토경변상도는 천장 뒤쪽 평두에 그려졌으며, 그 상단에는 미륵보살의좌삼존이 그려져 있다. 약사정토경변상도와 미륵보살도의 배치법은 『관정경』 권12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에서 나오는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을 보고자 할 때도 유리광불에게 공경히 예배하

20) 임남수, 「고대한국 약사신앙의 전개양상과 조상」, 『史林』 24(수선사학회, 2005), pp. 93-96.

21) 임남수, 위의 논문, p. 96.

라'라는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²²⁾ 당시 수대 돈황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대중들은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추구했으며 경전에서도 미륵과 약사 신앙의 관계에 대한 묘사가 더해져서 미륵과 약사 쌍방의 조합이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²³⁾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417窟 窟頂後部平部》

제417굴 약사정토경변상도는 약사여래좌상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협시보살 4명씩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8대 보살은 문수사리 · 관세음 · 득대세 · 무진의 · 보단화 · 약왕 · 약상 · 미륵보살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이러한 보살의 구성은 『관정경』 권12에서 “세상 사람들이 임종할 때 약사불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팔대보살이 극락서방정토세계로 인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⁵⁾ 여기서 말하는 왕생서방정토는 약사신앙의 목적이 아니어서 수대 이후의 경변상도에서는 더 이상 8대 보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²⁶⁾ 약사여래좌상 아래쪽에는 6층으로 구성된 윤등(輪燈) 중심으로 양쪽에 십이대원이 공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6층 윤등은 번등속명법(幡燈續命法) 의식에 쓰이는 의식구이며 번등속명법은 깃발과 등불을 사용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공양법이다. 『관정경』 권12에서는 번등속명법에 대해 번(幡)의 명칭과 길이, 등(燈)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번은 1개를 매달며 길이는 49척이다. 약사여래상은 1구를 모실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 앞에서 설치하는 1개의 등은 수레바퀴 모양의 윤등으로서의 7층 형식이며 층마다 7개의 작은 잔등(殘

22) 『관정경』,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佛告文殊! 若欲生十方妙藥國土者, 亦當禮敬琉璃光佛, 欲得生兜率天, 見彌勒者, 亦應禮敬琉璃光佛. 若欲遠諸邪道, 亦應禮敬琉璃光佛, 若夜惡夢, 鳥鳴百怪, 蜚尸邪忤, 魍魎鬼神之所嬈者, 亦當禮敬琉璃光佛. 若爲水火所焚漂者, 亦當禮敬琉璃光佛.

23) 杜雪梅, 「敦煌莫高窟第417窟研究」, (蘭州大學 考古學科 大學院 碩士論文, 2020), pp. 57-58.

24) 敦煌研究員, 『敦煌石窟全集 06卷』, (上海人民, 2001), p. 158.

25) 『관정경』,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서언: “若四輩弟子, 比丘, 比丘尼, 清信士, 清信女, 常條明六齋, 年三長齋, 或晝夜精勤一心苦行, 願欲往生西方阿彌陀佛國者, 憶念晝夜, 若一日, 二日, 三日, 四日, 五日, 六日, 七日, 或復中悔聞我說是藥師琉璃光佛本願功德, 盡其壽命欲終之日 有八菩薩, 其明日: 文殊師利菩薩, 觀世音菩薩, 得大勢菩薩, 無盡意菩薩, 寶檀華菩薩, 藥王菩薩, 藥上菩薩, 彌勒菩薩”

26) 杜雪梅, 앞의 논문, p. 56.

燈)을 얹어 놓아 총 49개의 불을 밝힌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417굴 약사정토경변상도의 윤등은 6층으로 표현되었지만 『관정경』 권12의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433窟, 窟頂東披》

제

433굴의 약사정토경변상도는 주실 천장 앞쪽 경서진 인자피(人子披) 동쪽에 위치한다. 중앙의 약사여래좌상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린 애매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 약사여래좌상 양쪽에는 팔대보살이 아닌 일요·월정보살이 각각 협시하고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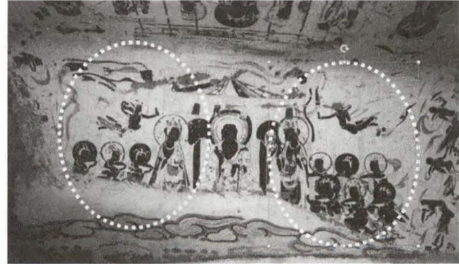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433窟, 窟頂東披》

27) 허형욱, 앞의 논문, pp. 37-41.

28) 『관정경』,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 施興一切無量衆生是爲十二微妙上願佛告文殊師利 : 此藥師琉璃光佛本願功德如是, 我今爲汝, 略說其國莊嚴之事, 此藥師琉璃光如來國土清淨, 無五濁, 無愛欲, 無意垢, 以白銀琉璃, 爲地, 宮殿樓閣悉用七寶, 亦如西方無量壽國, 無有異也. 有二菩薩, 一名日曜, 二名月淨. 是二菩薩次補佛處, 諸善男子及善女人, 亦當願生彼國土也.

협시하는 두 보살상 바깥쪽에 각각 9층으로 구성된 윤등의 꼭대기에 번이 매달려 있어 번등속 명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바깥쪽에는 각각 상하 2단으로 6명씩 무릎 꿇고 공양하는 십이 대원이 배치되어 있다.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436窟, 窟頂東披》

제436굴은 천장의 인자피 동쪽면에 약사정토경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약사정토경변상도 맞은편 인자피 서쪽면에 미륵보살이 위치해 제417굴처럼 약사신앙과 미륵신앙이 연계했음을 알 수 있다. 약사정토경변상도는 약사여래좌상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2제자, 일요·월정보살 그리고 상하 2단으로 구성된 6명씩 십이대원이 배치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약사정토경변상도의 윤등이 없지만, 천개 양옆으로는 휘날리는 번이 있어 『관정경』 권12에서 말하는 49척의 속명신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약사정토경변상도, 隋, 敦煌 莫高窟394窟, 東壁門上》

29) 허형욱, 위의 논문, p. 63.

제394굴의 약사정토경변상도는 주실 동쪽 문 위쪽에 그려졌다. 앞에서 살펴본 약사경변상도처럼 약사여래좌상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일요·월정보살과 십이신장이 6명씩 배치되어 있다. 약사여래좌상과 일요·월정보살 각 사이에 있는 용머리 장식의 번간에 오색의 번이 연결되었으며 십이대원은 보주와 같은 형태인 물건을 들고 공양을 하고 있다.³⁰⁾

수대 막고굴 제417굴, 제433굴, 제436굴, 제394굴의 약사정토경변상도에서 단독의 약사여래좌상, 8대 보살 또는 일요·월정보살, 십이대원, 번등속명법, 미륵신앙과의 연계 등이 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들은 『관정경』 권12인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약사정토경변상도는 『관정경』 권12인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 중심으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II장에서는 약사신앙이 고대 굽타왕조대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모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초기 대승부교와 밀교에서 태동하였다. 기원전 1C ~ 기원후 2C에 성립된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에서 초창기 약사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화경』의 「약왕보살본사품」은 다른 품들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단독으로 약사신앙의 형태를 갖춘 상태 후에 『법화경』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약사신앙은 고대 중국으로 전파되어 『약사경』이 5회에 걸쳐 한역 되었지만, 현존 4역분이 내려오고 있다. 그중 백시리밀다라밀이 한역한 『관정경』 권12인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은 훗날 혜간의 초찬설과 역출설이 대립 또는 백시리밀다라밀 한역설을 주장하는 등 복잡한 논쟁들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약사경이 한역이 된 것은 남인도 출신 달마굽다가 수 문제에 초청받아 낙양에서 역경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이다. 당대에 들어서면 서역으로 구법여행을 갔다 온 현장과 의정에 의해 그 전부터 약사경의 내용, 번역 등이 개선되며 동아시아에 약사신앙의 유행 및 새로운 약사 도상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수대 남인도 승려 달마굽다가 본격적으로 경전을 한역 작업하기 시작하자 돈황 막

30) 허형욱, 앞의 논문, pp. 63-64.

고굴 벽화에 새로운 주제인 다양한 경변상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제417굴, 제433굴, 제436굴, 제394굴 약사정도경변상도를 들 수 있다. 수대 돈황 막고굴 약사정도경변상도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독 약사여래좌상, 8대 보살 일요·월정보살, 십이대원, 번등속명법, 미륵신앙과의 연계 등 표현 요소들이 『관정경』 권12인 「불설관정발사과죄생사득도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수대 돈황 약사정도경변상도는 『관정경』 권12 경전 중심으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재업, 「고려시대 약사불화 연구」,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시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 정병조, 『인도철학사상사』, (ksi한국학술정보, 2004)
- 히라카와 아키라 著, 이호근 譯, 『인도불교의 역사-下』, (민족사, 1989)
- 허형욱, 「한국 고대의 약사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홍익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임남수, 「고대한국 약사신앙의 전개양상과 조상」, 『史林』 24(수선사학회, 2005)
- 杜雪梅, 「敦煌莫高窟第417窟研究」, (蘭州大學 考古學科 大學院 碩士論文, 2020)
- 敦煌研究員, 『敦煌石窟全集 06券』, (上海人民, 2001)
- 김유나, 「통도사 약사전〈약사불회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9)

세종대왕과 양부일구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 I. 들어가며
- II. 세종 정신
- III. 양부일구
- IV. 여주 도자기 산업
- V. 양부일구의 상품화
- VI. 나가며

집필자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여주처럼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고장도 드물다. 여주 땅을 속속들이 적셨던 여강 가에는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점동면 혼암리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탄화미는 여주가 한반도 벼농사의 원류임을 입증했다. 풍성한 물과 기름진 토양, 온화한 기후는 맛있고 질 좋은 산물들을 넘치도록 길러내었다. 사람은 자연을 닮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주의 인심은 넉넉했고 풍속은 아름다웠다.

여주와 함께 한 인물들의 면모에서 여주의 빼어난 문화는 빛을 더한다. 선종의 봉림산문을 개창한 원감국사 현옥, 우리나라 최초로 수륙재를 행한 홍제존자 혜거, 뛰어난 외과술로 전쟁을 막고 국토를 확장한 서희,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지심경의 저자인 백운 화상 경한, 대중 앞에서 신돈의 전횡을 비판한 이집, 우리말 가사로 불교의 이치를 전한 나옹화상 혜근, 여주를 사랑하여 여주에서 생을 마친 여말선초의 대학자 이색, 이성계와 더불어 권력을 다 두었던 염흥방, 정몽주와 함께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김구용, 세종대왕의 외할아버지 민제 등 고려와 조선 초기 여주의 인물들은 눈이 부실 정도다.

뿐만 아니라 기천서원의 김안국, 이언적, 홍인우, 정엽, 이원익, 이식, 홍명구, 홍명하, 고산서원의 이존오, 조한영, 대로사의 송시열. 경주 김씨, 여흥 민씨, 안동 김씨 등 여주의 대표적인 문중에서 배출한 9명의 왕비들. 효종대왕을 중심으로 북벌을 꿈꾸었던 원두표와 이완과 마지막 북벌론자 윤휴. 의병장 심상희, 원용팔, 이인영, 민용호. 독립운동가 홍병기, 조성환, 엄항섭. 천지만물이 하늘을 모신 존재이므로 하늘로써 하늘을 먹여살리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우주적 상리를 깨달아서 만물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갈파한 최시형 등은 여주인들이 5백 년의 조선을 가능케 한 버팀목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대왕릉이 옮겨오면서 여주라는 지명을 얻게 된 여주는 세종대왕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어머니의 고향, 아버지와 함께 3차례 방문, 자신의 원찰 신륵사, 지음(知音) 같던 누나의 묘가 세종대왕과의 인연을 돈독하게 하지만 필연의 핵심은 세종대왕이 552년 동안 여주에 영면하면서 세종 정신이 여주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 있다. 세종대왕의 능침인 영릉은 세종 정신을 추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출발점이며 세종대왕을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태평성대의 시작점이기에 그러하다.

이처럼 화려하고 당당했던 여주의 왕년은 내륙의 도로가 개설되어 여강의 수운이 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빛을 잃게 되었다. 이후 고속성장을 하던 산업화 시대에도 지역 발전의 동력

을 찾지 못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쳐, 온 국민이 전전긍긍했을 때도 여주는 고요했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구가 정체되고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2019년 한국 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의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여주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¹⁾

이러한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잊고 있으나 여주가 가진 소중한 자산인 세종 정신을 돌이켜보고 그 정신의 발로인 양부일구를 살펴보면서 여주가 헤쳐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세종 정신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맹자가 말했다. 이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겸손히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²⁾ 이것이 이른바 4단(四端)으로 측은지심은 사랑의 시작이요, 수오지심은 정의의 시작이며,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고, 시비지심은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맹자는 4단을 일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다리 즉 사지(四肢)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4단을 확대해 가득 차게(擴充)할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아서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삶 속에서 이 4단을 온전히 구현하였다.

1. 인(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인은 사랑하는 것이며, 가엾게 여기는 것이며, 애처롭거나 안타까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도 아니었다. 주인이나 관청에 팔려 사고 팔리고 상속되는 재산에 불과하

1) 이상호,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7쪽.

2) 박경환역, 『맹자』 「공손추」, 94쪽.

였다. 그러나 세종대왕에게 있어 노비는, 비록 하는 역할이 천한 천민(賤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늘이 낸 하늘 백성, 즉 천민(天民) 아님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아이 낳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큰일이었다. 세종대왕이 노비의 출산에 비상한 관심을 쏟았다. 당시에는 산후 휴가가 일주일이었다.

“경외 공처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 세종 8년 4월 17일

7일의 휴가를 100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전 휴가 1개월을 더 주었다.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가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고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 세종 12년 10월 19일

남편 노비에게도 육아를 도와주고 아내를 돌보아 주라고 1개월의 휴가를 주었다.

“경외의 비자가 아이를 배어 산삭에 임한 자와 산후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 세종 16년 4월 26일

2. 의(義)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의의 시작이다.

의는 마땅한 것이며, 도리에 맞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며, 공평 공정한 것이며, 이로운 것이며, 선량한 것이다.

경상도 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범죄에 대한 징계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공정한 시행이다. 세종대왕은 이를 자신의 질책으로부터 시작했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는 제 아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德)이 없는 까닭이로다.” 하였다. - 세종 10년 9월 27일

세종대왕이 스스로 자책하며 살인의 죄를 미워하며 징계하였으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에 일찍이 진주 사람 김화가 그 아버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낮빛을 변하고는 곧 자책하고 드디어 여러 신하를 소집하여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니 (중략) 이에 이르러 임금이 직제학 설순(僉僉)에게 이르기를, “이제 세상 풍속이 박악하여 심지어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효행록》을 간행하여 이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록 폐단을 구제하는 급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로 교화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전에 편찬한 24인의 효행에다가 또 20여인의 효행을 더 넣고, 전조와 삼국시대의 사람으로 효행이 특이한 자도 또한 모두 수집하여 한 책을 편찬해 이루도록 하되, 집현전에서 이를 주관하라.” 하였다. - 세종 10년 10월 3일

삼강행실도가 만들어지자 세종대왕은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급하도록 하였다. 널리 민간에 퍼서 어진 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귀한 사람·천한 사람·어린이·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즐겨 보고 익히 들으며, 그 그림을 구경하여 그 형용을 상상하고, 그 시를 읊어서 인정과 성품을 본받게 하려 함이었다.

편찬을 마치니,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고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삼강 종류별로 모아서 책을 만들고, 문사로 하여금 칭찬하는 시를 짓게 하여, 그들의 의열을 잘 표현하고, 화공으로 하여금 도상을 그리게 하여 정말 그 형용이 방불합니다. 장차 나라의 수도에 반포하여 드디어 여항에 보급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눈으로 보는 자가 그 누구인들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으리까. 거의 감격하고 훈도되어 마침내는 분발하여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떳떳한 도리를 드높이고 세상에 교화를 부

식하여, 다행하게도 태평 성세를 친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왕도를 준수하여 화평한 시대를 이루어서, 길이 영원한 후세까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 세종 14년 6월 9일

3. 예(禮)

겸손히 양보하는 마음이 예의 시작이다.

예는 신을 공경하는 것이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후대하는 것이며, 장엄한 것이며, 거들떠보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였으나 적당히 마시고 그칠 줄 알았다[適中而止]. 즉위 초 계속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지 않게 되자 곡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한시적인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주령을 어긴 자에게 죄를 물을 때에는 가벼운 형을 채택하도록 배려하였다.

“요사이 수재가 너무 심하므로, 유사의 청함을 기다리지 않고 술을 금하는 영을 내렸는데, 어리석은 백성 중 금령을 범한 자는 모두 제서를 위반한 죄로 중하게 논죄하니 실로 온당하지 못하다. 금후부터는 금령을 범한 자는 위령죄로써 논죄하라.” - 세종 3년 7월 5일

세종대왕에게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 신하들이 임금의 옥체를 생각하여 약으로써 술을 드시라고 권하자 백성들에게는 술을 금지하면서 임금인 자신이 마실 수는 없다며 사양하였다. 예의 시작이 되는 사양지심은 이처럼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겸손히 거절하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일이다.

“가뭄의 재앙은 그 책임이 실로 나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비록 약에 타서 쓸 한 잔 술이라도 다시 내전에 들이지 말라.” 하였다. - 세종 5년 5월 2일

임금에게 술 드시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 한 잔이 비록 하늘의 뜻을 돌릴 힘은 없으나, 마음에는 실로 미안함이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세종 5년 5월 6일

“전하께서 술을 들지 않으신다면 장차 앞서 병이 다시 발생할까 두려우니, 신 등의 청을 굽어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윤택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 세종 8년 5월 11일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금주령은 필요하다. 그런데 단속의 효과가 양반과 세도가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세종대왕은 이 딜레마를 법 적용의 완화를 통해서 해소하려 하였다. 가족을 위한 잔치나, 약주로 쓰기 위해서거나,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은 경우에 단속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주령의 효과는 지속시키되 불만은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마땅히 금주해야 하나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자와 약으로 먹는 자는, 함부로 마시는 사람과 일체로 과죄하지 말고, 자세히 정상의 경중을 살펴서 과죄하되 그 정상이 가금한 자는 석방하라.” 하였다. - 세종 18년 4월 17일

“오는 3월 초 1일 때부터 금주를 시작하되, 그중에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은 자와 부득이한 일로 술을 약으로 쓰는 자는 술을 함부로 마시는 예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정상의 경중을 분별하여 태형 40대 이하로 등급을 매겨서 처벌하고, 정상이 아주 경한 자는 논하지 말게 하라.” - 세종 27년 2월 1일

4. 지(智)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의 시작이다.

지는 슬기로운 것이며, 총명한 것이며, 지모와 책략이 있는 것이며, 사리에 통달한 것이며, 아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다.

형조에서 황해도 곡산(谷山)에 사는 양민 여자 약노(藥奴)의 살인죄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아뢰었다. 죄목은 주문을 외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형조에서는 나름대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그 술법을 닭과 개에게 실행 시켜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그 까닭을 약노에게 물으니 간힌 지 오래되어 주문에 접하는 귀신이 몸에 붙어있지 않아 영험이 없어져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 황당한 사건에 의문을 품은 세종대왕이 사건을 의금부로 보내 재조사를 명하면서 좌부승지 정분(鄭苯)에게 내막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정분이 가서 문초하니, 조금도 숨기는 짓이 없이 주문 외는 술법을 다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빨리 나를 죽여 주오.” 하였다. - 세종 15년 7월 19일

약노는 옥에 갇혀 있는 지가 10년이 되었고 보호하여 부양할 자가 없었다. 그동안 문초하는 형장을 11차례나 맞았고 의금부에서 또 15차례 형장을 가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 뒤 정분이 다시 와서 물었다.

“임금께서 너의 여러 해 동안 갇혀서 때리는 매에 고통받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정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시니, 네가 과연 주문 외는 술법으로 사람을 죽이었으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마는, 만약 매에 못 이기어 거짓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없고 딱한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 - 세종 15년 7월 19일

이에 설움에 겨웠던 약노가 하늘을 우리러 통곡하며 대답하였다.

“본래 주문 외는 일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마침 내가 밥을 먹여 주었던 때라 이로써 나를 의심하고 강제로 형벌을 수없이 하여 꼭 자복을 받으려 하므로, 고문과 매 때림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실정대로 말한다고 하여도 또 형장을 쓸 것이니, 내가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빨리 나를 죽여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내 통곡하였다. - 세종 15년 7월 19일

세종대왕이 이를 듣고 측은히 여겨 제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도중에 먹을 죽과 밥을 주게 하였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바꿔가며 10년 동안 문초하였어도 약노에 대한 판결은 변함없이 사형이었다. 이 사건은 매사를 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종대왕에 의해 바로잡혀졌다.

Ⅲ. 양부일구

세종대왕의 삶을 통한 4단의 확충은 양부일구의 제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제작과 설치

조선시대 대궐의 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 열며, 도성문은 인정에 닫고 파루에 연다는 규정이 있었다.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다. 종이나 북이 울리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줄 알면 되었다. 이처럼 시간의 객체로 살던 조선 백성에게 세종대왕은 시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간의 주체가 되게 하였다.

도성 안의 모든 사람에게 통행 금지의 시작과 해제를 알리는 인정과 파루는 전 근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보였다. 보통 인정은 초경 3점(밤 10시경)에 종을 28번을 치고, 파루는 5경 3점(새벽 4시경)에 북을 33번 쳤다. 28번을 친 것은 별자리 28수(宿)에서 유래한 것이고 33은 불교의 33천(天)에서 유래한 것이다.³⁾

양부일구라는 해시계가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양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였다. 집현전 직제학 김돈(金墩)이 명을 짓기를 “모든 시설에 시각보다 큰 것이 없는데, 밤에는 경루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구리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 모양이 가마솥과 같고, 지름에는 둥근 톱니를 설치하였으니 자방과 오방이 상대하였다. 구멍이 꺾이는 데 따라서 도너 겨자씨를 점찍은 듯 하고, 도수를 안에 그었으니 주천의 반이요, 신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각과 분이 소소하니 해에 비쳐 밝은 것이요, 길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만들 줄을 알 것이다.” 하였다. - 세종 16년 10월 2일



〈청동제 양부일구, 조선 후기, 보물 제845호, 국립고궁박물관〉

3) 장영실 테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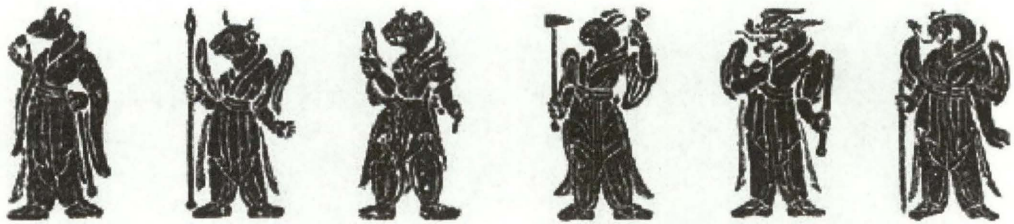
무지한 남녀들이 시각에 어두우므로 양부일구 돌을 만들고 안에는 시신(時神)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자로 하여금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하나는 혜정교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 - 세종 19년 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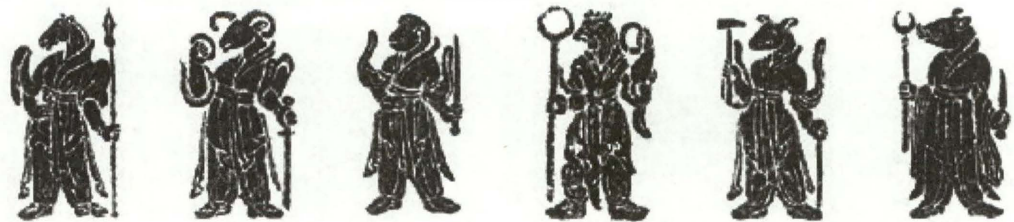
〈양부일구가 설치되었던 혜정교와 종묘 앞 도성도〉, 국립중앙박물관

세종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세종시대 양부일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① 낮에도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② 구리로 만들었는데 가마솥 같고 지름에는 둥근 막대를 설치하여 남과 북이 서로 마주하게 하였다. ③ 구멍이 꺾이는 데 따라서 도니 겨자씨를 점찍은 듯하다. ④ 도수를 안에 그렸으니 주천(周天)의 반이다. ⑤ 신(神)의 몸을 그렸으니 글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⑥ 각(刻)과 분(分)이 명백하니 해에 비쳐 밝은 것이다. ⑦ 길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⑧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만들 줄을 알 것이다.

특이한 것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시간을 알리는 시신을 그림으로 그려 누구나 쉽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했고 사람들이 쉽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시계를 길옆에 설치했으며 그 시계를 보고 백성들이 스스로 시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子(자)	丑(축)	寅(인)	卯(묘)	辰(진)	巳(사)
23~1시	1~3시	3~5시	5~7시	7~9시	9~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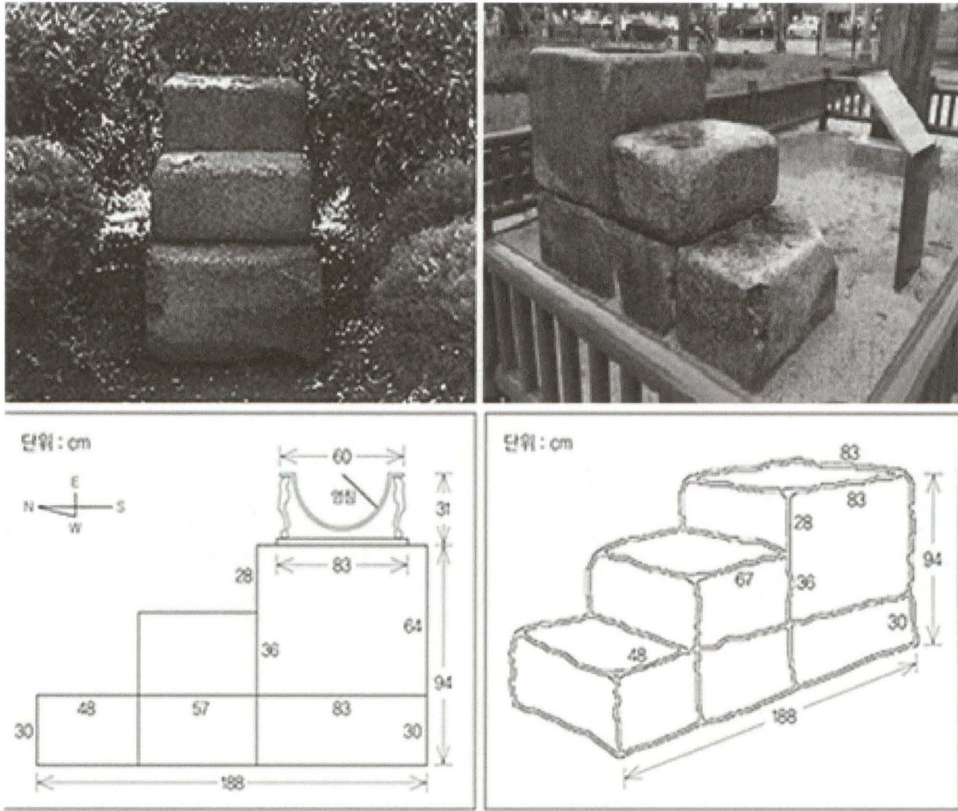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午(오)	未(미)	辛(신)	酉(유)	戌(술)	亥(해)
11~13시	13~15시	15~17시	17~19시	19~21시	21~23시

〈12지신도와 시간 - blog, daum, net〉

양부일구와 관련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종로 전차 부설공사 당시 양부일구 받침대와 2개의 계단을 발견한 일이다. 94cm 높이의 대 위에 설치된 양부일구를 어린아이도 올라가서 볼 수 있게 계단 2개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4단의 확충, 인간의 착한 본성이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지고 채워졌던 아름다운 증거다.

4) 김슬옹, 「한민족문화연구」 제27집, 177쪽.



〈종로에 있는 양부일구대와 도면〉 - 네이버 이미지

2. 구조

세종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양부일구는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의 양부일구를 토대로 후대에 제작되어 전해진 양부일구의 기본 형태는 영침과 시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침은 해 그림자가 맺히는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키고, 시반은 해 그림자를 받아 절기와 시각을 읽는 오목한 반원형의 구를 말한다. 절기는 24절기를 표시해 놓았고 해시계이므로 해가 떠있는 낮 시간(묘시 - 유시)만 표시해 놓았다.

양부일구 즉 오목해시계는 시반이 조금 복잡하다. 시각선 뿐만 아니고 계절선이 있는 것이다. 즉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절기를 13개의 가로선으로 나타내어 절기를 알게 했다. 동지 때는 태양의 일중고도가 제일 낮으니까 해그림자가 가장 길어진다. 반대로 하지 때는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으니까 해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원리에 따라 줄을 그은 것이다. 그래서 영침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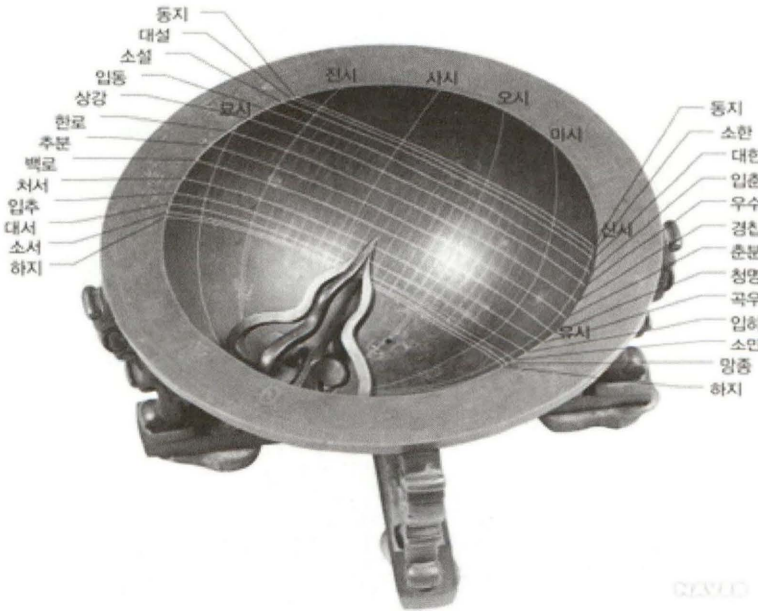
자 끝이 가리키는 선이 그때의 절기가 된다. 이에 수직으로 시각선을 그었다. 시반이 오목하니까 시각선들은 평행하게 등분되어 있다. 아침 해가 떠서 저녁해가 질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나타나 있다. 묘시에서 유시까지이다. 한 시(時)는 반으로 등분되어 초(初)와 정(正)이 되고, 그것은 다시 각각 4등분 되어 각(刻)이 된다. 즉 하루 12시를 각각 팔 등분한 것이다. 지금의 15분 간격으로 시각선이 그어진 셈이다. 하루의 중간인 오(午)시를 예로 들어 보자. 영침의 그림자가 사(巳)에서 오시로 가면서 오초 1각, 2각, 3각, 4각 그리고 오정 1각, 2각, 3각, 4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지금의 15분 간격의 시간개념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⁵⁾



〈양부일구의 구조 - 장영실 테마관, 네이버 지식백과〉

5) 전상운, 「한국과학사」 99 - 100쪽.

3. 절기선



〈장영실 테마관, 네이버 지식백과〉

절기선은 시반에 그려진 가로선이다. 각 절기의 간격이 15일이어서 한 달에 절기가 두 번 들어간다. 그래서 일 년을 24절기로 나누는데 양부일구의 시반에는 절기선이 13개만 그려져 있다. 그 이유는 동지와 하지 사이의 22개 절기 중에 해의 길이가 같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을 좌우 대칭으로 나누어 배치하면 13개의 선으로도 1년의 절기를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절기는 계절을 세분화한다는 뜻으로, 중국 주나라 때 처음으로 완성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이 있다. 평기법은 1태양년의 시간 길이를 등분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24기(氣)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에 의하면 평기법은 절기 사이가 15.218일로 일정하지만, 지구와 태양의 운동에 따른 천문학적 관계를 계절적 변화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기법은 천구상의 황도(태양이 움직이는 궤적)를 15° 간격으로 24등분하고, 태양이 각 등분점을 통과할 때를 24기(氣) 입기(立氣) 시각으로 정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기법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을 그리기 때문에 절기 사이가 14~16일로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기법은 계절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⁶⁾

6) 진미정, 박선엽, 「우리나라 기후 절기별 기온변화의 시공간적 특성분석」.

24 절기표

계절	절기	음력	양력
봄 (春)	입춘 (立春)	정월 (一月)	2 월 4, 5 일
	우수 (雨水)		2 월 19, 20 일
	경칩 (驚蟄)	이월 (二月)	3 월 5, 6 일
	춘분 (春分)		3 월 21, 22 일
	청명 (淸明)	삼월 (三月)	4 월 5, 6 일
	곡우 (穀雨)		4 월 21, 22 일
여름 (夏)	입하 (立夏)	사월 (四月)	5 월 6, 7 일
	소만 (小滿)		5 월 21, 22 일
	망종 (芒種)	오월 (五月)	6 월 6, 7 일
	하지 (夏至)		6 월 21, 22 일
	소서 (小暑)	유월 (六月)	7 월 7, 8 일
	대서 (大暑)		7 월 23, 24 일
가을 (秋)	입추 (立秋)	칠월 (七月)	8 월 8, 9 일
	처서 (處暑)		8 월 23, 24 일
	백로 (白露)	팔월 (八月)	9 월 8, 9 일
	추분 (秋分)		9 월 23, 24 일
	한로 (寒露)	구월 (九月)	10 월 8, 9 일
	상강 (霜降)		10 월 23, 24 일
겨울 (冬)	입동 (立冬)	시월 (十月)	11 월 7, 8 일
	소설 (小雪)		11 월 22, 23 일
	대설 (大雪)	동지 (十一月)	12 월 7, 8 일
	동지 (冬至)		12 월 22, 23 일
	소한 (小寒)	선달 (十二月)	1 월 6, 7 일
	대한 (大寒)		1 월 20, 21 일

〈양부일구 복원문제와 의사소통 교육, 2008, 김슬옹, 참조〉

4. 시각선



〈장영실 테마관, 네이버 지식백과〉

시각표

12 시각	현대말	현대시간	밤낮	밤시각
자시 (子時)	쥐때	23 - 1 시	밤	삼경 (三更)
축시 (丑時)	소때	1 - 3 시		사경 (四更)
인시 (寅時)	범때	3 - 5 시		오경 (五更)
묘시 (卯時)	토끼때	5 - 7 시	낮	
진시 (辰時)	용때	7 - 9 시		
사시 (巳時)	뱀때	9 - 11 시		
오시 (午時)	말때	11 - 13 시		
미시 (未時)	양때	13 - 15 시		
신시 (申時)	원숭이때	15 - 17 시		
유시 (酉時)	닭때	17 - 19 시		
술시 (戌時)	개때	19 - 21 시	밤	초경 (初更)
해시 (亥時)	돼지때	21 - 23 시		이경 (二更)

〈양부일구 복원문제와 의사소통 교육, 2008, 김슬옹, 참조〉

세종 때의 앙부일구는 하루를 100각으로 나누는 눈금을 사용했다. 세종 때는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력의 장점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쳐 만든 「칠정산내편」에 따라 하루를 100각으로 나누었다. 당시 1각은 100분이었으므로, 하루는 10,000분이 되었다. 즉 1일을 12신(辰), 100각(刻), 10,000분(分)으로 나누어 시간을 계산했다. 또 1신은 초와 정으로 나누고 초와 정은 각각 5각으로 등분했는데 마지막 4각은 다른 각의 1/6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1일은 100각이며 10,000분으로 1각은 100분이고 1신은 8과 1/3각이 되는 것이다.

12시 100각

초각	1 각	2 각	3 각	4 각	초각	1 각	2 각	3 각	4 각
초 (初)					정 (正)				
매시 (每時, 辰)									

* 김상혁의 PLUS 과학문화재 참조

1653년(효종 4) 서양식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으로 개력하면서 조선의 시간은 1일 100각에서 96각으로 바뀌었다. 100각법에서 24개의 소각을 빼고 매 초와 정마다 4개의 대각으로 구분했다. 즉, 초각, 1각, 2각, 3각이 모두 동일한 시간 길이로 현재의 15분과 같으며, 따라서 매 초와 정은 현재의 60분이 되어 정확히 현재의 시제와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96각법에 의한 시각은 현재의 시각으로 바로 환산이 된다.⁷⁾

12시 96각

초각	1 각	2 각	3 각	초각	1 각	2 각	3 각
초 (初)				정 (正)			
매시 (每時, 辰)							

* 김상혁의 PLUS 과학문화재 참조

사진과 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앙부일구는 시간만 측정하는 해시계가 아니다. 날짜를 함께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하지(6월 21일경)에는 하지선을 따라 해 그림자가 움직이고, 동지(12월 21일경)에는 동지선을 따라 그림자가 움직인다. 춘·추분에도 마찬가지로 다. 앙부일구의 둥근 시반 면에는 태양의 적위값 변화에 따라 13개의 절기선이 그려져 있다. 24기 중 태양 적위값이 유사한 건 하나로 간주해 13개의 선으로 태양의 운동을 표현했다. 조선시대 앙부일구에 적용된 독창적인

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방식이다. 아울러 시반면의 시각선을 통해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 그리고 해의 출몰 방향까지 알 수 있었다.⁸⁾

IV. 여주 도자기 산업

양부일구는 원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중 시계였다. 그러던 것이 시간의 소중함이 일깨워지고 시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휴대용으로 발전하였다. 휴대용 양부일구 중에서 상아로 만든 양부일구가 눈에 띈다. 도자기의 고장 여주에서 상아를 대신한 도자기 양부일구가 만들어졌었고 지금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여주 도자기의 역사

여주 도자기의 역사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여흥도호부 북쪽 관산에서 중품 도기를 생산하는 도기소가 있다고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1920년경에는 요강과 막사발을 만드는 요장이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에 4개소, 오금리에 2개소, 당우리에 1개소, 외룡리에 1개소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여주의 요업에 관한 자료가 있다.

여주 북내면 오금리의 도자기 공장(1924)

명칭	위치	공장주명	창립일	건평	직원	연중 가동일수	생산품	
							종류	수량(개)
자기점	오금리	김수금	1907. 2	20	7	186	자기	48,240
"	"	장규환	"	19	"	148	"	35,240
"	"	함영섭	1916. 6	17	"	175	"	45,010
"	"	이문영	1917. 6	"	6	120	도기	10,110

* 여주군 오금리 조사보고서 참조

8) 한국일보(2020. 11. 28)에서 발췌.

2004년에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북내면뿐만 아니라 강천면에서도 집중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주군 도자유적 통계표(지역별)

면 도자	산북면	금사면	북내면	강천면	능서면	가남면	점동면	계
청자			12	3				15
백자	1	1	27	22	1	1		53
도기			5				1	6
기타			1	2				3
계	1	1	45	27	1	1	1	77

* 여주군 도자유적 분포지도 참조

해방 이후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도자 산업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도자기 수요 팽창과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수많은 도자기 공방들이 여주에 생기기 시작하였다.⁹⁾

여주의 도자기 산업은 한때 600여 개의 공방이 모여 전국 생활 자기의 60%를 생산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수요보다 공급이 커진 구조 속에서 서로들 판매에 급급해 이윤이 줄어들고 생산비 회수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도예 공방을 전업으로 하지 못하고 주문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공방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1985년에 여주민속도자기 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990년부터 매년 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주 도자기의 명성을 되찾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여주 도자기의 현실

한국도자재단이 조사한 '2018 도자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1,647개 도자업체 중 54.7%인 902개가 경기도에 있다. 도자 산업 매출은 2015년 3,026억 원에서 2018년 2,353억 원으로 673억 원(28.5%)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이천의 도자 매출은 380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여주의 도자

9)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28쪽.

매출은 456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줄어 각각 43%와 37%의 감소율을 보였다.

1인 도자업체 수는 2004년 32%에서 2015년에 42.1%로, 2018년에는 46%로 증가했다. 10인 이상 도자업체는 2004년 5.7%에서 2018년 2.8%로 감소했다. 3인 이상 도자업체도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영세화하고 있는 도자업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런 도자 산업의 위기를 물가 상승, 시장변화, 정책 부재에서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도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도예 종사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¹⁰⁾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

연도	업체수	종사자수	성별	
			남	여
2015 년	343 개	1,274 명	735 명	539 명
2016 년	330 개	1,259 명	757 명	502 명
2017 년	335 개	1,152 명	660 명	492 명
2018 년	314 개	1,059 명	616 명	443 명
2019 년	310 개	1,025 명	593 명	432 명

* 여주시청 통계, 2019

우울한 전망은 또 이어진다. 국내 도자기업체의 쇠락은 다양한 가격대로 무장한 외국 업체의 공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의성을 추구해 단품 위주로 저렴하게 식기를 구매하는 1인 가구가 증가했음에도 수십만 원 상당의 반상기 세트만을 출시해 저가 시장을 놓친 동시에 프리미엄 이미지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고가 시장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산업경제학회에 따르면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의 수입액이 2000년 3,2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8,000만 달러로 462.5% 증가하는 동안 출하액은 1,703억 원에서 1,738억 원으로 2.05% 증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불황 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몇 년간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저가와 고가로 양극화됐다”라며 “저가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고가 시장은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서 국내 업체의 위치가 흔들린 것”이라고 분석했다.¹¹⁾

10) 경인일보(2019. 6. 17)에서 발췌.

11) 서울경제신문(2018. 3. 26)에서 발췌.

V. 양부일구의 상품화

여주 도자기 산업의 어려움은 지속적 연구의 부족, 체계적 지원의 부진, 명품 브랜드화의 부재, 마케팅 전략의 부실 등에서 비롯되었다. 도자기 선진국들의 도자기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그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내용의 충실함이 부럽게 다가온다.

도자기 선진국의 산업지원 정책방향과 내용

구 분	정책 방향	내 용
유럽연합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제공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 운용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수출장려, 컨설팅 제공, 도자 제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 육성
미국	문화와 결합한 기술연구 프로젝트 지원, 인재육성 지원	지역별 · 소재별 DB 관리하며 리서치와 교육목적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자 산업 지원
일본	기술선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요업기술 센터 운영	기술혁신, 정보화 정보제공, 새로운 기술 상용화 및 국제 교류, 정부 · 지자체 등이 출자한 기관을 통한 시장개척
중국	전문화된 연구지원을 위한 요업기술센터 운영	품목별 전문연구, 신기술 응용연구, 표준센터, 정보센터, 품질감독 검사소 운영

* 도자기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구매성향 분석, 2019, 손상희, 참조

이런 가운데 최근 여주도자기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매동기와 구매 성향을 분석한 연구자료가 발표되었다. 여주 도자기 산업의 오랜 불황을 타개할 유효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도자기 구매자들의 특성

구 분	순 위
선호도	① 수공예작가 도자기 ② 대량생산 도자기
구매품목	① 생활자기 ② 커피잔 · 다기 ③ 내열자기 ④ 장식품 ⑤ 악세서리
구매이유	① 유행 · 트렌드 제품 ② 품질 우수 ③ 소장 목적 ④ 친환경 소재 ⑤ 디자인
구매자 여가성향	① 가족과의 시간 ② 여행 ③ 모바일 검색 ④ 친구 만남 ⑤ 교양 강화

* 도자기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구매성향 분석, 2019, 손상희,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족의 가치와 삶의 의미 찾기를 중시하는 구매자들의 성향이다. 지금까지 여주 도자기 산업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생산에만 몰두해왔다. 결과는 도자기 산업의 쇠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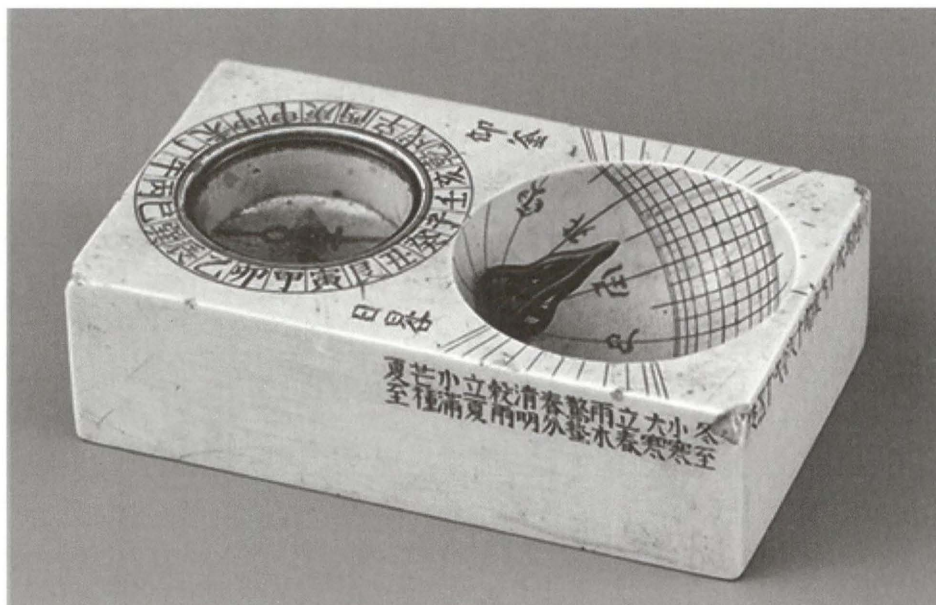
참담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지원정책의 틀을 새로 세우고 구매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사고로부터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정책을 세워 방향을 정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성과를 끌어내는 것은 인의예지의 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하여있는 인의예지를 촉발하는 4단과 그것의 실천과정에서 만들어진 양부일구의 상품화가 여주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1. 여주 도자기를 대표하는 품목으로서의 양부일구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여주도자기 축제에는 대표상품이 없다. 여주의, 여주 만의 특색이 있는 상품이 없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도자기 축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여주에서도 등장한다. 새로운 구매 의욕이 일어날 리 만무하다.

여주 도자기의 대표상품으로서의 휴대용 양부일구는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세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30여 년 전에 휴대용 도자기 양부일구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도예 작가는 ‘그 당시 도자기 양부일구는 단순한 기념품이었는데 지금은 나침반, 고도계를 장착한 실용적인 휴대용시계로서의 도자기 양부일구 제작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휴대용 양부일구 - 보물 제852호, 국립중앙박물관 이미지〉

2. 진태양시(True Solar Time)의 측정도구로서의 양부일구

양부일구로 측정한 그 지방의 태양시를 진태양시라고 한다. 우리가 쓰는 시계의 시간은 평균태양을 가정한 평균태양시다. 평균태양시와 진태양시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균시차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의 지방 평균시를 표준시로 채택하고 있다. 동경 127도에 있는 서울에서는 대략 12시 32분에 태양이 남중한다. 이는 경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차다. 그러므로 양부일구가 가리키는 시간을 보고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알려면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면 된다.

$$\text{한국표준시}^{12)} = \text{진태양시} + \text{균시차} + \text{경도차에 의한 시간차}$$

표준시와 진태양시를 구분하는 일에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겠지만,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여 30여 분이나 앞당겨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간 체계가 찢찢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양부일구는 주체적으로 우리 땅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알려주는 우리의 시계다.

3. 인간 본성인 4단의 상징으로서의 양부일구

인간의 본성은 선(善)으로 가득 차 있다. 선은 착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며 좋은 것이며 친절한 것이며 깨닫는 것이며 마음에 드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양부일구를 만들면서 백성들도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한 것은 올바른 것이며 그림을 그려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것은 친절한 것이며 계단을 만들어 작은 사람도 볼 수 있게 한 것은 착한 것이며 스스로 시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양부일구를 만든다면 그것은 선한 상품이다.

12) 「측정표준 사료복원(양부일구)」 연구보고서 42쪽.

4.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콘텐츠로서의 양부일구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는 음악 신동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인구는 15만 명으로 여주보다 조금 많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를 상품화하여 먹고산다. 초콜릿, 각종 의류, 그림카드, 머그잔, 요구르트, 소시지, 맥주잔, 골프공, 인형, 케이크, 인터넷 게임에 모차르트 이름과 얼굴 그림이 붙어있다. 음악 공연장, 호텔, 식당 등에는 관광객이 넘쳐난다. 모차르트에서 상품으로 내려가는 구조다. 여주는 양부일구에서 세종 정신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가능하다. 양부일구를 통해 세종대왕이 몸소 구현해 낸 4단이라는 콘텐츠는 모차르트처럼 단순 상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태평성대라는 지상천국으로의 확장을 지향한다. 작은 이윤에 매달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흥익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VI. 나가며

화려했던 왕년의 추억은 오늘을 슬프게 하기도 한다. 인구 정체와 노령화는 여주의 슬픔을 더욱 부추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본 세종 정신에서 슬픔 너머의 희망을 보았다.

세종대왕은 천민(賤民)인 노비를 하늘이 내려준 천민(天民)으로 인식했다.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대접을 했다. 아이를 낳은 여자 노비의 몸조리 기간을 100일로 늘리면서 남편 노비에게도 1달간의 육아 휴가를 주고 아내 노비에게는 다시 산전 휴가 1달을 더 주었다.

진주사람 김화가 제 아버를 죽였다는 보고를 받고 세종대왕은 얼굴색이 변하였다. 김화를 엄한 형벌로 다스리게 하고는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자신을 책망하였다.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효자, 충신, 열녀의 기록들을 모아 《삼강행실도》를 펴냈다. 문사에게 시를 짓게 하고 화공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모두가 본받게 하였다.

계속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음에도 백성들이 곡식으로 술을 빚어 먹는 일이 발생하자 세종대왕은 한시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는 가벼운 벌을 적용하라고 당부하였다. 여러 가지 숙환으로 고생하는 임금에게 신하들이 약으로써 술을 권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술을 금지하면서 임금이 술을 마실 수는 없다며 사양하였다.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황해도 곡산에 사는 여자 약노가 옥에 갇혔다. 심리가 지

지부진하여 10년째 감옥에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재조사를 명하였다.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이 황당했기 때문이다. 형조와 의금부를 오가며 매를 맞던 약노가 처음엔 그저 빨리 죽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특별한 관심과 위로를 전하자 통곡하며 매를 못 이겨 거짓 자복하였음을 고하였다. 세종대왕이 즉각 풀어주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죽과 밥을 주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온 생애를 인의예지에 충실하게 살았다. 앙부일구를 제작함에서도 4단의 확충이 여실히 보인다.

당시 조선의 백성은 시간의 객체적 존재였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북소리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일 따름이었다. 그 백성들에게 세종대왕은 시간의 권력을 나누어 주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앙부일구가 그것이다. 앙부일구는 공용 해시계였다. 그냥 시계가 아니라 시계 제작에 담긴 마음씨가 인간 본성에 닿아있다. ①알기 쉽게 그림으로 시간을 표시하였다 ②어린이도 계단을 올라가 시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③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길가에 설치하였다 ④스스로 시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앙부일구는 조선 말에 이르러 코끼리 뿔로 만든 휴대용 앙부일구로 발전하게 된다. 상아로 만든 앙부일구에서 도자기로 만드는 앙부일구의 상품화가 쉽게 연상된다.

여주 도자기의 역사는 고려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실록에서도 중품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기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주의 도자기 산업은 한때 600여 개의 공방들이 모여 전국 생활 자기의 60%를 생산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앙부일구의 상품화로 30년의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주 도자기 산업에 활로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①여주 도자기의 대표상품으로서의 휴대용 앙부일구는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세종 정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②가족의 가치와 삶의 의미 찾기를 중시하는 구매자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색상과 형태와 디자인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여주와 주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절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앙부일구의 조합은 구매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인간 본성인 4단의 상징으로서의 앙부일구,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콘텐츠로서의 앙부일구도 꿈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턱에서 2,400년 전의 맹자나 600년 전의 세종대왕을 들먹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만나게 될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

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변화되는 사회다.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문제해결 논리에 인간이 지녀왔던 높은 가치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4단을 확충시킬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아서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맹자는 말했다. 인의예지를 따르는 세상이 바로 인류가 고대하는 태평성대라는 사실을 세종대왕은 보여주었다.

세종대왕의 일이 살아있는 여주에서, 세종 정신이 표출해낸 앙부일구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번지고 샘이 솟는 것처럼 흘러넘쳐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경기도 여주군 오금리 조사보고서, 「문화·역사 만들기」 여주군추진협의회, 2004.

김슬옹, 앙부일부 복원문제와 의사소통 교육, 동국대학교, 2008.

박경환역, 「맹자」, 홍익출판사, 2011.

박진석 외5, 측정표준 사료복원(앙부일구), (재)한국표준연구소, 1986.

손상희, 도자기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구매성향 분석, 인덕대학교, 2019.

여주군 도자유적 분포지도, 세종대학교 박물관·여주군, 2004.

이상호, 포스트 코로나 19와 지역의 기회, 한국고용정보원, 2020.

전상운, 한국과학사, (주)사이언스북스, 2000.

진미정, 박선엽, 우리나라 기후 절기별 기온변화의 시공간적 특성분석, 대한지리학회지, 2015.

진장현외 3,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여주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여주군, 1995.

신문

경인일보(2019. 6. 17)

서울경제신문(2018. 3. 26)

한국일보(2020. 11. 28)

기타

「장영실테마관」

김상혁의 PLUS 과학문화재

독립운동과 의병활동의 메카 연천 (왕산허위선생의임진강유격대)

- 연천지역의 의병활동 -

이 준 용 (연천문화원장)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왕산 허위의 임진강 유격부대 활동
- III. 임진강 유역 의병의 활약
- IV. 연천출신의 의병장 심상우(沈相禹)
- V. 연천의 유관순, 소은명 소은숙 자매
- VI. 구한말 의병들의 집결지 심원사
- ※ 연천지역 3.1 독립 만세 운동관련 인물들
 - 1. 구금룡(具今龍)
 - 2. 조우식(趙愚植)
 - 3. 나용기(羅龍基)
 - 4. 백천기(白天基)
 - 5. 정현수(鄭賢秀)
 - 6. 홍순겸(洪淳謙)
 - 7. 이낙주(李洛周)
 - 8. 한상혁(韓相赫)
 - 9. 김문유(金文裕)

집필자

이 준 용 연천문화원장

I. 들어가는 말

우리 연천에서의 의병들 활약상은 다른 지역의 의병활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병들은 주재소나 관공서 등을 장악하고 중앙정부로 통하는 통신선 절단 등을 해놓은 상태에서 의병군정을 실시한 것이다.

왕산 허위선생을 비롯한 의병들은 주재소나 관공서의 일본군들을 처단하고 납세와 미곡의 반출을 금지시키고, 의병들의 군사훈련과 무기 제조를 통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였으며 세금을 거둔 후 후일을 약속하는 군표를 조달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군정실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3월21일에는 백학의 두일리 장터에서 조우식, 구금룡, 정현수, 이낙주, 홍순겸, 백천기 등의 주도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적성과 마전, 삭령 더 나아가서는 포천과 가평 등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즉 경기북부지방의 3.1운동은 3월21일 연천의 두일리 장터에서 발발하여 사방으로 번져 나간 것이다.



백학 두일리장터의 항일의병 기념비

II. 왕산 허위의 임진강 유격부대 활동

왕산 허위 선생의 연천에서의 활동의 동기가 된 것은 전국13도 의병연합진영을 편성한 후 서울 진공 작전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각 도의 의병을 집결시켜 전력(全力)으로 서울로 진공, 일본군을 격멸하고 통감부를 점령하여 일본 세력을 척결(剔抉)한다.
- ② 동대문을 최초의 공격 목표로 선정한다.
- ③ 동대문 공격 일자(日)는 1908년 2월 2일(음 1. 1.)로 예정한다.
- ④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공격 준비 지점을 설정하여 각 부대의 병력을 집결시킨다.
- ⑤ 공격 개시 전에 서울 성 안에 공작원을 투입하여, 의병 부대의 공격과 동시에 내용하도록 한다.



《왕산 허위선생》

이러한 작전 계획에 따라, 허위는 동대문 밖 30리(12km)지점인 수택리(水澤里 : 양주군 구리면, 現 구리시 수택동) 일원을 공격 준비 지점으로 선정하고, 각도의 창의대장으로 하여금 휘하의 병력을 한 달 뒤인 1월 하순까지 수택리로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수택리는 한강 지류인 왕숙천(旺宿川)을 끼고 사방 10여리의 평야를 이루고 있어 많은 병력의 집결이 가능했으며, 동으로는 가평-춘천으로 통하고, 동남으로는 양평-여주-원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남으로는 용인과 마주보는 교통상의 요지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망우리 고개만 넘으면 곧 바로 동대문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택리를 의병의 집결지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각 도의 의병 부대들이 수택리로의 집결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허위는 의병의 일방적인 공격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성 안의 일본군 동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아울러 내용 병력의 모집을 위해 사령장(司令長) 김규식(金圭植)으로 하여금 공작원을 성 안으로 투입시키도록 하였다.

김규식은 시위대의 병사였던 윤수정(尹壽丁)을 서울 도성 안에 잠입시켜 형세를 살펴 의병 부대에 보고하게 하는 한편, 대묘동(大廟洞)에 거주하는 전 시위대 부위(副尉)인 백락정(白樂正)과 함께 성 안에서 의병의 공격에 대응할 병력을 모으도록 하였다. 이에, 윤수정은 성 안의 정보를 수집하고, 백락정은 은밀히 중서(中署 : 서울의 행정 구역인 5서의 하나)의 대빈궁(大嬪宮)에 100여 명의 동지를 모아 성 밖의 의병에 협력하여 대응할 태세를 갖추었다.



〈청량리 부근 원산로〉

※ 서울 진공작전의 실패

이러한 서울 진공작전계획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본은 1월 25일부터 동대문 밖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다가, 의병의 주력이 미처 집결하지 않은 틈을 타서, 허위의 선발대에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허위의 선발대는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여러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주력의 도착을 고대하였으나, 주력 부대의 도착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김규식·연기우 등 부장(副將)들이 적탄에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여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접전을 계속하지 못하고, 다시 양주로 복상 철퇴(撤退)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로 진격해 일본 통감부를 타도한다는 13도 창의대의 원대한 꿈은 실행에 옮겨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허위의 지휘 아래 임진강 유역에서 다시 활약하게 된 의병 부대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되, 일본과의 접전 방법에 있어서는 부대 별로 소규모의 유격전을 전개하여,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가하는 전법을 쓰게 되었다.

Ⅲ. 임진강 유역 의병의 활약

허위의 활약 - 허위가 주도했던 13도 창의대의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허위와 이은찬 등은 양주를 거쳐 1908년 2월에 임진강 유역으로 다시 북상하였다. 이곳에서 허위는 창의 원수부의 대장으로서 당시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 중에 있던 조인환·권준·왕희종·김진묵 부대와 박종한(朴宗漢)·김수민(金秀民)·김응두(金應斗) 부대 등 새로운 의병 부대들을 망라한 여러 의병 부대들을 통합하여 지휘하였다.

허위는 군율(軍律)을 엄격히 정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징발 물품에 대해 추후에 보상한다는 증서인 군표(軍票)를 발행하여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등 의병 부대 내부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군민간의 유대 강화를 모색하면서 소부대로 각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의병 부대들이 각지에서 일본군의 진지를 기습하고 전선(電線)을 절단하며 일인 관공서를 습격하고 일본인 거류민들과 친일파를 처단하면서 납세(納稅)와 미곡(米穀)의 반출을 중단시키니 임진강 유역 일대는 사실상 의병의 군정(軍政)지역으로 화하였다.

이에 이완용은 허위에게 사람을 보내어 “귀순하면 내부 대신의 자리를 주겠다.”하고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허위는 이를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국권 회복을 위해 무력 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서울 진공 작전은 6월 11일 영평에서 은신 중이던 허위가 일본군 헌병대의 기습을 받아 체포됨으로써 끝내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허위는 곧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군 헌병 사령관 아까시(明石元二郎) 소장에게 직접 심문을 받았는데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국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하였으며 재판에 회부되어서도 일본인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상같았다.

“의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누구이며 대장은 누구인가?”

“의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이또오(伊藤博文)이며 그 의병의 대장은 바로 나다.”

“어째서 이또오가 의병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인가?”

“이또오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의병을 일으킨 것은 이또오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나!”

아까시 소장은 허위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품과 경륜에 감복되어 “허위는 비록 폭도(暴徒: 의병)의 수괴(首魁)이나, 그 고매한 인격과 동양 평화에 대한 경륜, 그리고 충군, 애국의 사상과 넓은 식견 등은 족히 국사(國士)라 할 만하다.”고 하여 이또오 통감에게 그의 구명(救命)을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의한 바 있기도 하였다. 허위는 1908년 9월 18일에 사형이 선고되어, 10월 21일에 서대문 형무소 의병 처형 1호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허위선생은 사실 군인이 아니었다. 학자이자 구한말 평리원 재판장(요새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었다.

IV. 연천출신의 의병장 심상우(沈相禹)

- 연천 출신의 유일한 의병장 심상우

심상우(沈相禹) 의병장은 청송심씨(靑松 沈氏)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세종대왕의 장인)의 18대손으로 1883년(계미년)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부친 심성택(沈成澤)과 모친 양성 이씨(陽成 李氏)사이에서 태어났다. 심상우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이었으며 애국심이 남달리 강했다고 한다.

2. 연천 출신의 의병장



연천출신의 의병장 심상우

① 1883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출생

② 왕산 허위선생의 격문에
의병지원 제3분견대장

③ 1908년 26세로 백석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

④ 묘소는 향토문화재
제24호로 지정

〈연천출신의 의병장 심상우의 묘〉

심상우는 소년시절 왜놈들이 가르치는 왜놈의 학교에는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보통학교(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로의 입학을 거부하고 독학을 하였으며 향교를 다니면서 한학공부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항시 일본에 반감을 품고 때를 기다리던 심상우는 마침내 일본에 반기를 들 기회가 찾아 왔다.

당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로는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이어 군대가 해산되자 왕산 허위선생은 13도 창의군을 모집하고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진격하였으나 사전에 기밀이 새어나가 일본군이 동대문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허위 부대는 뿔뿔이 흩어져 양주를 거쳐 그 해 9월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왕산 허위선생은 의병모집에 격문(格文: 격고 팔도 열읍문 檄告 八道 列邑文)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심상우 의병장도 허위선생의 이 격문을 보고 의병에 자원해서 입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3분견대¹⁾장(파견대: 派遣隊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소대장이나 중대장 급)이라는 직책을 맡고 부하들과 함께 일본헌병대와 경찰 주재소 등을 습격하며 크고 작은 점전을 벌이게 된다.

1) 분견대(分遣隊: 오늘날의 파견대와 같은 뜻으로 육군의 최하위급 조직인 분대(하사가 분대장)와는 전혀 다른 조직임. 작은 조직인 분대급으로 파견이 될 경우 기습을 당하면 적은 인원으로 전멸 당할 위험이 많아 소대급 이상으로 편성되어 중요 장소에 배치되었음. 그러므로 심상우 의병이 당시 맡았던 직책은 오늘날의 소대장 또는 중대장급이며 계급으로 따지면 소위 또는 중위, 대위 정도의 계급으로 봐야 할 것임)

- 열악한 무기와 수적 열세로 밀리는 의병부대

일본군 토벌대보다 열악한 무기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던 심상우 의병부대는 1908년 10월 15일 백석리의 가루재(백석리에서 하우고개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일본군과 격렬히 맞서 싸우다 동료,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가루재 바위틈에서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참고문헌, 연천군지 상권 364쪽) 일본 헌병대와 싸우면서 수적 열세와 열악한 무기로 계속 밀리자 당시 삭령군의 의병들과 다시 집결하기 위해 이곳 가루재까지 온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심상우 의병장의 어머니 양성 이씨는 피로 얼룩진 아들의 군복을 유촌리 앞 개천가에서 빨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결단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루빨리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군들은 의병들을 마치 산짐승 몰이하듯 몰아 붙였고 수적 열세와 구식 소총인 화승총, 단발총 등 무기의 열악함으로 인해 의병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들은 필사즉생(必死即生)의 신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다. 일본군의 흉탄에 맞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의 피로 범벅이 된 자식의 군복을 빨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비통하기 그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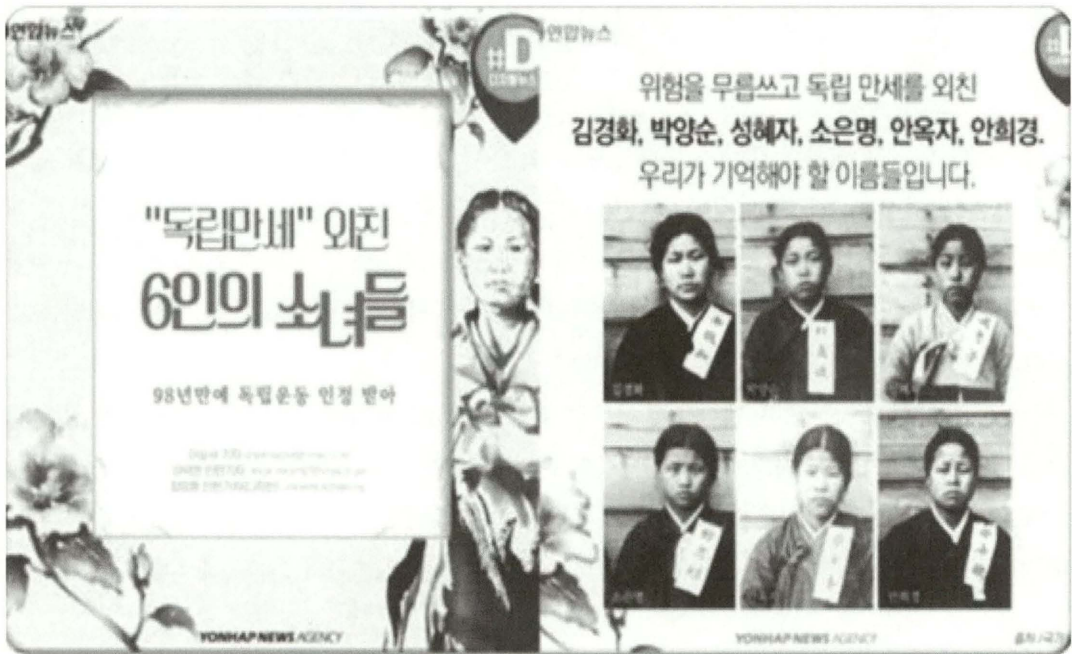
심상우 의병장의 묘소는 당시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유촌리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나 연천문화원에서 묘소를 재정비하였고 2014년 12월 9일 연천향토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V. 연천의 유관순, 소은명 소은숙 자매



〈소은명 열사〉

소은명 열사는 15세로 군남면 남계리 출신이다. 당시 여자의 몸으로 서울로 유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서양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 배화여고에 입학하였다고 전해진다.



〈“독립만세” 외친 6인의 소녀들〉

배화여학교 학생,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소은명, 안옥자, 안희경 선생

- 1920년 3월 1일 서울에서 배화여학교 재학 중 3.1운동 1주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김경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박양순 등 5인)을 받고 옥고를 치름

활동의 의의

- 배화여학교 학생들로, 학교에서 3.1운동 기념 만세시위를 직접 주도
- 여성으로 적극적,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례

여동생 소은숙 역시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시 재판기록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추후 서훈에도 누락되었음.

VI. 구한말 의병들의 집결지 심원사

심원사는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범화동에 있다. 일명 절골이라고도 한다. 심원사는 신라 진성 여왕 원년에 영원조사에 의해 지어진 이후로 화재로 전소된 적이 많았다. 신라시대에 한번, 고려 중반기에 한번, 고려말기에 또 한 번, 왜정시대에 한 번, 마지막으로 6.25때 한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절이며 특징은 한번 불이 났다하면 일부분만 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소가 되는 것이다.

심원사는 지형적으로 좁은 계곡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뒤쪽으로는 험한 지세에 의해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여 왜정시대에 의병들의 은거지로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이곳은 1907년 9월27일 보개산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의병진 250여명이 일본군 김화수비대 보병 50연대 1소대와 치열하게 항쟁하다가 거의 전멸하고 심원사는 김화수비대에 의해 완전히 전소되었다.



〈심원사〉

심원사는 왕산 허위와 연기우 등 많은 의병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던 곳으로 일제에 의해 전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건되었다가 6.25때 다시 전소하였고 군부대에 막혀 일체의 접근이 불가하다가 국방부와 문화재청, 경기도, 연천군, 등에서 협의하여 새로이 중건되었다.

이곳에는 2013년 대광리에 있던 의병 5위의 묘소를 이전, 정비하여 잘 보존되고 있다.



〈내산리 심원사 부근의 항일의병 5위의 위령비〉

- 연천지역 3.1 독립 만세 운동관련 인물들 -

1. 구금룡(具今龍)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96. 1. 30.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미상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1995년

공적내용

1919년 3월 21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장날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연천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21일 백학면의 만세운동을 시발로 구금룡(具今龍)을 비롯하여 조우식(趙愚植), 정현수(鄭賢秀) 등에 의해 계획되어 이후 4월 10일까지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구금룡 등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학면 만세운동의 거사일을 두일리 장날인 3월 21일로 정하고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미산면 인사들과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먼저 백학면 두일리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킨 여세를 몰아 미산면까지 행진하여 그곳에서 미산면의 인사들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크게 벌인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 두일 장터에서 구금룡 등은 2백여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로 향하여 격렬한 항일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구금룡은 직접 소방용 경종을 울리면서 주민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시위대는 시위를 저지하려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요구하였고, 면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면사무소의 집기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친일적 인사로 지목되던 면장을 시위대 앞으로 불러내어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위를 탄압하는 일본 헌병에 대항하여 투석으로 맞서는 한편 주재소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산면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여 학교 앞에서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騷擾)로 징역 1년 6

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 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60~563면

2. 조우식 (趙愚植)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74. 4. 9.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미상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2011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5일 조우식은 장날인 21일 두일리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21일 시장으로 간 조우식은 구금룡(具今龍)에게 소방용 경종을 울려 장꾼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장꾼들이 모여들자 조우식은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때 정현수(鄭賢秀) 등이 백학면장을 데려와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이어 조우식과 정현수 등은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가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두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이 응하지 않자, 군중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후 조우식 등은 제지하는 헌병을 뿌리치고 시위를 계속하며 미산면(帽山面)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였다. 마전리에서 태극기를 만든 조우식 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우식은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 1919. 5. 22)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 1919. 7. 7)
- 판결문(고등법원 : 1919. 9.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59~5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9면

3. 나용기(羅龍基)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903. 6. 25.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1920. 8. 15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1990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연천 일원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31일 같은 동네의 서당 교사인 이홍식(李洪植)을 자기 집으로 불러 독립만세 시위계획을 논의하고 그에게 연천면내의 각 이장에게 4월 1일 오전 7시에 세알골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할 테니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내용의 격문 6매를 작성케 하였다.

격문은 작성 즉시 한씨동(韓氏童), 나개동(羅開童)에게 주어 면내 중사리(中沙里) 등의 이장에게 전하게 하였다. 4월 1일 오전 7시 삼곶리(三串里)에 4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자신이 제작한 태극기를 들고 선두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외치며 연천 읍내를 행진하였다.

그는 결국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그해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8~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8~559면

4. 백천기(白天基)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80. 4.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1951. 5. 15

훈 격 : 대통령표창

훈 격 년 도 : 1992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으로 1919년 3월 21일 연천군 백학면(白鶴面) 통구리(通口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주민 60여명을 규합, 독립만세를 부르며 미산면(嵎山面) 마전리(麻田里) 문묘(文廟) 앞에 이르러 두일리(斗日里)에서 행진하여 오는 주민들과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9~563면

5. 정현수(鄭賢秀)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99. 9. 10.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1951. 1. 17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1990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으로 1919년 당시 왕징면 동중리(旺澄面 東中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우식(趙愚植)·이낙주(李洛周) 등과 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미산면 석장리(帽山面 石牆里)에 사는 조우식을 중심으로 거사일을 동년 3월 21일 백학면 두일리(百鶴面 斗日里) 장날로 정하고, 이날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과 인근 주민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 인근 동리의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렇게 하여 모인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몰려 들어갔다.

면장과 면직원을 설득하여 만세시위에 가담케 함으로써 시위군중의 기세를 더욱 높이는 등 선두에서 시위대열을 지휘하다 일경에 피체되었다. 연천군에서는 이날 두일리 장터에서의 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이해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았고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 1919. 7. 7)
- 판결문(고등법원 : 1919. 9. 18)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99·2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9~563면

6. 홍순겸(洪淳謙)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92. 3. 21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1892. 3. 21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1990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으로 1919년 3월 21일 조우식(趙愚植), 정현수(鄭賢秀), 백천기(白天基) 등과 함께 백학면 두일리(百鶴面斗日里)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두일리 장터로 나아가 2백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행진하던 중, 정현수가 면장 윤규영(尹圭榮)을 데리고 나오자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요구하며 구타하였다.

이어 시위군중과 함께 부근의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들에게도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했으나 불응하자 건물 일부를 투석으로 파괴하였다.

이 때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이날 밤 미산면 마전리(帽山面麻田里)에 있는 향교로 가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었으며, 그해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9~2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9~563면

7. 이낙주 (李洛周)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96. 11.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1923. 10. 13.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1990년

공적내용

경기 연천(漣川) 사람으로 1919년 3월 21일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장터에서 조우식(趙愚植)·정현수(鄭賢秀) 등과 같이 장날에 운집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리고 시위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에 진출하여 면장 및 면직원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합세할 것을 강요하다 면사무소의 시설일부를 파괴하고 밤에도 계속하여 군중과 함께 미산면(嵎山面) 마전리(麻田里)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활동하다 피체되었다.

그해 5월 22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며, 동년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8·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9~563면

8. 한상혁(韓相赫)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77. 8. 12.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미상

훈 격 : 애족장

훈 격 년 도 : 2011년

공적내용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5일 한상혁은 조우식의 제의로 장날인 21일 두일리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21일 조우식 등과 함께 시장으로 간 한상혁은 구금룡(具今龍)이 소방용 경종을 울려 장꾼들을 모이도록 하자, 조우식과 더불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또한 한상혁은 정현수(鄭賢秀)와 함께 백학면장을 데려와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이어 조우식

등과 함께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가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두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이 응하지 않자, 군중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후 한상혁 등은 제지하는 헌병을 뿌리치고 시위를 계속하며 미산면(嵎山面)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였다.

이 시위로 체포된 한상혁은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 1919. 5. 22)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 1919. 7. 7)
- 판결문(고등법원 : 1919. 9.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59~5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9면

9. 김문유(金文裕)

독립운동계열 : 3.1운동

출 생 : 1894. 6. 19.

출 생 지 : 경기 연천

사 망 : 미상

훈 격 : 건국포장

훈 격 년 도 : 2013년

공적내용

김문유는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천군에서는 1919년 3월 21일부터 만세시위가 일어나 4월 10일까지 연천읍내 백학면 두일 장터, 마전, 삭영, 적성 등지에서 계속되었다. 백학면 두일리(斗日里)에서는 미산면(嵎山面) 석장리(石牆里)에 사는 조우식(趙愚植)이 주동이 되어 3월 21일 두일 장날을 기회로 하여 장에 모인 군중과 같이 만세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정현수(鄭賢秀)와 함께 면장을 데려다 만세를 부르게 했다.

구금용(具今龍)은 소방용 경종(警鍾)을 울려 군중을 모이게 하고, 조우식, 정현수 등이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들어갔다. 면사무소 직원에게 전부 만세를 부르라 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군중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일부를 파손시켰는데 이때 군중은 200명을 넘었다. 이들은 저녁에 미산면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학교 앞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이날 백천기(白天基)는 백학면 통강리(通江里)에서 주민 60여 명을 인솔하고 마전리 헌병주재소로 달려가 조우식이 지휘하는 시위대와 합류하였다. 이때 김문유는 이낙주(李洛周), 홍순겸(洪淳謙), 김복동(金復東), 한상혁(韓相赫) 등과 함께 주동인물로서 합류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문유는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항소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 1919. 5. 22)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 1919. 7. 7)
- 판결문(고등법원 : 1919. 9. 18)
- 형사공소사건부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60~56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9~200면

양평초 설립 연혁을 통해 본 구한말과 일제 초기 학제 변천 연구

이 윤 재 (양평문화원 양평역사문화연구회 회장)

目 次

I. 서 론

II. 본 론

1. 양평군의 역사와 현황
2. 양평군의 학교 설립 현황
 - 1) 양평지역의 1910년 이전, 근대식 교육기관의 설립 현황
 - 2) 양평지역의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근대식 학교 설립 현황
 - 3) 양평초등학교의 역사와 성장 과정
 - 4) 일제 초·중기의 공립양평보통학교 변천
 - 5) 양평보통학교 교세 및 부설
 - (1) 공립양평보통학교 교세
 - (2) 학무위원
 - (3) 양평보통학교 부설 농림잡교육
 - ① 양평간이농업학교와 부설 농잠실수학교
 - ② 실습전답과 학교림
 - (4) 졸업생 지도학교
 - (5) 양평공립청년훈련소와 농업교육
 - (6) 양평공립심상소학교

III. 결론

집필자

이 윤 재 양평문화원 양평역사문화연구회 회장

I. 서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은 1883년에 세운 원산의 원산학사(元山學舍)로 기록되어 있다. 이 학교는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 서북정략사 어윤중, 원산항 통리기무아문 주사인 송지 정현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유지들이 합심하여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함께 한 사립학교였고, 조정에서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소학교는 1894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개교한 관립교동소학교(官立校洞小學校)였다.

1895년 공포(公布)된 ‘소학교령’¹⁾은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

1) 고종시대사 3집

1895년 7월 19일(丁巳)

기사제목 勅令 第145號 小學校令을頒布하다

高宗 32年 7月 19日(丁巳) 勅令 第145號 小學校令을頒布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章 小學校의 본旨와 種類 及 經費.

1. 小學校는 兒童身體의 發達함에 鑑하여 國民教育의 基礎와 其生活上 必要한 普通知識과 技能을 教授함을 本旨로 한다.
2. 小學校를 나누어 官立小學校·公立小學校·私立小學校의 3種으로 한다. 官立小學校는 政府의 設立, 公立小學校는 府 혹은 郡의 設立, 私立小學校는 私人이 設立한 것을 말한다.
3. 官立小學校에 所要되는 經費는 國庫에서 支辦하고 公立小學校의 要하는 經費는 府 혹은 郡에서 負擔한다.
4. 私立小學校는 各該 觀察使의 認可를 經하여 設置한다. 私立小學校 認可에 關한 規定은 學部大臣이 定한다.
5. 私立小學校 經費는 地方 理財 혹은 國庫에서 幾許를 補助받는다. 2章 小學校의 編制 及 男女兒童의 就學
6. 小學校를 나누어 尋常·高等2科로 한다.
7. 小學校修業年 限은 尋常科는 3個年, 高等科는 2個年 으로 한다.
8. 小學校의 尋常科 教科目은 修身·讀書·作文·習字·算術·體操로 한다. 時宜에 依하여 體操를 除하며 또 本國地理·本國歷史·圖書·外國語의 1科 혹은 數科를 加하고 女兒를 위하여 裁縫을 加한다.
9. 小學校 高等科의 教科目은 修身·讀書·作文·習字·算術·本國地理·本國歷史·外國地理·外國歷史·理科·圖書·體操로 하고 女兒를 위하여 裁縫을 加한다. 時宜에 依하여 外國語 1科를 加하며 또 外國地理·外國歷史·圖書1科 혹은 數科를 除한다.
10. 第8條·第9條에 依하여 小學校에 教科目을 加除하려면 其 監督者가 學部大臣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1. 各府 觀察使는 小學校教則大綱에 依하여 其管內 小學校教則을 定하되 學部大臣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小學校教則大綱은 學部大臣이 定한다.
12. 小學校單級多級の 制와 男女를 區別하거나 或은 混淆하며 教授할 境遇와 一教官의 教授할 兒童數에 關한 것은 學部大臣이 定한다.
13. 小學校의 休業은 日曜日 外에 冬期 夏期를 并하여 每年 90日을 넘지 못한다. 時宜에 依하여 學部大臣의 許可를 받고 前項의 期限을 넘을 수 있다.
14. 小學校의 每週 教授時限과 慶節日 儀式 等에 關한 것은 學部大臣이 定한다.
15. 小學校의 教科用書는 學部の 編輯한 外에도 或은 學部大臣의 檢定을 받은 것을 使用한다.
16. 兒童의 滿 7才에서 滿 15才까지 8個年 으로 學齡을 定한다. 3章 小學校의 設置 及 監督
17. 各府郡에는 其 管內에 學齡兒童의 就學할 公立小學校를 設置한다.
18. 各府 觀察使는 其 管內에 公立小學校를 設置하기 前에는 私立小學校으로 代用한다.
19. 各府郡에 設置할 公立小學校의 校數 及 位置는 學部大臣이 定한다.
20. 官立小學校는 學部の 直轄, 公立小學校는 各該 府의 管轄에 屬하며 私立小學校는 各該 觀察使의 監督을 받는다. 4章 小學校長 及 教員
21. 小學校員은 小學校教員의 許狀이 있는 者로써 施行한다.
22. 小學校教員의 許狀을 給與할 時에는 檢定에 合格함을 必要로 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령은 만 8세부터 15세에 이르는 아동으로 하되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년 혹은 3년으로 하며, 그 설립은 관립·공립·사립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교과 내용을 보면 심상과는 수신·독서·한문·습자·산술·체조·조선 지리·역사·도화·외국어·재봉 등이었고, 고등과는 그 밖에 외국 지리·이과·외국 역사 등을 부가하였다. 교원은 검정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였다.

이 학령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소학교는 수하동학교(水下洞學校), 장동소학교(壯洞小學校), 정동소학교(貞洞小學校), 계동소학교(桂洞小學校) 등의 관립 소학교가 1895년 설립되었다.

한편,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은 인천의 영화학당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내리교회에 파견된 존스(Jones G.H) 목사와 그의 부인 벵겔(Bengel, M.J)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1892년 벵겔이 영화여학당을 설립하고, 1893년 존스목사가 영화남학당을 각각 설립하여 서구식 초등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와 김할란 박사 등이 졸업한 이 학교는 국내 처음으로 보이с카우트를 도입했고, 고적대를 만들어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이후 1908년 학부 자료에 의하면 그때까지 공립보통학교는 전국에 79개(관립은 별도) 학교가 개교했는데 사립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황현(黃玗)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이 무렵 사립 학교수는 3천여 개가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한말 근대식 학교 설립은 양평지역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이다.

황성신문 1908년 11월 14일 기사를 보면 '양평군내 12학교가 모여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이날 참가 학생이 43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한말 양평 관내 공립소학교나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자료는 2004년 양평

23. 官立小學校敎員은 學部大臣, 公立小學校敎員은 各該 觀察使가 任用한다.

24. 官立小學校敎員은 判任으로 하고 그 官等 俸給은 따로 定한다.

25. 官立小學校校長은 學部大臣, 公立小學校校長은 各該 觀察使가 其 學校의 敎員 中으로 兼任케 하되 但 觀察使는 學部大臣의 認可를 받은 후에 行한다. 時宜에 依하여 學部主事 혹은 地方廳主事로써 兼任케 한다.

26. 小學校敎員이 不正한 所爲가 있어 其 職을 失할 때에는 許狀을 還收한다.

附 則

27. 本令은 開國 504年 8月 1日부터 各 地方의 狀況에 依하여 漸次로 施行한다.

28. 公立小學校 經費는 現今間 國庫에서 支辦한다.

29. 現今間은 官立小學校 及 公立小學校의 經費豫算 內에서 外國敎師를 備入할 수 있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7月 19日

日省錄 高宗 32年 7月 19日

高宗實錄 高宗 32年 7月 19日

官報 開國 504年 7月 22日

大韓季年史 卷2 高宗 32年 乙未 7月 19日

군교육청에서 발간한 ‘양평교육사’²⁾에 몇 줄 언급한 것 외에 국내 교육사 관련 논문과 전문서적에서는 한 글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실은 1908년 학부에서 발표한 79개 공립보통학교내에 공립 양근보통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몰랐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사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양근(楊根)이 양평(楊平)의 옛 지명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연구한 듯하다.

이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구한말에 소학교가 설립된 사실도 모른 채 1911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 231호로 설치(設置) 인가를 받은 양평초등학교가 관내 최초의 초등과정 신학제(新學制) 보통학교로 잘 못 알고, 2011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一環)으로 ‘양평초교 100년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관보, 직원록, 황성신문 등을 통해 양평초등학교의 전신인 양근군공립소학교에서 1902년 1월 11일부터 교원 발령기사가 다수 발견되었고, 학제 개편에 따라 1906년 8월 27일 양근군공립소학교가 공립 양근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쳐 양평군으로 다시 태어남에 따라 1909년 5월 20일 관보에 학부고시 제5호로 공립양근보통학교(公立楊根普通學校)를 공립양평보통학교(公立楊平普通學校)로 개칭한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양평초등학교의 개교를 1911년으로 못 박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본 자료는 이같이 미발표된, 구한말부터 한일합방 초기까지, 그리고 일제 강점기 1945년까지의 양평관내 공립보통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 실태와 양평초등학교의 새로 밝혀진 역사와 연혁을 모두 밝혀 보기로 하고 아울러 본고를 통해 양평초등학교와 같이 학교 설립 역사가 왜곡된 사례가 타 지역에도 존재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작은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양평교육사, 양평교육청, 2004 11쪽

II. 본론

1. 양평군의 역사와 현황

양평군(楊平郡)은 1908년 이전까지는 양근군과 지평군으로 각각 다른 지자체였다.

먼저 광주목(廣州牧)에 속했던 양근군은 고구려 시대에는 항양(恒楊), 양근(楊根)이라 불리었고 신라 경덕왕 때 빈양(濱陽)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 태조 때 양근으로 옛 지명을 회복했다. 그러나 고려 고종 때(1257년) 영화(永化)로 개칭되었다가 원종 때(1269년) 익화현(益和縣)으로 불리었다. 이후 고려 공민왕 때(1356년) 군으로 승격되면서 양근군(楊根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공민왕 때 양근군 미원(迷原) 고을을 현으로 승격하고 감무를 두었다가 얼마 뒤 다시 양근군의 속현으로 두었다. 미원은 오늘날 가평군 설악면이다.

양근군은 고읍(옥천) 건지산 밑에 있던 현청을 1747년(영조 23년) 갈산(양평읍) 관문골로 옮겨 오늘날 양평읍 양근리가 군청 소재지가 됐다.

양평군 소재지(군청)는 1747년(영조23) 고읍(古邑)인 지금의 옥천면 옥천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로 옮겨왔다. 이 기록은 1757년(영조33) 홍양한(洪良漢)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1757~1765년까지 홍문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간행한 여지도서(輿地圖書) 양근군건치 연혁기사에 처음으로 '郡治舊在乾芝山下令上丁卯移置于葛山江邊(양근군의 구읍치는 건지산 아래 있다)가 지금의 임금이 정묘년에 갈산강변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기 시작한다. 그 후 이 내용은 대동지지(大東地志) 등 양근군읍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지평현(砥平縣)은 고구려 시대 지현현(砥峴縣)으로 칭했다가 신라 시대 지평(砥平)으로 정착됐고, 그 후 계속 지평으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1895년) 지평군(砥平郡)으로 승격된 후 1908년 9월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병하여 양평군(楊平郡)이 새로 생긴 것이다.

1914년 3월 양평군 관할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廣州郡)으로 이속(移屬)되었고, 1921년 5월 8일 양평군청이 관문골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다. 1926년 동아일보 기사에 양평군 인구가 74,056명으로 나와 서울 근교에서 비교적 큰 고을이었다.

巡迴探訪

(一百)

豐饒한農産

各地에輸出

自作自足한楊平

楊平 一記者

産業界

楊平은京畿道の東方에僻在하여北은加平郡、西는楊州郡을接하고東으로江原道를界하였스며南으로驪州郡及廣州郡을接한바北郡一帶는山岳이連亘하여中央에龍門山의高嶺이突出하였스니風景이絶佳하며山川이秀麗하여半島中에屈指하는名勝이다元來高句麗時代에楊根郡又是恒陽郡이라稱하였스며新羅朝に至하여濱陽郡이라改하고高麗に至하여再び楊根郡이라稱하여李朝外지呼稱하던바明治四十一年九月에砥平郡과合併하여以來楊平郡으로變更하였다全部の總戶數が一萬四千二百十六戸に總人口が七萬四千五十六人中日本人が八百六十一人外國人が八十八人이고其餘は全部朝鮮人으로서元來農産物に豊富하여總戶口の九割は農業に従事하고其外一割は商工業に従事する바郡勢大略을紹介하면如左하다

楊平의主要産業은農業이니耕地面積이畝七九八五反出八二、〇二〇反인데生産되는重要穀物은年米五五、九六八石과大豆類一八、六〇六石麥類三三、五六七石雜穀三、六〇二石等으로約十萬石인데全部民七萬餘の食料を能히供給하고豆米豆類は隣郡은勿論南漢江으로京城方面에多數輸出된다其外副産物로林業牧畜養蠶等の所得額이年二十萬圓に達한다特히楊平地方은重要産物은龍門山樑木炭이多數輸出된다

◇商業 商業の狀況을보면商權은全部外國人に手中에잇分市街에於て는中國人の商店은好景氣を以て多量に繁昌하여이나朝鮮人の商店은少數로그나마漸漸微減하여現狀으로一般人士がこれを慨嘆하고各等商權을回復하기を欲

〈1926년 동아일보〉

1942년 4월 양평군 관할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加平郡)으로 이속되었으며 1963년 1월 여주군(驪州郡) 관할 개군면(介軍面)이 본군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5월에는 양평면(楊平面)이 양평읍(楊平邑)으로 승격되는 등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명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도 바뀌는 것이다. 구한말 양근군 소학교가 훗날 양평보통학교로 개칭되었는데 두 학교가 별개로 취급하게 된 것은 지명변경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그 가운데 용문산 군(群)이 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과 경계인 갈기산(부동산)에서 발원한 흑천(黑川)이 하류로 내려와 신은천(新恩川) 또는 신내개울로 불리면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이 때문에 나루와 포구도 많고 옛 장터도 여러 곳 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³⁾에 의하면 먼저 장시(場市)로 읍내면(현 양평읍)에 읍내장(현 양평장)이 있고 지평면 곡수에 곡수장, 청운면 용두리에 용두장, 남종면 우천리에 우천장, 설악면 신천리에 미원장, 남시면 세월리에 가곡장, 개군면 공세리에 신은천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일장으로 양평장(3,8일)과 용문장(5,10일), 양수장(1,6일)이 서고 있다.

3)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리지자료 경기도편) 경기문화재단 2008년

한편, 강을 건너다니던 나루터는 읍내면에 갈산나루와 덕구실나루가 있었고, 동종면(현 양평읍에 속함)에 백곡나루, 남시면(현 강상면)에 서라우나루, 사직골나루, 진변나루가 있었으며 남종면에 소대나루, 청탄나루, 서시면(현 양서면)에 상삼나루, 한여울나루, 허리원나루가 있었고, 서종면(현 양서면)에 용진나루, 두물머리나루 서종면에 문어미나루, 무두리나루, 사기막나루가 있었으며 고읍면(현 옥천면)에 달으락나루가 있었고, 개군면에 자포나루, 구미나루, 양덕나루가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큰 배가 정착하던 포구는 동종면 진변리(현 양평읍 회현리)에 바네포구(盤過浦)가 있었고 남종면 우천리에 소네포구가 있었다.

장시(場市)와 나루 및 포구를 설명한 것은 양평군이 관동대로(關東大路)의 길목이었으며 한강을 끼고 있어 인구이동이 많아 구한말 학교 설립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고 타 지역에 비해 교육기관이 많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가 없던 시대에 큰 강은 고속도로 역할과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로였다.

한편, 양평의 역사적 인물은 우선 개국공신으로 고려 개국공신 함규(왕규)가 있고, 조선 개국공신으로 김인찬, 김사형, 류관이 있다. 또한 우리 역사상 흔치 않은 대마도 정벌에 참여한 인물로 문하우정승을 역임한 김사형과 우군절제사를 역임한 이순몽 장군이 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정승(오늘날 총리급) 출신으로는 김사형, 류관, 정창손, 이준경, 이덕형, 이단하, 류상운, 류봉휘, 윤승길, 이병모 등이 있고 성리학자 및 양명학자로 권경우, 조옥, 이식, 이제신, 이항로, 남언경, 이경호 등이 있으며 실학 및 서학(천주교)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류득공, 권철신, 권일신이 있고, 고려 공민왕 때 국사를 역임한 보우대사, 1866년 병인양요 때 천총(千總)으로 로즈(Roze, P.G)제독이 이끈 프랑스 함대를 물리친 양헌수(梁憲洙) 장군, 독립운동가로 3.1만세운동을 기획한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이 있다. 또한 구한말 의병활동도 활발해 의병장 김백선 장군을 비롯해 이춘영, 안승우, 이승룡, 최대현 등 기라성 같이 많고 3.1만세운동 당시 33인의 지사 중 한분인 박동완 목사를 비롯해 정경시, 이용준, 홍남표, 이택 등 독립투사들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양평군의 인구는 2십여만 명이고 2020년 예산은 9조729억원이다.

1년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입 4,799명, 전출 4,437명으로 전입이 약간 많은 편이고 건축허가는 5,282동으로 전원주택이 대다수 차지하며 근래 공동주택도 활발하게 들어서는 양상이다.

2. 양평군의 학교 설립 현황

1) 양평지역의 1910년 이전, 근대식 초등교육 기관의 설립 현황

양평지역에도 양평교육청에서 발간한 '양평교육사'²⁾에 의하면 개화기 이후의 학교 설립은 사립 학교부터 출발하는데 외세의 개방 압력이 강했던 1891년 서중면 외문호리에 명진학당이 설립되어 천주교 신자 약 20여명을 모아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조동순을 교장으로 학무무관학교 출신인 이병익과 외국어학교 출신인 백흥기를 교사로 하여 문상학교를 설립, 1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지 못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어 1899년 4월 1일 서중면(현 양서면 양수리 일대)에 정운철, 김형선, 김유장 등 23명이 발기하여 영화법률학교(永化法律學校)를 개설하였고⁴⁾ 법관양성소 출신 류태영씨를 교사로 영입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1901년 소학교를 병설하여 한응이씨를 부교사로 영입하고 남중면 귀여리로 옮겼다.

이 학교를 세운 정운철씨는 황성신문에 기고한 글⁵⁾에서 정부대신이나 지방관리, 농부, 상공인,

4) 황성신문 1901년 7월 11일

기사명 法學小學 기사유형: 雜報

기사내용: ◎法學小學 昨년에 鄭雲哲 金亨善 金裕章 三氏가 永化法律學校를 楊根西中面에 私立하고 教師는 法官養成所卒業生 柳台永氏로 學部准許를 承亨야 學徒를 教授亨더니 今夏에 小學校를 兼設하고 韓應履氏로 副教師를 選定하고 位置는 該郡南終面歸歟里로 移設亨았는디 學員이 四十餘人이라더라

5) 황성신문 1899년

기사명 [寄書]楊根郡 私立 永化學校 事務員 鄭雲哲氏 寄書

기사유형: 別報

기사내용: 別報 ◎楊根郡私立永化學校事務員 鄭雲哲氏의 寄書를 左에 記亨노라 敬啓者는 愚等이 草野에 生長亨야 學識은 面牆亨고 聞見은 坐井이라 平生에 如干 書籍을 開覽亨았스나 治平의 言論은 便是龍肉을 坐談이오 學課의 規模는 一切 免株를 死守亨니 此豈志慮를 發達亨며 步趣를 開進亨는 實際리오 況且國家의 中興盛世를 際亨야 世界의 平等權을 執亨았스즉 人各奮厲亨야 我大皇帝陛下의서 不羈獨立에 擴張亨시는 基礎를 涓埃心誠으로 萬分の 一이라도 贊襄亨는 것이 堂堂한 皇國臣民의 道理라 大抵 上下가다 自由의 職分이 有亨니 風化를 整齊亨고 人才를 教育亨야 賢者로 在位亨며 能者로 布職亨야 皇猷를 甫敷亨며 王政을 組織함은 政府大臣의 職分이오

百里의 憂를 分亨며 萬民의 命을 司함인 風俗의 疾苦를 周察亨며 國家의 恩信을 偏布亨야 赤子斯民으로 安堵樂業케 함은 地方官吏의 職分이오

祈寒暑雨를 不憚亨고 粟米麻絲를 勤作亨야 王府의 正供을 勿闕亨고 父母妻子를 安養亨야 康衢烟月에 擊壤歌를 和答함은 農夫의 職分이오

作器皿通貨財亨야 有無를 交遷亨야 用을 利케 하고 生을 厚케 함은 工商의 職分이오

聖訓을 粗述亨며 王典을 憲章亨며 古今을 通亨며 事理를 達亨야 治亂의 跡과 安危의 機를 講討亨야 蘊亨즉 德行이오 施亨즉 事業은 儒者의 職分이라

今에 皇國에 幸生亨야 自由의 職分을 盡心치 못亨면 是는 吾皇의 化育亨신 聖德을 負亨 뿐 아니라 皇天이 降生亨실 時에 彝性的 賦亨신 命意를 違亨이니 禽獸로 奚擇亨리오

此를 思想亨면 人人이 職分에 奮厲함이 百倍를 必加홀지라 吾儕는 案退鄙儒라 筋骨이 殘弱亨고 智巧가

유학자 등의 직분을 거론하며 “법률은 정치의 고등학문시오 인간 도리의 당연한 규제이므로 관리가 이에 밝으면 다스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고, 보통사람들이 이에 밝으면 자신을 다스리는데 여유가 있거늘 우리나라의 학문은 경서만을 우대하고 법률을 부끄럽게 말하는 바가 있는데, 자신을 수양한 후 남을 교화함에 있어서 경술(經術)은 강령(綱領)이 되고 법률은 조목(條目)이 된다”고 하며 법률학교를 세운 이유를 밝혔다.

이 학교의 교과목과 강의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중국 원나라 왕여가 송나라 형사사건을 다룬 법의학 서적인 무원록(無冤錄), 법규류(法規類) 편에 임금이 군주의 뜻으로 결단함을 참구(參求)하며 또한 1898년 외부(外府)에서 대한제국 때에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은 조약을 모아 엮은 책으로 ‘한일 약장합편’, ‘한미 조약’ 따위가 실려 있는 약장합편(約章合編), 국제법상 주권, 국가 간에 누려야 할 평등, 통치자와 국민과의 관계 등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은 공법회통(公法會通) 등을 배우는 등 다양한 조약과 법률 지식을 가르쳤다.

설립자 정운철씨는 「비록 재야에 있더라도 현상(現象)과 사리를 밝게 하며 혹,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시무(時務)에 일목 요연코저 하는 뜻이니 법률은 꼭 필요한 학문이다. 영화법률학교가 비록 사람이지만 졸업증서가 없으면 학생 모집 등이 어려워지므로 정식으로 양근군수를 통해 법부(法部)에 요청하여 설립허가를 받았다」 고 설명했다.

영화법률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로 있었던 정운철씨와 유태영씨는 조정에서 운영한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유태영씨는 1906년 법부로부터 박사를 서임(叙任)받기도 했으며 부설 소학교 교사였던 한웅이씨는 내외서적을 발간한 업진사(業進社) 대표를 거쳐 성환 의성학교(義成學校) 교장을 역임했다.

淺短호야 農工商業에 敢히 生心치 못호고 平日技癢이 但 文字邊에 在호 故로 鄉中에 二三同志로 學校를 設立호고 學徒를 募集호야 學問을 討論함이 茅塞호 心胸을 開爽코저 호노니 夫法律은 政治의 高等學이오 人道의 當然호 규제라 官吏가 此에 明호면 治人이 有餘호고 凡人이 此에 明호면 修己가 有餘호거늘 我韓의 學問은 經術을 本호므로 法律을 恥言호느니 然호나 經術은 修己治人(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해야 함)의 綱領이오 法律은 修己治人의 條目(하나의 일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의 부분이나 갈래)이라 經術과 法律이 互相表裡호은 古昔에도 猶然호 攄디러 現今 時象이 懸殊호야 經術은 漸漸 稀濶호고 人心은 漸漸 澆薄호야 政治學問과 人道規則에 多違호 慮가 不無호니 實도 慨然호 事라 是로 以호야 自願의 孤陋를 不揆호고 法律學을 專門으로 創設호니 列朝大典과 現行法律과 無冤錄의 人命獄情만 講論호 攄 아니라 法規類編에 皇上陛下의 聖衷으로 乾斷호심을 參求호며 約章合編에 各國 條約호 章程을 明核호며 公法會通에 萬國通行호는 法權을 斟酌호야 비록 鄉曲에 處호더라도 現象이 昭然호며 尙히 出身호더라도 時務에 瞭然코저 호는 本意오니 此學校는 雖는 私立이나 尋常學校와 意見이 迥異호 故로 卒業의 証書가 無호면 學員을 足히 激厲치 못호시 卒業의 准許호 意見을 本郡守의 報告로 法部에 請求호얏는지라 其認許指令은 尙今 未准호얏스나 卽於陰曆三月十五日에 開會協議호와 四月一日노 爲先開學호는 科條를 確定호고 學員에 職分을 盡心코저 호오나 經費가 窘絀호야 校用을 支過기 難호의 右陳호 六課程만 專門孜孜호고 其他 歷史 地誌 算學 等 課程은 念不暇及이온디 時局現象에 太昧호야도 孤陋를 未免호깃기로 博雅호 君子의 新聞論說과 時事에 外報를 延覽호야 鄉儒의 聞見을 發達코저호 오니 貴社新聞紙를 本校로 逐日信撥호라 호얏더라

한편, 공립학교의 경우 양근군공립소학교(현 양평초등학교의 전신)가 관보(제2094호)에 1902년 1월 11일부터 교원 발령 기사가 나와 이 무렵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건재한 당시의 한옥 교사(校舍)는 1900년 3월 3일 지어졌다.



〈구 교사〉

이 건물이 위치한 양근리 151-1번지 대지는 구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국(國)으로 되어 있고 1922년 학교비(學校費)로 이전되었다가 1926년 다시 국으로 이전된 뒤 1936년 개인소유로 넘어갔다.

甲		番順 號位
取得者 楊孝學 校費 原因 大正移學 校費 計 日 受附 大正移學 校費 計 日 移轉 大正移學 校費 計 日	所有者 國 受附 大正移學 校費 計 日 保任 大正移學 校費 計 日	事項欄

〈구 등기부등본〉

양근군공립소학교는 학제 개편에 따라 1906년 8월 27일 공립양근보통학교로 개명하였고, 1908년 9월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함에 따라 이듬해인 1909년 5월 20일 학부고시 제5호로 공립양평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10년 3월 30일엔 양평군수 정원모(鄭元謨)씨가 학교장을 겸임하였고, 1911년 9월 11일 총독부 고시 제231호로 설치 인가를 받아 다시 개교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皇城新聞[1910년 4월 22일 (大韓隆熙四年四月廿二日金曜)]

기사제목 叙任及辭令

〈官 報〉

○ 叙任及辭令 ○ 三月三十日

- △ 通津郡守沈鍾舜 兼任公立通津普通學校長 △ 振威郡守金復圭 兼任公立振威普通學校長
- △ 楊平郡守鄭元謨 兼任公立楊平普通學校長 △ 廣州郡守尹夔燮 兼任公立廣州普通學校長
- △ 安山郡守趙重恩 兼任公立安山普通學校長 △ 楊川郡守李浩升 兼任公立楊川普通學校長
- △ 豐德郡守俞斌 兼任公立豐德普通學校長 △ 富平郡守鄭雲衢 兼任公立富平普通學校長
- △ 金浦郡守趙東善 兼任公立金浦普通學校長

이 학교에서 1908년~1911년 근무했던 정경시 선생과 박필환 선생은 훗날 기미만세운동(1919년) 때 양평군 청운과 대구시 신령에서 각각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1907년경부터는 양근, 지평 전역에서 사립학교 설립 붐이 일어났다.

먼저 1907년 몽양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되어 서시면 묘곡(현 양서면 신원리)에 사립광동학교(私立光東學校)를 세웠는데, 몽양선생이 1908년 국채보상 단연동맹(國債報償斷煙同盟)을 조직하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연설하며 강릉 초당익숙(草堂義塾)에 교사로 초빙되는 관계로 이 학교는 1909년 황봉연에게 인계되어 운영되었다.⁶⁾(매일신보뿐 아니라 황성신문 1908년 5월 3일 기사에도 게재됨)

다음에 1907년 4월 사립용문학교(私立龍門學校)가 군 주사(郡主事) 이은철씨가 지역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개교하였는데, 7월경 화재로 문을 닫았다가 이은철씨의 노력으로 다시 건물을 지어 1908년 6월 27일 재개교하여 정원모 군수를 비롯한 23명의 내빈이 축하를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⁷⁾ 그 해에 30여명의 청년자제가 공부를 했다는 사립용문학교는 양근군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6) 志士設校 1908년 4월 17일 대한매일신보

楊根西始面沙谷居呂升鉉呂運亨諸氏가 擧起호야 該里에 光東學校를 設立호고 呂運亨氏가 名譽로 熱心教授호는대 學員이 四十餘名에 達호았따더라

7) 용문학교(龍門學校) 관련 기사

- 황성신문 1908년 4월 22일 기사명 龍校重建 기사내용: 龍校重建

楊根郡 龍門學校는 設立有年에 進就의 期望이 有호더니 不幸兵燹之中에 回祿을 被호지라 該郡守及紳士等이 協議호야 校를 重建호기로 趣旨을 發布호이 如左호니 國家隆替는 在於人民智愚호고 人民智愚는 在於教育興廢호되 夫學校設立之爲有國大政이 何時不然이리오마는 值如今日時局호야는 尤當炳炳이오 亦當汲汲也로다 現今世界文運이 既達高度호야 千里之行을 一日而達호고 萬國之信을 瞬間而通호니 彼優而我劣호고 彼智而我愚면 人之兼弱攻昧를 吾不免矣라 所以로 唯我 太皇帝陛下既以作士氣開民智로 屢降詔勅호시고 今又 皇上이 丕承大業호샤 先以興學校養人材로 警告 廟社호시니 其如天盛德을 孰不感泣而欲副 聖意之萬一乎아 噫라 權利는

에는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하기 직전이었고 용문이란 지명은 1914년에 생겨났으므로 현 용문면과는 관련 없고 양평읍 양근리에 있었다. 이 학교에는 오산학교 교장을 역임한 종교철학자 다석 유영모 선생도 교사로 근무한 기록이 있고, 1910년경 공립양평보통학교에 흡수 합병되었다.

서중면(양서면)에는 앞서 설립된 영화법률학교가 강 건너 남중면 귀여리로 이전된 이후 1908년 3월 18일 진용학교(進龍學校)가 설립되었다.⁸⁾ 이 학교 역시 양근군 주사로 근무했던 이은철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1908년 황성신문 4월 24일자 기사에 의하면 그해 음력 2월 18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학생들이 42명에 달했고, 내빈들의 축사에서 정원모 군수는 ‘학교가 왕성하게 발전 하길 바란다’고 했고, 교사 성락운씨는 ‘학부형들이 성심껏 자식을 보살피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라’는 주문을 했으며 이규하 교감은 ‘학도들이 밝게 전진하라’는 덕담을, 총무를 맡은 정헌태씨와 이

生於智識하고 智識은 由於學術호니 鞏固國家之文明基礎하고 發達人類之聰明才智가 唯在學校之設立而學校者는 非六洲之新法이오 卽三代之遺制더늘 今之設校論教者는 輒曰舊學은 無用이오 新學을 是務라하며 守舊昧新者는 言以新學技藝가 非聖人之道라호야 若將挽焉호니 此兩論不無偏見之甚也라 夫文以時異하고 治以道同호니 今文古文이 雖曰少異나 舊學新學이 有何不同이리오 物理化學은 格物致知之學이오 法律政治는 治國平天下之道也라 若以記誦詞章으로 謂舊學問之要領하고 語學算術로 爲新學問之主旨면 是는 不知學問之道者也라 智育德育이 古有今有호니 講其實學호며 踐其實地호야 擴充本然之性하고 養成活潑之氣가 豈非學校之目的趣旨乎아 夫我龍門學校는 設立於光武十一年六月而參以古書하고 增之新學호야 以爲教科호니 程度는 普通이오 位置는 郡內라 四十學生之着力勤孜와 多少紳士之熱心贊成이 庶幾有永遠之望矣러니 嗟呼라 世事多變에 邑運이 不幸호야 本郡癸擾中一區校舍가 亦被回錄호야 滿架書籍은 只存灰燼에 歸於烏有하고 在班學徒는 各奔東西에 未免獸鼠호니 所經歷史는 言之臆塞이오 有淚盈襟이라 第以目下邑勢民情之棲遑靡靜은 興學設校를 猶未暇擬議이나 本郡守鄭公이 撫恤有方호야 散者還集에 一般燒戶를 稍稍結搆호니 邑之完成을 指日可期인즉 青年教育을 亦不可一日廢也니 此는 龍門學校之重建築者也라 將來校況之漸致興旺은 以待贊成者之有始終이어나와 現今經始之籌劃方針이 唯在有志人之苦心熱誠이니 一般同胞가 苟不共心而協力이면 寧復睹今日本校之更舉乎아 夫教育振興은 非一人一家之事오 實關於國脉消長之如何이니 惟願有義僉君子는 各自舊發獎勵에 人人義助하고 家家捐補호야 鮮終爲戎호며 前道是從을 千萬願

• 신문명 皇城新聞 1908년 04월 24일(大韓隆熙二年四月廿四日金曜)

기사제목 進龍開校 기사유형 雜報 기사위치 1면 06단

進龍開校 楊根西中面進龍學校에서 陰二月十八日에 開校式을 舉行호는디 當日齒學호 學徒가 四十二人에 達호얏고 學員의 父兄과 學校에 視務호는 僉員과 內外紳士의 贊成호는 諸氏가 雲集호야 各其祝辭을 演述호는디 本郡守 鄭元模氏는 學校興旺호는 祝辭요 教師 成樂允氏는 人民의 愛國思想과 父兄의 教子誠心의 祝辭요 校監의 李奎夏氏는 學徒의 進明호는 祝辭요 總務의 鄭泰憲 李殷哲 兩氏는 教育義務가 有始克終호 祝辭요 演說호얏는디 本面이 昨年擾攘을 經호 後에 烟戶의 光景이 愁慘호더니 戰伐場이 一變호야 文明新洞天을 闢호얏다더라

8) • 신문명 皇城新聞 1908년 07월 24일(大韓隆熙二年七月廿四日金曜)

기사제목 支會長報告 기사유형 雜報 기사위치 1면 05단

支會長報告 楊根郡 畿湖興學會支會長 金裕定氏가 本會에 報告함이 如左호니 現接本郡 西中面 進龍學校 副校長 柳映函 請호은즉 內開에 敝校는 本面에 所在호 乾芝山으로 維持호 方針을 作호온바 此山은 自來公共民有로 典性署에 係屬이되야 本面이 每年에 柴四千束式該署에 應納하고 其餘는 一面이 菑蕘共往호며 或凶年이면 斫伐호야 一面救荒도 호며또 本郡結價를 每一負一錢八分內에 本面인즉 正以八分六里式上納케호니 此는 民有를 屬公함이 公家에서도 民情을 特念호신 所以라 該署가 革罷호 後에 結稅는 公에 還復하고 此山에 面에 一付호얏더니 三十年前에 京城居趙東潛이가 此山近麓李姓의 山에 借葬하고 又十八年前에 許姓에 山兩塚間의 勒葬호더니 自丁酉以後로 溪壑의 無厭과 稍蠶의 食으로 今年의 一麓을 奪하고 明年의 一麓을 奪호야 畢竟은 乾芝全局을 沒喫호나 此時인즉 華族의 風力이 轟烈호야 法令이 武斷家으로 出호던 歲月이라(이하 생략)

은철씨도 '공부를 일단 시작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당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용문 학교와 함께 진용학교도 사립이지만 군수와 군 주사들이 앞장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평군 쪽에도 사립학교 설립은 이 무렵 성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908년 3월 17일 김효병(金孝炳), 이건영(李建永)씨가 지평군에 사립계명학교(私立啓明學校)를 세워⁹⁾ 개학예식(開學禮式)을 거행하였는데 학도 20여명과 학부모,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날 개교식에는 정원모 군수가 개교의 취지와 축하 인사를 했고 총무 권중익씨는 교육의 필요성을 그 밖에 내빈들도 덕담을 해주었으며 교사 한익교씨가 애국가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외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황성신문 3월 31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되는 1908년에는 양근 군수가 지평군수를 겸임했고 이건영씨는 지평군 주사임)

전술했다시피 1908년 11월 14일 황성신문에 의하면 당시 양평 관내 12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한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관보, 직원록, 황성신문 등에 실린 기록들은 8개 학교였는데 이 기사에는 12학교로 나와 있는 것이다. 1908년 이전의 기록을 더 찾아 나머지 4개 학교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황성신문 기사 내용이다.¹⁰⁾

9) 지평군(현 양평군) 계명학교 설립 관련 기사

- 황성신문 1908년 3월 31일
- 기사명 砥校開學

砥平郡 私立啓明學校에서 本月十七日에 開學禮式을 舉行하였는디 學徒二十餘名과 學徒의 父兄과 内外國紳士 百餘人이 多數 會集하여 順序 排立한 後 校長郡守署理 鄭元模氏는 開校에 趣旨와 祝辭를 演述하고 總務 權重翊(권중익)氏는 教育에 必要를 演說하고 贊成長駐隊中尉中村正氏는 勸勉旨意를 演述하고 其他來賓諸氏도 次第演說하고 教師 韓錫教(한익교)氏는 愛國歌를 唱하고 萬歲를 呼함으로 該郡이 經擾之餘에 有此盛況은 人心이 興起됨을 可驗이라고하더라

10) 황성신문 1908년 11월 14일

기사명 楊校運動 기사유형: 雜報 기사내용: 楊校運動

楊平郡境內 十二學校가 本月四日에 聯合運動會를 設行하였는디 學徒가 四百三十餘員이오 運動科目은 旗取, 計算, 兩人三脚, 高跳, 廣跳, 인디 優等生은 裴振聲, 曹鳳二, 金順基, 金益瓚, 李容德, 李秉俊, 朴熙鳳, 尹仁俊, 崔興達, 崔春鳳, 鄭允奉, 趙止植, 金大根, 禹允基, 崔榮基, 千眞福, 卞壽元, 金鳳出, 鄭豐日, 順基 鄭弘錫, 金基鎬, 權止植, 李基鍾, 李抑釗, 金長根, 呂運弘, 閔泳好, 李建虎, 諸氏라 當日組織한 運動會任員諸氏가 設施施賞하고 本郡守 鄭元模氏가 三圓價値教科書로 最優等二人에게 施賞하고 郡主事李殷哲氏는 楊平郡各學校聯合大運動紀念이라고 印刷한 空冊을 一般學徒에게 一部式施給하고 龍門學校 教師 姜東雲氏는 紙卷烟三箱子을 寄付하고 郵便取扱所長山中梅次郎氏는 空冊拾部을 寄付하고 郡主事安翼洙氏는 空冊四卷鉛筆二打로 最優等二人에게 施賞하고 日本人上野益吉氏는 金三圓을 運動會에 寄付하였스며 午後四時에 各學徒가 聯合作隊하여 柔軟體操을 一時間舉行한 後에 運動歌을 齊唱하고 郡衙에 會集하여 萬歲를 呼함하니 觀光者가 人海를 成하여 隣近郡邑에 初有한 盛事라고 拍手贊頌하였다더라

「1908년 11월 4일 양평군 관내 12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학생이 430여명이 다. 운동과목은 릴레이, 2인 삼각경기, 높이뛰기, 넓이 뛰기 등 이었는데 우승자는 여운홍을 비롯한 28명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원모 군수가 3원 상당의 교과서를 최우수 2명에게 시상하고, 군주사 이은철씨는 '양평군각학교연합대운동기념' 이라고 새긴 공책을 일반 학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교사 강동운씨가 종이권련 3상자, 일본인 우체국장이 공책 10권, 군주사 안익수씨가 공책 4권과 연필 2타스를 기부하였다. 오후 4시에 각 학도가 합동으로 체조를 1시간가량 한 후, 운동가를 제창하고, 군청에 모여 만세삼창을 외치니 군중들이 구름같이 모여 사상 초유의 흥룡하고 장한 일이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같은 신문 1910년 5월 7일자 기사에서는¹¹⁾ 「순종이 동적전(東籍田)에서 친히 농사일에 시범을 보일 때 '양평군지방위원 이근하, 이종덕씨가 정원모 군수의 위임을 받아 군내 공립학교 학도 4명과 사립학교 학도 4명을 인솔하여 동적전에 참여했다」 는 기록이 있다. 동적전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전근대국가에서 농사를 권장할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농사를 주관하는 神인 신농씨(神農氏)에게 제사 지내고 국왕이 백성에게 농사 시범을 보이기 위해 두었던 국가 행사였다.

이 기사들은 양평군교육청에서 발간한 '양평교육사'에서도 게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1908년경 양평군내에 이미 12학교가 존재했고, 전체 학생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합운동회에 참가한 학생들만 430여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또한 국왕이 주재하는 주요 행사에 군내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학교 운영도 안정적이었고 학생들의 위상도 높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양평지역의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근대식 학교 설립 현황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에도 양평 교육은 더욱 활발하게 설립 운영되었다.

1913년(癸丑)에는 용문면 광탄리 남원양씨 종중이 운영하던 서당을 확대, 개축하여 광명의숙(光明義塾)을 창설하고 널리 타지방 타 성씨 학생도 모집하여 시대문화 계발에 적응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초대 숙장(塾長)에는 양성환씨, 2대 숙장에는 양재관씨, 교사는 김경덕, 최용집, 양재극씨 등이 맡았다고 양씨문중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 학교는 1915년(乙卯) 현 용문초등학교 위치로 이전, 건축한 뒤 사립지평학교로 개칭하였고, 이듬해인 1916년(丙辰) 남원양씨 종중재산

11) 황성신문 1910년 5월 7일

기사명 委員祗迎 기사유형: 雜報 기사내용: 雜報 ●委員祗迎

再昨日 大皇帝陛下게옵서 東籍田에 御臨親耕하옵시는데 楊平郡地方委員 李根夏, 李鍾德 兩氏가 本郡守 鄭元謨氏의 委任을 受하야 同郡公立普通學校學員四人과 私立龍門學校學員四人을 領率上來하야 東籍田에 祗迎하얏다더라

1,450평을 기부하여 공립지평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 5월 15일 개교하였는데(현 용문초등학교) 이때부터 지평 5개면 청년자제들의 교육의 기반을 확립했다. 개교 당시 지평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교장과 한국인 교사 2명이 교실 두 칸과 부속 시설을 갖추어 4년제 2학급을 편성하여 학생을 지도하였다.

한편, 당시 여주군에 속해 있었던 개군면에는 1921년 지역 유지들이 면내 서당을 모두 폐지한 후에 600여만 원을 들여 광명의숙(光明義塾)을 설립했다고 동아일보 같은 해 7월 22일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1929년 5월 3일 공립개군보통학교로 설치인가를 받아 재 개교했다.¹²⁾ 광명(光明)이란 뜻이 좋아서인지 같은 이름의 학교가 전국에 여럿 발견된다.

사립학교로는 이보다 앞서 지평면 곡수리에 나운보, 신태위 등이 1910년 세운 사립수성학교(私立修成學校)가 있다. 이 학교는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제52권」 1913년도 자료에 의하면 교원이 2명, 학생수가 3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 때 이 지역 신학문을 전파했던 사립수성학교는 해방 뒤인 1949년 11월 28일 개교한 곡수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방 뒤 중학 과정은 1947년 6월 24일 양평초급중학교(양평중학교 전신)가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1949년 2월 17일 사립인 서종고등공민학교(서종중학교 전신)가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여 중·고등학교 설립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그 밖에도 1922년 11월 갈산면(현 양평읍) 신애리에 신애노동야학(新愛勞動夜學) 설립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등 각 신문에 게재된 ‘노동야학’이나 개량된 서당이라 할 수 있는 ‘의숙(義塾)’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은 야학 및 노동야학 설립 현황이다.

- 1922년 신애노동야학(양평 신애리) 설립
- 1922년 연수학당(용문 연수리) 서상규, 서병돈, 박영인, 홍성운
- 1923년 성호학당(용문 삼성리) 안동권씨 문중
- 1924년 성덕학당(강하면 성덕리) 서재철, 윤중호
- 1924년 광탄노동야학(용문 광탄리 3년 과정) 양재은
- 1927년 청운노동야학(청운 다대리) 박효원
- 1928년 갈산노동야학(양근리) 최석준, 김보형, 김백원

12) 동아일보 1921년 광명의숙

개군면에는 1921년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동년 3월 면내 서당 전부를 해산하고 6백여원의 비용으로 10여 칸의 교실을 신축하고 사립 광명이라 칭하여 교사 2명을 초빙 보통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임교사는 오필희(吳弼喜), 조규선(曹圭善) 兩人이며 학도수는 90여명이었다. 당시 광명의숙에 의연금을 회사한 유지들은 오순근(吳舜根) 150원, 최인옥(崔仁玉) 100원, 김익진(金翼鎭) 50원, 김인식(金寅植) 50원, 박기종(朴基宗) 20원, 이오승(李五升) 4원 등이다.

1920년대 이후부터 일제는 보통학교의 3면 1교 계획을 추진하였다.

일제 초기 식민지 교육의 기본정책은 1911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으로 제도화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일본의 문물을 주입하며, 일본인 교사를 고용하고, 교과서를 통제하여 한국인 교사와 학생의 사상을 감시하는 등 온갖 교육적 노력을 ‘충양(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데 기울였다.

경기도(경성부 포함)의 경우 1910년과 1918년을 비교해 보면 보통학교가 46교에서 110교로, 고등보통학교가 1교에서 9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가 3교에서 6교로 늘어났으나, 실업학교는 5교에서 3교로 각종 학교는 268교에서 122교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1918년에서야 간이실업학교는 18개교, 전문학교는 6개교가 증설되었다. 이 시기의 증가 현황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일제의 규제에 인하여 많은 학교가 감소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양평군의 교육을 살펴보면 1911년 7월 양평공립보통학교 부설로 운영되던 간이농업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 그해 9월 1일 개교하였고, 사학으로서는 서종면 문호리에 사는 양반들이 세운 문상학교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곡수리에서는 1910년 나운보 등이 발기하여 곡수수성학교(현 곡수초등학교)를 창설하여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일제는 무단정치를 완화하는 소위 문화정치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교육제도 면에서도 수정을 가하여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보통학교 6년, 중등학교 5년으로 올리는 동시에 처음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 국민의 격화된 반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일시적 융화정책에 불과하였으며, 교육내용 면에 있어서는 황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1928년부터는 실과 훈련 위주로 되돌아가 보통학교의 수의과목(隨意科目)이었던 직업과를 오히려 필수과목으로 승격시켰으며, 1931년부터는 ‘교육 즉 생활’, ‘생활 즉 근로’라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고 농민정신 훈련을 위한 졸업생 지도학교, 일어 교육을 위한 간이학교, 단기 직업훈련을 위한 농업보습학교 등을 만들고 농업학교도 증설하였다. 이렇게 실과 교육을 더욱 강조한 것은 민족주의 사상의 팽창을 억제하고 식민지 경제수탈정책에 안정을 도모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의 3면 1교 계획에 뒤이어 1면 1교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약 2,300여 교로 팽창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1910년 관·공·사립학교 수는 46교이던 것이 1936년에는 332교로 증가하였다. 양평군의 초등학교도 많은 학교가 이 시기에 개교되었으며 개교시기를 연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1920년 11월 1일 사립 문상학교가 문호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여 개교(현 서중초등학교)
- ▲ 1922년 5월에 지역 유지들이 설립한 사설 학술 강습소인 광명의숙이 개군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29년 5월 3일 개교(현 개군초등학교)
- ▲ 1924년 4월 청운면 용두리에 용두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25년 2월 1일 개교(현 청운초등학교)
- ▲ 1926년 5월 서중면 수입리에 전의이씨 문중에서 사설교육시설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대지 500평에 교사 20평을 신축함(현 수입초등학교)
- ▲ 1926년 8월 양서면 도곡리에 양서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1927년 4월 12일 개교(현 양서초등학교)
- ▲ 1927년 10월 30일 지평공립보통학교가 광탄공립보통학교로 교명 변경
- ▲ 1927년 서중면 정배리의 유지들이 정배사숙을 설립·운영을 하다 1935년 5월 14일 문호공립보통학교 정배 간이학교로 인가를 받아 개교(현 서중초등학교 정배분교장)
- ▲ 1930년 2월 양서면 청계리에 한윤헌이 사재를 출연하여 대아의숙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현 대아초등학교)
- ▲ 1931년 4월 1일 양동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현 양동초등학교)
- ▲ 1931년 9월 지제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32년 4월 18일 개교(현 지평초등학교)
- ▲ 1932년 7월 옥천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그해 12월 10일 개교(현 옥천초등학교)
- ▲ 1934년 7월 강하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그해 11월 15일 개교(현 강하초등학교)
- ▲ 1934년 4월 1일 양동면 계정리에 양동공립보통학교 계정간이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현 계정초등학교)
- ▲ 1934년 4월 14일 단월면 덕수리에 광탄공립보통학교 부설 덕수간이학교로 개교 한 후 1937년 4월 1일 단월공립보통학교로 승격(현 단월초등학교)
- ▲ 1935년 7월 강상면 신화리에 강상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그 해 11월 2일 개교(현 강상초등학교)
- ▲ 1936년 4월 15일 고송간이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현 양동초등학교 고송분교장)
- ▲ 1936년 5월 27일 지제면 일신 2리에 지제공립보통학교 부설 일신간이학교 개교(현 지평초등학교 일신분교장)

따라서 일찌감치 개교를 한 양평공립보통학교, 광탄공립보통학교와 함께 1면 1교 이상의 초등교육기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 정치 시기에 팽창한 것은 초등교육에 국한된 일이었고 중등학교의 문은 여전히 좁았으며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양평 교육에 있어서도 중등교육은 실업보습학교 1교 외에는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여 학교 명칭을 일본인의 학교와 같이 보통 학교를 소학교(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나눔)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등으로 통일하고 차별교육제도를 철폐한다고 하였으나 내용 면에서는 양국인 간의 교육적 차별이 변함이 없었다. 특히 조선어는 정과로부터 수의과로 격하시켜 될 수 있는 대로 교육과정에서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황국신민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였다.

3) 양평초등학교의 역사와 성장 과정

필자는 2011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출간된 ‘양평초교 100년사’를 총괄 집필하면서 잃어버린 10여 년의 역사를 다시 찾아 복원한 바 있다. 100년사를 쓰기 전까지는 누구도 1911년도 개교했다는 학교 연혁을 의심하지 않았다.

필자가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2쪽 분량의 연혁(沿革)과 졸업생 명부뿐이었다.

당시 발간된 관보나 황성신문, 직원록 등만 제대로 검색해도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을 학교 관계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일제가 만든 총독부 고시로 설치인가를 받아 다시 개교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비단 양평초등학교만의 치부(恥部)가 아니다. 1908년경에 군내에 12학교가 존재했다는 위 기사에서처럼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세운, 2011년 현재 100년을 넘는 학교가 양평군내에 적어도 12개 이상이라는 얘기다. 양평의 근대교육사를 발굴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2011년 100년사를 집필한 뒤 학교의 개교가 1911년이 아니라 적어도 1902년부터 소급해야 한다는 확신은 학교의 3요소 중 학생을 뺀 교사(校舍)와 교사(教師)에 관한 기록이었고 관보에 학교 명이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최초의 교사(校舍)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학교였던 건물과 대지의 등기가 구등기부등본에 ‘양평학교비(楊平學校費)’로 되어 있었고, 그 후 1936년 일제가 개인소유로 넘겼음이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와 집필자는 학교 건물이 세워진 1900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간으로 정하고 관보에서 당시 군수 이낙응(李洛應)이 양근 군수로 재직한 기간이 1900년 1월 16일부터 1902년 3월 7일까지임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다. 당시 군수는 소학교를 설립하거나 후원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낙응 군수가 학교를 설립했다는 기사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1916년 3월 6일 제 3회 졸업식 기념사진 배경에 그 건물이 찍혀 있었고, 1923년 8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 ‘양평공립보통학교가 구 관아삼문(官衙三門)밖에 있어 교사(校舍)가 협착하므로 3~4백명 학생을 수용할 여지가 없고 매년 우계(雨季)에는 학교 전면에 있는 교량이 붕괴하여 곤란했는데 면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 현 군청 좌측에 조선식 반양제(한옥과 양식을 섞어지은 집)로 신축을 시행, 불원간 공사가 시작되리라는 전망’의 기사가 있어 1923년 전까지는 교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16년 졸업사진〉

양평초등학교에서는 그 건물을 최초의 학교라고 인정하여 모형까지 만들어 학교에 전시했고 집주인 허락 하에 구교사(舊校舍) 건물 입구에도 표지석을 세웠다.

둘째, 학교 운영의 주체 가운데 교사의 발령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2년 1월 발행한 관보 제2094호에는 당월 11일 「양근군공립소학교 부교원 최재운 임명」을 비롯하여 연이어 관보 제2231호, 제2287호, 제2348호, 제2414호, 제2533호 등에 부교원 발령기사가 나온다.¹³⁾

13) 공립양평보통학교의 전신 양근보통학교(양근소학교) 관련 기사

- 官報 2094호 光武六年(1902년 1월 11일)一月十一日 土曜
學事: 楊根郡公立小學校 副教員은 崔在雲(최재운)으로
- 官報 2231호 光武六年(1902년 6월 20일)六月二十日 金曜
學事: 楊根郡公立小學校 副教員 崔在雲은 解任하고 李範寧(이범녕)으로
- 官報 2287호 光武六年(1902년 8월 26일)
學事: 楊根郡 公立小學校 副教員 李範寧은 解任하고 柳台永(류태영)으로

또한 2011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손봄이 저) 「대한제국시기 공립소학교 연구(경기지역 공립소학교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관보에 나타난 최초 교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지역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에도 한성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내 21번째로 1902년 1월 11일 설립일을 제시하고 있다.

1895년~1905년까지 경기지역에 설립된 공립소학교(손봄이 논문)

연도 지역과 최초 교원 발령일

1895년 한성부 공립소학교(교원 최만장, 음력 8월 13일)

1896년 인천부 공립소학교(교원 변영대, 1월 22일)

수원군 공립소학교(교원 이필구, 2월 4일)

강화군 공립소학교(교원 정지석, 2월 4일)

개성부 공립소학교(교원 이종협, 2월 10일)

파주군 공립소학교(교원 이한응, 3월 20일)

양주군 공립소학교(교원 김귀연, 6월 10일)

경기관찰부 공립소학교(교원 황한동, 9월 16일)

1897년 김포군 공립소학교(교원 조관증, 9월 8일)

통진군 공립소학교(교원 최인식, 11월 16일)

1899년 진위군 공립소학교(교원 최교홍, 4월 11일)

남양군 공립소학교(교원 박제현, 10월 24일)

안산군 공립소학교(교원 김광식, 11월 6일)

-
- 官報 2348호 光武六年(1902년 11월 05일)
學事: 楊根郡公立小學校 副敎員 柳台永은 解任하고 韓應履(한응이)로
 - 官報 2414호 光武七年(1903년 1월 20일)
學事: 楊根郡公立小學校 副敎員 韓應履는 解任하고 權友澤(권우택)으로
 - 官報 2533호 光武七年(1903년 6월 09일)
學事: 楊根郡公立小學校 副敎員 權友澤은 解任하고 尹溟(윤명)으로
 - 官報 3863호 第三千八百六十三號 / 隆熙元年(1907년)九月五日 木曜
學事: 公立 楊根普通學校 副敎員 敍判任官十級 安在純(안재순) 任
 - 官報 3997호 第三千九百九十七號 / 隆熙二年(1908년)二月十四日 金曜
學事: 鄭慶時(정경시) 任公立楊根普通學校專科副訓導敍判任官四等
 - 1908년 7월 1일 황성신문
李禮鼎(이예정) 任 公立楊根普通學校 專科副訓導敍判任官五等
 - 官報 4279호 第四千二百七十九號 / 隆熙三年(1909년)一月二十日 水曜
學事: 公立楊根普通學校專科副訓導 李禮鼎 依願免本官(一月十二日學部)
 - 官報 4337호 第四千三百三十七號 / 隆熙三年(1909년)三月三十日
學事: 公立楊根普通學校 專科副訓導 敍判任官五等 | 吳俊三(오준삼) 任
 - 1910 鄭慶時 양평보통학교 專科副訓導 8(당분월12)
 - 1910 朴弼煥 양평보통학교 本科副訓導 7(당분월17)

풍덕군 공립소학교(교원 정규중, 12월30일)
 1900년 포천군 공립소학교(부교원 서상우, 12월10일)
 용인군 공립소학교(부교원 하석우, 9월6일)
 과천군 공립소학교(부교원 신종묵, 7월20일)
 부평군 공립소학교(교원 박희명, 2월27일)
 양천군 공립소학교(교원 김규원, 2월27일)
 1901년 광주부 공립소학교(교원 심승직, 1월17일)
 부교원 한택승, 1900년11월25일)
 1902년 양근군공립소학교(부교원 최재운, 1월11일)
 1904년 안성군 공립소학교(부교원 한상오, 11월4일)

그리고 교원 발령 기사는 그 후에도 1907년 안재순을 비롯하여 1908년 정경시, 이예정, 1909년 오준삼, 1910년 정경시, 박필환과 같은 해 3월 30일 양평 군수 정원모가 양평공립보통학교장을 겸임한다는 기사가 관보와 황성신문 등에 게재되어 있어 사실기록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3월30일 양평군수 鄭元謨(정원모) 兼任 공립양평보통학교장
 1910년 鄭慶時(정경시 專科訓導)와 朴弼煥(박필환 本科副訓導) 임명
 1910년 6월13일 公立楊平普通學校 學務委員 池圭植 韓奎源 南周熙 李鍾洛 呂重鉉
 [관보 제4759호]

셋째, 학교명(學校名)의 변경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⁴⁾

- 14) •보통학교령(1906. 8. 27. 칙령 제44호)에 의거
 1906년 8월 27일 양근군공립소학교에서 공립양근보통학교로 개명
 • 官報 4374호 第四千三百七十四號 / 隆熙三年(1909년 5월 12일)五月十二日 水曜
 學部告示 第五號 公立楊根普通學校를 公立楊平普通學校로 改稱함
 學部大臣 李載崑
 • 皇城新聞 1910년 4월 22일(大韓隆熙四年四月廿二日金曜)
 官報 ○叙任及辭令 ○三月三十日
 • 楊平郡守 鄭元謨 兼任 公立 楊平普通學校長

지금까지 발표된 교육사 관련 논문에 양평공립보통학교가 1911년 이전 기록이 누락된 이유로 지명의 변경을 들 수 있다. 1908년 9월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되기 전까지는 양평군이란 지명이 없었다.

따라서 교육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양근군공립소학교는 양평공립보통학교와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여 1911년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보와 황성신문 등에 양근군공립소학교를 공립양근보통학교로 개칭한다는 기사와 학부고시 제5호로 공립양근보통학교를 공립양평보통학교로 개칭한다는 기사가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 이론(異論)이 없다고 본다.

1906년 8월 27일 '양근군공립소학교'에서 '공립양근보통학교'로 개명[관보]

1909년 5월 20일 학부고시 제5호로 공립양근보통학교를 공립양평보통학교로 改稱함

[學部大臣 李載崐]

통감부는 조선인을 철저히 우민화(愚民化)하여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1896년부터 1905년까지 10년 동안 조선 정부가 노력한 신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校史)를 말살해 버렸다. 즉,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식민지 교육을 3년 받은 졸업생부터 제1회로 조작하여 수원군공립소학교와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등 대다수의 학교가 10년의 학교 역사가 일제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학교의 졸업횟수는 개교연도와 수업연한 등의 학제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설립된 대다수의 학교는 10여 년의 기록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남양군공립소학교도 1910년 졸업생부터 1회로 졸업 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양평공립보통학교도 1914년 3월 25일 졸업한 11명의 졸업생부터 1회로 기록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통감부 설치 이전 역사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적 행정이었다. 다행히 독립운동가 변준호 동문의 홍사단 제출 이력서에 '1912년 양평공립보통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1회 졸업생 이전에도 학생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감부 설치 이전에 설립된 전국의 모든 학교들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정해야 타당하다. 따라서 양평초등학교의 개교일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최초 기록인 1902년 1월 11일 최초의 교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고 본다.

한편, 양평초등학교 교사들의 면면도 법관양성소(서울법대 전신) 1회 졸업생이며 법학박사인 류태영씨, 국내 최초 서점 겸 출판사 의진사(義進社)를 설립한 한웅이씨, 종교철학자 다석 유명모 선생 등이 당시 양평지역 소학교 교사들이다. 양평지역만 해도 이렇진대 구한말 당시 관찰사나

목사(牧使)가 집정하던 대도시에는 그동안 기록에서 찾지 못한 학교들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진다.

이 학교에서 1908년~1911년 근무했던 정경시 선생과 박필환 선생은 훗날 기미만세운동(1919년) 때 양평 청운과 대구 신령에서 각각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루기도 했고 그 분들의 제자인 변준호 동문은 상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일제 초 · 중기의 공립양평보통학교 변천

1923년 12월 15일 양평보통학교는 학교[校舍]를 관문골에서 현 위치로 옮기게 된다.

1923년 8월 6일 발행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양평공립보통학교가 옛 관아(현 양근리 151-2)에 있어 그곳에서 3~4백 명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비좁아 새로 지은 양평군청사 옆으로 신축하여 옮길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신문에 양평공립보통학교는 구 군청소속 청사를 수리하고 매년 증축하여 근근히 쓰고 있었으나 비좁아 당시 갈산면장 김찬제씨가 학구(學區)내에 있는 남시면장과 고읍면장 등과 의논하고, 군·면 당국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건물을 신축, 12월 15일 이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1921년도까지는 현 양근5리 지역인 관문골에 군청사(郡廳舍)와 학사(學舍)가 모두 함께 있었으나 군 청사를 먼저 옮기고(1921년) 2년 뒤 학교도 그 옆으로 옮겼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신문 1926년 10월 10일 기사에는 양평공립보통학교를 사립용문학교의 후신(後身)으로 기재하고 있다. 남한강가에 2만원을 들여 큰 교실을 신축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사립용문학교의 후신이며 금년까지 252명(남 216, 여 36)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관보와 황성신문에 의하면 양근군공립소학교가 1906년 공립양근보통학교로 개명했고, 1909년 다시 공립양평보통학교로 개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에는 1909년 사립용문학교 후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학교에 보관된 졸업생 명단에는 1926년 13회 졸업생까지 총 243명인데 기사에는 252명으로 더 많다. 결국 동아일보 기사엔 사립용문학교를 마친 졸업생들도 포함시킨 숫자로 볼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는 사립용문학교 기사도 간혹 눈에 띄었는데 한일합방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926년 동아일보에 공립양평보통학교의 전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립용문학교 위치가 읍내에 있다가 군청과 공립학교가 크게 확장하여 현 위치로 옮

겨 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을 흡수, 합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관문골에 있었던 양평군청은 현 위치로 1921년 5월 8일 낙성식을 하며 옮겼고, 양평보통학교는 1923년 12월 15일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졸업생 명단은 일제에 의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양근군공립소학교와 사립용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자료가 발굴된다면 양평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어에 대한 배움의 열망이 대단했다. 동아일보 1923년 9월 3일 기사에 의하면 그해 여름에 서울의 보성고등보통학교 강사로 있는 이규방 선생(주시경 선생의 문학생으로 신찬조선어법(新撰朝鮮語法 펴냄)을 양평청년회에서 초빙하여 학교에서 '조선어연구'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였는데 청강하는 사람이 대만원을 이뤘다고 한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의식이 되살아나 우리글과 말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높아졌던 것 같다.

당시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것 같다. 1924년 6월 14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양평군청에서 주관하여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단지 1천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각 면과 학교는 물론 양평보통학교에서도 시가지를 돌며 캠페인을 펼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26년 9월 12일엔 학부형 모임에서 양평공립보통학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윤성희 전군수를 추대하고 부회장에 이범기씨를 선출했다.

그 무렵엔 관내에 운동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의 체육행사나 기념행사장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1928년 7월 28일 기사엔 양평체육회 주최(동아일보 양평지국 후원)로 제2회 중조선(中朝鮮)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중조선(中朝鮮)라는 뜻이 중국과 조선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중앙지역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광주를 비롯한 여주, 양주, 가평, 이천, 용인 등은 물론 강원도 일부지역까지 축구선수들이 폭넓게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무렵에는 7월 백중에 시내에서 씨름대회 대신 각희(脚戲)대회를 5일간 개최했다고 하는데 줄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함께 하며 즐긴 것 같다. 각희는 오늘날 태권으로 수박희라고도 한다. 상품으로는 우승에 황소 한 마리, 준우승은 광목 한필을 주었다고 한다. 1937년 8월 1일엔 「양평군농회」 주최로 저녁시간에 농촌진흥정책과 농사개량에 대한 홍보영화를 양평보통학교 교정에서 방영하는 시사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2천여명의 관중이 모였다고 신문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인 1930년대 후반부터는 징용으로 차출되어 끌려간 동문들도 많은데, 한편으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상호 소식도 듣고 소통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5) 양평보통학교 교세(敎勢) 및 부설(附設)학교

(1) 공립양평보통학교 교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09, 1910, 1911년)와 『朝鮮諸學校一覽』에서 자료 계 15년간의 교세를 정리하니 <표 1>과 같다.

1936년, 1937년, 1942년, 1943년 조선제학교 일람은 군별로 통합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양평학교 단독 교세는 제시할 수 없다. 표에서 15년의 통계를 살펴보니 교직원은 1910년에는 조선인 2명이었던 것이 1918년에는 조선인 2명 외에 일본인 3명이 늘었다. 1910년에는 1학년 남학생만 81명이었고, 2학년 이상은 없었다. 1934년에는 조선인 4명, 일본인 6명이 늘어 일본인이 점차 점령해 들어온 추세를 알 수 있다. 1910년에 남학생만 81명이었던 것이 1918년에 여학생이 48명, 1941년에는 남자 595명(65%), 여자 323명(25%) 계 918명으로 늘었다. 2013년 현재 남녀 1,387명이다.

<표 1> 양평보통학교 교세(학교명, 교세, 창립 시기는 생략, 상단은 남, 하단은 여)

연도	학급수	직원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경비		
		조선인	일본인									경상부	임시부	계
1909. 3 월말	2	3		3	59						59			
1910. 3 월말	2	2		2	81						81			
1911. 3 월말	2	3		3	67						67	4,529		4,529
1918. 5 월말	4	2	2	4	60	54	59	35			208	3,166	459	3,625
	1	0	1	1	14	16	18	0			48			
1919. 5 월말	4	2	3	5	57	43	44	30			174	3,258	1,260	4,518
	1	0	1	1	11	8	10	6			35			

1922. 5 월말	6	2	3	5	72	68	50	29	22	11	261	36,453	32,910	69,363
	4	0	1	1	24	15	4	6	0	0	49	砥平, 美原, 汶湖院보교까지슴		
1926. 5 월말	6	2	5	7	63	62	64	64	59	36	339	11,502	0 0	11,502
	2	1	1	2	22	17	12	9	9	0	69			
1928. 5 월말	4 △ 2	2 × 1	5 × 1	7 × 2	63	58	65	66	70	60	382	11,097	2,500	13,597
	2	1	1	1	30	14	14	16	8	5	87			
1929. 5 월말	6 △ 2	2	5	7	66	60	54	57	66	61	364	11,500	0 0	11,500
	2	1	1	2	27	23	11	13	15	9	98			
1931. 5 월말	4 △ 2	2	5	7	72	74	68	46	66	48	374	11,300	90	11,390
	2	1	1	2	28	30	21	17	13	7	116			
1932. 5 월말	4 △ 2	2	5	7	71	66	69	63	51	61	381	11,647	35	11,682
	2	1	1	2	23	22	29	19	18	12	123			
1933. 5 월말	6	2	5	7	72	61	59	65	70	51	378	14,166	390	14,556
	3	1	2	3	32	17	17	26	22	17	132			
1934. 5 월말	6	3	4	7	74	70	59	68	76	67	414	13,549	3,500	17,049
	3	1	2	3	41	35	15	16	24	22	153			
1939. 5 월말	10	7	4	11							507	13,612	12,000	
											237			
1941. 5 월말	13	6	7	13							595	19,669	10,062	
											323			

-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1911), 『朝鮮諸學校一覽』 (1934년까지), 『경기도교육
과 종교요람』 (1939, 1741)

학급수란 중 △은 남녀 혼합학급, 직원 수 중 ※는 겸무자, ×는 교직원인 아닌 자

(2) 학무위원 (學務委員)

1908년(융희2년) 학부훈령 제66호의 발표에 의하여 관·공립보통학교 소재지에 학무위원을 배치하여 학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군수, 교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답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입학 권유, 교내 설비, 기타 보통교육 장려였다.

각 공립보통학교에 각 4~5명의 학무위원이 있는데 이들은 도지사(관찰사)가 임명한다.

대한자강회에서는 1906년 8월 이후 3개월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의무교육 실시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관·공립학교 모두 어려우므로 학구를 정하여 그 안에 학무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학구내에 사는 주민에게 일정한 돈을 징수하라고 하였다. 이는 1906년부터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학무위원 제도를 주창한 것이다. 이 때 이 건의를 조정에서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학부차관 다와라 마고이치(俵 孫一)는 1908년 7월 제2회 관공립보통학교 교감회의 석상에 서 학무위원 설치에 관한 교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학무위원의 제도를 설치하는 까닭은 보통학교에서는 학도의 모집 또는 기타 종종 보통학교에 대한 시설 등에 관하여 종래는 오로지 관찰사, 부윤, 군수 등 관헌 등에 자문을 받는 노고를 하여 왔으나 이제부터 지방 유지들의 원조를 빌릴 필요가 있어 여기에 학무위원의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학교에 위원 7인 이하를 관찰사가 선출하여 학교를 보살펴주는 후원자가 되면 그들은 더욱 한층 지금까지 유지에 급급하기 보다는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무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과는 전혀 그 취지가 다르다.”

다와라는 전술한 대한자강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무위원제도를 2년이 지나서 설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문맥으로 보아 학무위원제도는 다와라 차관이 만들었고 그 목적은 학사에는 관여하지 말고 학도 모집의 협조와 시설에 관한 후원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무위원 규정준칙 제2조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가 규정화 된 것은 1908년 6월 22일 학부에서 학무위원규정준칙을 만든 때부터이다. 이 준칙에서 부윤 군수가 학무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학무위원회를 두고 학무위원은 입학의 권유 및 출석 독려와 설비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고 하였다.

1911년 보통학교비용령과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20년에 보통학교비용령을 대폭 보완하여 조선학교비용령과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때 자문기관인 학교비용령으로 구성된 학교 평의회를 만들어 모든 비용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1913년 학교조합령과 1914년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인 자제교육을 위하여 세운 심상소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염출규정이다. 그들은 재정제도는 따로 운영하였다. 1908년 6

월 22일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崑)은 한성부와 13도에 “보통학교 소재지에 학무위원을 두고 보통 교육 보급 발달을 도모함은 급선무이기에 준칙을 제정하니 이 준칙에 근거하여 규정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하였다.

〈양평보통학교 학무위원〉

지규식(池圭植), 한규원(韓奎源), 남주희(南周熙), 이종락(李鍾洛), 여중현(呂鍾鉉)

(관보, 1910. 8. 17)

홍현세(洪顯世), 서병희(徐丙喜), 김최수(金最洙), 이중철(李重喆), 이범기(李範基)

(관보 1912. 11. 7)

※ 지규식 학무위원은 궁중 도자기를 만드는 분원에서 도자기납품업을 하며 하재일기(荷齋日記)를 써 오늘날 구한말 생활양식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3) 양평보통학교 부설 농림잠교육

① 양평간이농업학교와 부설 농잠실수학교

실업보습학교의 교과과정(1929)은 아래와 같다. 1929년 이전의 교과목은 찾지 못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이농업학교 교육과정 1학년은 〈표 2-1〉, 2학년은 〈표 2-2〉와 같다.

〈표 2-1〉 간이농업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 시간수

교 과 목		제 1 학 년	
		시수	과 정
수신, 일본어		5	수신 훈화 및 일본어(읽기, 해석, 받아쓰기, 作文, 習字)
부 속 과 목	작 물	8	작물, 기상, 병충해 및 농업경제
	토양 및 비료	1	토양의 종류 성질, 토지개량, 비료의 종류, 용법
	양 잠	2	재상, 사육, 제종
	축 산	2	가금, 가축의 종류, 관리, 번식, 사양 및 양봉
	삼 림	3	조림, 보존
조선어 및 한문		2	읽기, 해석, 받아쓰기, 作文
산 술		3	초등산술, 주산
계		26	

비고

1.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매주 교수수를 30시간까지 과할 수 있음.
 2. 본표 이외 농업실습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과할 것.
 3. 측량은 산술에서 교수할 수 있음.
 4. 양잠축산 또는 삼림을 주로 교수할 때는 적의 각 분과의 매주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음.
- 자료 ; 「실업학교 규칙」, 1913. 2 ; 황운성, 『한국농업교육사』, 대한출판사, 1967, 112쪽.

〈표 2-2〉 간이농업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 시간 수

교 과 목		제 2 학 년	
		시수	과 정
일본어		4	읽기, 解釋, 받아쓰기, 작문, 習字
농 업	작 물	3	작물, 토양, 비료, 기상, 병충해 및 농업경제
	양 잠	1	裁桑, 飼育, 製種
	축 산	1	家禽, 家畜의 종류, 관리, 번식, 飼養
	삼 림	1	조림
산 술		2	초등 산술, 주산
계		12	

비고

1. 본 표 의 농업실습은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다음 방법으로 이를 과한다.
가. 매주 일회 이상의 적당한 때를 선택하여 실시 지도한다.
나. 가정에 있어서 소구획의 경지를 설치케 하며 또는 가금(家禽)등을 사양케 하여 교원이 순회 지도한다.
 2. 양잠, 축산 또는 삼림을 주로 과할 때는 적의 농업 각 분과의 매주 교수 시간수를 변경할 수 있음.
- 자료 : 위와 같다.

양평군에는 두 번의 (간이농업 · 농잠실수) 농업학교가 설립되었다.

첫째는 1913년 6월 3일 양평보통학교 부설 양평간이농업학교이고, 1919년 3월31일 폐지, 둘째

는 폐지되었을 때부터 6년이 지난 1927년 5월 2일에 역시 양평보통학교 부설 양평농잠실수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둘 다 양평보통학교 교장과 직원이 겸무하였다. 이는 양평보통학교가 양평지역 사회의 중등 실업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1913년 6월 3일 총독부 고시 제165호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공립 보통학교에 부설 인가하였다.(관보 6.5) 초대교장은 사토 모토오스케(佐土源雄助)이다.

이 학교는 1942년 7월 1일까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기재되어 있다. 1943년 직원록에는 주임관 이상 직원만 실었기 때문에 양평농업실수학교장은 관임관이었고, 1944년과 1945년 직원록은 태평양전쟁 막바지로 예산이 부족해 발행되지 않은 것 같다. 기록된 문서가 없어도 광복 전까지 지속되었다가 없어진 것 같다.

같은 지방에 두 번에 걸쳐 간농과 보습학교가 설립 운영된 경우는 양평이 유일하다. 간농 기간이 7년 10월, 보습학교는 일제말까지 운영되었다면 18년 2월, 합계 26년간 양평의 농잠교육에 기여하였다.

공주실보가 공주농업학교로, 강릉간농이 강릉농교로, 여주간농이 여주농전으로, 강화간농이 강화농교로, 안성간농이 안성농교로 발전하였는데 양평은 그렇지 못하여 아쉽다.

그러나 훗날 간이농업학교 등의 실습지는 양평농업고등학교 소유로 흡수되었다.

양평간이농업학교의 교세는 <표 3-1>, 양평공립농잠업실수학교 교세는 <표 3-2>와 같다.

〈표 3-1〉 양평간이농업학교 교세

연도	학급수	직원		계	1 학년	2 학년	계	경비		
		일본인	조선인					경상부	임시부	계
1918.5 현재	1	× 2	1	1 × 2	13		13	550		550

〈표 3-2〉 양평공립농잠(업)실수학교 교세

연도	학급수	직원		계	1 학년	2 학년	계	경비		
		일본인	조선인					경상부	임시부	계
1928.5 현재	1	1 × 1	1	2 × 1	11	8	19	5,349	1,540	6,889
1931.5 현재	2	1 × 1	1	2 × 1	21	13	34	3,838		3,838

1932,5 현재	2	1 × 1	1	2 × 1	23	18	41	3,867		3,867
1933,5 현재	2	1 × 1	1	2 × 1	17	17	34	3,545		3,545
1934,5 현재	2	1 × 1	1	2 × 1	13	23	36	3,720	1,600	5,320
1936,5 현재	1	1	1	2	32		32	6,164	1,650	7,814
1937,5 현재	1	1	1	2	34		34	4,370	7,437	11,907
1938,5 현재	1	1	2	3	40		40	6,668	6,000	12,668
1940,5 현재	1	1	1	2	30		30	6,579		6,579
1941,5 현재	1	2		2	29		29	4,919		4,919
1942,5 현재	1	2		2	30		30	7,543		7,543
1943,5 현재	1	1	1	2	26		26	6,206		6,206

비고. ×는 겸무

간이농업학교 1년, 농잠실수학교 12년의 교세는 위와 같다. 전자는 중간의 1년의 통계 밖에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학년만 13명이고 경비는 550원인 것으로 보아 영세하였던 것 같다.

후자는 교사는 양평보고 교사 겸임 전임으로 운영하다가 1936년부터 전임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1934년까지는 2년, 다음 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실습 전담과 학교립

- 실습전담

『조선교육대관』 양평공립학교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실과시설 : 논 300평, 채소원 512평, 뽕나무밭 720평, 교재원 45평, 양잠실습, 퇴비제조

특기사항 : 학교에서 양잠실습을 시키는 외에 각 가정에서 양잠을 시켰다. 채소품평회, 퇴비품평회(경기도편 149, 150쪽)

실습전답이 1,577평이나 되었고 밭농사, 벼농사, 양잠을 하였으며 양잠은 지역 가정에까지 권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졸업생 개요를 보면 가사 종사자 222인, 관공서·회사 16, 상급학교 진학 11, 실업학교 6, 사립학교 16, 기타 16, 계 287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사 종사자를 농사를 짓는 자로 본다면 그 222명은 77%이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학교립

소재지 : 양평군 백안리

1.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42, 11정6200(115,240㎡)

양평학교조합을 거쳐 현재는 양평교육지원청 소유이다.

2.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36, 15정6300(155,008㎡)

양평군을 거쳐 현재는 양평교육지원청 소유이다.

당시 양평공립보통학교의 관리자인 양평군수 윤성희(尹成熙)는 1914년 3월 20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위 백안리 소재 국유임야 19정의 대부 신청서(도면과 사업계획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그때는 임야조사사업 이전이므로 지번은 물론 없고 도면도 없었다. 따라서 면적도 정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농상공부(농림부 산림과)는 같은 해 12월 16일 허가하였다. 임대기간은 20년.

그런데 양평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임야카드에 의하면 1931년 8월 3일 산36은 양평군 학교비(양평보통학교 소속 임야라는 뜻), 산42는 1933년 1월 13일 양평학교 조합이 소유권 보존을 하였다. 20년 만기 1년 전에 양평학교조합에서 보존등기를 냈다.

당초의 대부허가는 삼림령 제14조와 동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대부이다.

삼림령(1911년 6월 20일 제정)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 교환 혹은 대부 또는 그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삼림령 시행규칙(1911년 6월 20일 제정)

제 2조 국유삼림의 매각, 교환, 양여 혹은 대부 또는 산물의 연기 매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면을 첨부하여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대부 또는 연기 매각의 경우는 사업계획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국유임야 대부분의 9년간의 사업계획서 초년도 것만 옮겨 적는다. 그런데 사업계획대로 하였던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공사립학교에 학교림을 설정하고 생도에게 식수 재배를 시키는 것은 삼림 애호사상을 함양시키고 학교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보통학교에서는 생도 1인에 대하여 1개년에 약 10본씩 식재한다. 이 방침에 따라 양평보통학교 생도들이 1년에 나무 열 그루를 심었을 것이다.

초년도 사업계획서는 <표 4>와 같다.

<표 4> 초년도 사업계획

수종	새로 심기		보식 묘목 수	천연치수 보육면적	비 고
	묘목 수	면적 (정)			
참나무	3,000				참나무 1 본에 대하여 1 본의비율로 밤나무를 혼식한다.
밤나무	1,500	1.0			
아카시아	1,000				
포플러	500	0.5			학교림 주위에 심는다.
적송			600	1.0	천연치수보육하고 疎生地에 1 본씩 심을 예정
계	6,000	1.5	600	1.0	

- 자료 : 국가기록원

양평학교조합은 1922년 10월 31일 개교한 양평군 갈산면에 소재한 일본인 학교인 양평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학교조합 관리자 다나카 우메지로우(田中梅次郎) 소유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학교가 강권으로 빼앗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 후 2000년 경기도 교육감 소유 즉 양평초등학교 학교림이 되었으니 다시 찾은 것이다.

1912년에는 125.09ha에 소나무, 신갈, 굴참 등 임향인데 50ha에 대하여 천연림 가지치를 하였다. 이에 대한 노무비는 3,536.51원이 들었다.

이상으로 양평보통학교는 농업, 양잠, 산림 등의 교육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1953년 5월 19일 양평농업고등학교(현 양평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양평초교의 농업교육의 토양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안리 소재 학교림에 표지석도 세웠지만, 이 학교림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졸업생 지도학교

졸업생 지도학교는 ① 도지정, ② 부군지정, ③ 학교 자체로 실시하는 세 종류가 있었다. 양평공립보통학교는 2항 군지정학교로 지도생 수가 지정 9년도에 6명, 10년도에 7명 계 13명이었다. 덧붙이면 광탄공립보통학교와 양서공립보통학교는 도 지정, 지제공립보통학교는 3항 자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 10년이다.

농업보습학교가 보통학교에 부설된 경우는 대체로 졸업생 지도학교로 지정하지 않았고 농업보습학교가 부설되지 않은 경우에만 졸업생 지도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연천보통학교, 이천보통학교(둘 다 도 지정)와 양평보통학교(군 지정)의 경우는 둘 다 겸하였다. 도 지정은 연 200원의 재정지원도 있었고 지도도 열성적이었으나 2항과 3항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 제도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에 대하여 모교의 교사가 주가 되어 재학 중의 교양을 연장하여 각 가정에서 그들의 농업의 실체를 지도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알리는 것과 함께 친토(親土) 근로의 체험을 쌓아 농민정신을 양성하여 우수한 중견 청년을 육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1927년 4월부터 실시하여 해방 무렵까지 이르렀다. 그때부터 각 학교를 통하여 1,586명의 청년이 직접 이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도 지정학교의 지도학생 수이고 2항의 경우는 1936년 293명이었고, 3항은 196명이다.

(5) 양평공립청년훈련소와 농업교육

1940년 7월 2일 양평서심상소학교에 양평공립청년훈련소가 설치되었다.

이 훈련소는 농업교육이 주목적이다.

이 훈련소의 근기가 되는 규정은 1929년 10월 총독부령 제89호〈청년훈련소 규정〉이다. 청년의 심신을 단련하여 국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1조)이니 당시 소학교의 교육을 넘어서 양평지역사회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훈련기간은 4년이고(2조), 입소자격은 16, 17세의 남자이다(3조), 보통학과는 국어·수학·역사·지리·이과 등을(11조), 직업과는 농업·공업·상업 중에서 교수한다(12조), 주사는 실업보습학교장, 소학교장, 보통학교장, 지도원은 실업보습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교원에게 도지사가 위촉한다.(18조) 그러나 어디서 누가 교육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찾지 못하여 아쉽지만 일제 말기 당시 양평서심상소학교가 양평지역 청년의 교양과 농업교육에 기여하였음은 확실하다.

(6) 양평공립심상고등소학교

심상은 현 초등학교, 고등소학교는 현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니 이 학교는 현재로 보면 이 세 학교가 합쳐진 것이다. 이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일본인 학교인데 양평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자녀가 자라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일제는 같은 양평에 그들을 위해서는 소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한국인을 위해서는 간이농업학교를 세웠다. 조선교육대관에 이 학교 연혁이 나와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이 학교는 양평보통학교 학교립 일부를 빼앗아 그 학교조합 명의로 한 일이 있다.

- 양평공립심상소학교 양평군 갈산면(현 양평경찰서 자리)

1913년 10월 31일 개교.

1920년 6월 고등과 병치

1928년 6월 교사 신축 낙성

- 교육주의 : 조선교육령과 소학교 규정에 기하여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학교 교육의 달성을 기할 것.
- 교육방침 : 교수, 소학교 규정(제3장 제1절)에 의하여 재능의 충실 운영을 온전케 하였다. 훈련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하여 본교 훈련 요목을 감안하여 순량(醇良)한 인격을 만들고 공민다운 자질을 얻을 것이다. 양호, 위생적 시설과 적극적 단련으로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킨다.
- 주요교육과정 : 4월부터 11월까지는 조회, 12월부터 3월까지는 낮 모임. 4월 하순은 봄 운동회(학교, 가정 연합), 5월 상순은 봄 소풍, 10월 상순은 가을운동회(위와 같다), 10월 중순은 가을소풍, 3월 상순은 학예회. 여름 중에는 농업 실습원 손질, 아동 소집
- 졸업생 개요 : 졸업생 총수 12명, 우편소 1 기타 불명
- 학교장 : 데루기 데쓰타로우(照崎鐵太郎)
- 학교조합 관리자 : 야마나카 우메지로우

광복 후 이 학교는 소멸되었다.

생도수는 심상과는 가장 많은 경우가 1931년의 23명이 최고이고, 고등과는 3명이 가장 많았으니 이 몇 명을 위하여 고등과를 신설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학교에 조선인 학생이 다녔다는 점이다. 심상과는 1931년에 4명, 고등과는 1932년의 3명이 최고인데 당시 조선인 학교인 양평보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교에 다닌 것은 공무원 자제이거나 부유한 집 자제일 가능성이 높다.

남녀 생도별이 비슷하거나 여생도가 많은 것은 조선인의 경우 여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풍조였지만 일본인은 이러한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구한말 신학제 의한 초등교육기관 설립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양평초등학교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교 시기가 잘못 알려졌음을 알아보았다.

고종이 칙어(담화문)를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 신학문을 가르쳤고, 1899년 양수리에 영화 법률학교를 비롯해 실학을 교육하는 사립학교를 연이어 세웠으며 당시 군수를 비롯한 군청 주사와 유지, 문중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양평지역이 역사적으로 교육열이 매우 높았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학제(新學制)에 의한 본격적인 관학(官學)의 운영은 갑오개혁에서 비롯된다. 갑오개혁으로 종래 학사를 관장하던 예조(禮曹) 대신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고, 과거제도와 학교 교육의 신분 제한을 철폐하고, 종래의 학당과 향교의 교육기능을 정지시켰다.

같은 해 7월에 학무아문은 고시(告示)를 발표하여 “국정 쇄신을 위하여는 영재의 교육이 시급하며,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계급을 불식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니 백성들은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장차 대학과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울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음 해에 고종은 ‘교육입국’의 조서를 발표하여, 종래 경전(經典)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知)·덕(德)·체(體)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경전 중심의 교육에서 서양의 과학문명이 가미된 실학을 공부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구한말의 학교 설립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사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내 최초의 학교를 검색해보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르다. 그나마 관립은 공통 보통학교로 대부분 압축되어 있지만, 공립이나 사립은 지방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한 교육사의 연구도 이루어져야겠다.

1908년 학부에서 전국 공립보통학교가 79개라고 발표했는데, 같은 해 황성신문 기사에 양평관내 12개 학교 4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종합운동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양평지역이 유달리 학구열이 높아 학교 설립 붐이 일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는지 더 조사해보아

야 할 것이다.

본문 내용은 관보나 신문에 게재된 원문을 현대어로 고쳐 정리한 것이 많다. 양평군의 경우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하여 생긴 지명이므로 양평군을 키워드로 한 학교 찾기로 할 경우 1908년 이전 기록은 없다. 그러나 1909년 학부고시 제5호로 공립양평보통학교로 개칭한다는 기사와 1910년 한일합방 되던 해에 양평군수가 학교장을 겸임한다는 기사는 관보만 잘 찾아도 발견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당국도 무관심했고, 교육사 전공학자들도 당시 자료들은 살살이 조사하지 않고, 누군가 처음 발표한 자료만 응용한 경우가 많아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양평초등학교의 경우 1911년 이전 기록이 명확하면서도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교세도 타 지역의 학교 못지않게 성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런 학교가 앞서 기록을 모두 없애고, 설치인가를 받은 1911년을 원점으로 했다는 것은 일제에 의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다.

만일 일제에 의해 고의로 설립 역사를 왜곡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전술했다시피 양평초등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교가 설립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역사는 뿌리와 같다. 그 지방 학교들의 뿌리를 찾아 보면 그 지역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사를 재정립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8
- 구대한제국관보(舊大韓帝國官報) 1894~1904
-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0 <http://gb.nl.kr>
- 조선총독부 직원록, 1910~1943
- 대한매일신보 1905~1910
- 황성신문 1898~1910
- 동아일보 1920~1944
- 조선일보 1920~1944
-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 기호홍학회 월보, 1908~1909
- 대한자강회 월보, 제3호(1906), 제8호(1907), 제9호(1908)
- 경기도편, 경기도세 개요(교육편), 경기도 1936
- 류방란,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근대한국초등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1998
- 박혜진, 1910년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년
- 손봄이, 대한제국기 공립소학교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11
- 양평군, 양평군지, 양평군지편찬위원회, 경기문화사
- 양평군교육장, 양평교육사, 양평교육청, 2004년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학교 교육 100년사 연구(1)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한가인, 이계학, 이길상 공저, 한국교육사료집성, 개화기편
- 조선총독부교육정책사자료집, 11책 신주백
-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69-별집 구한말교육사자료, 대학서원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사이트 www.archives.go.kr
- 양평초등학교, 양평초100년사, 양평초등학교총동문회(집필 이윤재), 2011
- 양평초등학교, 양평초등학교 발자취, 이윤재, 2014년
- 양평문화원, 양평3.1운동사, 향토문화연구소(대표집필 이윤재), 2014

동두천 5일장 3.1운동과 미군 골프장

이 명 수 (동두천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I. 머리말

1. 조선시대의 동두천 장날
2. 구한말 상인들의 거래(去來)
3. 장날의 세상살이
4. 경원선 개통과 장시의 발달
5. 시장(市場)생활속에 해학(諧謔)과 속담(俗談)
6. 3.1운동과 동두천
7. 주한 미군부대의 골프장

II.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동두천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동두천은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이라는 아픔의 역사를 겪으면서 70여 년간 미군들과 함께 공유(公有)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한편 동두천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浮刻)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 된 곳이다. 지리적(地理的)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군부대가 주둔(駐屯)하고 서울과 가까운 위성도시(衛星都市)여서 타 시·군(他市·郡)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과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생활풍습은 농사일에서 주한 미군 주둔으로 인해 상업을 거치면서 생산보다는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더불어 환경의 변화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그 옛날 농촌의 생산 풍습들은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나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그 명맥(命脈)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非但) 동두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역들이 겪어온 변화 일 것이다. 동두천 5일장 3.1운동과 미군 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5일 장(場)이 개장(開場)되면서 일제(日帝)에 의한 암울했던 3.1운동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미군 골프장이 들어서기까지 역경(逆境)의 세월을 견디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事實)들을 염두(念頭)에 두고 과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두천의 생활 풍속(風俗) 전반(全般)에 걸친 것을 조사 정리해 보았다.

1. 조선시대의 동두천 장날

경원선이 통과하는 북부의 동두천 장과 연천, 전곡장의 급성장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서울과 원산을 거쳐 함경도를 잇는 제2대로가 경유하는 지역으로, 물자(物資)와 사람이 왕래하는 경로(經路)에 해당한다.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와 원산이 개통되면서 동두천과 연천, 전곡역이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장마당인 장시(場市)의 세력권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장시는 행상인(行商人)들이 각 지방 농촌 큰 마을을 순회(巡廻)하면서 농민(農民)들과 밀접(密接)한 관계를 맺어왔다.

1) 조선 초기의 상업활동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농억상책(重農抑商策)은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인하여 금지령(禁止令)을 내렸다. 국내 상업도 조정(朝廷)에서 마련한 시전(市廛)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 정기

적으로 열리는 장시(場市)는 행상인들에 의해 상업거래가 행(行)하여졌다. 이와 같은 억압됐던 15세기 상업도 16세기에 이르러 양상(樣相)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는 시전 상인 외에 사상인(思想人) 또는 실학자(實學者)들이 등장했으며, 농촌에서도 변화한 장시로 상설 점포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진통적인 재래시장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상거래 수단이었다.

2) 장시의 유통(流通)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 수요에 도달하기 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팔거나 수요가 많을 때는 중간 도매상인을 거쳐 거래하기도 한다. 점차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지역 간 물자의 유통과 소비도 활발해 지는데 물자의 유통 장소인 시장은 교통망에 따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각지의 물산이 집적되는 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시장은 농촌에서 자주 접하였던 정기 시장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정기 시장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고대(古代)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정기 시장에는 3일장, 5일장, 10일장, 월시(月市), 연시(年市)등 개시 간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5일장인데 5일장은 주변의 다른 장(場)과 함께 하나의 장시권을 형성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2. 구한말 상인들의 거래(去來)

조선 후기 동두천 지역의 장시에 대해서는 1827년도 동두천장(이담면 5~10일장)지방 장시가 있었으나 당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 수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양주 지역의 장시도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당시 양주목(군)에서는 장시의 발달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 시기에 들어서도 양주 지역의 가래비장, 3일, 8일 동두천(이담면)장 5일, 10일 장시도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1) 조선시대의 장세(場稅)

조선시대의 지방 상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 경제였던 것이다. 지방 경제에 있어 경제생

활의 기반은 농업생산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한 물품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때문에 향시(鄕市)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장시 설립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어서다. 먼저 시장 개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기록을 보면 숙종(肅宗:조선19대 재위 46년)때에도 도적(盜賊)떼들의 발생이 증가하고 해결책으로 관문 장시(官門 場市)이와 모든 장시(장사)를 혁파(革罷)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각 군, 현, 읍 한 곳에만 시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흉년 때문에 시장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도적들의 극성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시장 개설을 통하여 농촌 경제 안정은 더 심각하여 고려(顧慮)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정에서 시장 문제를 거론 할 이전의 시장 폐단 문제에 있어서 장세를 징수하라고 하는 것은 곧 시장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전과는 달리 시장이 개선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조율하여 예방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2) 곡물의 매점매석(買點賣惜)

예전이나 지금도 일부 악덕상인들은 값이 오르거나 물건이 달릴 것을 예상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버리는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있었다. 그 당시 상품은 주로 쌀과 깨 그리고 소금이었으며 함경도에서 나는 명태였다. 요즈음은 상품의 수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므로 죄짓는 일은 여간해서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풍년 흉년 작황(作況)에 따라 유동(流動)이 심했다. 곡물가는 추수기에 내려갔다가 다음해에 보리가 나기 전 보릿고개 춘궁기(春窮期)에 다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곡물이 상품화(商品化)되면서 곡물 상인이나 모리배(謀利輩)들이 이러한 곡물가의 변동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어려운 백성들은 더욱 곤경(困境)에 빠져들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배고픈 세상을 살 수 밖에 없었다.

3) 봇짐 등짐의 보부상(褓負商)

보부상은 상인들 사이에서 장돌뱅이 장돌림, 봇짐장수, 등짐장수 등 여러 가지 이름 및 형태로 불리는 장사꾼 이름이다. 대개 5일장마다 열리는 장을 순회하며 농산품 및 생활용품을 매매하던 상인들이었다. 당시 교통 상황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우마차를 이용하였고 해안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뚝단배와 나룻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수단이었다. 조

선전기(前期)때만 하더라도 소금 값이 금값이었다. 조선 후기(後期)에 이르러 고가품이었던 소금이 그동안 염전 수효가 늘면서 발달과 함께 소금의 가격도 소금 한 섬이 쌀 반 가마 가격인 2냥에 판매되었다. 소금의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이었다. 소금 상인들은 보부상으로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낙후된 오지마을로 다녀야했기 때문에 장날과 많은 가격 차이가 있었다. 경북궁에서는 보부 행상을 제한(制限)하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행상들을 기다려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할 정도로 보부상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없으면 꼭 필요한 소금 및 생활용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행상인들이 보다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과 시장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자급자족 생활하던 농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팔았다 때에 따라 물물교환도 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나는 소금, 어물 등은 산간 오지 내륙 지방에 팔고 오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잡곡, 약재, 산나물 등 비교적 싼값에 사들여 해안지방에서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행상은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과 일시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한다 하여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농한기를 이용하여 행상에 나서는 사례도 있었으며, 행상의 범위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점차 붕괴되는 가운데 양반들도 행상에 나서는 사례가 많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 장을 돌며 5일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거리 장사가 먼 거리까지 장사에 나섰다가 설이나 추석에 돌아오곤 했다. 심지어 정월에 떠났다가 동지선달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웃으며 하는 이야기는 보부상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생일이 비슷한 아이들 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행상인들이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다. 장날이 돌아오면 어수로 4차선의 보도블록에 도로가 좁을세라 크고 작은 좌판(坐板)에 상품(商品)들을 올려놓고 팔기에 분주하다. 철따라 달라지는 장날 물건들 봄이면 푸성귀나 나물 종류며 비닐하우스 딸기, 옥수수, 감자, 수박, 참외, 오이, 자두, 복숭아를 판매한다. 가을이면 잡곡인 팥, 수수, 콩, 녹두, 메밀이며 알곡인 햅쌀이 풍성한 밥상을 맞이한다. 겨울이면 겨울의류가 줄지어 서있다. 가을부터 겨울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로, 주방기구 등 많은 용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봄, 여름이 돌아오면 농기구와 화초를 파는 일동 아저씨는 일 년에 두 업종을 장사한다. 특히 사계절 따라 4업종을 하는 성남 아저씨는 무대가 성남 모란시장이다. 5일마다 찾아와 부인정육점 앞에서 봄이면 난(蘭)이나 화분을 팔고 비닐하우스의 때 이른 딸기를 팔고 있다. 여름이면 포도, 천도복숭아 가을에는 밀감, 수입오렌지 겨울에는 생선장수 등 천식에 특효라는 백도라지 가루를 팔고 있다. 이들은 장돌뱅이 경력이 20~30년 이상 된 상인들로 주로 봉고차량을 이용한다.

4) 등짐 보짐 보부상(裸負商)

그 옛날부터 보부상들은 등짐에 봇짐을 이고 1년365일을 장날도 아닌 험한 오지(奧地)를 주로 산간(山間) 깊숙한 곳을 찾아다니며 소금이며 마른 생선과 물물교환(物物交換)을 많이 하였다. 현찰로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아니하고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기 때문에 그 무게는 등이 휠 정도로 무거웠다. 그들의 장사 길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눈물의 길이었다. 험한 재를 넘고 물을 건너 전국을 돌며 등짐장사를 하던 시절을 생각할 때 요즘 상인들은 좋은 세월 속에 쪽 뺨은 4차선 도로를 달리며 편하게 물건들을 팔고 있다.

5) 전통 재래시장

동두천의 재래시장은 공설시장과 중앙시장이 생연2동과 중앙동에 있다. 판매 물건은 서로가 비슷하다. 주로 생선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밀반찬가게, 그릇가게, 옷, 내복, 이불가게, 가방, 신발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장사를 이루고 있다. 중앙로와 인접한 곳에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현대로 오면서 상점을 통한 상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6) 송내시장 생연2리시장

1950년 6.25전쟁은 동두천의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시장의 이담면 동두천리 동두천 5일장 마당까지 옮겨놓고 말았다. 동두천(川) 빈양(賓楊)마을에 있던 동두천 5일장은 휴전(休戰)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관문인 송내리 마을 입구에서 열리게 되었다.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은 빈집이나 그 앞마당에 임시 천막을 치고 우선 잠자리부터 마련하였다. 피난민들이 북적이던 그곳은 생활하기에도 불편하였다. 임시로 장이 열렸던 송내장은 피난민과 원주민들이 서로 나누는 조그만 장이었다. 그들은 송내리에서 생연2리 모랫말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피난민들은 당시 미군7사단에서 나오는 판자를 주어모아 판잣집을 지었다. 그렇게 지은 집들로 순식간에 생연2리(동)의 마을이 탄생하였다. 6.25전쟁이 만들어 놓은 판자촌이었다. 당시 판잣집들은 전기불이 없어서 밤만 되면 캄캄한 암흑의 마을이었다. 어쩌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남포등(LAMP,燈) 불빛만 애달픈 인생사를 말하여 주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은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여서 화재도 자주 발생하였다. 그 후 송내리에 있던 우체국, 경찰지서, 금융조합도 생연2리로 옮겨왔다. 한때 동두천 중심지였던 이곳에 공설시장과 함께 동두천 5일장이 열리게 되었다. 잠시 장터가 생연2리로 나오지 못했던 것은 휴전중이기 때문에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7) 중북부로 통하는 동두천 점말(店末)

조선후기 서울 근교의 시장 가운데 큰 시장으로 발전한 곳이 양주의 누원점(樓院店)이다. 이곳은 중간 역할로 인하여 상품 유통이 크게 확대 되는 가운데 있었다. 특히 서울(경성)함경도 등지를 연결해 주는 요충지였다. 누원은 본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원촌(院村)은 조선 시대의 역전(驛傳)사이에 있던 국영 여관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 동두천리에 있던 동두천역 동쪽 지역에 점말(店末)의 유래(由來)에 의해 점마율이 되었다. 예전에 동두천리였던 이곳은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 함흥을 오가는 보부상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지인 서울과 지방에 물자가 공급되면서 그 중간 지점인 역전 점말 마을에서 상인들의 상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 곳이 점말 이었다.

8) 시장과 주막(酒幕)집

그 옛날부터 주막집은 장들뱅이 보부상들의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이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 마을 입구 성황당을 옆에 두고 오가는 길손들의 이정표 역할도 하였다. 주막집의 이름도 다양하게 불렸다. 여점(旅店)과 야점(夜店)또는 술막, 솥막, 탄막 등으로 불렸다. 붓짐에 먼 길을 떠나는 보부상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곳도 주막이었다. 그리고 장마당에 주막은 주로 술과 안주를 팔았으며 주막에는 대개 봉긋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공간은 주막집 대문 옆, 방 여러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3칸 방이었다. 상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옆으로 칼잡을 청하여 혼숙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상인들의 증가로 호황을 이루었고 술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 수 있었다.

3. 장날의 세상살이

지나치는 사람들, 낯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얼굴에는 그들의 기쁨과 고뇌를 읽을 줄 아는, 그윽하고 서늘한 중년의 가을날 물살 같은 울음에도 가슴으로 삭일 줄 알 만큼 인생의 멀리까지 와 버린 눈보라였기에, 어쭙지 않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다시 채우기 위해 저마다 생애를 살아온 뒤, 하얀 꽃대궁으로 서서 비바람이 은발을 빗질해 주는 늙은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움매진 세월의 한숨 속에 오늘도 장마당 따라 나서야 하는 늙은 장들뱅이 신세 고단한 삶도 함께 마음에 담아 둔다.

1) 장마당 거지(乞人)들

6.25전쟁은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희망의 삶도 마음속에 인정도 가릴 것 없이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하루아침 잣더미로 변해버린 폐허 속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창 성장기에 부모 잃은 아이들은 거지로 전락하고 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쇠잔해진 허리는 허기에 지쳐 땅은 꺼지고 하늘은 어지러운데 그래도 모진 목숨 살아보려 비렁뱅이로 힘겹게 살아야 했다.

2) 거지들의 일정표(日程表)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만 되면 어디 있다 오는지 장바닥을 누비고 다닌다. 그때 그 시절의 거지들을 보면 ① 5일장만 따라다니는 거지 ② 봄이면 보리타작, 가을이면 벼 타작 때만 나타나는 거지 ③ 결혼 잔칫집 그리고 환갑 잔칫집 마당에 명석 깔고 한상 잘 차려 대접받는 거지(당시 농촌 인심은 거지부터 챙겨 주었다) ④ 초상집(상가집) 3일장(葬),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상가(喪家) 마당에서 숙식을 하며 같이 슬퍼한다. 당시 거지들은 어떻게 애경사(愛敬寺)의 날짜를 알았을까. 모든 소문은 장날에 모여드는 윗마을, 아랫마을, 건너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 퍼져 나갔다.

3) 위기(危機)를 맞았던 5일장

농촌의 유일한 낙(樂)이었던 5일장은 1961년 5.16군사 정부가 들어선 후 서정(庶政)을 일신(日新) 한다는 명분으로 첫째, 한 달에 6번 열리는 장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게 되므로 자기 본업인 농사나 막노동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장터에서 서로 만나면 투전(鬪錢) 아니면 으레 막걸리, 소주를 마시게 마련이어서 게으르고 방탕한 악습이 되풀이, 조장(助長)되고 술에 취해 싸움과 사고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생활의 수입이 매우 궁핍한데 거기다 장날마다 고정 지출이 누적되다 보니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농촌에도 소규모 구멍가게들이 생겨나는데 정기적인 5일장에 놀러 구멍가게 장사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장날이 5일마다 서지만 이웃면 마을에 장이 연이어 열리게 되므로 장에 다니는 재미를 붙이다 보면 건달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근대화를 위한 5일장을 폐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여론에 밀려 5일장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4) 조선 전기의 5일장 폐쇄(閉鎖)

조선 전기 장시(場市)가 처음 출현했을 때 조정에서 장시(장날)를 없애려 했던 이유가 군사정부와 거의 비슷하다. 그때는 장날마다 투전꾼에 도적들이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시골 장은 공교롭게도 조선 왕조가 나름대로 기틀을 잡아 가기 시작한 즈음이었다. 1960년대 산업의 근대화를 강조하는 등 개설되어 있는 것조차 폐지하려 했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었는데 농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 쉬웠던 것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었다. 어쨌든 시장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문화와 상품을 연결해 주는 고리였다. 농민들의 삶이 그 대로 담겨있던 생활의 장날이었다. 또한 시장은 각 시기마다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시대상이란 결국 시골장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장터의 모습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곳을 시간을 내어 찾아야 하고 옛 5일장의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예전의 그 모습을 찾으려 기대하고 가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옛것을 찾으려는 그 빈 마음을 채워 줄 것이다.

5) 전설속에 황하(黃河)장터

소요산을 마주바라 뵈는 해 저물 쪽 마차산 아래 상봉암 마을에 조선 세종(世宗)때 이름을 날렸던 조선시대 초 명상(名相) 황희 정승(黃喜 政丞)이 있다. 고려 말 공민왕 14때(1363) 음관(蔭官)으로 안복궁 녹사(安福宮 錄事)가 되었고, 21세에 사마시(司馬試) 23에 진사시(進士試) 27세에는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 이듬해에 성균관학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에 극진한 예우를 받고 그 뒤에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역임하는 등 대사헌(大司憲) 한성판사(漢城判書)등 내외의 요직에 있으면서 문물(文物)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1413년(태종13년) 세자 제(讓寧大君)의 폐립(廢立)문제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었다가 관직을 박탈당하고 축출되었는데, 그때 황희 정승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소요산에 있는 소요사(逍遙寺) 부근에 왕의 별궁을 짓고 은거(隱居)하게 되었다. 당시 재상(宰相)으로 있던 그는 이성계의 입궁 요청에 한몫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소요사 큰 절을 잘 알았던 황희 정승은 소요산을 마주 보고 있는 마차산 아랫마을에 유유함을 느끼며 한때 태조 이성계 곁에서 가까이 살았었다. 낮이면 상봉암 윗들 마을 마당으로 내려와 그동안 일반 백성들과 단했던 마음의 문도 열고 아래, 윗들 농민들과 어두운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는 등 그들과 어울리며 얼마동안 보낸 곳이다. 황희가 조정의 명령에 따라(1413년 태종13년) 전라북도 남원의 유배지로 떠나니 그의 나이 78세의 고령이었다. 그 후 떠난 자리 상봉암 마당을 기념하기 위해 황하터

라 부르며 뜻을 기리며 전해오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곳에 한때 장시(場市)가 있었다고 한다. 동두천의 최초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6) 촌가(村家)의 입상(立商)

보부상은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에서 경제적 교환을 매개(媒介)로 하는 상품을 유통 활성화 시켰다. 상설 점포가 거의 없는 산간지방의 시장에서 보부상의 상품 유통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시의 시장과 농촌의 시장을 연결하는 것도 이들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보부상은 서로 취급하는 물품이 달랐고 그에 따라 상대하는 손님도 달랐기 때문에 같은 시장을 함께 다니더라도 서로 간에 의한 충돌은 없었다. 보상(褸商)은 붓짐장수 또는 황아(荒-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용품 답배쌈지, 바늘, 실, 수저, 그릇 등)장수로 불리던 이들은 주로 취급하는 상품의 부피가 적고 가벼우며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비교적 값이 비싼 금, 은, 동으로 만든 장신품과 인삼, 주단, 포목, 분통, 빗, 비녀, 면화, 단추, 칼, 종이, 가위, 붓, 먹, 조바위, 난바위, 염난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부상(負商)들은 등짐 장수, 돌림 장수로 비교적 질과 양이 작고 값이 싼 일용품 목기, 토기, 바구니, 채, 누룩, 어물 말린 것, 미역, 짬신, 성냥, 초 등을 취급했다. 이와 같이 보상의 상품은 기술상으로 발달된 세공품이나 가내 수공업과 마른 해산물 이었다. 보상들이 운반하는 방법은 보따리에 싸서 이고 다니거나 멜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가정방문 또는 장에 내다 팔았다. 하루걸음에 다녀오지 못할 먼 마을에서는 민박을 하며 보따리를 풀고 즉석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4. 경원선 개통과 장시의 발달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양주지역(동두천장 포함)의 장시는 여전히 발달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 상권의 영향도 있었다. 조선후기 이래 동두천장, 가납장 등이 계속 존속하였고 덕정장, 금곡장 등이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원선이 통과하는 북부의 동두천상이 급성장을 볼 수 있다. 특히 동두천장은 동두천 역 주변에 있었으며 열차의 이용도 많았다. 동두천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서울과 함경도를 잇는 제2대로는 경유하는 지역으로 물자와 사람이 왕래하는 경로에 해당한다.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덕정과 의정부에 역시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장시의 세력권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상업중심지 동두천리 마을

동두천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탄강 포구(浦口)가 생겨남으로써 동두천 상거래도 활기에 넘쳤다. 임진강 고랑포구가 있어 조선시대부터 양주군 이담면(동두천)연천, 전곡, 장단, 마전동 등이 일대 지방의 상인들이 모여 들고, 이들 지방의 소금, 어류, 해초, 의류, 잡화 그 중에서도 인기 품목은 화장품인 분가루 구루무, 구찌빼니(일본어), 립스틱(영어), 일제강점기 때 처음 써본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나 영어로 부르기도 했다. 얼굴에 분칠한 화장품 장수는 동동구루무라 하여 북치고 징을 치면서 동네를 돌다보면 보이지 않던 동네 처녀들이 다 쓰고 비어있는 동동구루무통을 들고 나와 보상이 퍼주는 구루무를 작은통에 담아가기도 했다. 보상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남의 집 대청마루 빌려 판매하기도 했다. 부상은 주로 지계에 상품을 지고 다니며 장사 한다하여 입상이 라고 불렸다. 그러나 보부상이라 하여 모두 이와 같이 소규모인 것은 아니다. 대량물품을 취급하는 보상이나 부상들은 소나 말을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많은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경원선이 개통된 이후부터는 경기, 연천, 철원을 거쳐 원산의 북어상을 비롯하여 어물상들의 수산물 유통이 이루어진 것이 동두천의 누원점막(樓院店幕)이었다. 철원과 평강, 원산지역의 농산물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동두천, 의정부, 서울을 연결해 주는 상인들과 무곡상(貿穀商)인들의 상업 자본을 기반으로 중심이 되어 루트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원산 일대에서 들어오는 어물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곳으로 건방(乾房)으로 불렸다. 한동안 상업 활동의 상거래가 활발해 지자 상인들도 늘어나면서 50호를 육박하는 객주집이 있었고 수많은 행상인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두천장을 꼽을 수 있게 되었다.

2) 그 옛날 삶속의 5일장

20세기 초 한국에 와서 사진작가 활동을 한 미국인 선교사 WE.그리피스(은자(隱子):폐쇄된 나라의 쇄국정책)의 나라에서 시골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농촌생활의 최대 즐거움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매월 6번 돌아오는 장 보러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적으로 말해서 조선에는 상점이 거의 없고, 매 5일 만에 장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곡물을 바꾸고 자기의 의견이나 이웃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소식을 교환하는 곳기 때문이다. 장터에서는 물건을 교환 또는 사고파는 행상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 외에는 기분풀이로 술 마시고 다투는 일이 허다했다. 아들내미, 딸내미 신발 옷 사러 장에 갔다 한 잔, 두잔 술을 마시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농부도, 약속한 자식들의 신발, 옷은 어디로 가고 흥얼대며 해 저문 집으로 가는 그는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즐거울 리 없다. 장터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어우러져 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흐뭇할 정을 덩으로 얻고 싶어 찾은 곳이 장날인 듯싶다. 즐겁고 넉넉한 장이 오가던 장터 약장수의 수다스런 몸짓과 말투로 장꾼들을 홀리던 만담과 익살스런 촌극도 흘러간 옛 노래 속에 해는 서산에 저문다.

3) 공설 큰 시장과 같이하는 5일장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농경중심의 정착 생활을 해왔으며 농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소박한 삶이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 가난해서 설 사이 없이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 동두천 단위 농협의 장마당은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경운기 엔진소리에 잠을 깨운다. 배추며 무, 시금치, 대파 등이 새벽을 가르며 쏟아져 나온다. 여름이면 참외며 수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점심때가 지나면 어느새 중간 상인들의 경매소리에 썰물처럼 팔려나갈 쫄 이면 파장(罷場)이 되어간다.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 돌아오면 편리한 교통으로 이웃 시(市), 군(郡), 면(面)에서 까지 상인과 농민들이 모여 든다.

4) 사라져가는 시골장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5일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예전같이 장날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5일장은 조선시대에도 나타났다. 15세기 남부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향시(鄕市:고향의 시장)는 본래 열흘 장 이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대부분 바뀌어 한 달에 여섯 번 열리던 5일장 체제로 단일화 되었다. 이러한 시장 체제의 개항(開港)을 전후에 변질되어 갔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식민정부에 의해 일본인 상인들은 시장 구조의 재편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1925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5일장 남과 북의 수는 1365개로 조선 말엽에 비해 365개 늘었다. 주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등 이북 지방에서 증가됐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한동안 발전이 정체되었다. 남쪽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면 단위까지 개설되었다. 1976년 국립농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046개 이상이었다. 그러나 시골 장은 1970년 중반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9년도 동아일보(NES)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남한의 장수(場數)는 569개로 25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교통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1970년 이후 공업의 발달로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고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폐가(廢家)가 되고 농촌 인구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는

까닭에 1개 읍에서 4~5개 되던 초등학교가 1~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인구의 노령화로 구매력이 떨어져 전문 상인들이 이미 장(場)을 떠났다. 그나마 버티던 영세상인들마저 떠나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비록 몰락해가고 있는 시골 장은 아직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농민들과 영세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곧 생활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부분 시장 주변에는 금융 관공서 및 상설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5일장이 이어지고 시골 농촌마을 농민들의 장(場)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5. 시장(市場)생활속에 해학과 속담(俗談)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다. 그러면서도 농촌생활에 있어 만남의 공간이 있어야 했다. 이런 의식 자체는 맥맥히 이어져 내려온 해학(諧謔)과 풍자(諷刺) 민담(民譚) 그리고 풍습(風習)이 연결되어 있었다. 예전의 지혜로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점차 잊혀가는 고사성어(故事成語)에서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안다(溫故知新)는 속담풀이에서 선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 남이 장에 간다하니 거름지고 따라 나선다
- 말똥도 모르면서 마(馬)의 노릇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자를 두고 하는 말)
- 남이 장에 간다하니 무릎에 망건 씌운다
- 말 이 아니면 갇지 마라(말답지 않으면 맞서 상대하지 말라는 뜻)
- 남이 장에 간다하니 씨오쟁이 젊어지고 따라간다
- 맘 잡아 개장수
(방탕하던 사람이 마음을 다 잡은 채 가장하면서 가끔 전과 같은 행동을 한다)
- 양반 못된 것 장에가 호령한다
-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말이 많으면 오히려 효과가 적다)
- 중놈 장에 가서 성내기
-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
- 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 읍내에서 매 맞고 장거리에서 눈 흘킨다
- 말잡는 집에 소금이 해자라(생색없이 무엇을 제공하게 된다)
- 가던 날이 장날이다

-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다(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
 -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망건쓰다 파장된다
 -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못된 사람이 오히려 까다롭게 군다)
 - 장꾼은 하나인데 풍각쟁이가 열둘이다
 -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말은 하는데 묘미가 있고 음식은 씹는데 참 맛이 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
 - 볼 장 다 봤다
 - 망건골에 앉았다(어떤 일에 얽매어 꼼짝 못함)
 - 밥 빌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다
 - 어물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
 - 밥 빌어다가 죽을 쑤어 먹을 놈(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 과일 전(塵)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 반풍수 집안 망친다 (서투른 재주를 함부로 피우다가 도리어 일을 망친다)
 -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장사하면 비가 온다
 -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 (주물(主物)보다 종물(從物)이 더 크다 일이 상식적으로 범위에서 벗어남)

이와 같이 속담과 민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예를 들거나 빗대어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들 내용에는 시장의 말과 말속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체면치레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만큼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담과 민담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유행시킨다고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절한 민중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장터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농부가들이 전해 오는데 농가의 연중 행사를 월례행사로 엮어 농가 풍속을 세세히 그린 월령가는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좋은 사료가 된다. 여기에서도 시장이 민중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8월령의 한 구절을 보자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마소, 북어 한 채 젓 조기로 추석 명일 쉬어보세, 신도주 올려 송편, 박나물, 토란 국물 선산에 재물하고 이웃집에 나눠 먹세”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농촌 농민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떠나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심은 잃

어버린지 오래도 되었다. 앞으로 사는 일이 진정 두렵다. 큰 기관 하나 운영하기 보다는 사람 하나의 삶의 영위가 더 어렵고 그 막중한 책임에 있어서도 더욱 무겁다고 말할 수 있다. 머지않은 훗날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궁리하는 좌석이 아닌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기 되리니 그날의 두려움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우리의 사람만큼 사람됨만큼 눈금으로 짚어 보 일뿐 긴긴 세월 끝에 지치고 늙어진 모습의 얼굴들 사람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반문이 일어난다.

- 시골시장과 대형마트 (MART)

농촌에서 가장 쉽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 쌀이었고 인기 품목이었으며 현찰이었다. 콩, 보리, 밀, 수수, 참깨, 들깨, 콩 등과 같이 작물로 재배되었으나 쌀보다는 가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잡곡이 쌀보다 비싼 가격에 올라 갈 줄이야. 잡곡은 예전에는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요즘은 잘사는 사람들의 건강 다이어트(Diet), 살 빼는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호 식품이 되었다. 갈수록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회색빛 도시의 대형마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쇼핑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큰 시장에 홈마트, 하나로마트, 불현동에 국민마트, 송내동에 롯데마트 그리고 전자상의 삼성과 엘지 세아프라자와 공설, 큰 시장과 중앙시장 인구 9만6천여 명에 비례하면 마트와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결국 대형마트를 몰고 왔다. 대형마트 매장을 보면 엄청난 일용품 식품들이 우리의 씹씹이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대부분 충동구매의 욕심이 생긴다. 판매 마케팅(Marketing)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곳에는 고객의 충동 성향과 욕구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고객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고객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고객들을 물건 앞에 접근하고, 사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 집은 없어도 남의 셋방을 살아도 자가용과 신용카드는 다 있다.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우선 삼수 갑산(三水甲山:함경남도에 있는 삼수와 갑 지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살기 힘든 곳)을 갈망 정 쓰고 본다. 저축은 없다. 쓰고 보자. 그러나 미래는 없다. 오늘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이 있듯이 선조들은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놓았다. 옛 우리조상들은 속옷 바지 고쟁이 속에 찜뽀 주머니가 있었다. 조그만 돈 자루 주머니 끈을 푼 다음 꼬깃꼬깃한 손때 묻은 몇 번 접은 돈을 꺼내 물건을 샀다. 돈을 꺼낼 때 걸 바지, 속 바지, 안에 매달린 돈 주머니 자루 3단계를 거치는 동안 3번 생각을 했다. 그만큼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물건을 샀다. 이것이 절약형 시장과 카드로 결제하는 충동형 마트의 차이점이다. 과거와 현재 우리 생활 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6. 3.1운동과 동두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함으로써 거족적인 3.1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 시위가 전개됨으로서 불붙기 시작한 3.1운동은 점차 도시에서 농촌, 산간벽지, 해안, 도서지방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어 갔다. 3월 초순에 주로 농촌, 산간벽지, 도서(島嶼: 크고 작은섬)지방까지 확산되면서 도시지역에서 청년, 학생, 교사 등 지식인과 도시 노동자 및 상인층에 의해 전개되던 양상은 3월 중순, 4월초 사이에 이르러 전국의 각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시위 양상도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농촌지역 운동을 확산시키고 조직 하는 과정에서는 종교인, 학생층, 서당 훈장(訓長:글방의 선생)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점차 가혹해지면서 처음 비폭력으로 시작하던 시위 양상도 점차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일제에 맞서 폭력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폭력시위는 농민층이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절대 독립이 자신들의 살길이라는 인식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갖고 있었고, 따라서 만세시위가 그치지 않았으며 일본의 퇴각을 요구하며 헌병 분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 투쟁까지도 감행하였던 것이다. 3.1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4월 중순 이후 점차 퇴조(退潮)하기 시작하였다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참가인원도 전 민족적이라 할 만큼 대규모였다. 박은식(朴殷植:3.1운동 임시정부 2대대통령)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1운동 집회 회수는 1,542회 총 인원 2,023,098명 사망자수 4,509명 이상의 집회와 참가자 수반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두천 3.1만세운동은 서울 배제학당(배제고등학교)에 다니던 정원이 학생이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여 동두천 3월 26일(음력2월 25일) 만세운동 계획 통문(通文)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와 한원택, 박창배, 박경필, 고복돌 등을 비밀리에 만나 돌아오는 3월 26일 정오에 만세운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송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홍덕문(병준), 잡화상을 경영하던 고복돌은 정원을 통해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원이 학생은 각 동리 구장(區長)에게 보내는 통문과 주민들에게 배포할 통문을 각각 수십 통을 만들어 전달하였다. 특히 한원택은 각동 구장들과 여러 차례 비밀 회합을 갖는 등 각 동을 한 바퀴 돌았다. 당시 오지(奧地)였던 안흥리와 결산리 구장에게 보내는 통문은 3월 26일(음력2월 25일) 빈양마을 동두천 5일장에서 대한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라는 내용이었다. 3월 25일 밤 통문을 받은 각동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조직하여 나갔다.

1) 동두천 장날 3.1만세운동 탄압(彈壓)

서울에서 가까운 곳 동두천 5일장은 경기의 소금강 소요산 남쪽 동두천천(川)이 흐르는 빈양마을에 동두천 장이 있다. 경원선 열차가 있어 동두천역(驛)에서 걸음걸이로 10분이면 드넓은 들녘에 5일마다 열리는 장(場)마당이 나타난다. 지금은 그곳이 주한 미군 2사단 후문 연병장(練兵場)으로 사용하다 미군 감축으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한민족의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고통 속에 암울했던 1919년 3월 1일 삼일운동은 대한독립운동으로 시위 외에 휴학(休學), 휴교(休校), 철시(撤市) 기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마을 청년들은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마을 청년 한원택(韓元澤), 박창배(朴彰培) 등이 각 마을마다 시위 책임자를 정하는 등 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송내리, 지행리, 광암리, 결산리, 좌기골, 기촌, 빈양말, 하봉암리, 상봉암리, 안흥리, 창말, 보둑말, 싸릿말 등 13개 마을 주민 1,000여명이 태극기를 가슴에 숨긴 채 3월 26일 지정된 장소인 동두천 장마당 정오(正午: 낮 12시)에 모여 들었다. 그러나 농민들을 비롯하여 폐점하는 상인들 다수에 이르게 되었으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던 관계로 선두에 서서 군중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다. 이때 군중 속에 있던 홍덕문(洪德文)이 앞으로 나서 내가 선봉에서 지휘하겠으니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고 소리치면서 만세 선창을 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대한 독립만세를 복창하며 동두천역 앞에 위치한 이담면(동두천시)사무소로 행진하였다.

2) 이담면 관청 시위

대부분 관청 시위는 마을 단위로 주민 참여자들이 모여 어느 정도 위세가 갖춰지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고 최종 목적지를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로 하여 그 앞에서 면 행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대는 동두천 장마당에서 10분 거리인 이담면 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신공우(申公雨)를 끌어내 독립만세 운동 할 것을 다그쳤다. 면장과 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만세운동 시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면사무소와 나란히 있는 헌병(경찰) 분견소 있는 곳과 시위 발생의 동두천 역전 앞에 1,000여명의 주민들이 세차게 몰려들어 만세를 부르며 시위였다.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헌병 분견소 헌병들은 자체 진압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양주군 주내면 주내역 앞에 위치한 헌병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동두천역과 주내역은 열차로 불과 30분 거리였다.

3) 일제 헌병 기마대(騎馬隊)

주내에서 긴급 출동한 기마 헌병들은 만세운동 시위 현장을 급습하였다. 일본 헌병들은 긴 칼을 빼들고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은 헌병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옷이 찢겨지는 등 유혈이 낭자하였다. 동두천 5일 장터의 공간을 활용한 시위는 시위 참여도 확산 목적에서 각각 특성을 보여 준다. 장터 시위는 참여도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대규모 시위가 많았다. 관청 시위는 식민통치의 직접적 지배 가해자였던 면사무소 헌병(경찰) 분견소 및 주재소를 타격함으로써 시위참여도의 위험도는 높았지만 독립과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3.1운동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가장 적극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식민지배 세력의 무력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폭력적 진압과 그에 대응하는 폭력이 나타나 폭력 시위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선두에 선 홍덕문

일제 식민지의 억압적인 면(面)행정에 대한 항의 일제의 맞서 폭력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폭력시위는 농민층이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절대 독립만이 자신들의 살길이라는 인식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갖고 있었고, 따라서 만세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퇴각을 요구하며 헌병 분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 투쟁까지도 감행하였던 것이다. 강제로 끌려나온 신공우 이담 면장은 어쩔 수 없이 만세 삼창을 하였고 선두에 선 홍덕문과 함께 군중을 이끌어 나갔다. 시위 군중은 면내 위장 거리와 아랫장 거리 지나면서 그 수가 더욱 불어났고 불요불굴의 의지를 나타냈다.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면대에 있던 헌병 분견대는 자체진압을 하지 못하고 주내에 있는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지원대로 일본 기마헌병들이 파견되어 동두천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침내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다가오자 일본 헌병들이 칼과 총을 빼어들고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중 속에 숨어있던 박경필 청년이 다가오는 일본 헌병이 타고 있던 말의 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뜨리자 헌병들이 더욱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말이 쓰러지자 발포를 하였다. 선두에 섰던 홍덕문은 헌병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옷이 찢기는 등 유혈이 낭자하였다. 정원이, 한원택 등도 헌병이 휘두른 총 개머리에 맞아 얼굴에 피가 흐르는 등 시위 현장은 찢어지는 아우성 소리만 들렸다. 맨손으로 대항한 군중들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하는 시위대는 헌병들의 폭력에 맞서 군중들은 투석전(投石戰)으로 항전하였으나 결국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헌병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5) 일본 헌병(경찰)보복 고문(拷問)의 만행

나라가 없고, 법이 없고 국민의 권리가 없었던 일제 치하의 무수히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혹독한 고문의 암울한 세상을 살아야 했다. 동두천 5일장 시위를 일본 헌병에 체포된 홍덕문(병준) 정원이, 한원택, 박창배, 박경필 등은 헌병 분견소로 끌려가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 풀려났다. 특히 홍덕문은 5개월 형을 받고 복역했다 하는데 독립운동 항쟁 재판 기록이 없다. 3.1운동 당시 배재학당을 다니던 정원이 학생은 3월 26일 양주군 이담면 면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는 통문(通文)을 전달받고 시위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민민들에게 통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투석(投石)으로 맞서면서 격렬한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에게 피체(被逮)되어 이담면 헌병 분견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6) 동두천 3.1운동의 특징(特徵)

이상에서 살펴본 동두천 3.1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개 양상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투철한 항일 의식을 바탕으로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폭력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폭력 시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동두천에서는 헌병 분견소에서 시위를 막지 못하자 양주 주내에 있는 기마(騎馬) 헌병들까지 동원하여 과격한 진압으로 유혈이 낭자하였다.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 한원택, 홍덕문, 박창배, 박경필, 고복돌 등은 헌병들에게 체포되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하였는데 그때가 오후 5시경이었다. 주내 헌병대로 끌려간 선두자들은 계속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외쳐 되니 일본 헌병들은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선두 연장자인 홍덕문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전부 지시한 것이다, 젊은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항의하였다. 밤새도록 태장(笞杖)을 맞고 풀려난 선두자들은 온 몸이 피멍 투성이었다. 특히 몇 일을 고문(顧問)받고 풀려난 홍덕문은 고문 후유증으로 억울하게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동두천은 지형상 산지가 많아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왕방산 등 대표적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점은 동두천이 의병 투쟁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동두천은 의병 항쟁의 대표적 인물 김연성을 배출(輩出)하였을 뿐 아니라 한말부터 목연옥(睦然旭)은 중국 북경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과 지하공작 임무를 띠고 특과공작을 하였다. 동두천에서는 처음부터 적극성을 띠고 일제의 헌병 경찰과 무력으로 맞섰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동두천이 의병 투쟁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동두천은 의병 항쟁의 대표적인 인물인 의병대장 김연성은 부하 의병들과 면사무소 헌병

분건소, 헌병 주재소 등 식민지 통치기관을 공격하는 등 무력 투쟁으로 발전했다는 점 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곧 의병 투쟁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이 3.1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7) 잊혀진 항일독립영웅들의 시위 현장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동두천역 앞 광장에 3.1만세운동 항일독립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동두천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해야 한다. 무력의 탄압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까지 시위에 나섰던 선열들 자랑스런 우리고장 역사의 인물들의 업적을 발굴은 비단 향토사학자들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사회단체, 동두천애향동지회, 동두천문화원 등 동두천 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 인 것이다.

7. 주한 미군부대의 골프장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동두천 5일 장터는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난 갔다 돌아왔지만 장터는 이미 주한미군 보병24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피난살이에 고향을 두 번째 떠나야 했던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논, 밭을 정부로부터 징발당하면서 마을의 모든 땅은 싼값에 매수당하고 정든 고향땅을 떠나야 했다. 쫓겨난 농민들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땅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징발된 토지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매수 가격의 등급은 산과 들 내천, 논, 밭으로 평가하여 평당 30원, 50원, 70원, 100원 1953년 휴전 직후 평가 가격이었다.

1) 문전옥답(門前沃沓)

주한미군 주둔으로 빈양마을, 보뚝뚝이 마을, 좌기말, 싸릿말, 덕수, 개안, 결피, 결산, 광암, 마을 등 8개 마을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하루아침에 정부로부터 빼앗기고 날벼락을 맞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어 주민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미군들이 차지한 고향은 아니었다. 문전옥답이 사라진 후였다. 미군들은 군막, 텐트를 치고 어디가 집이고 논, 밭인지 흔적도 없이 찾을 길이 없었다. 한 많은 세상살이 변두리 땅이라도 경작하려 했지만 미군 공병대에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말았다. 전쟁의 혼란기속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주의 동의 없이 무기명 국채 채권이란 알지 못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빼앗았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대국의 시대에 주한미군 재배치로 반환하게 되면 지주의 후손들에게 한 맺힌 억울함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빈양(濱陽)마을의 동두천 장터 그리고 미군 골프장

빈양마을은 조선 영조(英祖)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이세근(李世謹)이 뿌리를 내린 곳으로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온 마을이다. 빈양마을 앞에는 동두천 천(川)의 맑은 물이 흐르고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낭빈양이 있고 들판에는 노송이 숲을 이루며 초록빛으로 물드는 내천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면 인생 70대 떠나간 먼 세월 속에 아픈 기억의 조각처럼 조용히 떨어져 흩어져 버린다. 아련한 그 옛날의 5일장 흔적의 그 곳에는 당시 미7사단과 교체(交替)된 미2사단의 연병장으로 병영의 위수지에 설치하여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군 사열대로 활용하여 장병들을 정렬시키거나 장비를 사열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광장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減縮)으로 상당수 미군들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금은 미2사단 연병장 대신 미2사단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II. 맺는말

그 옛날 동두천 5일장 움매진 세월은 한숨짓는데 떠나간 세월의 흐름 속에 묵어두었던 매듭은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이 더 많다. 없는 사람끼리 모여 다투다 보면 배려에 앞서 싸움의 분노는 결국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인생에 맞서 싸우려 들기만 할 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느긋해 질 줄을 모른다. 인생은 그것을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장날의 덧없음이 매순간 귀중하고 그리운 추억을 일깨운다. 새싹을 보아도, 꽃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아도, 장날에 떨어지는 아픈 사연의 사람들의 뒷모습에 떠나간 그 길이 아득하기만 하다. 어느 시인이 뒤에 두고 온 세상 온갖 괴로움을 마치고 한 장의 수의에 덮여 있다고 노래한, 흰 눈 덮인 산을 보아도 굴곡의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없어져야 했던 5일장은 어렵고 힘든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 자칫 범 할 수 있는 오류를 역사의 거울을 보며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걸어온 삶은 쓰라린 과거 속에 움터온 씨앗이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6.25전쟁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으

로 고향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두천 각 마을의 주민들의 뼈아픈 삶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요구가 절실한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의 역사 이상옥 하서출판사, 1973
2. 국사대사전 김민수 어문각, 1974
3. 동두천 향토지 애향동지회 편찬위원회, 1988
4. 동두천시 내행동지 동두천문화원 1998
5. 동두천시사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1998
6. 촌스런것에 대한 그리움 김종태 새벽, 1997
7. 그리운 곳에 옛집 이형권 해들누리, 1999
8. 신한국사 태을출판사 1994
9. 내가 본 조선 사람들 퍼시벌로웰 예담, 2000
10. 경기도 어제와 오늘 경기도편찬위원회 2001
11. 동두천시사30년사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2012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와 사립배영중학교(私立培英中學校)

양 경 직 (계남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이천학연구소 운영위원)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본론

1.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 설립 배경
2. 1950년 05월 11일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설립인가
3. 1953년 05월 19일 울면 월포리 '도월(都月)' 신 교사(校舍)로 이전
4. 1954년 03월 01일 유정호가 울면고등공민학교 인수
5. 1954년 03월 11일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
6. 1955년 02월 25일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3학급)
7. 1955년 12월 15일 배영학원이사회(培英學園理事會) 회의
8. 1956년 01월 16일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9. 1956년 02월 08일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0. 1959년 03월 21일 독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1. 1960년 10월 20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
12. 1960년 12월 21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13. 1961년 02월 28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폐교
14. 1961년 04월 01일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인가(6학급)
15. 1964년 01월 11일 공립배영중학교(公立培英中學校) 설립인가

III.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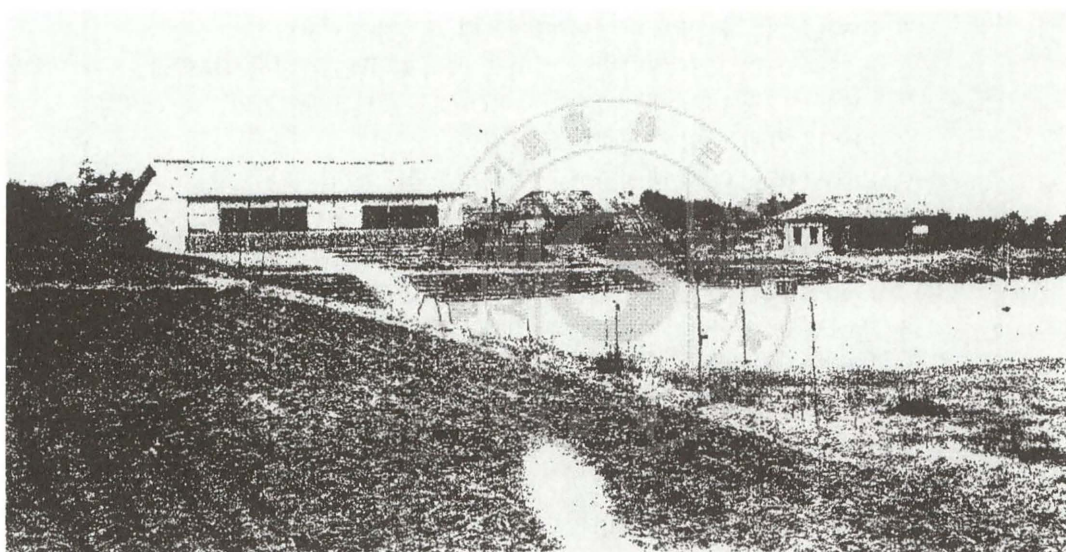
IV. 부록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연혁(1950 - 1965)

집필자

양 경 직 계남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이천학연구소 운영위원



그림1) 월포리 산 183번지 소재 1956년 울면고등공민학교 전경. 사립배영중학교로 설립 신청할 때 찍은 사진임.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



校舍全景寫真

그림2) 월포리 산 183번지 소재 1959년 사립배영중학교 전경. 독립배영중학교로 변경 신청할 때 찍은 사진임. 出典 -국가기록원 >『중
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건』(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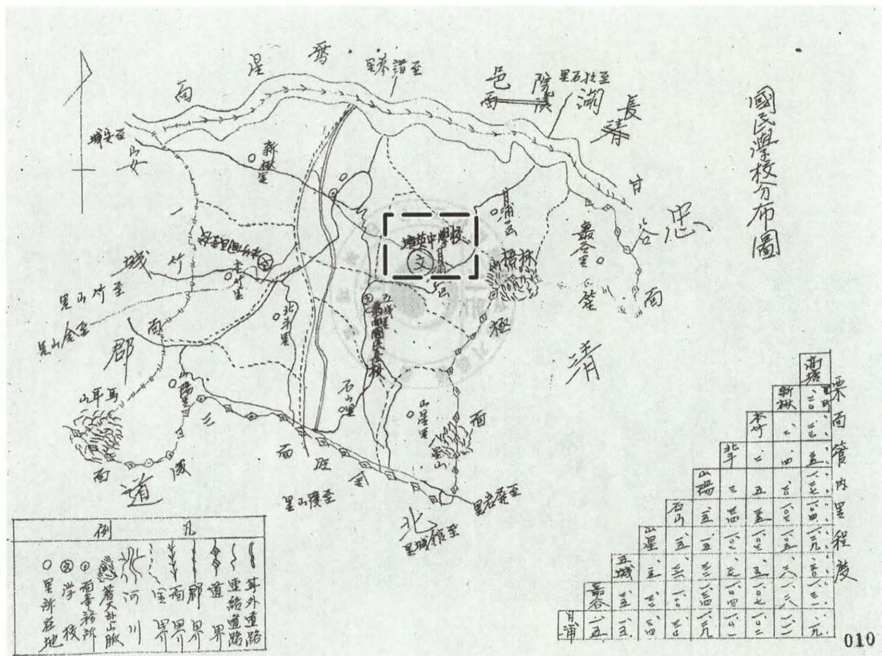


그림3) 1956년 울면 내 국민학교 분포도. 사각 점선이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소재 배영중학교.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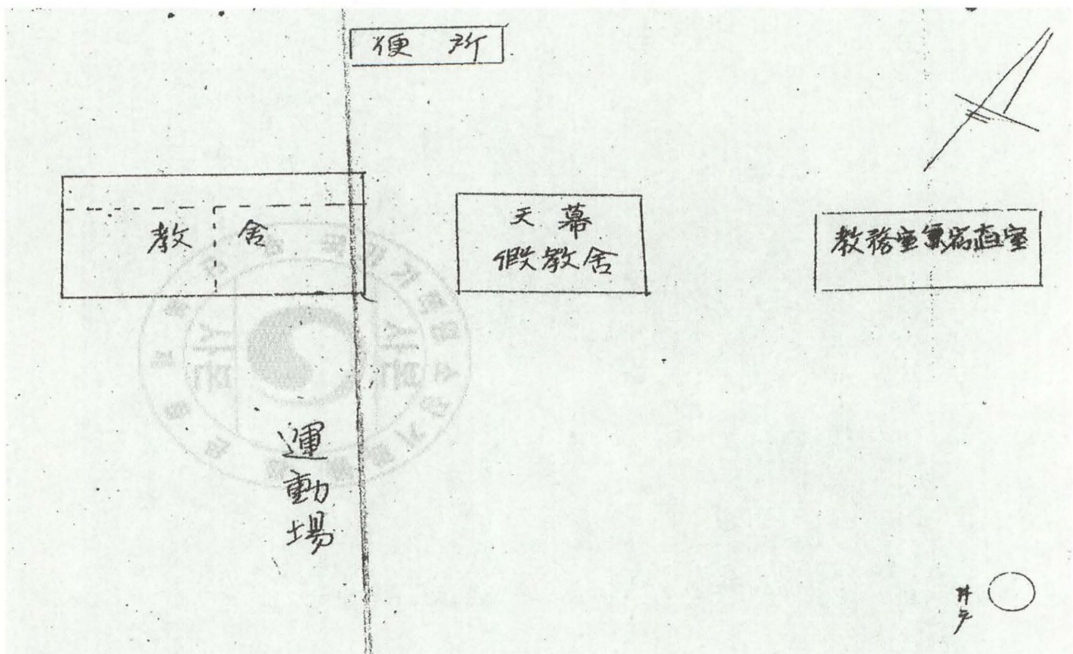


그림4) 1956년 당시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소재 배영중학교의 평면도.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1956.1.16)



그림5) 1962년 3월 5일 공립배명중학교 입학기념 - 사진제공 양철영



그림6) 공립배명중학교 제1회 졸업기념 1965년 1월 28일 - 사진제공 양철영



그림7) 舊 울면고등공민학교와 舊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위치. 교사(校舍)는 현재 지번으로 월포리 1030-4번지이고, 가교실과 교무실 겸 숙직실은 월포리 1031-4번지이고, 운동장은 월포리 1029-2번지, 월포리 1030-1번지, 월포리 1031-2번지로 지금은 모두 밭으로 변해 버렸다. 出典-다음 위성지도



그림8) 측면에서 바라본 월포리 1031-4번지 舊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 교무실 겸 숙직실 / 사진 2021-02-24



그림9) 뒷면에서 바라본 월포리 1031-4번지 舊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 교무실 겸 숙직실 / 사진 2021-02-24



그림10) 월포리 소재 배영중학교를 다니다 고당리로 이전한 배영중학교를 다닌 이도진(1948) 씨가 가리키는 곳은, 당시 학교종을 매달았던 교무실 처마이다. / 사진 2021-02-24



그림11) 밭으로 변해버린 옛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 운동장의 현재 모습. 멀리 보이는 건물은 옛 교무실 겸 숙직실이다. / 사진 2021-02-24

I. 들어가는 말

1950년 경기도 이천군 울면 고당1리(큰말) 202-4번지 공회당에 설립한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가 현재 울면중학교의 모태(母胎)가 된다. 그리고 울면고등공민학교를 이어 받아서 정식 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승격한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私立培英中學校)가 현재 울면중학교의 전신(前身)이 된다.

이후로 배영중학교 역사가 두 번 더 바뀌어서 당시 학교를 다녔던 분들도, 학교 연혁(沿革)에 대하여 무척이나 헷갈려 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배영중학교 18회 졸업생이고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 배영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연혁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원종성(元鍾成, 1943)¹⁾ 씨도 배영중학교(사립) 1회 졸업생이라고 하고, 양철영(楊澈榮, 1949)²⁾ 씨도 배영중학교(공립) 1회 졸업생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울면고등공민학교를 비롯하여 배영중학교 연혁에 대해서 전면 조사 및 연구가 필요했다.

하여 지난 2021년 2월 3일 울면 북두리 용머리(龍頭洞)로 내려갔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지인 김영훈(金永訓, 1952) 씨가 이 마을에 집을 사 놓고는, 가끔 전화를 하여 같이 내려가자고 몇 번 전화를 하였는데 이 날 검사점사 내려가게 된 것이다.

저녁 8시 무렵 이 마을에 사는 이도진(李道鎭, 1948) 씨가 김영훈 씨 집으로 왔다. 알고 보니 셋째작은아버지인 양철성(楊澈成, 1947)씨와 배영중학교를 같이 다닌 분이었다.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레 울면고등공민학교 얘기까지 번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 이도진 씨는 본죽국민학교를 7회로 졸업하고 이후 설성중학교 배영분교를 졸업한 분으로, 배영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설성중학교 7회 졸업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영중학교가 처음에는 월포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40년 전에 고향을 떠나 전국의 향토사를 연구하다가, 이제야 고향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6년 전부터 울면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진작에 연구했어야 했던 학교였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배영중학교에 대해서 각종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성과는 국가기록원에

1) 본죽국민학교 2회 졸업. 사립배영중학교 1회 졸업. 제63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이천시의회 4대 의장,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現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과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회장이다.

2) 공립배영중학교 1회 졸업. 고려대학교. 범양해운 이사, 한국항공화물터미널 전무

서 울면고등공민학교와 배영중학교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복사해왔다. 이 자료들로 인하여 학교 역사가 비로소 올바르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울면 지역의 원로인 박사구·권혁중·원종성·이도진·양철성 님들과 인터뷰를 계속 해왔다. 다만 박사구 옹의 경우에는 99세의 고령이시라, 아드님인 박병진 씨가 구술(口述)을 받아서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었다.

다만 몇몇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헌에 의거하지 않고 기억에 의거하다 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렸다. 우선 연도가 나오지 않았고 사립인지 공립인지도 불분명했다. 무엇보다도 배영중학교의 모태(母胎)가 되는 울면고등공민학교에 대해서는, 문헌자료만 있을 뿐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해야만 했다. 관련한 인물들의 연령이 80대 중반 이상의 고령이어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향토사는 때를 놓치면 많은 부분들이 사장(死藏)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사해야할 막중한 임무가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역사를 기록한 『울면중학교 연혁지』가 필요했다. 우선 이천경남중학교(前, 설성중학교) 행정실에서 학교의 연혁에 대하여, 필자가 원하는 만큼 이상을 아주 성실하게 보내왔다.

그러던 차에 2021년 3월 12일 사립배영중학교 1회 졸업생 원종성(1943) 씨를 인터뷰하는데, 울면 면장을 지낸 조선행 씨의 아들이 마침 울면중학교에 교감으로 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곧바로 연락을 하여 배영중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더니, 2021년 3월 24일 울면초·중·고등학교 연혁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내주어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조성균 교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아래에서 『울면중학교 연혁지』와 『이천경남중학교 연혁지』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의 문헌 자료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아래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 설립 배경

1950년 당시 경기도 이천군 울면 내에는 1933년 8월 3일 설립인가를 받아 1934년 5월 1일에 개교한 울면공립보통학교(울면국민학교)와, 1949년 4월 1일 울면국민학교 본죽분교(2학급)를 설치하고 본죽리 공회당에서 수업을 할 때였다.

그러나 중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 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의 죽남고등공민학교나 장호원중

학교 그리고 멀리 죽산명륜학교 등지로 통학을 하거나 학교 인근에서 하숙³⁾⁴⁾을 해야만 했다. 이런 연유로 고당리에 500여 년 세거하고 있는 고령박씨 박필구(朴弼九, 1886-1962)가 당시 면장으로서는 읍면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1956년에는 월포리에 500여 년 세거하고 있는 전주유씨 유정호(柳定鎬, 1894-1971)가 읍면고등공민학교를 인수 받아 사립배영중학교로 승격하여 정식 중학교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사실 고당리의 고령박씨 무숙공파종중(武肅公派宗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의 자제(子弟)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을 했다. 곧 1910년 설성면의 사립죽남학교(私立竹南學校, 현재 설성초등학교)가 바로 무숙공파종중에서 땀방울로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숙공파종중의 박필구가 학교를 또 설립하였으니, 읍면 학교사에서 고령박씨와는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2. 1950년 05월 11일 읍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설립인가

▽1950년 05월 20일 : 읍면 고당1리 공회당(公會堂)에서 입학식

▽1950년 07월 14일 : 6.25 전쟁으로 휴교

▽1951년 10월 01일 : 개교. 학교 소실(燒失)로 읍면국민학교 1개 교실 임차 수업

▽1952년 07월 01일 : 읍면 월포리 산 183번지 300평 기부 받아 2개 교실 기공(起工)

고등공민학교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생긴 학교를 말한다. 읍면고등공민학교는 당시 읍면 면장 박필구(朴弼九)가 1950년 5월 11일 설립인가⁵⁾를 받았다. 당시 면장으로서 앞장을 선 듯하다. 이에 대해서 박사구(朴思九, 1922)⁶⁾ 옹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박필구 면장이 고당리 ‘목골’ 공회당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다. 1.4후퇴 때 전소(全燒)하여 읍면국민학교에서 잠시 교육. 그 후 월포리에 거주하는 당시 면장 조병직이 천막을 치고 운영.”

3) 증언-권혁중(1935) 2021년 2월 20일 : “죽남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죽산명륜학교에 들어갔어.”

4) 증언-양철성(1947) 2021년 2월 19일 : “본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장호원중학교 다닐 적에 양홍석, 양철옥이 하고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어.”

5) 『읍면중학교 연혁지』 / 박사구(朴思九, 1922) 증언(2021.3).

6) 고령박씨 무숙공파(武肅公派) 33세 박사구(朴思九, 1922) : 조선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계에서 투신하여 본죽 및 읍면국민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서훈(敍勳).

이 증언은 박사구 옹의 둘째아들 박병진(朴炳振, 1951) 씨가 아버지의 필담(筆談)을 받아서 2021년 3월에 보내준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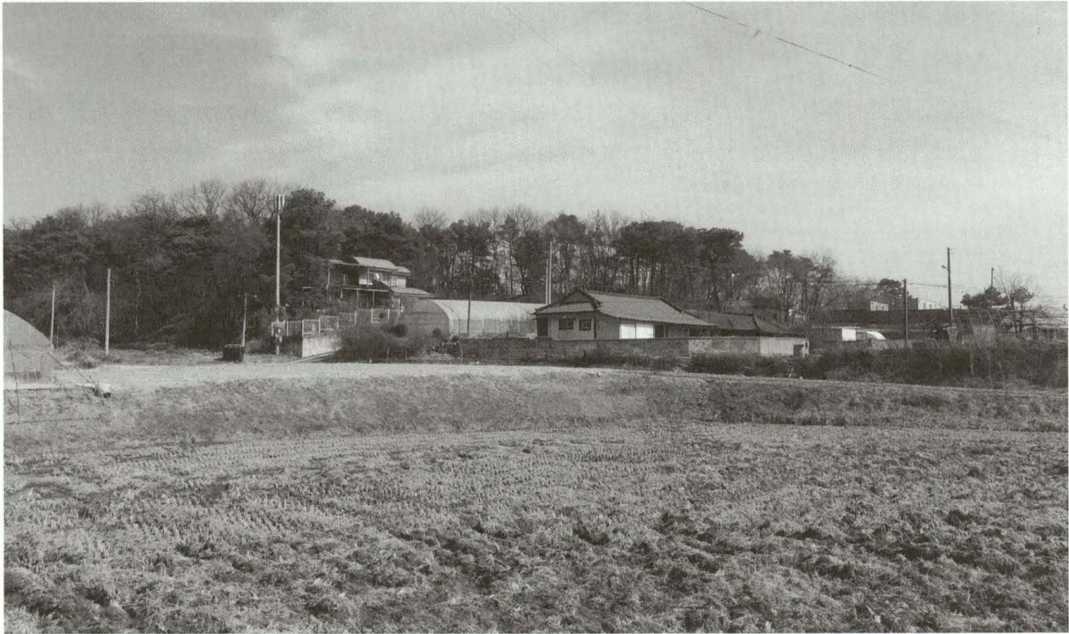


그림12) 울면 고당1리 202-4번지 옛 공회당터. 가운데 비닐온상 자리. *증언 -고당리 박병진(朴炳振, 1951) / 사진 2021-02-25

또한 『利川大觀』(1955)에는 사립고등공민학교 4개 학교⁷⁾에 64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京畿道誌』(1956)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교 명 :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소재지 : 이천군 울면

○교 원 : 6명

○교실수 : 3

○학급수 : 1

○생 도 : 남학생 79명 / 여학생 23명 / 총 102명

○설립자 : 박필구(朴弼九)

○現교장 : 이재윤(李在潤)

出典 -『京畿道誌』(1956.8.15)

7)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신둔고등공민학교(新屯高等公民學校), 모가면 송죽고등공민학교(松竹高等公民學校), 설성면 죽남고등공민학교(竹南高等公民學校)

당시 울면고등공민학교에는 교사가 6명이 있었고 남녀 학생 102명이, 교실 3개에서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박필구는 인근에 죽남고등공민학교(現, 이천경남중학교)가 1년 전인 1949년 2월 19일에 개교한 것에 고무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울면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박필구(朴弼九, 1886-1962)는 고령박씨 무숙공파(武肅公派) 33世로 생부(生父)는 내부주사(內部主事)를 지낸 박우석(朴遇錫, 1859-1928)이다. 박필구의 자(字)는 전오(典五), 호는 각헌(覺軒)으로 행정 관리(官吏)로 정년을 하고, 해방 이후 울면 초대 면장⁸⁾과 사립배영중학교 명예 교장을 지냈다.

3. 1953년 05월 19일 울면 월포리 ‘도월(都月)’ 신 교사(校舍)로 이전

△1950년 05월 11일 :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설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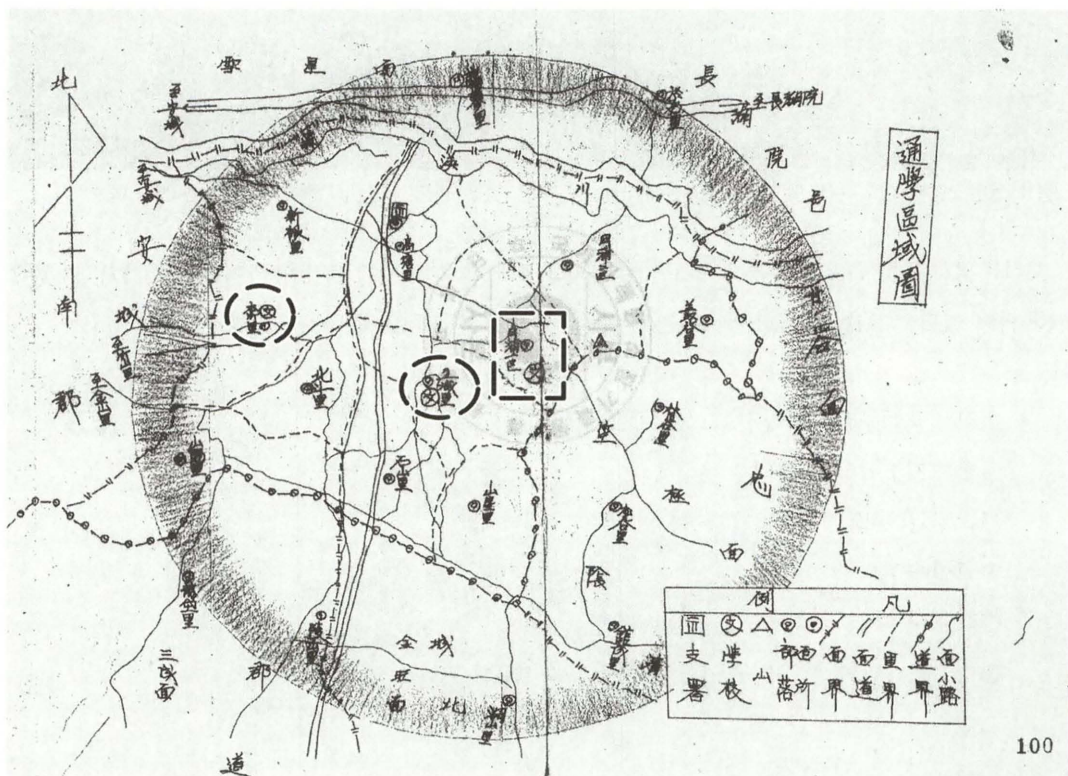


그림13) 사각 점선이 울면고등공민학교이고 동그라미 점선이 울면 및 본죽국민학교 표시이다.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3.15)

8) 재위기간 1946년 8월 1일 - 1955년 5월 30일까지 울면 면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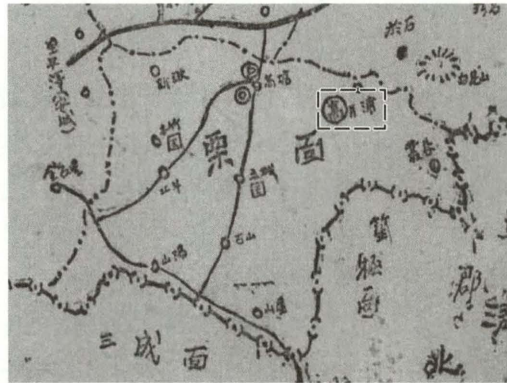


그림14)사각 점선 동그라미 안에 '高'자가 들어있는 표기가 월포리에 있었던 울면고등공민학교이다. 出典-이천문화원 > 『利川大觀』(1955)

1950년 5월 11일에 울면 면장 박필구가 울면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고당1리 공회당에서 교육하였다. 그러나 채 한 달이 지날 무렵 6.25 전쟁으로 인하여 7월 14일 휴교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1951년 10월 1일에 개교하였다. 그러나 학교로 사용했던 공회당이 전소(全燒)되어 어쩔 수 없이 울면국민학교 1개 교실을 빌려서 수업⁹⁾을 하였다. 이때 조병직이 면내의 유지로서 1952년 7월 1일 월포리 '도월(都月)'에 山 300평을 기부 받아 2개 교실을 기공(起工)¹⁰⁾하였다. 말이 교실이지 천막교실이었다. 관련하여 여러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월포리에 거주하는 당시 면장 조병직(趙炳稷)이 천막을 치고 운영하였다.”

*증언 -박사구(朴思九, 1922) : 고당리에 거주. 본죽 · 울면국민학교 교장 역임 / 2021-03

“울면고등공민학교는 고당리 큰말 공회당에 있다가 월포리 '안도달미'로 간 학교여. 학교 부지를 제공하니깐 간 거지. 그러니까 유정호(柳定鎬) 어른이 울면고등공민학교를 받아서 배영중학교를 만들게 된 거여. 그 동네가 전주유씨 집성촌으로 유씨들이 많이 살아. 나는 죽남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죽산명륜학교에 들어갔어.”

*증언 -권혁중(權赫鍾, 1935) : 신추3리 속칭, 용댕이(龍堂里) 거주 / 2021-2-20

“울면고등공민학교가 나중에 인제 법인체로 돼서 국가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1회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제 설성분교로 됐잖아 한때. 그런데 설성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또 1회 졸업이 돼

9) 出典 - 『울면중학교 연혁지』(울면중학교)

10) 出典 - 『울면중학교 연혁지』(울면중학교)

가지고 1회 졸업생이 세번이 되어 있는데, 나도 졸업 횟수를 잘 몰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는 지를 몰라서. 나도 월포리 학교를 내가 다니구 했는데 헛갈려. 배영학교 연혁에 울면고등공민 학교가 없다는 게 잘못된 거지. 어디든지 처음부터 고등공민학교부터 맨들었다가 나중에 정식 인가를 받은 거지. 그게 산 역사지. 처음부터 학교로 인정받은 학교가 몇 개나 있겠어. 더군다나 설성을 갔다가 와서 없는 게지. 그리고 졸업장이나 사진은 아마 없을 거야. 우리 집이 수해를 두 번 봤어. 그래서 별안간 집을 다시 짓고 정리를 하면서 분실 되었을 거야. 배영학교 교장을 지내신 박사구, 이 분은 살아계셔.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지.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크게 떠들면 될 거야. 이 분은 고당1리에 살고 계시고 박봉하 씨는 고당3리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배영학교를 조사하려면 박사구, 박봉하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봐. 그러면 셋이 합석을 해서 이야기 하면 좋을 거야. 그때 내가 갈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좋아. 어쨌든 울면고등공민학교를 비롯하여 1961년 이전 역사가 빠진 게 잘못된 건데. 그 내역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역사를 하나 심어 주는 것이 좋지.”

*증언 -원종성(元鍾成, 1943) : 울면 산양1리 용산동(龍山洞) 출신 / 2021-3-12

“내가 처음에 배영학교 체육회장 때 동문회장을 하기는 했어. 동문회 발족을 해서 사람을 모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 그래서 동문회장 자격으로 아이들 중 · 고등학교 졸업 때 내 돈으로 시상을 사비로 그냥 7~8년 했어. 이후에 후배들이(누구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나) 자기들이 동문회를 멋있게 할 테니 물려달라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물려줬더니 1년도 못하고 없어졌어. 그리고 고당3리에 사는 이학수 한테 내가 동문회를 하려다가 못했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애를 썼어. 이 친구는 이천시청에 있다가 설성면장을 하다가 정년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배영학교 동문회를 하려다가 못 했어. 또 서울에 김철웅이라고 나와 동갑인데, 학교는 또 후배여. 이 친구도 동문회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했어. 그리고 다음에 통합된 이후 교장이 열의가 있어서 동문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못했어. 처음 경비는 얼마가 들어가든 내가 낼 테니 한 번 해봐라 했는데 하다가 또 못했어. 지금 중학교 교감이 누구냐 하면 조선행 씨 둘째아들이 교감으로 와 있어. 그 친구 매형이 나와 동창인 성기원이야. 어쨌든 교감한테 동문회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말은 했어.”

*증언 -원종성(元鍾成, 1943) : 울면 산양1리 용산동(龍山洞) 출신 / 2021-3-12

“거기가 월포리이지 아마 ‘안도달미’라고. 맞지? 그래 거기일거여. 하여간에 학교를 간다고 갔더니 넓은 공터에 천막이 3개인가 있더라고. 천막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시원찮았어. 학교 갈 때는 신추리에서는 학생이 나 밖에 없어서, 혼자서 ‘용당뿌링이’로 해서 ‘막재보’를 건너 월포리로 들어갔지. 하도 오래 되어서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난다.

*증언 -양철성(楊澈成, 1947) : 신추3리 속칭, 용당이(龍堂里) 출신 / 2021-02-16

“배영중학교는 처음에 월포리 매봉재 밑 ‘안도달미’에 있었어. 천막이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 어디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북두리에서 출발하여 개울 건너 오성리 입구에서 산 밑으로 난 길을 따라 월포리 언덕배기를 막 넘어 가자마자 학교가 오른쪽에 있었어. 마을에서 맨 꼭대기지 뭐. 평평한 운동장이 약 300평쯤 되었고, 약 2m쯤 약간 높은 언덕배기에 교무실 겸 사택이 있었는데, 그 옆에 무슨 건물인지 허물어진 흔적이 있더라고. 교무실에 종을 매달아 놓고 수업 종을 치고 그랬지. 그때 학교에서 잔심부름 하던 소사(小使) 이름이 종철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종철아, 종철라!’하고 놀리곤 했어.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학교 가기가 무서웠어. 한내개울¹¹⁾에 막아 놓은 막재보(-湫)¹²⁾를 건너서 학교를 다녔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막재보 위를 건너가기가 무서운 거지. 개울을 가로질러 보를 쌓느라 말뚝 수백 개를 뽕뽕하게 쑥 박고, 그 사이 사이에 쇠(쇠가지)를 꼭꼭 눌러서 채웠어. 그래야 물이 새지 않고 가뉘지. 쇠를 채우고 나면 맨 위에는 지게로 흙을 날라다가 덮었어. 사람들이 다니게끔 ‘말장다리(抹杖橋)’를 만든 거지. 어른들이 장호원장을 갈 때도 이리로 다녔어. 높이는 약 1m쯤 되었고 넓이는 그거 반쯤 될 거여. 좁아서 깨금발로 모기 부리듯 건너야 했는데, 한 겨울에 개울에 빠져서 양말을 벗고 집에 온 적도 있어. 여름철에는 양말을 벗고 개울물을 건너오고 그랬어. 장마에 흙이 씻겨 내려가니까 ‘말장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지. 북두리, 신추리, 본죽리 학생들이 다 ‘말장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다녔어. 장마가 지면 건너편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오곤 했어. 사친회비¹³⁾를 못 내면 선생님한테 혼났지. 내일 가져온다, 내일 가져 온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 못 가져오면 많이들 혼났지. 그때는 다들 어려웠으니까.”

*증언 -이도진(李道鎭, 1948) : 북두리 용머리(龍頭里) 거주 / 2021-02-03

조사해 보면 더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듣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뷰 자체가 어렵고도 조심스러워 더 이상은 하지 못했다. 『경기도 교육기관 분포도』(1956)¹⁴⁾를 보면 고당리에 울면사무소와 울면고등공민학교, 오성리에 울면국민학교, 본죽리에 본죽국민학교, 월포리에 사립배영중학교가 표기되어 있다. 다만 분포도에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중학교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1956년이면 울면고등공민학교가 사립배영중학교로 설립된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11) 한내개울 : 한내개울은 북두리에서 오성리로 건너가는 석원천의 향토지명이다. 석원천에 보(湫)를 막았는데 이름을 ‘막재보(-湫)’라 불렀다. 보를 설치하면 줄줄 흐르던 개울물이 이곳에서 개울이 넓게 커진다. 그래서 ‘크다’는 의미의 고유어 ‘한’을 붙여 ‘한내개울’이라 칭한 것이다.

12) 막재보 : 북두교 아래 고당리 574번지 일대의 넓은 벌판을 ‘막재벌’이라 부른다.

13) 사친회비(師親會費) : 사친회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수업료와는 별도로 매월 학교에 내는데 학생의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월사금(月謝金)으로 부르기도 했다. 1963부터 기성회비로 부르다가 후에 다시 육성회비로 부르다가 1997년 폐지되었다.

14) 出典 - 『京畿道誌』(1956, 8, 15)

이제 방금 울면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자와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면 울면고등공민학교가 사립배영중학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문헌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울면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박필구(朴弼九)나 이를 인수한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자 유정호(柳定鎬)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이다. 유정호는 「배영학원이사회 회의록」(1955)¹⁵⁾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말을 하였다.

「배영학원이사회 회의록」

단기 4288년(1955) 12월 15일 : 오전 10시. 학원(學園) 회의실에서 배영학원 이사회를 개최하다.

의장(議長) : 제안 설명을 좌(左)와 여(如)히 설명하다.

본 재단은 현재까지 울면고등국민학교를 유지 경영하여 오든바, 만근(輓近)¹⁶⁾ 세태의 진전에 따라 고등공민학교 교육만으로는...(이하 생략)"

의장(議長) : 교사(校舍)는 기성회 부담으로 건축에 착수할 터이나, 자재(資材) 관계로 다소 지연 될지 몰으며, 현재 고등공민학교의 사용하는 교사를 사용할 것이니 인가되는 대로 개교할 것이요, 교사 증축을 조속(早速) 추진코자 합니다...(이하 생략)

상기 1955년 12월 15일 「배영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울면고등공민학교를 유지 경영하여 오던 바,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세태의 진전에 따라 고등공민학교 교육만으로” 운운하고 있다. 곧 울면고등공민학교가 사립배영중학교로 변경된 사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5)

16)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4. 1954년 03월 01일 유정호가 읍면고등공민학교 인수

△1953년 05월 19일 : 읍면 월포리 '도월(都月)' 신 교사(校舍)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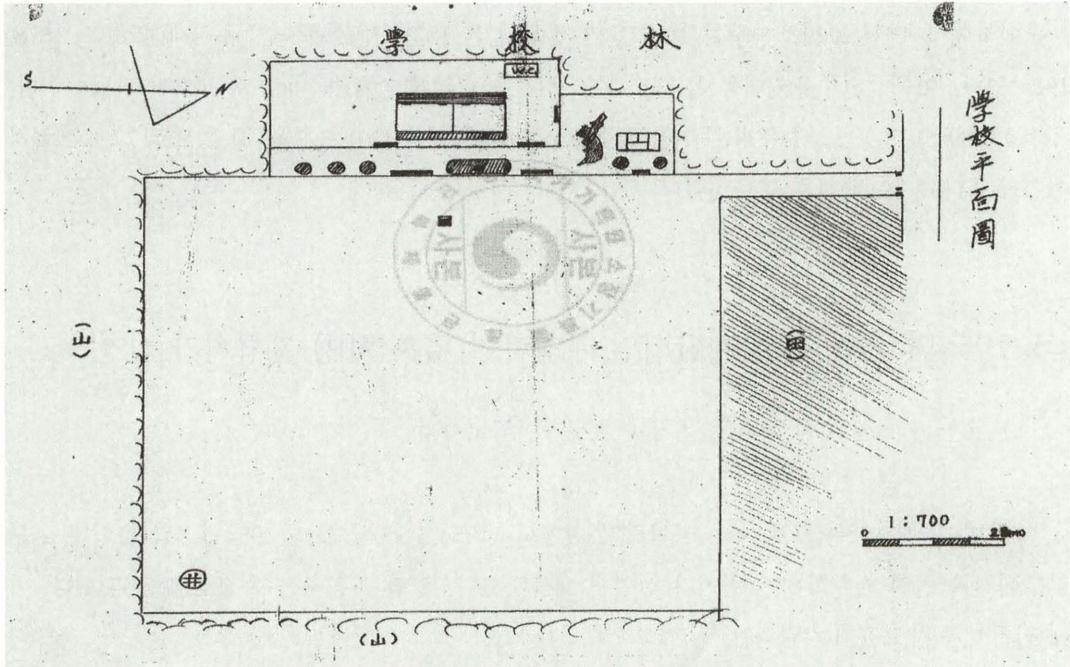


그림15) 읍면 월포리 산 183번지 소재 읍면고등공민학교 평면도,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3.15)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서』(1954.3.15)를 보면 읍면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박필구(朴弼九)가 작성한 「기부증서(寄附證書)」 날짜가 1954년 3월 11일이다. 곧 유정호가 이 날에 학교를 인수했다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때 인수 받은 학교 건물은 교사(校舍) 1동 50평, 사무실 겸 숙직실 18평, 변소 5평이었다.

「기부증서(寄附證書)」¹⁷⁾

금반(今般)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을 위하여 종래(從來) 본교의 소유물 기타 본교 관계의 기득(既得) 수익(收益) 일체를 무상양도(無償讓渡) 하겠삽기 자(茲)에 증서(證書)를 제출함.

단기 4287년(1954) 3월 1일

경기도 이천군 읍면 월포리 산 183번지

17)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서』(1954.3.15)

울면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박필구(朴弼九)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자 유정호(柳定鎬) 귀하

관련하여 1913년 토지조사부를 보면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소유자는 유치재(柳致宰, 1878-1924)였다. 이에 『전주유씨대동보』(2004)를 보니 유정호(柳定鎬)는 바로 유치재의 장남이었다. 유정호(1894-1971)는 전주유씨 주부공파(主簿公派) 25世로 자(字)는 주원(周元)으로 77세로 졸하여 도월촌(都月村)에 묻힌 인물이었다.

5. 1954년 03월 11일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

△1954년 03월 01일 : 유정호가 울면고등공민학교 인수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서』(1954.3.15)를 보면 1954년 3월 11일자로 문교부에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하였다. 설립 대표자는 유정호(柳定鎬)였다. 아래 신청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서』¹⁸⁾

문교부장관 前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의 건」

수제(首題)의 건 본도 관하 이천군 울면 월포리 183번지 소재 유정호로부터 별지와 여(如)히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이 유(有) 하옵기, 기(其)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의(機宜)에 적절한 신청으로 인정되오니, 우기(右記) 조량(照諒)하시와 원의(願意)대로 허가하여 주심을 양망(仰望)코, 자(玆)에 부신진달(副申進達)함.

記

一. 법인 명칭 : 재단법인 배영학원

二. 법인 주소 :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18)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

三. 법인 설립 목적 : 교육사업(배영중학교 유지 경영)

四. 법인의 자산

1. 기본 재산액 : 5,995,800圓

임 야 : 163町4反 - 1,960,800圓

학 교 건 물 : 73평 - 916,000圓

정미소 건물 : 127평 - 308,000圓

기업체 기계구 - 2,811,000圓

2. 보통 재산

교구(敎具)비품 : 39,350圓

도서 : 8,550圓

총 재산액 : 6,043,700圓

五. 재단 기본 재산 수지(收支) 상황

해(該) 재단 기본재산의 수지 지출액이 1,988,450圓 동액(同額)인바, 동 지출액 중 완성년도까지 학교 운영비로 815,000圓을 계상(計上)하였는바, 기본재산의 수입 및 학교운영비 보조액으로 보와, 3학급의 학교 운영에는 하등 지장이 없음.

○ 단기 4287년(1954) 3월 11일

설립자 대표 유정호(柳定鎬)

문교부장관 귀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건」

금반(今般) 별지 요강에 기(基)하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코저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양망(仰望)하와 별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이신청(茲以申請) 하나이다.

이하 설립 취지서 및 기부증서를 비롯하여 첨부서류 22가지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요 재정은 정미소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정미소 수입으로 학교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옮겨 보도록 하겠다.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 취지서」¹⁹⁾

본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를 설립하여, 차(此)를 유지 경영코저 함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盛衰)가 그 성원(成員)인 국민 자질 여하에 달려 있으며,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킴에는 교육의 보급보다 더 첩경이 없음을 체언(贅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점은 선진 제국(諸國)들이 보다 이 점에 착안 유의하여 국민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적절한 시책에 국력을 경주(傾注)하여 초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책정 수행(遂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건국 도중에 비참한 전화(戰禍)를 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탕연(蕩然)한 도의(道義)를 앙양(昂揚)하여, 황폐한 국토를 흥복(興復)함에도, 퇴폐한 문화를 재건함에도, 교육에 의한 국민의 인격 도야(陶冶)와 자주자립의 역량 배흥(培興)이 아니면, 전재(戰災) 복구와 민주국가로서의 발전을 기대키 곤란할 것임을 미루어 보면, 중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화 하더라도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는 ▮편(▮便)입니다. 이렇듯 교육의 ▮▮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불타는 향학집일(向學集一)과 부형의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지방 농촌인 상급지(上級地)에서는 경제적 입지적 요조건(要條件)의 할약(割約)으로 말미아마, 국민학교 졸업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과거 5개년 평균 6% 강(強)에 불과하는 극히 미미한 현상입니다. 그런 중 이 점을 우려하시여 기응(其應)을 대책으로 단기 4283년(1950)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를 창설하여 이 불우(不遇)한 청소년들의 지식욕을 다소나마 충족시켜 오는 ▮편(▮便)입니다. 그러나 고등공민학교로서는 기(其) 명분상 성인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으나, 학동과 부형들의 갈증 하는 중 학과는 상이(相異)되는 점이 허다하여, 기(其) 근본 사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극히 유감지사(遺憾之事)이오며, 또한 본교(울면고등공민학교) 통학 구역 내에는 울면국민학교(분교가 있음) 외에 본면(本面)에 인접한 관할 각지(통학 거리 관계는 본교에 통학함이 편리한 지방)의 금년 국민학교 졸업생수는 240명이며, 기수(其數)는 축년(逐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본 재단을 설립하고 울면고등공민학교를 모체(母體)로 하여 배영중학교를 설립 유지 경영함으로써 지방의 중학 교육 보급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시책에 일비지조(一臂之助)라도 기여코저 하는 바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면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를 설립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켜, 자주자립의 역량을 배흥(培興)하고자 하는 목적을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 곧 여기에서 학문을 복돋아 꽃처럼 피어나라는 의미로 학교 이름을 ‘배영(培英)’으로 명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 국민학교에서 매년 240명의 학동이 졸업을 하는데, 겨우 6%만이 진학

19)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

을 하고 나머지는 채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울면고등공민학교를 모태(母胎)로 하여 배영중학교를 설립한다고 설립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시 임원은 아래와 같다.

「1954년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 당시 임원 명단」²⁰⁾

- 1954년 3월 5일 이사 취임-

직명	성명	직업	임기	주소
이사장	유정호(柳定鎬) ²¹⁾	농업	4년	이천군 울면 월포리 842
이사	이희순(李熙淳)	농업 (면의원)	4년	이천군 울면 월포리 157
//	김제완(金濟完)	농업	4년	이천군 울면 고당리 171
//	박병철(朴炳哲) ²²⁾	농업 (면의원)	2년	이천군 울면 고당리 198
//	김원형(金遠炯)	농업 (면의원)	2년	이천군 울면 총곡리 112
//	박순구(朴順九) ²³⁾	농업 (학교장)	2년	이천군 울면 고당리 170
감사	이상규(李相圭)	농업	2년	이천군 울면 석산리 507
//	안경동(安康童)	농업	1년	이천군 울면 신추리 644

또한 「재단법인 배영학원 기부행위」 제6장 해산 제24조에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같은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귀속을 결정함.” 조항이다. 곧 도중에 학교 운영이 어렵더라도 학교에 기부한 일체의 재산은 교육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부자들은 무엇을 학교에 기부했을까.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서』(1954.3.15)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곧 상기 「1954년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 당시 임원 명단」의 인물들이 곧 기부자였다. 아래는 기부한 내역이다.

▷유정호(柳定鎬) : 임야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5,100평

평당가 : 4,000圓 / 시가 : 20,400圓

20) 出典 -국가기록원>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

21) 전주유씨 주부공파 25세 유정호(柳定鎬, 1894-1971)

22) 고령박씨 무숙공파 34세 박병철(朴炳哲, 1927-1971)

23) 고령박씨 무숙공파 33세 박순구(朴順九, 1908-1960)

▷박순구(朴順九) : 동문정미소(洞文精米所)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월포리 284

평당가 : 4,000圓 / 시가 : 96,000圓

▷이희순(李熙淳) : 퇴포정미소(退浦精米所)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월포리 157

평당가 : 4,000圓 / 시가 : 96,000圓

▷박병철(朴炳哲) : 고당정미소(高塘精米所)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고당리 242-2

평당가 : 5,000圓 / 시가 : 270,000圓

▷김제완(金濟完) : 북두정미소(北斗精米所)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북두리 25

평당가 : 3,000圓 / 시가 150,000圓

▷김원형(金遠炯) : 총곡정미소(叢谷精米所) 기부

소 재 : 이천군 울면 총곡리 101

평당가 : 3,000圓 / 시가 690,000圓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4)

이들 기부자 모두는 「기부증서」를 재단법인 배영학원에 제출하였다. 당시 정미소는 부(富)의 상징이었다. 울면 10개 마을에 자연촌락 30여 개에 정미소가 5개 밖에 없었으니 대단한 호황을 누렸을 것이다. 곧 보물단지 같은 정미소를 기부한 것이 배영중학교로 승격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분들을 지금이라도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6. 1955년 02월 25일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3학급)

△1954년 03월 1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

상기 여섯 명이 1954년 3월 11일자로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한 결과 1년

뒤 설립허가가 나왔다. 아래는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에 대하여 인가한다는 문서이다.

문보제546호

경기도 이천군 율면 월포리 산 183번지

유정호(柳定鎬)

단기 4287년(1954) 3월 11일자로 신청한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의 건 허가함

단기 4288년(1955) 2월 25일

문교부장관 리선근 職印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1955.02.25)

6.25 전쟁 직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도 면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많은 자제(子弟)들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이 노력한 결과 중학교 설립허가를 받았으니 감개무량하였을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문보제 호

단기 4288년(1955) 2월 25일

문교부장관 리선근

경기도지사 귀하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 단기 4287년 3월 19일자로 부신한 수제의 건 별지와 여히 허가 및 인가 하였사오니, 지령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시고 작기 사항에 유의 선도 하시압.

記

- 一. 법인 설립등기는 법정 기일 내 기본재산 이전등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완료하고, 그 등기등본을 첨부 보고케 할 것.
- 二. 기본재산 중 도정공장에 대하여는 도정허가 명의를 법정명의로 변경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케 할 것.
- 三. 기본재산 수입은 과대평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 699,000환 정도로 재조정 하였으니 수지예산서는 이에 의거하여 재 작성케 할 것.

四. 교사는 신축 완료하여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후, 등기등본을 첨부 보고할 것이며, 사진을 첨부케 할 것.

五. 기본재산이 미약하니 단, 학급 중학교를 유지 경영코저 할 때는 수입 실적이 있는 기본 재산을 2,000,000환정도 증자케 한 후, 그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케 할 것.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1955.02.25)

7. 1955년 12월 15일 배영학원이사회(培英學園理事會) 회의

△1955년 02월 25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를 받음

재단법인 배영학원은 문교부가 요구하고 있는 설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영학원이사회를 구성하였다. 물론 이들은 토지 및 기타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이다. 문교부 요구 이후 이희순(李熙淳)과 조병직(趙炳稷)²⁴⁾은 6,724평을 기부하여 배영학원의 기본재산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아래는 「배영학원이사회 회의록」이다.

“배영학원이사회(培英學園理事會) 회의록(會議錄)²⁵⁾

단기 4288년(1955) 12월 15일 오전 10시 학원 회의실에서 배영학원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회 정원(定員) 7명중 6명 참석

이사장 유정호(柳定鎬)는 의장(議長)으로서 개회를 선언하다.

議 長 : 토의사항은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설립의 건을 상정(上程)합니다.

議 長 : 제안 설명을 좌(左)와 여(如) 설명하다.

본 재단(財團)은 현재까지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를 유지 경영하여 오든 바, 만근(輓近)²⁶⁾ 세태의 진전에 따라 고등공민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 발전의 추수(追隨)할 수 없는 실정임은 고지(告知)의 사실인 바, 작년 중 박병철(朴炳哲) 외 4人으로부터 기부 받은 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된 고당정미소를 박병철씨(朴炳哲氏)에게, 북두정미소를 김제완씨(金濟完氏)에게, 충곡정미소를 김원형씨(金遠炯氏)에게, 동문정미소를 박신구씨(朴信九氏)에게, 퇴포정미소를 이영순씨(李永

24) 1952년 이천군 울면의회(栗面議會) 의장(議長)

25)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5)

26)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淳氏)에게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締結)한 바, 본년 12월부터 본 학원(學園)의 수입을 보게 되어 장차 년수입 백미(白米) 200 가마(𪎩)²⁷⁾, 정맥(精麥)²⁸⁾ 100가마(𪎩) 이상을 예정케 되었고 문교부장관 지시에 기본재산을 2,000,000환(圓) 정도로 증자하도록 되었음으로, 고심 중이든 차에 이희순씨(李熙淳氏)와 조병직씨(趙秉稷氏)가 대지 6,724평을 자진 기부하여 임대료 벼(粳)²⁹⁾ 43가마(𪎩)의 년수입을 보게 되었은 즉, 중학교를 무난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과반 면내 유지(有志) 총 꺾기 하에 배영중학교건축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 건축에 대한 비용일체를 동(同) 기성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차제에 본 재단으로서 적극 활동하여 배영중학교 설립인가를 신청코자 하여, 본건 제안에 지(至) 하였으니 총분 심의하여 주심을 망(望)합니다.

박병철(朴炳哲) : 본건에 대하여는 중학교를 목적 하였으나 기본재산의 등기(登記) 수속 및 임대계약이 미완료 되었음으로, 부득이 고등공민학교를 유지 경영케 되어 유감으로 사료(思料)하든 중, 제반 수속이 완료케 되어 본안(本案)과 같은 수입을 보게 되었으니, 중학 승격을 위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김원형(金遠炯) : 중학(中學) 승격에 대하여 교사(校舍) 증축과 개교 시기는 여하(如何).

議 長 : 교사(校舍)는 기성회(期成會) 부담으로 건축에 착수할 터이나, 자재(資材) 관계로 다소 지연될지 몰으며, 현재 고등공민학교의 사용하는 교사를 사용할 것이니 인가되는 대로 개교(開校)할 것이요, 교사 증축을 조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희순(李熙淳) : 본 재단(財團)이 설립된 이후 우금(于今) 중학교를 경영치 못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유(有)하니, 차제에 조속 추진키 위하여 심의(審議)를 종료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할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전원 찬성

議 長 : 전원 찬성하시니 만장일치 가결합니다.

議 長 : 본일(本日) 이사회는 이로써 폐회합니다.

이에 의장은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원 서명 날인하니 때는 12시를 보(報)하다.

27) 가마니(𪎩) : 곡식이나 소금 등을 담기 위해서 짚으로 쳐서 섬처럼 만든 용기이다. 곡물을 거래하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개항 이후 일본의 가마니가 조선에 들어왔고 이후 1907년 일본에서 가마니들이 들어오면서 일본말 가마스(かます: 𪎩)도 따라 왔다.

28) 정맥(精麥) : 보리를 찧어서 속꺼풀을 벗긴 후 물을 쳐가며 깨끗하게 씻은 보리.

29) 인(粳) : 벼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이다. 일본말로 '모미(もみ, 粳)'이다.

月 日 於 同所

理事長 유정호(柳定鎬) 印

理 事 박순구(朴順九) 印

理 事 김제완(金濟完) 印

理 事 박병철(朴炳哲) 印

理 事 김원형(金遠炯) 印

出典 -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허가 신청의 건』(1955)

작년 중 박병철 외 4人으로부터 기부 받은 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된 고당정미소를 박병철(朴炳哲)씨에게, 복두정미소를 김제완(金濟完)씨에게, 총곡정미소를 김원형(金遠炯)씨에게, 동문정미소를 박신구(朴信九)씨에게, 퇴포정미소를 이영순(李永淳)씨에게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희순(李熙淳)씨와 조병직(趙秉稷)씨가 대지 6,724평을 자진 기부하였다. 이후 6명이 기부한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배영학원 소유로 등기까지 마쳤다.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에 첨부된 등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등기 연월일 : 4288년(1955) 5월 30일 등기

一. 명 칭 : 재단법인 배영학원.

二. 사 무 소 : 이천군 율면 월포리 산 183번지.

三. 목 적 :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基)하여 중등(中等) 보통교육을 목적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를 유지 경영함.

四. 설립허가 연월일 : 4288년(1955) 2월 25일

五. 존재시기 : 공란

六. 자산총액 : 金7백30십만5천환(圓)

七. 출자방법 : 기본재산에서 생(生)하는 과실(果實),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함.

八. 이사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이천군 율면 월포리 842번지. 이사 유정호(柳定鎬)

경기도 이천군 율면 월포리 157번지. 이사 이희순(李熙淳)

경기도 이천군 율면 고당리 171번지. 이사 김제완(金濟完)

경기도 이천군 율면 고당리 198번지. 이사 박병철(朴炳哲)

경기도 이천군 율면 총곡리 112번지. 이사 김원형(金遠炯)

경기도 이천군 율면 고당리 170번지. 이사 박순구(朴順九)

이하 등기권리증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물론 모든 소유권은 재단법인 배영학원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다. 또한 정미업허가증과 제분업허가증 역시도 재단법인 배영학원으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이하 허가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京糧第 號 栗面 經由

정미업허가증(精米業許可證) / 제분업허가증(製粉業許可證)

기업주 주소 :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성명 : 배영학원

一. 공장 소재지 : 경기도 이천군 울면 고당리 242-2

경기도 이천군 울면 북두리 25

경기도 이천군 울면 총곡리 112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284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157

二. 공장명 : 고당, 북두, 총곡, 동문, 퇴포 각 정미소

三. 업 종 : 정미업 - 전동기(電動機) 2대 : 15마력(馬力)

발동기(發動機) 3대 : 8마력(馬力)

4288년(1955) 12월 30일자 신청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함

4289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이익흥(李益興) 印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배영학원 기부행위」³⁰⁾ 제6장 해산(解散)에 보면 상기 재단법인 배영학원 소유의 재산은, 학원이 해산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제23조 : 본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 전원의 의결로써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수(受)함을 요함.

제24조 :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시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가 또는 법인

30) 出典 -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1956)

과 동일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갖인 단체에 기부함.

제25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3/2 이상의 동의(同意)로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수(受)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이 문교부가 요구하고 있는 설립인가 조건을 충족한 배영학원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8. 1956년 01월 16일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³¹⁾

△1955년 02월 25일: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3학급)

△1955년 12월 15일: 배영학원이사회(培英學園理事會) 회의

接 受: 단기 4289년(1956) 1월 16일

立 案: 단기 4289년(1956) 1월 20일

決 裁: 단기 4289년(1956) 1월 20일

施 行: 단기 4289년(1956) 1월 20일

追 記: 단기 4289년(1956) 2월 25일자 文普第546號

法人 設立件 可畢件 可附事條件 履行畢

第 號

단기 4289년(1956) 1월 16일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재단법인 배영학원 이사장 유정호(柳定鎬)

文教部長官 貴下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표기지건(標記之件)에 관하여 재단법인 배영학원 기부행위 제2조에 의하여 배영중학교를 설립코자 하와 별지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를 양원(仰願)하나이다.

31) 出典 -국가기록원>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1.16)

一. 목적

(一) 설립 이유

- ◇ 제1 이유. 본 중학을 설립함은 당지(當地)에서 최근 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는 東으로 약 12천(杆, 킬로) 되는 장호원을 장호원중학교 있고, 北으로 약 9천(杆, 킬로) 되는 설성면 설성중학교가 있고, 西으로 약 9천(杆, 킬로) 되는 안성군 일죽면 일죽중학교가 있고, 南으로 약 15천(杆, 킬로) 되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무극중학교가 있으나 사방 대천(大川)이 격류(隔流)하여 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홍수기에 당하야는 2,3일 혹은 4,5일식 두절됨으로 가위(可謂) 고도지대(孤島地帶)를 난면(難免)이며, 본교 관하(管下) 국민학교 분포도와 여(如)히 다수한 국민학교 졸업 아동들의 중학 진학상 불편이야 말로 막대한 것임.
- ◇ 제2 이유. 본 지방의 주민은 대부분이 영세농민일 뿐이라 사변(事變) 이후에 철의 삼각지 피난민이 다수 정착함으로, 기(其) 자질(子胥)들의 향학열을 만족키 위하여는 하숙비 기타 제반 학비 등을 지출하기에 너머도 경제력이 부족함을 통감함.
- ◇ 제3 이유. 근래 중학생의 연령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원거리를 통학한다는 것은 지도 보호상 또는 건강 유지상 심히 우려점이 불무(不無)함.
- ◇ 제4 이유. 면내 교육시설 및 취학 상황을 보면

1. 교육 시설

교 명	학급수	취학 아동수	본년 졸업 아동수	내년 졸업 아동수	매년 평균 졸업 아동수	설 립
율면국민학교	11	583	91	111	110	1933년 8월 17일
본죽국민학교	7	375	48	58	63	1954년 10월 27일

전기(前記) 본면 시설 이외에 본면과 인접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삼성국민학교 출신으로서, 해지(該地)에는 통학 구내(區內)에 중학교가 무(無)하야 본면 현 고등공민학교 개교(4283.5月) 후 매년 통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 중학교 설립 후에는 가일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졸업 및 취학 상황

서울 : 中 · 高 · 大學校 52명
 청주 : 中 · 高 · 大學校 13명
 기타 : 中 · 高 · 大學校 67명

3. 졸업 및 취학 현황(국민학교 설립된 4266년으로부터 4288년까지 상황)

졸업 아동수	상급학교 희망자수	진학자수	미 진학자수	비 고
1,288	951	635	653	미 진학자는 대개 가정 형편상 중퇴 또는 불능학자 (不能學者)

본 지방은 이상과 여(如)히 주민 전체가 자녀 교육난에 고민하는 현실임에 감(鑑)하여 차(此) 난국을 타개할여는 열의에서 본 중학을 설립코저 함.

(二) 설립 목적

◇목적(目的):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目標): 전자(前者)의 목적을 위하여 더욱 발전 확충시키며 다음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함.

(가) 국민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키며 중견(中堅)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나)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勤勞)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학교 내외에 있어서 자율(自律) 활동을 조장(助長)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여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라) 신체를 양호(養護) 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명칭 및 위치

명칭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위치 :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이에 경기도에서는 문교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文教部長官 前

「培英中學校 設立認可에 關한 件」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여 본도(本道) 관하(管下) 이천군 소재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이사장 유정호(柳定鎬)로부터, 별지와 여(如)히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이 유(有)하옵기 그 내

용을 검토한 바, 동(同) 재단설립 건 당시의 부사(附事) 조건인 기본재산 증자(增資)로 별지와 여(如)히 시행되었고, 기타 조건도 선전(先全) 이행되었으며 제반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좌기(左記) 참조하시와, 원의(願意)대로 필(畢) 인가하여 주심을 양망(仰望)하옵고 〰에 부신진달(副申進達)하나이다.

記

一. 설립목적 :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中等) 보통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二. 학 교 명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三. 위 치 :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四. 학급수 및 정원 : 3학급 150명

五. 교지(校地) 교사(校舍) 시설

1. 교지(校地) 및 실습지(實習地) 교내(校內) 5,100평

2. 교사(校舍) 시설

(가) 정교사(正校舍) 2교실 : 목조와즙평가건(木造瓦葺平家建)

(나) 직원실 및 숙직실(宿直室) : 18평

(다) 변소 : 5평

3. 교사(校舍) 신축 계획 : 2교실 50평(4289년, 4290년 양년도에 완성)

六. 학교 유지 방법

재단법인(財團法人) 배영학원(培英學園) 기본재산 수입 및 학동(學童) 수입으로써 유지(維持)하는 것이며, 재단 수지에산서 세출면(歲出面)에 학교 운영비 외 매년도에 1,400,000圓式이며, 매 학급당 경상비(經常費)가 초년도 2,166,000圓. 차년도에 2,083,000圓. 완성년도에 722,000圓으로서 이것을 미루워 볼 때 중학교 3학급 경영상 재정(財政)은 지장(支障)이 없을 것으로 사료(思料)됨.

상기 문헌을 보면 재단법인 배영학원 이사장 유정호(柳定鎬)는 3학급 150명으로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2월 8일자로 인가를 해주고 난 이후 본 문서에 “1956년 2월 25일 문보제546호. 법인 설립의 건은 허가를 마쳤음. 부가한 조건을 이행했음.”이라 추기(追記)하였다.

배영중학교 인가 신청서를 보면 교지(校地) 및 실습지는 5,100평이었다. 건물로는 기존의 목조(木造) 기와지붕 교사(校舍: 2개 교실) 50평, 직원실 겸 숙직실 18평, 변소 5평이었다. 이에 증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축할 교사(校舍)는 1956년과 1957년 2년에 걸쳐 증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리고 중학교 3학년 정도는 경영상 재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립인가를 해주었다.

9. 1956년 02월 08일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956년 01월 16일 :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을 보면 1956년 2월 8일에 설립인가가 났는데, 아래와 같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있다.

○문보제212호

접 수 : 4289(1956)년 1월 21일

기 안 : 4289년(1956) 1월 25일

건 명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수제(首題)인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이사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온 바, 해 법인은 단기 4288년(1955) 2월 25일자로 법인 허가를 득한, 본 법인에서는 금반 법인 본래 설립 사업 목적인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를 설립코저 함인데, 법인 설립 당초에 조건도 잘 이행 되어 있어 학교 운영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와, 원의 타당 하안에 의하여 인가 하고저 재결을 양청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1956년 2월 8일에 설립인가를 해주었다.

○통첩안 : 문보제二三호³²⁾

단기 4289년(1956) 2월 8일

문교부장관

경기도지사 귀하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32) 出典 -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6.2.8)

단기 4289년(1956) 1월 20일자 경문정제24호로 부신한 수제의 건 별지와 같이 인가하였으니 지령장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시고, 좌기 사항에 유의 지도 하시압.

記

- 一. 교원은 유자격자로서 정원을 구성토록 할 것.
- 二. 학급편제는 단기 4289(1956)년도 제1학년부터 년차적으로 학생을 모집케 할 것.

○ 지령안 : 문보제二—二호

재단법인 배영(培英)학원

단기 4289년(1956) 1월 16일자로 신청한 배영중학교 설립의 건. 다음과 같이 인가함.

단기 4289년(1956) 2월 8일

문교부장관 리선근 印

記

- 一. 학 급 수 : 3학급
- 二. 학생 정원 : 150명

배영학원은 그동안 문교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설립인가가 난 것이다. 이에 같은 문서에 아래와 같이 「학교설립조서」를 보내고 있다.

「학교설립조서」

- 一. 명 칭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 二. 위 치 : 경기도 이천군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 三. 학 칙
 1. 수업연한 : 3년
 2. 입학자격 : 학칙 제5조에 의함.
 3. 학 급 수 : 3학급
 4. 학생정원 : 150명
 5. 학급편제

년도 / 학급	제 1 학년	제 2 학년	제 3 학년	계
4289(1956)	1			1
4290(1957)	1	1		2
4291(1958)	1	1	1	3

四. 설립 자 : 재단법인 배영학원

五. 경비와 유지 방법

1. 경 비 : 완성연도까지의 수지예산 별지

2. 유지방법 : 재단 수입 및 학교 수입

六. 설비

1. 교지 : 5,100평

2. 교사 : 교실 2, 직원실 · 숙직실 1, 변소 1(5평)

七. 개교 년월일 : 단기 4289년(1956) 4월 1일

이로써 정식 중학교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1956년 1월 16일 「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에서는 개교(開校) 예정일을 2월 10일로 잡았으나 문교부에서는 1956년 4월 1일로 날짜를 잡아서 내려 보냈다. 곧 배영중학교 본래의 개교일은 4월 1일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울면중학교 연혁지』에는 개교 년월일을 1964년 3월 1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61년 2월 28일 재단법인 배영학원이 폐교 되고 난 이후, 1964년 3월 1일자로 공립배영중학교로 재 개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 날짜로 개교일을 다시 잡은 것이다.

10. 1959년 03월 21일 독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956년 02월 08일 :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958년 12월 10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에서 독립으로 변경 결의

△1959년 01월 10일 : 독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장이 독립으로 설립인가 신청

△1959년 03월 07일 : 경기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독립으로 설립인가 신청

△1959년 03월 08일 : 사립배영중학교 제1회 졸업식

위에서 보았듯이 배영중학교 주요 재정 수입원은 5개 정미소였다. 그러나 30여 개 자연촌락마다 정미소를 각각 경영하게 되자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이에 배영중학교 경영이 어려워지자 독립(道立)으로 설립자 변경을 신청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교사(校舍)가 쓰러질 지경인데도 수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었을 정도로 경영이 안 좋았다. 당시 『조선일보』 1959년 10월 13일자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을 정도다.

“쓰러져 가는 교사(校舍),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20도나 경사(傾斜)

【長湖院】이천군 울면(栗面)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는 교사가 쓰러질 염려가 있어, 그동안 기둥으로 떠받쳐 왔었는데 점차적으로 기울어져 지금은 20도나 경사되어 위험하기 짝이 없으나, 전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신축은 꿈도 못 꾸고 수축이나 할 방도가 없는 형편이어서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할 수도 없어 부득이 동교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수업하는 학생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립으로 설립자 변경 신청은 1959년 3월 7일이고 신문기사는 10월 13일인 것을 보면, 학생들은 오랫동안 기울어진 위험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다.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건」(1959.3.7)을 보면 문교부에 3월 7일에 신청을 했지만, 이미 전년도인 1958년 12월 20일에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를 하였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주요 수입원인 정미소가 적자로 인하여 학교 경영이 어려워 도립(道立)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회의록 말미에 결의서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준다.

「결 의 서」

본 이사회는 본 재단이 경영하는 배영중학교를 도립(道立)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의한 본 재단의 재산 일체를 기부할 것을 결의함.

단기 4291년(1958) 12월 20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이사장 : 유정호(柳定鎬) 印

이 사 : 박필구(朴弼九) 印

이 사 : 이희순(李熙淳) 印

이 사 : 김제완(金濟完) 印

이 사 : 박우정(朴遇政) 印

이 사 : 박순구(朴順九) 印

이 사 : 신구현(申九鉉) 印

재단법인 배영학원 재산 일체를 경기도에 기부한다는 결의서이다. 도립배영중학교설립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이듬해인 4292년(1959) 1월 10일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장 정충섭(丁忠燮)이 경기도지사에게 도립배영중학교로 설립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 있다.

「도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1959.1.10)

단기 4292년(1959) 1월 10일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 회장 정충섭

경기도지사 귀하

「도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

금번 별지 요강에 의거 도립중학교를 설립코저, 이에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신청서에는 설립 취지서, 설립 이유서, 기부자 인감증명서, 재단법인 배영학원 유정호가 재산일체를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보냈다. 이후 두 달 뒤 경기도지사가 1959년 3월 7일 문교부장관에게 도립중학교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

「중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건」(1959.3.7)

○경문정제 호

단기 4292년(1959) 3월 7일

경기도지사 職印

문교부장관 귀하

「도립중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도 관하 이천군 소재 재단법인 배영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사립배영중학교를 도립으로 설립자 명의를 변경코저 별지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좌기에 의하여 인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記

一. 배영중학교 신·구 설립자 대표

구 설립자 : 재단법인 배영학원

신 설립자 : 경기도

記

一. 목적 :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二. 명칭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三. 위치 : 경기도 이천군 읍면 월포리 산 183번지

- 四. 학칙 : 별지와 같음(변동 사항 없음)
- 五. 완성년도까지의 학급 편성표. 별지와 같음.
- 六. 설비사항 : 별지와 같음.
- 七. 설립자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와 같음.
- 八. 교직원과 사무직원의 정원 일람표.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충용하게 되는 것임으로 당해 학교를 생략함.
- 九. 경비와 유지 방법. 국비 및 도비 보조와 자체 수업으로서 유지하는 것이다. 도 중등 교육비 특별회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을 당해 학교 수지예산서를 생략함.
- 十. 재산처리 방법. 재단법인 배영학원 소유재산 처분(기부) 인가신청서. 별도 신청할 예정임(도유재산으로 기부채납 예정임)
- 十一. 독립중학교로 전환코저 하는 사유
 사립배영중학교는 단기 4289년(1956) 2월 8일자로 설립인가 되어, 현재까지 재단법인 배영학원이 유지 경영해 왔으나 법인의 기본재산이 정미소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바, 당해 지역에 중고등학교 분포 상태 및 진학자수 등으로 보아, 중고등학교의 존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발전을 꾀하고자, 이를 독립교로 전환코저 함.

이에 문교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아래와 같이 사립배영중학교를 독립중학교로 설립을 인가 해주었다.

「중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건」(1959.3.7)

품의

경기도지사로부터 신청하여온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온 바, 재단법인 배영학원이 설립한 배영중학교는 해 재단의 기본재산 수입 적자로 말미암아 유지 경영이 곤란하여, 독립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적인 조건과 국민학교 분포로 보아 중학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의대로 별지 지령서와 같이 인가하오리까.

○ 지령안

문보제 1,275호

경기도

배영학원

단기 4292년(1959) 3월 7일자로 신청한 배영중학교 설립자 변경의 건. 다음과 같이 인가

한다.

단기 4292년(1959) 3월 21일

문교부장관 최재유

記

一. 설립자 : 경기도

11. 1960년 10월 20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

△1959년 03월 21일 : 독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1960년 02월 2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³³⁾

△1960년 03월 03일 : 독립배영중학교 2회 졸업식 거행

△1960년 10월 15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 해산 결의

1960년 3월 3일 배영중학교 2회 졸업식 거행을 앞두고, 1960년 2월 21일 경기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로보아 당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 2월 25일 설립허가를 받아 3학급으로 출발한 사립배영중학교가, 그 사이 독립중학교로 전환한 지 불과 1년 만에 해산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서류미비로 인하여 반려되고 10월 20일에 해산허가를 다시 신청한 서류이다.

33)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1960.2.21)

접수 : 단기 4293년(1960) 2월 21일

입안 : 단기 4293년(1960) 2월 22일

경기도지사

문교부장관 앞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

표기의 건에 대하여 관하 이천군 소재 재단법인 배영학원 청산대표자 박우정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 허가신청이 有하옵기 경유 진달하나이다.

추신 : 본 법인은 사립배영중학교를 유지 경영하여 오든 바, 단기 4292년(1959) 3월 7일자로 해교가 독립중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됨으로 인한 것임을 첨심함.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³⁴⁾

제 호

단기 4293년(1960) 10월 20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청산대표자 박우정

문교부장관 귀하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서」

본 재단은 별지 이유서에 의거 해산하고자 작기 1건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양원하나이다.

一. 해산코자 하는 이유서

본 재단은 단기 4288년(1955) 2월 25일자 문보제546호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존립하였고, 단기 4289년(1956) 2월 8일자 문보제212호 문교부장관 인가로 배영 중학교를 유지 경영해야 오던 중, 금반 도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든바 단기 4292년(1959) 3월 21일자 문보제1275호 문교부장관 인가로 설립자 명의변경에 따라, 당연히 그 후원체도 변경할 것이나 본 지방 실정이 농촌경제의 궁핍으로 인하여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의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할뿐더러, 누년 세입 결함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 1,541,900환정 부채를 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당정미소는 30년 전 설립한 공장으로서 1년 과(過)함에 따라 공장이 반파하여, 현 상태로는 도정(搗精)이 불능하여 공장을 개축하고 기계 가설을 다시 하는 관계로 그 간에 도장 작업 중에 의한 수입 감수와, 공장 신축 가설비 관계로 도정공장에서 2,708,000환정의 결손을 보아, 합계 4,250,330환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생하였으니, 현 재단의 예산으로써는 상환할 도리가 없어 지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본 재단의 기본재산 대부분이 소규모로 도정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인 관계로 현하(現下) 곡가(穀價)는 상상외로 폭락되는 반면에, 유류 및 기타 수용품의 가격은 배전등귀(倍前騰貴)로 수지면에 있어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를 생(生)할 실정이니, 재산 수입으로는 상환(償還)할 가망이 없어 차제에 재단을 해산 처분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학교 시설비에 충당하고자 함.

이에 앞서 1960년 10월 15일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하였다. 당

34) 出典 -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1960.10.20)

시 참석했던 배영학원 임원은 아래와 같다. 재단법인 배영학원 대표이사 박우정, 이사 박순구 · 신구현, 임시이사 이희순 · 김제완 · 조병직이었다. 이 중에 조병직은 당시 배영중학교기성회장이었다. 1960년 9월 30일 현재 재단법인 배영학원 총 재산은 아래와 같다.

▷고당정미소 : 이천군 울면 고당리 195번지 ³⁵⁾	-904,500환
▷북두정미소 : 이천군 울면 북두리 26번지	-653,900환
▷총곡정미소 : 이천군 울면 총곡리 112번지	-468,000환
▷동문정미소 : 이천군 울면 월포리 284번지	-416,500환
▷퇴포정미소 : 이천군 울면 월포리 157번지	-384,000환
▷월포리 소재 토지 : 7,714평	-925,680환(평당 120환)
	-총계 4,275,680환

곧 상기 재산을 청산대표자 박우정 명의로 매도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는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에 인도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박우정(朴遇政, 1908-미상)은 고령박씨 무숙공파(武肅公派) 32世로 월포3리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 서 약 서 」

재단법인 배영학원을 해산함에 있어 본 재단 소유 재산 중학교 부지를 제외한 재산을, 본 재단이 경영하는 기업체(도정공장)의 결손액과 배영중학교 유지 경영에 주입(注入) 결함으로 인한 부족액을 보지(保持)하고, 잔액을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에 인도할 것을 서약함.

단기 4293년(1960) 10월 15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청산대표자 박우정 印

문교부장관 귀하

당시 배영학원 총 재산은 4,275,680환이었고, 부채액은 4,250,320환이었다. 따라서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25,360환이었다. 이 돈을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에 인도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35) 본래 정미소는 고당리 242-2번지에 있었으나 정미소 반파로 인하여 195번지로 이전한 것.

12. 1960년 12월 21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³⁶⁾

△1960년 10월 20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

접수 : 단기 4293년(1960) 12월 21일

기안 : 단기 4293년(1960) 12월 28일

발송 : 단기 4293년(1960) 12월 30일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직무대리(職務代理)

내무국장(內務局長) 신명순(申明淳)

재단법인 배영학원청산대표자(清算代表者) 박우정(朴遇政) 앞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

단기 4293년(1960) 10월 20일자로 신청한 표기(標記)의 건에 관하여는 기간(其間) 문교부에 부신진달(副申進達) 하였든 바, 별지 지령서(指令書)와 같이 허가되었으니 양지(諒知)하시고 좌기(左記) 각항에 유의하여 시조상(施措上) 만유루(萬遺漏)없기를 기(期)하시압.

記

- 一. 해산한 법인은 청산(清算)의 목적 범위 내에 있어서는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오니, 현재 이사(理事) 중에서 청산인(清算人)을 선정(選定) 취임(就任)케 하여 청산 사무에 당(當)하도록 할 것.
- 二. 청산 사무를 완료한 후에는 지체(遲滯)없이 그 상황을 보고하고 법인 해산 등기를 3주간 내에 완료하고, 그 등본(謄本) 3통을 첨부하여 청산 전말(顛末)을 보고할 것.

○ 문교부 문보제3779호

단기 4293년(1960) 12월 21일

문교부장관

경기도지사 귀하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의 건」

36) 出典 -국가기록원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1960.12.21)

본건 별지 지령서와 같이 허가 하였으니 재산 처리상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시고 처리한 후 그 전말을 보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보제3779호

재단법인 배영학원

단기 4293년(1960) 10월 20일자로 신청한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을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단기 4293년(1960) 12월 31일
문교부장관 오천석

記

- 一. 기본 재산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청산처리 할 것.
- 二. 청산 후 잔액은 도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에 인도할 것.

이렇게 하여 유정호가 1955년 2월 25일 재단법인 사립배영학원(私立培英學園) 설립허가를 받아 3학급 편성하여 경영해 오면서, 1959년 3월 8일에 제1회 졸업식을 마치고 곧바로 3월 21일에 도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1960년 3월 3일 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동년(同年) 10월 20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을 하여, 12월 21일 해산허가가 인가되면서 폐교의 길을 걷고 말았다.

13. 1961년 02월 28일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폐교

△1960년 10월 20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신청

△1960년 12월 2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재단법인 배영학원 도립배영중학교는 문교부로부터 1960년 12월 21일자로 해산허가가 났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961년 2월 28일자로 폐교 되었고 1961년 4월 1일자로 설성중학교 배영분교로 인가되면서, 이전에 졸업했던 많은 졸업생들은 미아(迷兒)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배영중학교가 법적으로 해산(解散), 곧 폐교된 것에 기인(起因)한다.

연월일			내역
1950.	5.	11.	율면고등공민학교 인가
1956.	2.	7.	사립 배영중학교 설립 인가
1959.	3.	21.	도립 배영중학교 설립 인가
1961.	2.	28.	폐교
1961.	4.	1.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인가
1961.	12.	8.	신축교사 낙성
1964.	1.	11.	배영중학교 설립 인가
1964.	11.	1.	박상옥 초대교장 취임
1965.	1.	30.	제1회 졸업(88명)

그림16) 出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e-경기교육역사관 > 배영중학교

14. 1961년 04월 01일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인가(6학급)³⁷⁾

△1961년 02월 28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폐교

▽1961년 12월 08일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고당리에 목조(木造) 신축 교사(校舍) 완공

▽1962년 03월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고당리 542-1번지로 이전

▽1962년 12월 28일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숙직실 신축(10평)

이와 관련하여 『이천경남중학교 연혁지』(이천경남중학교 행정실)에는 “1961년 4월 1일 배영중학교 폐교, 설성중학교 분교인가로 동시에 6학급 인가”로 기록되어 있다. 분교가 되었다는 것은 경영 주관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곧 역사의 단절을 말한다.

그리고 1961년 12월 8일에 설성중학교 배영분교를 고당리 542-1번지에 교사(校舍)를 목조(木造)로 완공하였다. 현재의 체육관 자리이다. 12월 8일에 완공한 것을 보면 학생들이 고당리에서

37) 出典 - 『이천경남중학교 연혁지』(이천경남중학교 행정실)

공부한 시점은 1962년 3월 5일³⁸⁾로 보인다. 이듬해 1962년 12월 28일에는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숙직실을 신축(10평)하였다. 관련하여 설성중학교 배영분교로 졸업한 이도진(李道鎭, 1948) 씨 증언을 들어보면, 마치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 같다.

고당리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시절

“나는 월포리에서 1년 공부하다가 고당리 학교로 왔는데 나무로 지은 네 칸짜리 목조 건물이었다. 세 칸은 교실이고 한 칸은 교무실로 썼어. 바닥은 마루를 깔았고 교실 벽은 반들반들한 합판이었고 외벽은 송판을 가로로 박아서 지은 학교였어. 형편없었지만 천막보다야 훨씬 낫지 뭐.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학교에 숙직실이 없었어. 그래서 학교 뒤에 숙직실을 짓는 목재를 우리 학생들이 반월성에 가서 날라 왔어. 그때는 고당리에서 반월성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없어서 트럭이 청미천을 건너오지를 못하니까 목재를 반월성에 부려 놓았어.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기둥을 어깨에 메고 오고 그랬어. 물이 허벅지까지 차고 그랬어. 나는 1964년에 졸업을 했어. 그런데 나는 분명 배영중학교를 다녔는데 설성중학교 7회 졸업장을 받았어. 그게 나도 이상하기는 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배영중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지. 박문구 씨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배영중학교로 치면 최초의 1회 졸업생이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배영중학교를 다닌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학생 수가 적다고 하여 설성중학교 배영분교가 되면서 헛갈리게 된 거여. 그 전에 중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는 얘기도 얼핏 들어. 그러나 몇 년도인지는 자세히 몰려. 그리고 자네 막내작은아버지(양철영, 1949) 때부터 다시 또 배영 1회로 하나까 더욱 헛갈리게 된 거지. 자네 셋째작은아버지(양철성, 1947)는 선배들이 하도 두들겨 패니까 일죽중학교로 전학을 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숙직도 썼어. 선생님 1명에 학생 3명이 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밤에 숙직을 썼는데, 학교 건물이 목조이다 보니 밤에는 삐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여. 나무가 뒤틀어지는 소리지. 어린 마음에 무서웠지. 선생님은 숙직실에서 자고 우리는 교무실에서 합판으로 만든 침상에서 이불을 덮고 잤어. 숙직하고 나면 아침에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공부를 했어. 방학 때는 전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운동장 평탄작업을 했는데 운동장이 처음에는 약간 경사가 져있어. 그래서 삽으로 경사진 흙을 파내고 2인 1조로 단가로 날라다가 땅을 평평하게 고른 거지. 단가가 뭔지 알지? 가마니 양 쪽으로 나무를 끼우고 가마니에 흙을 담아서 나르는 도구지. 그리고 그때 잘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 ‘배영, 배영, 그지 떼들아’라고 시작하는 노래인데 놀리느냐고 그러는 거지 뭐. 겨울에는 마루 바닥에 난로를 놓고 수업을 했어. 처음에 있었던 데가 지금 체육관 자리였어.”

*증언 -이도진(李道鎭, 1948) : 북두리 용머리(龍頭洞) 거주 / 2021-02-03

38) 이날 입학한 학생들이 바로 공립 1회 졸업생이 된다.

요즘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면 당장 파면감이 아닌가 한다. 인터뷰를 나가면 더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필자의 셋째작은아버지의 증언이다.

고당리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시절

“월포리에서 배영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고당리로 왔는데 나무로 지은 건물이더라. 네 칸 째 될 거여. 그런데 나는 배영을 다니다가 신추리 양철훈(1947)이 하고 양순중(1948)이 하고 또 누가 있더라, 하여간에 우리는 일죽중학교로 전학을 갔어. ‘산디(山北)³⁹⁾’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순중이는 자전거를 못 타서 우리가 뒤에 태우고 다니고 그랬어.”

*증언 -양철성(楊澈成, 1947) : 신추3리 용당리(龍堂里) 출신 / 2021-02-16

당시 배영중학교가 들어선 자리는 읍면 고당리 542-1번지 田 646평이었는데, 토지대장을 보니 1960년 5월 1일자로 박병현(朴炳賢)에서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1962년 6월 10일자로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1977년 10월 14일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고당리 田 545번지 285평은 1966년 9월 30일 김기창(金起昌)⁴⁰⁾에서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1978년 8월 31일자로 학교용지로 변경되면서 540-1, 541-1, 542-1, 542-4, 542-5, 545-1, 545-2, 543-2, 543-3, 546, 549-1번지를 합병하여 모두 545번지로 하였다.

39) 안성군 일죽면 산북리 : 묘룡산에 터를 잡고 마을이라 해서 ‘산대(山垓)’라 함.

40) 김기창(金起昌) : 안동김씨 안원군파로 족보명은 기식(棋植)이고 호는 율방(栗坊)이다. 본죽국민학교 입구에 그의 공로비가 서 있다.

15. 1964년 01월 11일 공립배영중학교(公立培英中學校) 설립인가

△1963년 11월 14일 : 공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1964년 03월 01일 : 공립배영중학교 개교(開校)

▽1965년 01월 30일 : 공립배영중학교 제1회 졸업

경기도교육위원회 제 1 호	
본도 ... 다음 과 같이 공립중학교 가 설치 되었기	
이 ... 고시 한다	
1	명 칭 . 배영중학교
2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성변 군당리 542번지
3	국 립 자 . 경기도 교육위원회
4	설립인가 연월일 . 1964. 1. 11
5	인가원자 . 교육부장관
1964. 1. 16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장 사 유 하 글 이 홍 배	
차 례	
주 권 :	경기도지사 공보관장 발인 교육감
제 주 :	공립중학교 설립인가
본도 이천시 관내 ... 배영중학교 를 설립 하였기	
배영과 같이 고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	고시 인 4 부
승인 서식 1-1-2 (11-00900-02) (195mm x 265mm 16줄짜리)	
112 0190	

그림17) 出典 -국가기록원 > 「배영중학교(공립) 설립인가」(1964.1.16)

「배영중학교(공립)설립인가」(1964.1.16)

발신 : 교육감

수신 : 설성중학교장

제목 : 배영중학교(공립)설립인가

설성중 1042.1 - 135(1963.11.14)호로 신청한 공립배영중학교 설립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별첨 지령서와 같이 인가되었으니, 양지 하시고 학칙에 따라 학교 운영의 적정을 기하시기 바람.

우첨. 인가지령서 1부 끝

○경기도교육위원회 고시제1호

본도에 다음과 같이 공립중학교가 설치 되었기 이에 고시한다.

1. 명 칭 : 배영중학교
2. 위 치 : 경기도이천군 울면 고당리 542번지
3. 설 립 자 : 경기도교육위원회
4. 설립인가년월일 : 1964년 1월 11일
5. 인 가 권 자 : 문교부장관

1964년 1월 1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사무취급 이 홍 배

○시행안

수신 : 경기도지사 공보실장

발신 : 교육감

제목 : 배영중학교(공립)설립인가

본도 이천군 관내에 배영중학교를 설립하였기 별첨과 같이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1964년 1월 11일 공립배영중학교로 재 설립인가 되었다. 이로써 이전의 학교 역사를 배제하는 빌미가 되었다. 곧 법적으로 폐교가 되었다가 다시 개교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1회 졸업생을 둘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인(日人)들이 다니던 학교임을 세탁을 위해 서류상 폐교를 했다가 재 개교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배영중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난으로 설립자가 사립-도립-공립으로 변경 되는 과정에서도, 오롯이 존재했던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애써 앞의 역사를 지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Ⅲ. 나가는 말

역사란 어떠한 일 또는 사실을 기록(史)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후한 때의 허신(許愼, 58경-147경)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사(史)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史記事者)”라고 하였다. 곧 어떠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歷) 바로 역사(歷史)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울면고등공민학교나 배영중학교가 도중에 구름처럼 사라졌을까? 이 학교들이 사라졌다면 할 얘기도 없지만 연속적으로 71년을 이어져 왔다. 곧 역사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주요 설립인가·개교·졸업식·폐교·개명 년월일이다.

울면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1950.5.11) ⇨ 재단법인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1956.2.8) ⇨ 사립배영중학교 제1회졸업식(1959.3.8) ⇨ 도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1959.3.21) ⇨ 도립배영중학교 2회졸업식(1960.3.3)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1960.12.21) ⇨ 도립배영중학교 폐교(1961.2.28)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설립인가(1961.4.1)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고당리에 신축 교사 완공(1961.12.8) ⇨ 공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1963.11.14) ⇨ 공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1964.1.11) ⇨ 공립배영중학교 개교(1964.3.1) ⇨ 공립배영중학교 분리 독립인가(1964.3.31) ⇨ 공립배영중학교 제1회 졸업식(1965.1.28) ⇨ 울면중학교로 개명(2001.3.1)

배영중학교는 이렇듯 연면(連綿)이 이어져왔다. 필자는 1979년 1월에 배영중학교를 18회로 졸업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1961년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인가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1961년 이전 졸업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죽국민학교 학사보고(本竹國民學校 學事報告)』(1955-2000)⁴¹⁾를 보면 신추3리 비누꾸미에 살았던 이귀영(李貴榮)이 배영중학교장상을 받고 있고, 신추2리 조제(釣堤)에 살았던 안중숙(安鍾淑)이 배영학원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분들이 바로 본죽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다. 동창생들로는 본죽리의 홍경식(洪敬植)·김대원(金大元)·김승회(金升會), 신추리의 양철소(楊澈昭)·안훈생(安勳生)·석길만(石吉萬)·이양우(李良雨)·조남철(趙南哲)·정인하(鄭寅夏), 북두리의 안영석(安永錫)·안광진(安光鎭)·성기원(成基源)·이광호(李光鎬), 산양리의 원덕희(元德喜)·원종성(元鍾成)·윤주철(尹柱哲)·이희

41) 出典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e-경기도교육역사관 > 사라진 교정 > 본죽초등학교

수(李熙洙) 등등의 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모두 사립배영중학교 1회 졸업생이 된다.

그런데 이 분들보다 6살 아래인 필자의 막내작은아버지(양철영, 1949) 졸업사진에는 “1965년 1월 28일 배영중학교 1회 졸업기념”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하여 서로 1회라고 우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배영동문(培英同門)으로서 이렇듯 잘못된 학교 연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드시 학교의 역사를 정립(正立) 해놓아야만 한다. 울면고등공민학교는 둘째 치고 번듯한 사립 배영중학교와 도립배영학교를 졸업하고도, 배영중학교 졸업생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기만 하다.

하여 이 분들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고찰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다. 언제까지 배영중학교 미아(迷兒)로 둘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초창기 학교 설립에 공이 많았던 아래 여덟 분들에 대하여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필구(朴弼九) ▷유정호(柳定鎬) ▷박순구(朴順九) ▷이희순(李熙淳)

▷박병철(朴炳哲) ▷김제완(金濟完) ▷김원형(金遠炯) ▷조병직(趙炳稷)

- 울면고등공민학교 및 배영중학교 설립 공로자

그 어렵던 시절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공로에 대하여 또렷하게 자리매김을 해주어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후학의 책무(責務)가 아닌가 싶다. 이 분들이 초석(礎石)을 놓은 배영(培英)의 정기(精氣)를 타고 얼마나 많은 인재(人才)들이 배출되었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은 울면고등공민학교(1950)를 모태로 출발한 사립배영중학교(1956)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졸업 연도를 잡으면 역사적으로 가장 올바른 학교 연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울면중학교동문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영중학교 설립에 공로가 많았던 분들에 대하여, 교내(校內)에 작은 비석이라도 세워서 후학의 도리를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배영중학교 역사 연구를 마치면서 마음이 허허롭기만 하다. 모교의 역사를 정립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느 연구보다도, 더욱 열성적으로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다. 그러나 막바지에 나도 모르게 허걱! 소리를 내고 말았다. 2021년 2월 28일 현재 졸업생이 울면초등학교 8명, 울면중학교 5명, 울면고등학교 17명이 졸업을 하고 있었다.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초·중·고를 모두 합해서 총 30명에 불과하다. 믿기지가 않는다.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

IV. 부록 - 배영중학교(培英中學校) 연혁(1950 - 1965)

- ▶1950년 05월 11일 : 박필구가 울면고등공민학교(栗面高等公民學校) 설립인가◀◀
- ▶1950년 05월 20일 : 울면 고당1리 공회당(公會堂)에서 입학식
- ▷1950년 07월 14일 : 6.25 전쟁으로 휴교
- ▷1951년 10월 01일 : 개교. 학교 소실(燒失)로 울면국민학교 1개 교실 임차 수업
- ▷1952년 07월 01일 : 울면 월포리 산 183번지 300평 기부 받아 2개 교실 기공(起工)
- ▶1953년 05월 19일 : 울면 월포리 도월(都月) 산 183번지 신교사(新校舍)로 이전◀◀
(조병직이 천막을 치고 운영).
- ▶1954년 03월 01일 : 유정호가 울면고등공민학교 인수◀◀
배영학원이사회 구성 /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명명(命名)
- ▷1954년 03월 1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培英學園) 설립허가 신청
- ▶1955년 02월 25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허가(3학급)
- ▷1955년 05월 30일 : 기부 재산을 재단법인 배영학원으로 이전등기 완료
- ▷1956년 01월 16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 ▶1956년 02월 08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사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 ▷1958년 12월 10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에서 독립으로 변경 결의
- ▷1959년 01월 10일 : 독립배영중학교설립기성회장이 독립으로 설립인가 신청
- ▷1959년 03월 07일 : 경기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독립으로 설립인가 신청
- ▶1959년 03월 08일 : 사립배영중학교(私立培英中學校) 제1회 졸업식◀◀
- ▶1959년 03월 21일 : 독립배영중학교(道立培英中學校) 설립인가◀◀
- ▷1960년 02월 2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해산허가 신청
- ▶1960년 03월 03일 : 독립배영중학교(道立培英中學校) 2회 졸업식◀◀
- ▷1960년 10월 15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이사회 해산 결의
- ▷1960년 12월 09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재신청
- ▶1960년 12월 21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해산허가
- ▶1961년 02월 28일 : 재단법인 배영학원 배영중학교 폐교◀◀
- ▶1961년 04월 01일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培英分校) 인가(6학급)◀◀
- ▷1961년 12월 08일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고당리에 목조(木造) 신축 교사(校舍) 완공

- ▶1962년 03월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고당리 542-1번지로 이전◀◀
- ▷1962년 12월 28일 : 설성중학교 배영분교 숙직실 신축(10평)
- ▷1963년 02월 08일 : 설성중학교 제6회 졸업 84명(설성 61명, 배영분교 23명)
- ▷1963년 11월 14일 : 공립배영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 ▶1964년 01월 11일 : 공립배영중학교(公立培英中學校) 설립인가◀◀
- ▷1964년 02월 01일 : 설성중학교 제7회 졸업 76명(설성 44명, 배영분교 32명)
- ▶1964년 03월 01일 : 공립배영중학교 개교(開校)
- ▶1964년 03월 31일 : 공립배영중학교 분리 독립(3학급)
- ▶1965년 01월 30일 : 공립배영중학교(公立培英中學校) 제1회 졸업◀◀
- ▷2001년 03월 01일 : 배영중학교를 울면중학교(栗面中學校)로 개명

여 백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계승 방안 연구

민 향 숙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박 희 은 (안양문화원 학예사)

目 次

I. 머리말 :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발굴

II.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

1. 안양만안답교놀이
2. 수리산 산신제
3. 안양검무

III.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방안

1. 안양시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
2.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동 기반 확대
3. 세대별, 대상자별 교육 체계화 및 지원
4. 정보(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IV. 맺음말

집필자

민 향 숙
박 희 은

(사)한국출역사위원회 이사장 / 안양검무보존회 대표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유 · 초등교육과정위원회 위원

I. 머리말 :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발굴

안양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동쪽으로 과천시, 의왕시와 접하고 서쪽으로 광명시와 시흥시, 남쪽으로 군포시, 북쪽으로 서울시 금천구 및 관악구와 접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 지역은 조선시대 과천과 금천에 속하였던 곳으로 조선시대 정조 대에 정조의 화산능 행차로로 이용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현령이 파견되는 지역으로 승격되고 읍호도 시흥으로 바뀌었다. 이후 과천현, 시흥군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시흥군으로 개편되었고 1973년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안양은 서울 근교의 전원 농업지역이었으나,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도시로 성장하며 섬유·면직·제지공업 등을 기반으로 공업적 기틀을 갖추게 되었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경인공업지대에 속하면서 기계·금속·화학공업 등을 기반으로 한 공업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에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와 공업기능을 갖춘 서울의 위성도시로 거주 기능이 확대하였고, 1990년대 평촌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다.

이상과 같이 안양은 공업 도시, 위성도시로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로 전통문화의 단절,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문화 변동 등에 의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들이 사라져 갔다.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¹⁾을 살펴보면 총 7건 중 6건이 유형문화재이고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안양일소리’의 경우도 2019년에서야 처음 지정이 되어 그동안 안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안양문화원은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과 계승을 하기 위하여 전통혼례 재현, 단오제, 정월대보름 등의 세시 행사를 개최하고 안양소리, 만안답교놀이 등의 전수 교육, 마을 제례 지원 등을 해왔으며, 2021년 올해에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 새롭게 발굴하여 안양만안답교놀이, 수리산 산신제, 안양검무 등 3종목을 향후 안양의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학술조사 용

1)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유단체	비고
제 1 호	자유공원 지석묘	동안구 평촌대로 76 (갈산동 1112 번지 자유공원 내)	유형
제 2 호	염불사 부도군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 번길 150 (석수동, 염불사 경내)	유형
제 3 호	안양사 부도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번길 103 (석수동, 안양사 경내)	유형
제 4 호	삼막사 삼귀자	만안구 삼막로 478 (석수동 산 10-1 번지, 삼막사 경내)	유형
제 5 호	삼막사 감로정 석조	만안구 삼막로 478 (석수동 241-54 번지, 삼막사 경내)	유형
제 6 호	관양동 청동기유적	동안구 관양동 1793-2	유형
제 7 호	안양 일소리	안양소리보존회 (대표자 : 김종희)	무형

역,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안양문화원이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한 안양만안답교놀이, 수리산 산신제, 안양검무 등 3개의 종목에 대한 학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종목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보존, 계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

1. 안양만안답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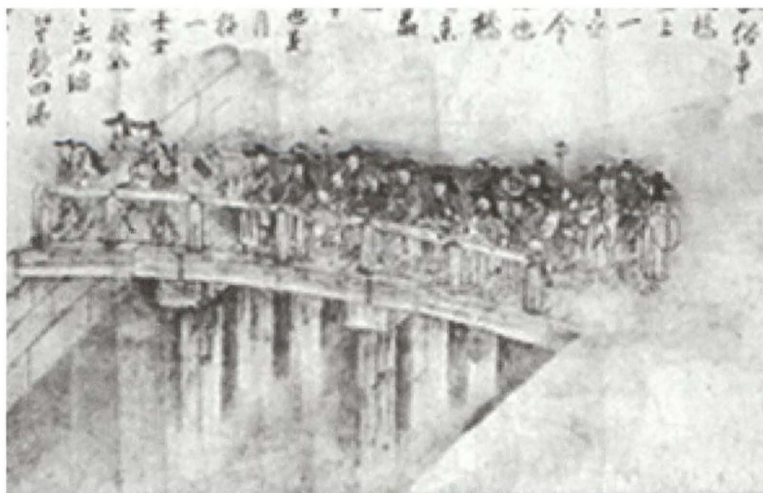
1) 답교놀이

답교(踏橋)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다리(橋)를 밟고(踏) 노는 세시풍습의 하나이다. 여기서 다리는 성질이 다를 수 있는 두 개의 지역 또는 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세워진 구조물이고, 밟는 행위는 놀이적 또는 신앙적 행위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적 정신을 함양하면서 한 해의 풍년 기원과 재난을 일소하고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소망은 물론 구조물인 다리(橋)와 사람의 다리(脚)가 발음이 같아 다리를 밟으면 다릿병이 생기지 않거나 낮게 하려는 민간 신앙심이 담겨 있다.²⁾ 다리밟기는 정월 세시풍속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많이 행해졌으며, 송파다리밟기(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호), 수표교다리밟기(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0호),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답교놀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 기록은 『명종실록(明宗實錄)』 26권 명종 15년(1560년) 5월 6일 신미 1번째 기사인데, 이에 따르면 ‘답교는 정월 중원일(中元日)에 여염(閭閻)에서 열두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1년 동안의 액막이를 한다고 하여 서울 안 남녀가 혼잡하게 보이는데 혹은 싸우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각저·도박(賭博)·답교 등의 일은 사헌부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지봉유설(芝峯類說)』(이수광, 1614년), 『경도잡지(京都雜誌)』(유득공),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김대순, 1819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홍석모, 1840년 전후) 등에서 답교놀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지봉유설』에서는 답교놀이가 고려 때부터 내려온 풍속으로 매우 성행하였다고 하고, 『동국세시기』에서는 ‘장안의 주민들이 모두 몰려나와 주로 대광통교,

2) 양종승, 「안양 만안답교놀이」, 『안양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안양문화원, 2021, 13쪽.

소광통교, 수표교에서 다리밟기가 성행했으며,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이 통소를 불고 북을 쳐대어 일대가 굉장히 소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은 미리 하루 전인 14일 저녁에 다리밟기를 하여 이를 양반답교라고 하였고 양일을 피해 16일에 부녀자들이 다리밟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농악을 치면서 흥을 돋우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군중들이 함께 즐기면서 다리밟기는 답교놀이로 발전하게 된다.³⁾



〈상원야회도〉에서 묘사된 다리밟기 모습
(출처 : 서울시설공단)

2)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에서의 답교놀이는 과거 행정구역이던 시흥군의 기록에서 답교놀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1914년에 조사, 발간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에서는 시흥지방에 다리밟기가 이루어졌으며 놀이법으로 '정월 보름날 오후 6시경부터 10시경까지 악대를 선두로 참가자들이 줄을 맞춰 서서 다리를 세 군데 이상 건넌 후에 돌아갔다'⁴⁾고 하였으며, 1950년에 발간된 『금천지(衿川誌)』(1950년)에서도 답교놀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 안양 지역이 있었던 시흥에서도 답교놀이가 정월의 세시풍속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7년도에 조사, 발간된 『만안답교놀이』⁵⁾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안양의 답교놀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는 1987년 안양문화원이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 재현하고 전승시키기 위해 당시 이병옥 대한유도대 교수를 통해 실제 답교놀이에 참여했거나 잘 아는 원로들을 대

3) "답교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3443>

4) 村山智順, 박전렬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96~97쪽

5) 이병옥,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문화원, 1987년.

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존하는 만안교를 중심으로 답교놀이를 복원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안양에서는 호계 지역과 만안교 지역에서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주로 부잣집을 대상으로 답교놀이를 집 마당에서 벌리고 술과 떡국 대접을 받아 노는 마을 축제였다고 한다. 다리밟기를 하면 풍년이 들고 농사일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는다는 풍속에 따라 호계 지역은 호계동 ‘열네 칸 다리’에 모여 다리를 왕복하는 다리밟기를 하였고, 만안교 지역은 인근 지역주민이 많지 않았지만,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16일 날에는 ‘귀신당날’이라 하여 하루 더 놀았으며 이날까지 놀아야만 나무가 죽지 않아 떨감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 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고 인심이 각박해지면서 만안교 지역 답교놀이는 1920년대 이후, 호계 지역 답교놀이는 1930년대에 사라졌다. 이에 따라 본 조사를 통해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만안교를 중심으로 호계답교놀이와 만안답교놀이가 어우러지도록 복원하여 1988년 첫 재현을 시작으로 1992년까지 안양문화원이 주최하는 만안문화제를 통해 재현되었으며, 1989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공로상을 받았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경축 · 제3회 만안문화제'에서의 첫 재현 모습〉
(출처 : 안양시청 역사 · 포토갤러리)

3) 만안답교놀이의 구성과 배역

1987년에 복원된 만안답교놀이는 호계 지역과 만안교 지역의 답교놀이가 배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며, 예전에도 호계교에는 인근 마을 답교놀이패가 모여들어 함께 놀았다고

하여 만안교⁶⁾를 중심으로 2개의 답교놀이(가)가 어우러지도록 놀이를 구성하였다. 놀이는 ‘길놀이-다리밟기놀이-무동춤놀이-선소리놀이-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되며, 호계답교놀이패와 만안답교놀이패가 길놀이에서 양편으로 갈라져 따로 행진하여 다리밟기와 무동놀이를 각기 펼치다가 선소리꾼들이부터 어우러지고 대동놀이에서 한마당을 이룬다. 악사는 ‘짚지패’가 주동이 되었으나 차츰 ‘두레패’, ‘뚝뚝패’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두레패’ 구성으로 팽과리 주도의 농악대 반주를 사용하고 반주 장단으로는 주로 길군악(굿거리장단), 타령장단, 자진모리장단을 활용하였다.

배역은 기수, 무동, 밀무동, 양반, 섯님, 왜장녀, 쫓추, 악사, 선소리꾼, 동네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복장은 다음과 같다.

무동	15세 내외의 동네 사내애들로 땡기머리가 있었다.
	▶ 소승 - 하얀 장삼, 붉은 가사, 흰고깔(꽃달림) ▶ 소무 - 노란 저고리, 붉은 치마, 남색 전복, 남바위 ▶ 별감 - 붉은 도포, 관대, 꿇털 달린 노란 초립, 합죽선 ▶ 팔복 - 옥색 도포, 병거지, 남색 전복
밀무동	동네 장정들로 고의적삼에 조끼를 입는다.
양반(섯님)	옥색 도포에 정자관을 쓴다.
왜장녀	연지곤지, 입술에 붉은 화장, 쪽머리에 수건을 쓴다.
	남자가 치마저고리를 입되 허리살이 드러나게 입는다.
쫓이(악사)	상호적, 제금, 장고, 북, 징, 팽과리를 들고 고깔을 쓴다.
선소리꾼	고의적삼에 조끼를 입고 고깔을 쓰며 소고를 든다.

깃발은 대기(호계 지역은 ‘農者天下之大本’, 만안교 지역은 ‘孝黨竭力忠則盡命’이라 적음), 만안기, 호계기, 영기를 사용하는데, 1988년 첫 재현 때 실존하는 만안교를 중심으로 연행되어 실제로는 만안기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만안교는 조선시대 제22대 왕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1735~1762)의 능(현릉원)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만든 다리로 원래는 임시로 나무다리를 가설했다가 철거하였으나, 다리를 놓았다 헐었다 하는 번거로움과 평상시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백성들의 고통이 많아 1795년 홍예석교로 축조하였다. 정조는 이 다리를 ‘만민의 평안을 위하여 세운 다리’라는 뜻으로 ‘만안교’라 명명하고 교비를 세웠다. 1973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래는 현재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460m 떨어진 안양교 사거리 교차지점에 있었으나, 1980년 국도 확장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 옮겨졌다.

4)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1987년에 고증, 복원된 만안답교놀이는 재현을 하기 위한 참여 인원의 동원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1992년 제7회 만안문화제를 끝으로 한동안 재현이 중단되었다가 '2013 안양대보름 축제'를 안양문화원이 주관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재연되며 명맥을 잇게 된다.⁷⁾ 이에 따라 안양문화원 산하 단체인 '안양농악단', '주부민속단', '풍류시대' 등 3개의 단체가 만안답교놀이의 원형을 보존하고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안양만안답교놀이'로 출전하기로 협의하면서 그해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전수조교를 선임했으며, 7월 24일 안양문화원에서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발대식 기념사진〉
(출처: 안양문화원)

발대식 이후 보존회는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안답교놀이의 전승을 위해 전수조교의 지도하에 연습을 거쳐 그해 9월에 개최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후 안양만안답교놀이 정기공연과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비롯한 안양문화원의 각종 행사 참여, 민속경연대회 출전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안양시 보조금 사업으로 안양문화원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보존과 계승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에 따른 학술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증에 따른 복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7) 박상득,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만안답교놀이-안양 향토자료조사 모음집-』, 안양문화원, 2013, 36쪽.



〈안양만안담교놀이 연행 모습(2021년 10월 16일)〉
(출처 : 안양문화원)

5) 안양만안담교의 문화적 가치

담교놀이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전국에 걸쳐 계승되어온 세시풍속이자 민속놀이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담교놀이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놀이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197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가 마련되었다. 이후 송파담교놀이, 수포교담교놀이, 과천무동담교놀이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⁸⁾

안양에서는 『조선의 향토오락』, 『금천지』 등의 문헌 자료 기록과 1987년 실제 담교놀이에 참여하거나 잘 알고 있는 원로들의 증언을 통해 담교놀이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되었다. 또한, 송파담교놀이, 과천무동담교놀이와는 달리 담교놀이가 실제로 연행된 다리가 존재하며, 그 다리는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만안교(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서 안양만안담교놀이는 안양지역의 유·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지역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양만안담교놀이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놀던 민속놀이로 현재까지도 전문 연희자가 아닌 안양만안담교놀이의 가치를 소중히 잇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만안담교놀이보존회를 비롯하여 전수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존, 계승하고 있으며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비롯한 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대동놀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8) 양종승, 앞의 보고서, 34쪽.



〈2013년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모습〉
(출처 : 안양문화원)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안양현감 정조맞이 식전 놀이' 모습〉
(출처 : 안양문화원)

2. 수리산 산신제

1) 무교와 산신제

한국 고대사회에서 어느 시기에 무교가 정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략』, 『삼국지』, 『후한서』 등의 동이전에 나오는 제천의식에 대한 기술이나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명왕편』 등의 건국 신화에서 무교의 의례 및 건국시조들인 무왕(巫王)의 신성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자료와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 고대사회에서 무교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⁹⁾ 무교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 고유의 신앙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 기록된 제천의례나 단군, 주몽, 혁거세 등의 시조신화와 관련된 신앙적 구조로 보아 천신강림의 산신신앙을 통해 한국 무교의 대표적 신이 산신이며, 자신의 승화를 밤낮으로 음주가무하여 황홀한 탈아입신의 경지에 들어서 인간이 신과 교류하여 화복을 조절하고 삶의 제반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주술적 종교임¹⁰⁾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종교가 유입되었지만, 신라는 오악(五岳)¹¹⁾을 명하여 오악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고구려, 백제도 제천의식을 행하며 무교 양상을 띠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무당이 기우제와 왕실 축복을 빌기 위해 명산대천(名山大川)이나 신당(神堂)에서 벌이던 별기은제(別祈恩祭)를 주관하였는데, 별기은제는 고려 고종 때 별례기은도감이 설치되어 국행 산신제로 행해졌으며, 신의 종류, 의례 방법, 제차가 무교 행태를 띠고 있다. 송유억불이었던 조선시대에도 무교 행위를 음사로 규정하여 금하였지만, 조선 초기에

9) 차남희, 「한국고대사회의 정치변동과 무교」, 『한국정치학회보』 39, 한국정치학회, 2005, 304~305쪽.

10) 양종승, 앞의 보고서, 107쪽.

11) 동쪽 토함산, 남쪽 지리산, 서쪽 계룡산, 북쪽 태백산, 중앙은 부악 또는 팔공산을 말한다.

는 국무당(國巫堂)이 산천에서 국행(國行)이나 내행기은(內行祈恩)을 행하였거나 성수청이나 환인서에 무당을 배치하여 의생과 함께 민중의 구병을 담당하게 하는 등 무교가 이어졌고, 민중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 산천제와 같은 공동체 의례뿐만 아니라 안택 등 가정 신앙으로 의례가 계속되었다.

산신제는 산신에게 올리는 제의이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대사회에서부터 이어온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역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하강하였고,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는 단군신화로부터 시작되며, 오늘날까지도 지역민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민간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국토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형적 여건과 산악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신앙으로까지 계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산의 주인인 산신은 산신할아버지, 산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신령님, 신령님, 산왕, 산왕산신, 산군, 산령, 산귀신 등으로 명칭 앞에 산명을 붙여 부르며, 산신제는 산제, 산치성, 산제사 등으로도 불린다. 전통적으로 제의 비용은 마을 공동이 소유한 전답에서 나온 수익과 마을 주민들이 추렴한 금액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제의는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초 또는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지낸다.

2) 수리산 산신제

수리산(修理山)은 태을봉(해발 489.2m)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슬기봉(해발 469.3m), 북쪽으로 관모봉(해발 426.2m), 북서쪽으로 수암봉(해발 395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어느 왕손이 수리사(修理寺)에서 기도하던 중 부처님을 친견했다고 하여 불견산(佛見山) 또는 건불산(見佛山)이라고 불리었는데, 1940년대 수리사의 명칭을 따 수리산으로 바뀌었다.¹²⁾ 수리사(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347-181)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사찰로 수리산 남서쪽 중턱에 위치하며, 6.25 전쟁 때 전소되어 1955년에 재건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며 전통사찰 제86호에 지정되어 있다.

수리산은 안양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등의 지역 경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산을 대상으로 시흥, 군포에서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특히 군포에서는 금정마을 도당제, 느티울 괴곡제, 용호마을 산신제, 덕고개 군웅제 등 다양한 산신제를 거행하고 있는데, 이중 수리산 산신제가 군포를 대표하는 제의행사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한다.¹³⁾ 군포시가 지원하고 군

12) 조경철,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경기문화재단, 2019, 34쪽.

13) 남길우, 〈수리산 산신제를 보며〉, 《기호일보》, 2008년 8월 18일.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15>)

포문화원이 주최하는 수리산 산신제는 <수리산 산신제 보존위원회>가 제물을 준비하여 수리산 태을봉에 마련된 산신제단에서 제의를 주관한다. 매년 정월과 7월, 2회로 제일 3~4일 전에 초하루 또는 초이틀 중 택일하여 올리고 있다. 원래 당집이 없었지만 45여 년 전에 눈, 비를 피하기 위해 기와지붕의 단칸 당집을 지었으며, '수리산 산신제당' 현판을 달아놓았다. 『군포시사』에 의하면 고려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며, 태을봉 산신제단과 당집 좌측에 있는 나무와 바위를 당할아버지 신체로 모셔 큰당이라 부르고, 태을봉 옆 갓모봉에 있는 작은 당을 할머니당이라고 하여 차례로 모셨다고 한다.¹⁴⁾

3) 안양에서의 수리산 산신제와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1967년에 전국 부락 제당을 조사한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을 보면 당시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 수촌마을에서 기와 건평 1칸 내외의 당집을 부락 북쪽 산정에 남향으로 지어두고 마을의 평온을 위해 음력 10월 2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산신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밤나무 서낭을 비롯하여 천지신명단과 같은 제단이 있고, 예전에는 수리산 안양방면으로 여러 개의 굿당이 있었지만, 무허가여서 모두 철거되었다고 한다.



〈수리산 밤나무 서낭 및 제단〉
(출처 :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현재 안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큰 제를 보며 자란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한상윤 대표와 지역 무속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년 '수리산 산신제'를 거행하고 있다. 본 제의는 우리의 토속신앙의 보존, 발전, 계승을 도모하고 수리산 산신님을 대상으로 제를 올려 국민안과

14)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군포시사』, 군포시, 1999, 883-886쪽.

시민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목적도 덧붙여졌다. 수리산 산신제는 2013년 초기에는 ‘수리산 巫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2012년에 처음 무속인들과 연계하여 제의를 준비할 때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과 시의 허가 불가로 어려움이 따라 ‘수리산 무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게 되었다.¹⁵⁾ 행사의 주관처도 초기에는 ‘한국무속인협동조합 안양본부’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는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본 연합회는 2018년 3월 경기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전통민족, 민속문화예술제 연구 및 계승, 전통 향토마을제 발굴 및 복원, 공연 기획, 민족전통종교와 민간토속신앙 경전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 수리산 산신제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기 위해 병목안 시민공원¹⁶⁾ 내 인공폭포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의는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지내는데, 먼저 유교 의례를 주관하는 제관들이 ‘강신제-참신제-독축-분향-종헌례-음복-소지울림’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무녀와 악사들이 무교의례로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래한 굿 열두거리가 행해진다. 수리산 산신제의 경우 일제강점기 철도용 자갈을 채취하여 안양역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길가름, 박달동 범고개에서 희생된 영혼을 달래기 위한 군웅거리 등의 의례를 행하고 있다.



〈굿참차림〉



〈유교식 제례〉

15) 전통문화기재단, 『2020 안양문화원 전통문화기재단 활동 기사집-명인들의 삶과 이야기 공유 프로젝트 사람이 좋다』, 안양문화원, 2020, 32~36쪽.

16) 병목안 시민공원은 1930년대부터 1980년도까지 경부선 및 수인선 철도에 부설할 자갈을 채취하던 채석장으로 안양시에서 2006년에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병목안이라는 명칭은 병목이 좁고 안은 넓게 퍼진 호리병을 닮은 지형에서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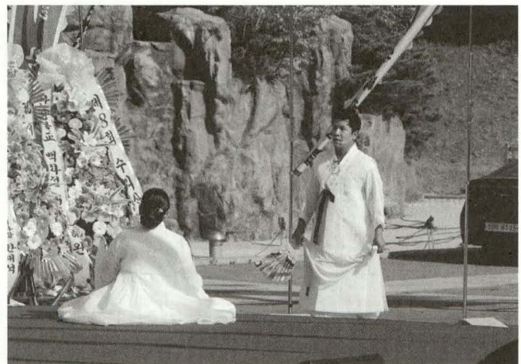
〈대신거리에서 길가름하고 있는 장면〉



〈큰거리에서 신장을 놓고 있는 장면〉



〈비수거리에서 열두계단 12작두를 타고 있는 장면〉



〈뒷전거리〉

〈제8회 수리산 산신제 제의 모습(2021년 4월 25일)〉
(출처 : 양종승 및 안양문화원)

4) 안양 수리산 산신제의 문화적 가치

무교는 우리나라에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생성, 발전되어 한민족의 삶 속에 뿌리내린 후 현재까지도 계승 발전되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를 기반으로 지형학적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산신제가 국가의 주관으로 행해지며 국태민안을 빌었으며, 개인과 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민간신앙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수리산은 안양의 3대 산이며 명산으로서 지역 무속인들에 의해 밤나무 서낭을 비롯하여 당집과 제단에 제를 지내왔으나, 무속신앙에 대한 오해와 도시개발로 당집이 철거되는 등 명맥이 끊어

지게 된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마을의 큰 제를 보고 자란 現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한상운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무속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의 맥을 잇고 국태민안과 안양시민의 안녕을 위해 뜻을 모아 수리산 산신제(舊 수리산 巫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초기 종식과 같이 현안과 결부 지으며 형식적이고 특정한 집단의 제의가 아닌 시민과 현재의 삶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 의례로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인 병목안 시민공원과 박달동 범고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길가름, 군웅거리 등이 진행되어 지역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수리산 무 예술제로 지내오던 수리산 산신제는 2021년부터 제 이름을 찾아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으로서 전해 내려온 정신문화를 이어 도시에서의 민속 의례를 통해 안양시민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안양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지역 공동 의레이자 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3. 안양검무

1) 검무와 평양검무

검무(劍舞)는 칼을 가지고 추는 춤으로 검기무(劍器舞), 공막무(公莫舞), 첨수무(尖袖務) 등이 라고도 불린다. 검무는 상고시대 수렵 무용, 의례 무용, 전쟁 무용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며, 『동경잡기(東京雜記)』 「풍속조(風俗條)」, 『삼국사기(三國史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황창랑무조(黃昌郎舞條)」 등에서 '신라인 황창랑이 나이 7세에 백제로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인 후 죽임을 당했는데, 신라 사람들이 그를 가엾게 여겨 그의 형상을 본떠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통해 신라시대에 황창랑 설화에 기인하여 가면을 쓰고 춤을 춘 황창검무가 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창검무는 조선시대 초까지 처용무와 함께 연희되다가 숙종 이후 가면을 벗고 여기(女妓)가 추는 여기검무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후 여기검무는 정조 때 궁중정재로 정착되면서 연행 규모가 커지고 의상도 화려해졌으며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며 예술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궁중연향에 참가하기 위해 궁중으로 선상(選上)된 각 지방 교방의 기녀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담은 검무가 발전되었고, 현재까지도 경남 진주검무, 경남 통영검무, 황해도 해주검무, 평안도 평양검무, 경기검무 등이 전해지고 있다.

상기의 검무 중 가장 명성이 높은 지역의 검무는 평양의 것으로 평양은 고조선, 고구려 때부터 왕도로서 터전을 닦고 고려, 조선시대에 관서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감영도 있어 자연스럽게 연중 의례를 비롯하여 대소의 향연이 끊이질 않았다.¹⁷⁾ 평양의 검무는 교방에 소속된 명기들에 의해 전승되었으나, 1905년에 체결한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교방이 해체되고 교방의 기생들이 조직한 기생조합마저 일본식 명칭인 권번(券番)으로 바뀌게 된다. 평양 기성권번은 일제강점기 지방의 여러 권번 중에서 가장 유명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적인 기생 기예 교육의 전통이 있었고 기성권번에 부속된 3년 학제의 기생학교에서 검무와 승무가 유명하였다.¹⁸⁾ 평양 기성권번에서 크게 활약한 여러 기생 중 검무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사람은 김학선으로 권번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황해도 해주 권번까지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¹⁹⁾ 현재 평양검무는 이북에서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²⁰⁾ 김학선으로부터 검무를 사사 받은 故 이봉애 선생에 의해 경기도 안양에서 평양검무가 복원되어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며 평양검무가 전승되고 있다.

2) 안양에서의 검무의 정착과 전승

故 이봉애(李鳳愛, 여, 1923-2019)는 평안남도 평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를 졸업하였으며, 학창 시절에 김학선으로부터 검무와 서도소리를 배웠다. 한국전쟁 전후에 월남하여 그 이후 안양에 정착하게 된다. 전업주부로 살던 이봉애는 1985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새마을금고 2층에 세를 내고 예술가로서 본인이 계승 받은 춤과 소리를 전승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도소리를 가르쳤으며 2년 후인 1987년에는 <평양검무전수소> 간판을 걸고 자신에게 소리 공부를 하였던 제자들을 대상으로 평양검무를 가르쳤다. 그 결실로 1992년 안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회 평양검무 정기 공연 발표회'를 개최하여 대중들에게 첫선을 보였고, 전국민속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공로상, 동상 등을 수상하며 안양에서 자신이 평양에서 배운 검무를 복원하고 주변을 넓혀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에는 평양검무가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이 되었고 안양시민 이봉애가 제1대 예능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며 안양에서 평양검무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17) 양중승, 앞의 보고서, 47~48쪽

18) 신현규, 「기성(箕城)권번(1929년) 소속의 기생 현재표 서지 연구」, 『근대서지』 23, 근대서지학회, 2021, 219~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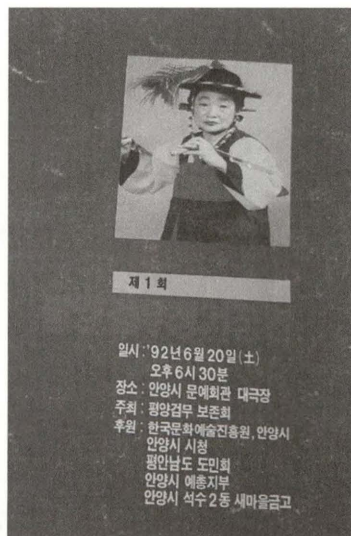
19) 양중승, 앞의 보고서, 48쪽.

20) “평양검무”,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8004100010000)

이봉애는 자신이 복원한 평양검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당시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던 민향숙을 찾아가 만나고 2003년 명지대학교에서 평양검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민향숙은 이봉애로부터 직접 평양검무를 사사 받아 문하생 7명과 함께 제1기 이수자가 되었고, 이수증을 받을 당시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 터전인 안양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 평양에서 배운 검무가 안양에서 토착화되었으니 이를 잘 계승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 이봉애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3월 보유자 퇴임서를 자진 제출함으로써 명예 보유자가 되었고 그의 첫 제자 정순임이 제2대 예능 보유자가 되어 민향숙과 함께 평양검무를 계승하는 한편 안양의 향토문화를 결합시켜 발전된 안양검무의 기본 틀을 구상하였고 2017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안양검무 공연을 하게 된다.

안양검무는 평양검무를 복원한 이봉애류 검무에 뿌리를 두어 재구성된 전통춤이다. 안양검무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검무의 전통을 이어받아 안양의 토착문화와 결합하여 재구성되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단에서 안양 지역의 농악에서 유래된 가락인 짹짹이, 덧배기 가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양을 상징하는 새인 독수리의 기상을 표현하기 위해 안양검무를 시작할 때 나각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안양의 상징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복식에서는 치마가 남색인 평양검무와는 달리 이봉애의 뜻에 따라 홍색으로 하여 차별성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춤사위에서는 경기지방의 특색이 섞여 빠르고 경쾌하며 평양검무와는 달리 반복 춤사위, 앉은 춤사위가 없고 2인무를 기본으로 홀춤, 4인무, 8인무 등 다양한 대형으로 춤사위에 화려함을 더했다.



〈제1회 평양검무 정기공연 리플릿 표지〉
(자료 출처: 평양검무전수관)



〈안양검무 홀춤 및 8인무〉



〈안양검무 2인무〉
(출처 : 안양검무보존회)

3) 안양검무의 문화적 가치

검무는 칼을 가지고 추는 춤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이다. 검무는 조선시대 교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며 각 지방의 지역적 특색을 띠며 계승, 발전되어 왔고, 이 중 경남 진주검무, 경기검무 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안양은 교방이 있던 곳은 아니지만, 평양에서 태어나 기성권번 출신 김학선으로부터 검무를 배운 故 이봉애가 안양에 정착하여 1970년대부터 안양 주부들을 대상으로 검무를 가르치며 복원한 검무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그녀의 제자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평양검무 정기공연 개최,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저변을 넓힌 결과 2001년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된다. 즉, 평양검무는 이봉애류 검무로 평양 출신인 안양시민 이봉애가 안양에서 복원하고 무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의 전통춤이다.

안양검무는 이봉애류 검무를 기반으로 안양 지역의 토착문화와 결합하여 재구성된 전통춤이다. 안양에서 이봉애류 검무를 일궈온 이봉애의 유지가 있었고, 그 유지에 따라 전통을 기반으로 안양의 문화발전을 위해 안양의 정서가 담긴 토착문화와 결합하여 현재적 삶과 정서에 부합하도록 춤을 재구성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공동체에 의해 계승 발전된 지역문화의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Ⅲ. 안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방안

이상으로 살펴본 안양만안답고놀이, 수리산 산신제, 안양검무를 안양의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가지 종목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졌지만,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안양문화원을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안양시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일정한 형태가 없고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승이 되며, 향유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 실체와 문화적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형문화재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안양시는 1985년 「안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정된 사례가 없었고, 2017년 10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비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신설, 지정 대상 세분화 및 구체화 등의 전면 개정을 한 후 2018년 7월에 자유공원 지석묘 등 5건을 처음 지정하였다. 본 조례에서는 향토문화재를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 중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둘째,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셋째,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²¹⁾ 그리고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²²⁾고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향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기존 유·무형문화재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원형 유지’ 원칙을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전형(典型) 유지’로 전환함으로써 원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승과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던 많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21)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22)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높았으며, 지정 기준에서도 기존에 주요 가치로 제시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향토색에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으로 제시하여 향토성 대신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을 추가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조된 것,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면서 변화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지향하고 있다.²³⁾ 그러므로 현재 향토문화재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를 물리적 시간적 개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에 의해 전승, 향유되고 있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토문화재로의 지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계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동 기반 확대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 현재 안양문화원에서는 안양소리(안양일소리),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검무, 수리산 산신제에 대한 전수교육을 계획, 시행하고 있으나, 원사가 협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안양만안답교놀이의 경우 한 번 연행 시 4~50명의 인원이 필요함에 따라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16곳이며, 안양에는 한 군데도 없다.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 육성하고 향후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수를 위한 전문 공간을 만듦으로써 안정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안양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 북매우기의 기능보유자인 임선빈 선생 또한 안양시민으로 안양에서 전승을 이어나가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경기도 시흥시에 작업장을 얻어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²⁴⁾ 그러므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안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양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안양문화원이 현재까지 수행한 전수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전시, 상설 공연 등을 펼쳐 활동 기반도 확대해야 한다.

23) 최영화·민경선,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35쪽~43쪽.

24) 전통문화기자단, 앞의 책, 22~23쪽. 2020년 9월 29일 인터뷰에 함께 참여함.



〈안양문화원 내 안양소리, 안양만안답교놀이 전수 교육 모습〉
(출처 : 안양문화원)

3. 세대별, 대상자별 교육 체계화 및 지원

무형문화유산은 지역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는 문화로서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대별, 대상자별로 교육을 세분화하고 대상에 맞게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향토사(지역사) 교육에 있어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이지만 그와 관련된 소품,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미래 세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전승보다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문화적 기능과 의미를 계승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전수교육관을 활용한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안양문화원처럼 원사 내에 향토사박물관을 운영하고 과천안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향토사(지역사) 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전문 연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수자인 경우가 있어 생업을 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단절되거나 소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안양문화원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재조명하여 향후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 계승하기 위해 향토문화재로의 지정 추진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통혼례 재

현, 단오제 행사 개최, 전수 교육, 관내 마을 제례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기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어야 하는 문화로서 시민 누구나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유자 및 전수자 또는 보유단체 및 전수단체의 전유물이 되어 향유하고 계승하여야 할 시민들이 배제되고 지나치게 예술화, 공연화되어 본래 지닌 문화적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 계승하고 토착화되어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안양문화원에서는 원내 자료를 시작으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계획 중이며,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시민이 쉽고 원활하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V. 맺음말

향토문화는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다.²⁵⁾ 그러나 안양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업도시, 위성도시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며 공동체 해체에 따른 전통문화의 단절,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문화 변동 등 지역의 고유성을 상실하였고 순수한 토착적 문화를 가려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전통문화를 어떤 형태로 다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안양문화원은 안양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1970년에 설립된 곳으로 지역 문화의 계발·보존·선양,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활용 등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안양문화원은 1970년대부터 단오제 세시행사 개최, 전통혼례 재현, 안양만안답교놀이 발굴 및 복원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현재에도 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과거의 것 중 현재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것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는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²⁶⁾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안양문화원은 시간적 가치보다는 가치적 의미에

25) 권영옥·김백희,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구성체계의 집합 방안」,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13쪽.

26)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2011, 61쪽.

중심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절될 위기에 있는 과거의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지역성이 담긴 현재의 무형문화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계승,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군포시사』, 군포시, 1999.
- 민향숙, 『평양검무 무보집』, 네오출판사, 2016
- , 『평양검무 전수 교본』, 네오출판사, 2019.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안양시, 2008.
- 안양문화원, 『안양만안답교놀이-안양 향토자료조사 모음집-』, 2013,
- 양종승, 『안양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안양문화원, 2021.
- 윤광봉, 『한국연희예술사』, 민속원, 2016.
- 이병옥,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문화원, 1987년.
- 인하대학교, 『(가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2011.
- 전통문화기자단, 『2020 안양문화원 전통문화기자단 활동 기사집-명인들의 삶과 이야기 공유 프로젝트 사람 이 좋다』, 안양문화원, 2020.
- 村山智順, 박전렬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2. 학술논문

- 권영옥·김백희,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구성체계의 접합 방안」,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 민향숙, 「관기제도(官妓制度) 해체 이후 기성권번(箕城券番)의 등장 과정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권 4호, 대한무용학회, 2018.
- 신현규, 「기성(箕城)권번(1929년) 소속의 기생 현재표 서지 연구」, 『근대서지』 23, 근대서지학회, 2021.
- 조경철,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경기문화재단, 2019.
- 차남희, 「한국고대사회의 정치변동과 무교」, 『한국정치학회보』 39, 한국정치학회, 2005.
- 최영화·민경선,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3.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안양시청 <https://www.anyang.go.kr>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남길우, 〈수리산 산신제를 보며〉, 《기호일보》, 2008년 8월 18일.

京畿郷土史學(第26輯)

경기향토사학(제26집)

경기향토사학(제26집)

발행인 : 김대진

편집인 : 최영주

기획 : 장세영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21년 12월 31일

발행 : 2021년 12월 31일

인쇄처 : 홍익문화사(02-2274-8110)

I S S N : 2765-2718

이 책은 2021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 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태조 이성계와 의정부 지명이야기_최영희
내시제도의 변화와 내시마을의 형성_정창래
경기도 약사신앙의 초기도상_팽재연
세종대왕과 양부일구_조성문
독립운동과 의병활동의 메카 연천(왕산허위선생의임진강유격대)_이준용
양평초 설립 연혁을 통해 본 구한말과 일제 초기 학제 변천 연구_이윤재
동두천 5일장 3.1운동과 미군 골프장_이명수
울면고등공민학교와 사립배영학원_양경직
인양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계승 방안 연구_민항숙, 박희은

